

국립국어원 2009-01-44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32-14

# 2009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김봉국

■ 연구 보조원 : 김세환·천인영

■ 조사 지역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연구책임자 : 김 봉 국

연구보조원 : 김 세 환

## <국문초록>

### 2009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09년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의한 것으로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들의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담화는 강원 인제 지역 토박이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전사한 것으로, ‘마을 들여다 보기, 논농사, 밭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세시 풍속’ 등을 담고 있으며, 어휘, 음운, 문법은 『지역어 조사 질문지』의 항목에 따라 그 항목을 녹취하여 전사한 것이다.

주요어 : 인제,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2009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2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7
제 2 편 어휘 .....	155
제 3 편 음운 .....	205
제 4 편 문법 .....	242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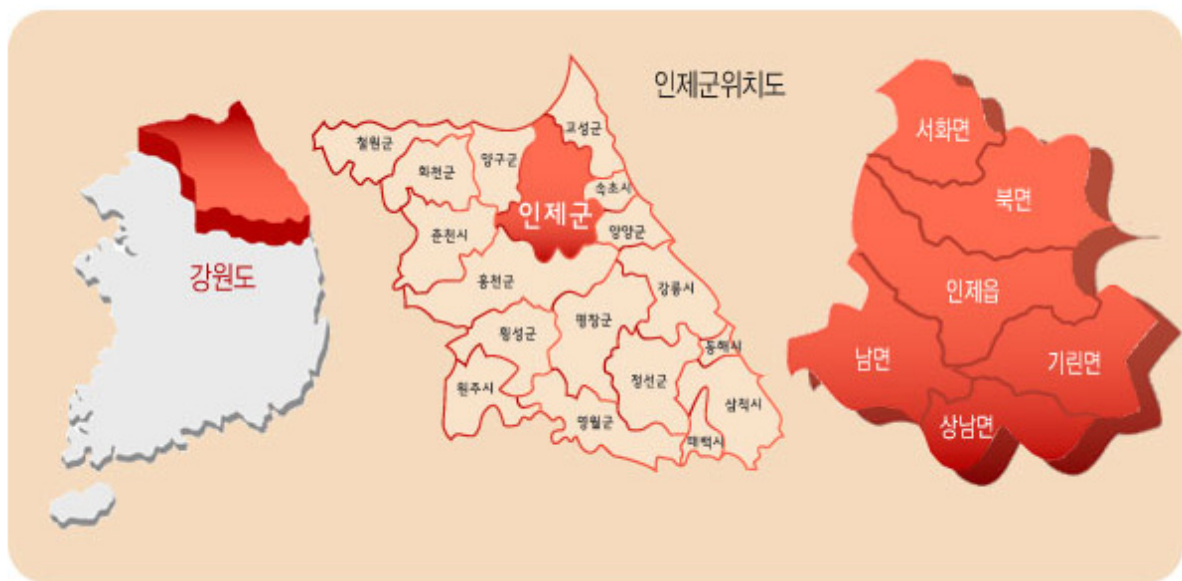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동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한 영서북부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끝은 기린면 진동2리 동단으로 양양군과 접하고, 서쪽끝은 남면 수산리 서단으로 춘천시와 접해 있다. 남쪽끝은 상남면 상남3리 남단으로 홍천군과 접하고, 북쪽끝은 서화면 서화2리 북단으로 DMZ와 접해 있다.

면적은 1646.33km<sup>2</sup>로 전국의 1.7%, 강원도의 9.9%이며, 인구는 3만여명이다.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산간고냉지대로 전면적의 90%이상 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 있고, 경작면적의 37.2% 정도이다. 그리고 동해안을 연결하는 44번 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법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 1.2 조사 기간

2009년 7월 20일 ~ 7월 22일

2009년 8월 16일 ~ 7월 23일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 오
- 성별 : 남
- 나이 : 82세, 호적에는 1924년생)
- 출생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인제군
- 직업 : 농업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44개월 육군 근무(인제에서 근무)
- 제보자 소개 과정 : 인제군 남면 노인회장을 통해서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약간 허스키함.

### (2) 보조 제보자

- 이름 : 전
  - 성별 : 여
  - 나이 : 77세
  - 출생지 : 강원도 인제군
  - 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분명함.
- 
- 이름 : 최
  - 성별 : 남
  - 나이 : 85세



- 출생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직업 : 농업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육군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 인제군 남면                      노인회장을 통해서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분명함.

- 이름 : 이
- 성별 : 남
- 나이 : 86세(1924년생)
- 출생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인제군 남면
- 직업 : 상업
- 경력 : 상업
- 학력 :
- 병역 : 육군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 인제군 남면                      노인회장을 통해서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분명함.

## 1.4 조사자

(1) 이름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교수)/김세환(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20일 ~ 8월 23일

(3) 조사 장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1리 2반 제보자의 집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마을회관)

(4) 조사 내용

- 1차 조사 : 2009년 7월 20일-22일(오 , 최 )
- 2차 조사 : 2009년 8월 16일-23일(오 등)

- 구술발화 SGW\_IJ\_01(최 )  
SGW\_IJ\_02, 03, 16, 17(오 )  
SGW\_IJ\_04(윤 )  
SGW\_IJ\_05(이 )
- 어 회 SGW\_IJ\_06 ~ 15, 18, 23(오 )
- 음 운 SGW\_IJ\_19 ~ 26(오 )
- 문 법 SGW\_IJ\_27 ~ 29(오 )

SGW_IJ_01	구술	1시간 19분	SGW_IJ_16	구술	1시간 01분
SGW_IJ_02	구술	2시간 26분	SGW_IJ_17	구술	19분
SGW_IJ_03	구술	1시간 53분	SGW_IJ_18	어회	33분
SGW_IJ_04	구술	57분	SGW_IJ_19	음운	1시간 23분
SGW_IJ_05	구술	26분	SGW_IJ_20	음운	34분
SGW_IJ_06	어회	1시간 01분	SGW_IJ_21	음운	1시간 26분
SGW_IJ_07	어회	2시간 04분	SGW_IJ_22	음운	1시간 05분
SGW_IJ_08	어회	1시간 03분	SGW_IJ_23	어회	43분
SGW_IJ_09	어회	1시간 15분	SGW_IJ_24	음운	1시간 04분
SGW_IJ_10	어회	25분	SGW_IJ_25	음운	54분
SGW_IJ_11	어회	1시간 00분	SGW_IJ_26	음운	23분
SGW_IJ_12	어회	49분	SGW_IJ_27	문법	1시간 07분
SGW_IJ_13	어회	21분	SGW_IJ_28	문법	1시간 13분
SGW_IJ_14	어회	1시간 17분	SGW_IJ_29	문법	37분
SGW_IJ_15	어회	55분			

구술 : 08시간 21분  
어회 : 11시간 26분  
음운 : 06시간 49분  
문법 : 02시간 57분

=====

총 29시간 33분

=====

## 1.5 전사

### (1) 1차 전사(2009년 10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2) 1차 점검(2009년 11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3) 2차 점검(2009년 11-12월)

구술발화 : 김봉국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 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나 제보자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항목 중 주제보자인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아무 표시는 하지 않았고, 보조제보자인 할머니인 경우에는 (+할머니)로, 보조제보자인 경우에는 (+성명)으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e)'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2 @ 거기는 금 기리 어는 기림? {거기는 그럼 길이 어느 길입니까?}

10102 # 이리 드러가서 저 정자리라는 데. {이리 들어가서 저 정자리라는 데.}

10102 @ 아 거 부면장님 아번니른 정자, 여기는 어딴니까? {아 거 부면장님 아버님은 정자, 여기는 어딴니까?}

10102 # 여긴 시, 옴:나렌 여근 시푸미라는 데구 재정 때는, 지금 신남니지만. {여긴, 옴:날엔 여기는 시품이라는 데고 왜정 때는, 지금 신남리지만.}

10102 @ 아 저, 저기는 월래 신평이고 여기가 신, 아이, 신나미고 여기가 신평이어서요? {아 저, 저기는 월래 신평이고 여기가 신, 아니, 신남이고 여기가 신평이었어요?}

10102 # 여계가 다: 신남 이리가 다: 신평 이씨씨요, 옴:나렌. {여계가 다: 신남, 이리가 다: 신평 있었어요, 옴:날엔.}

10102 @ 여기나 저기나 다: 신평이어서요? {여간 저기나 다: 신평이었어요?}

10102 # 예 예, 여 신평 이씨꼬 요 미테는 구평 이씨꾸. {예 예, 여기 신평 있었고 요 밑에는 구평 있었고.}

10102 @ 요 미테가 부평? {요 밑에가 부평?}

10102 # 예 요기 쪼끔 내려가면 부평 이씨꼬. {예 요기 조금 내려가면 부평 있었고.}

10102 @ 아 부평 초등학교라는 데, 아, 거기가 부. {아 부평 초등학교라는 데, 아, 거기가 부.}

10102 # 그 초등학교가 여기 이 인는데 월래 그 초등학교가 부평 이씨 가주 이르물 몰 까라 가주 여기 신남 와 이씨두, 그 부평초등학교예요, 이르물 같지를 모 대서. {그 초등학교가 여기 이 있는데 월래 그 초등학교가 부평 있어 가지고 이름을 못 알아 가지고 여기 신남 와 있어도, 그 부평 초등학교예요, 이름을 같지를 못 해서.}

10102 # 거 이 학교 한번 잉가나른 이르물 몰 까:능기더구만요. {그 이 학교 한번 인가 나면 이름을 못 가:는 거더구만요.}

10102 @ 이르른 그대로 가야 돼요? {이름은 그대로 가야 돼요?}

10102 # 예 그대로 그거 때때 부평, 그애, 그 학교가 요기 나가면 그 옥썬수 밭 만데 그때 \*\* 거기 이씨씨, 여기 이씨 쪼게 아:동 수가 처노뱅 명이 너를 쪼 여기 이: 개 바니 너머씨요. {예 그대로 그거 때문에 부평, 그래, 그 학교가 요기 나가면 그 옥썬수 밭 많은데 그때 \*\* 거기 있었어, 여기 있을 적에 아:동 수가 천오백 명이 넘을 적에 여기 이: 개 반이 넘었어요.}

10102 @ 어 여긴 옴:나레 켜네요 그저네는. {어 여긴 옴:날에 켜네요 그전에는.}

10102 # 예. {예.}

10102 # 애:드리 처노뱅 명이 너머씨, 여 먼: 소:재지 처 노코 강원도서 최:고 크다고 헨 데가 여기예요. {애:들이 천오백 명이 넘었어, 여기 먼:소재지 처 놓고 강원도서 최:고 크다고 했던 데가 여기예요.}

10102 # 아이 먼: 소:재지 처 노코 처노뱅 명 되는 데가 어딘냐구. {아니 먼: 소재지 처 놓고 천오백 명 되는 데가 어딘냐고.}

10102 @ 초등학교가 여기따가 어디로? {초등학교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10102 # 예 그래가주 이 수물찌구 되는 바라메 그르케. {예 그래 가지고 이 수물지구 되는 바람에 그렇게.}

10102 @ 수물 왜 수물찌구가 돼요? {수물 왜 수물지구가 돼요?}

10102 # 서:양강 때:미 여기 무리 차요. {소:양강 때문에 여기 물이 차요.}

10102 # 여길루, 때뻥 차써썌요. {여기로, 몇 번 찻었어요.}

10102 @ 이 마으레도 찬나요? {이 마을에도 찻나요?}

10102 # 예, 이 마으레두 요 미테 짐 차 이르게 도라가는 지레 거꺼정 차써요. {예, 이 마을에도 요 밑에 지금 차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거기까지 찻어요.}

10102 # 개, 여기를 우리집떨두 다: 보:상 조:따가 도로 우리가 상 거예요, 짐, 짐만치면 안 사구 땅만치만 다: 사써요. {그래, 여기를 우리집들두 다: 보:상 쫘:다가 도로 우리가 산 거예요, 짐, 짐만큼은 안 사고 땅만큼은 다: 샀어요.}

10102 @ 아 여기가 월래 수물지구, 월래 사라미 마니 사란는데 소양강 댐:. {아 여기가 원래 수물지구,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소양강 댐:}

10102 # 그래 인제 학교두 인지 켜개 가구 다: 켜개 가썌요, 보상 박꾸 다. {그래 이제 학교도 이제 쫘겨 가고 다: 쫘겨 갔지요, 보상 받고 다.}

10102 @ 여기가 그면 무리, 소양강에서 내려 오는 무렁가요? {여기가 그럼 물이, 소양강에서 내려 오는 물인가요?}

10102 # 예 소양강 댐: 무리 여기 차올라 와요. {예 소양강 댐: 물이 여기 차올라 와요.}

10102 # 지금두 현:재 저:기 내려다 보든 무리 보이자나요. {지금도 현:재 저:기 내려다 보면 물이 보이잖아요.}

10102 @ 어디서 보며는? {어디서 보면?}

10102 # 요기 나가서 저 차에더 봐:두 저 미테 허영 게 다 무리예요. {요기 나가서 저 차에서 봐:도 저 밑에 허연 게 다 물이에요.}

10102 @ 아 그래요, 예예. {그래요, 예예.}

10102 @ 월랜 저쪼기 더 노푼 쪼기조? {원래는 저쪽이 더 높은 쪽이쥬?}

10102 # 어디가요? {어디가요?}

10102 @ 저쪼기 노푼 쪼게서 이쪼그로 무리 내려가능 거예요? {저쪽이 높은 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내려 가는 거예요?}

10102 # 예 내려 가지요, 이짜기 노푼니까. {예 내려 가지요, 이쪽이 높으니까.}

10102 # 그애, 개울쪼그론 만:수가 차면 신나메 그 개울빠닥꺼정 올라가게 돼: 이써요. {그래, 개울쪼그론 만:수가 차면 신남에 그 개울바닥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102 # 근데 그걸 함버닝가 두:버닝가 그래구선 모: 채워요. {그런데 그걸 한번인가 두:번인가 그러고선 못: 채워요.}

10102 # 그때는 하:두 여기 비가 마:니 와가주 그때 \*\* \*\* \*\*\*\*, 이 때:미 터지는 지 아라때요. {그때는 매우 여기 배가 많:이 와 가지고 그때 \*\* \*\* \*\*\*\*, 이 댐:이 터지는 줄 알았대요.}

10102 @ 소양강 때:미요? {소양강 댐:이요?}

10102 # 예 때:미 터지는 주 알:구 그 여러 노쿠 갑짜기 황 여러 놔:가지구 미테 보상 조예썌, 여기 또 그 우정 재:뚝 꼭때기꺼정 올라가이까 거기 보:상 조예지 그때 아주 수자위네서 망해따능 거 아니예요. {예 댐:이 터지는 줄 알:고 그 열어 놓고 갑자기 확 열어 놔 가지고 밑에 보상 쫘:지, 여기 또 그 우정재뚝 꼭대기까지 올라 가니까 거기 보:상 쫘:지 그때 아주 수자원에서 망했다는 거 아니예요.}

10102 @ 음, 우정 재따능 게 머예요? {음, 우정재뚝은 뭐예요?}

10102 # 예? {예?}

10102 @ 우정? {우정?}

10102 # 우정, 그게 미리 빼:써야 했는데 미리 그르케 비가 마이 올 쭈를 생각걸 묻 해쨌요. {우정, 그게 미리 뺏:어야 했는데 미리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생각을 못 했지요.}

10102 # 그이가, 갑작스리 비가 그를 때 여기 침 댔 미리가 와쨌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그럴 때 여기 처음 몇 미리가 왔어요.}

10102 # 그르케 와가주 기낭 무리 뿌리가주 금방 그게 차올라 오니까 무르 빼구선 이 사람드리 쪼개 가따능 거요, 때:미 터질라 그래서. {그러헛 와 가지고 그냥 물이 붙어 가지고 금방 그게 차올라 오니까 물을 빼고선 이 사람들이 쫓겨 갔다는 거요, 댔:이 터지려고 그래서.}

10102 @ 아, 그머 여기 월래 수몰지구 저네는 사라미 그르케 마니 사라편, 여기가 더 컨네요 저 쪽뻔다? {아, 그럼 여기 원래 수몰지구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여기가 더 컸네요 저 쪽보다?}

10102 # 예 그뻔, 그때는 거기 사름 얼마 안 돼:쨌요 여기가 마내쨌. {예 그뻔, 그때는 거기 사람 얼마 안 뻔어요, 여기가 많았지.}

10102 @ 지금 면:사무소는 사람 별로 업쨌따구요. {지금 면:사무소는 사람 별로 없었다고요.}

10102 # 예 여길 더 마나쨌요. {예 여길 더 많았어요.}

10102 @ 언제즈뻔 그러뻔는 수모리 뻔 경가요? {언제즈뻔 그러면 수몰이 뻔 건가요?}

10102 # 오래 돼쨌요 별쨌. {오래 뻔어요 별쨌.}

10102 # 이게 이 면:사무소가 재정 때는 여게 관대리라는 데 군단짜레 거기 이쨌꾸, 고다멘 이 삼팔선 생긴 뒤루는 이:북 이:나미 갈리지니까 저 어른리라는 데 이쨌쨌요, 어른. {이게 이 면:사무소가 왜정 때는 여기 관대리라는 데 군단 자리에 거기 있었고, 그담엔 이 삼팔선 생긴 뒤로는 이북 이남이 갈리지니까 저 어른리라는 데 있었어요, 어른.}

10102 @ 어른, 어른. {어른, 어른.}

10102 # 예. {예.}

10102 # 곰꼬개라고 고개 이짜나요 요기 너먼테 거 고개 창 내려 와서 짐 부대인는 데 거기 이쨌쨌요, 그래가 그때는. {곰고개라고 고개 있잖아요, 요기 너먼테 거기 고개 한창 내려 와서 지금 부대인는 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102 @ 머가 이쨌쨌요? {뻔가 있었어요?}

10102 # 면:사무소가. {면:사무소가.}

10102 @ 아, 여기 남면 면:사무소가, 오른쪼게 그 다리 이뻔 데. {아, 여기 남면 면:사무소가, 오른 쪽에 그 다리 있던 데.}

10102 # 예예, 그 면:사무소 거기 이쨌민선 그때는 인제구니 다: 이부그루 드려 가쨌니까 여기가. {예예, 그 면:사무소 거기 있으뻔서 그때는 인제군이 다: 이북으로 들어 갔으니까 여기가.}

10102 @ 언제 이:부그로 드려 가쨌요? {언제 이:북으로 들어 갔어요?}

10102 # 이부그루요? {이북으로요?}

10102 @ 예. {예.}

10102 # 삼팔선 생길 쨌게, 삼팔선 생길 쨌게 삼팔서니 \*\*\* 요기 이쨌요 내려가, 얼마 안 내려가 이쨌요. {삼팔선 생길 적에, 삼팔선 생길 적에 삼팔선이 \*\*\* 요기 있어요, 내려가, 얼마 안 내려가 있어요.}

10102 # 그래가주 면:사무소두 다: 어른네 와 이꾸 그래가주 여기는 인제구니 읍쨌지구 홍청군 신남면니 돼:쨌쨌 여기가. {그래 가지고 면:사무소도 다: 어른에 와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인제군이 없어지고 홍청군 신남면이 뻔었어 여기가.}

101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102 # 여 홍청구느루부터 와쨌요, 여기 기린면하과 두: 개가 이제 홍청구느루부터 와쨌요, 그래가주.

{여기 홍천군으로부터 왔지요, 여기 기린면하고 두: 개가 이제 홍천군으로부터 왔지요, 그래 가지고.}

10102 @ 아 기린면하고 여기 남면하고. {아 기린면하고 여기 남면하고.}

10102 # 예 두: 머니 홍청구느루 부터따가 이 전:장 하믄서 수물 찌에 여기 빼:꾸 더 드러 가짜나  
요, 마니. {예 두: 면이 홍천군으로 붙었다가 이 전:쟁 하면서 숨을 적에 여기 뺏:고 더 들어 갔잖  
아요, 많이.}

10102 # 그애 인제구늘 다: 차징 거지요. {그래 인제군을 다: 찾은 거지요.}

10102 @ 아 처:메 삼팔선 생기면서 여기는. {아 참:에 삼팔선 생기면서 여기는.}

10102 # 홍청구느루 부터써썬요. {홍천군으로 붙었었어요.}

10102 @ 근데 그, 생기면서 여기는 다 부카느루 가따, 너머 가따면서요? {그런데 그, 생기면서 여  
기는 다 북한으로 갔다, 넘어 갔다면서요?}

10102 # 아 여긴 부카니 아니조, 여긴 남한 땅이지요. {아 여긴 북한이 아니조, 여긴 남한 땅이지  
요.}

10102 @ 아 남한 땅인데. {아 남한 땅인데.}

10102 @ 아 그머 삼팔선 생기면서. {아 그럼 삼팔선 생기면서.}

10102 # 인제 그 머 이렇 거 읍:써징 거는 유기오 때 \*\*\*\*\* 그때서 머 서루가 업:서징 거지 이써썬  
요. {이제 그 뭐 이런 거 없:어진 거는 육이오 때 \*\*\*\*\* 그때서 뭐 서로가 없:어진 것이지, 있었지  
요.}

10102 @ 그 여기가 수북찌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여기가 수북지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10102 # 아이 수북찌구 아니예요, 여긴, 여긴 나미지요, 수보기. {아니 수북지구 아니예요, 여긴,  
여긴 남이지요, 수북이.}

10102 # 삼팔선 너미, 삼팔 이:부기덩 게 인제 그게 다시 드러와서 우리들 꺼 돼쓸 때 수북찌구지  
여긴 수북찌구 아니여, 홍청구느루 부터써썬요. {삼팔선 너머, 삼팔 이:북이던 게 이제 그게 다시  
들어와서 우리들 것 됐을 때 수북지구지 여긴 수북지구 아니요, 홍천군으로 붙었었어요.}

10102 @ 아 그머 저: 위쪼기 수북찌구연네요, 그 저기 가니까 인제읍 쪼게 가니까 거기는 수북찌  
구여따고 얘길. {아 그럼 저: 위쪽이 수북지구였네요, 그 저기 가니까 인제읍 쪽에 가니까 거기는  
수북지구였다고 얘길.}

10102 # 예 수북찌구예요 그쪼근. {예 수북지구예요 그쪽은.}

10102 @ 아 그머 거기는 수북 거기는 월래 삼팔서닌데 북쪽 땅이어꼬. {아 그럼 거기는 수북 거  
기는 원래 삼팔선인데 북쪽 땅이었고.}

10102 # 예 북쪽 따~이~구. {예 북쪽 땅이고.}

10102 # 이짜게는 남쪽 땅. {이쪽에는 남쪽 땅.}

10102 @ 이쪼게는 남쪽 땅이었는데 남쪽 땅으로 홍쳐느루 드러간네요. {이쪽에는 남쪽 땅이었는데 남쪽 땅으로 홍천으로 들어갔네요.}

10102 # 예예 홍청구느루 부터써썬요. {예예 홍천군으로 붙었었지요.}

10102 # 그이가 일개 구:느, 이: 개며니니까 일 개 군: 헐 썬가 업짜나, 인제구:늘, 그러니까 홍청  
구느루 부터써썬요 {그러니까 일 개 군:은, 이: 개면이니까 일 개 군: 할 수가 없잖아, 인제군:을,  
그러니까 홍천군으로 붙었었지요.}

10102 @ 아 그때는 인제 삼팔서니 생기면서는. {아 그때는 이제 삼팔선이 생기면서는.}

10102 # 예예. {예예.}

10102 @ 남면 기림머는 홍쳐느루 부터 이따가 이제. {남면 기린면은 홍천으로 붙어 있다가 이제.}

10102 # 예 인제 전:장이 나가주 인제 싸:물 해가주 이써까 여기서 빼:꾸 드러가썬게 인제 인제구  
늘 차징 거지요. {예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뺏:고 들어  
갔으니까 이제 인제군을 찾은 거지요.}

10102 # 양구군두 요기 쪼:꿈 한 동네가 나머썌썌요, 인제 양구군두 다: 차서 드러가구. {양구군도 요기 조그마한 동네인가 남았었어요, 이제 양구군도 다: 찾아서 들어가고.}

10102 # 양구구는 일 개 면:두 안 나머썌썌요, 쪼:꿈 나머썌썌요. {양구군은 일 개 면:도 안 남았었어요, 조:금 남았었어요.}

10102 @ 그제 다: 삼팔선 생기면서 다 북쪼그로 너머 가썌네요. {그제 다: 삼팔선 생기면서 다 북쪽으로 넘어 갔었네요.}

10102 # 그럼뇨. {그럼요.}

10102 @ 아 그러다가 이제 고거를, 언제썌 행정구역기 개편 돼:쪼? {아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언제썌 행정구역기 개편 됐:쪼?}

10102 # 예? {예?}

10102 @ 그러머는 수북뽕쓰머는 그 사람드른 어뜨게, 그머 그쪼근 부칸 점령지에서 사라뎀, 사라썌네요? {그러면 수북뽕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쪽은 북한 점령지에서 살았던, 살았썌네요?}

10102 # 고기서 살든 사람 도루 거기 마이 수북뽕:서 사라썌요. {거기서 살던 사람 도로 거기 많이 수북뽕:서 살았지요.}

10102 # 그때 또 너머오기두 이짜그 마이 너머 와썌요, 부카니 살:기 힘드르니까 자꾸 이쪼그루 남하느루 너머 와따가 살:다가 수북뽕니까 또 드러가썌요. {그때 또 넘어오기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 왔어요, 북한이 살:기 힘드니까 자꾸 이쪽으로 남한으로 넘어 왔다가 살:다가 수북뽕니까 또 들어갔지요.}

10102 @ 근데 이게 삼팔선 생겨서 그쪼근 북쪼기고 이쪼근 나만 땅이머는 근데 경계가 이썌니까? {그런데 이게 삼팔선 생겨서 그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한 땅이면 그런데 경계가 있습니까?}

10102 # 예 경계가 이썌요. {예 경계가 있지요.}

10102 @ 누가 경계를? {누가 경계를?}

10102 # 경계가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때 경비대 자는, 그거 경비대 썌기 아니요, 옴:나렌 구니니 읍꾸 경비대라 그래요. {경계가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때 경비대 자는, 그거 경비대 시절이 아니요, 옴:날엔 군인이 없고 경비대라 그래요.}

10102 # 경비대 저네는 누가 지켄냐 하든 삼팔선 이나든 승경덜, 승경더리 이르게 호를 파구 사네 고걸 올라 가 지키구 저짜썌 인민군대가 지키구 그래 승경덜두 여럿 썌거썌요, 가들한테 마이. {경비대 전에는 누가 지켰냐 하면 삼팔선 이남은 순경들, 순경들이 이렇게호를 파고 산에 거길 올라 가 지키고 저쪽엔 인민군대가 지키고 그래 순경들도 여럿 죽었어요, 개들한테 많이.}

10102 @ 근데 이, 오고 가능 게 자유로완나요, 자유롭썌가 안차나요. {그런데 이,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웠나요, 자유롭썌가 않썌아요.}

10102 # 못: 까지요. {못: 가지요.}

10102 @ 근데 어떠케 너머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오고 그래요?}

10102 # 아 고건 인제 저 운:제 너머완냐 하든 유기오 터저가지구, 터저썌 썌게 이리 내:치구 머 이럴 썌겐 그때는 여기 이게 와따가따 해꺼등 이. {아 그건 이제 저 언:제 넘어왔냐 하면 육이오 터저 가지고, 터졌을 적에 이리 내:치고 뭐 이럴 적엔 그때는 여기 이게 왔다갔다 했거든 이.}

10102 # 인민군대가 저:꺼정 나가썌 썌게는. {인민군대가 저기까지 나갔을 적에는.}

10102 # 그래 가쪼근 고때 이리 너머온 사람두 이꾸 또 고 뒤루 드러와 가쪼구 이썌 군대로 디리 처썌요, 디리 처썌 썌게 저:썌 이북썌정 드러 가썌나요, 이북썌정 드러가따가 다시 후퇴해 나올 썌겐 이북 썌치가 나쁘니깐 그 사람드리 그때 이리 다: 너머 와썌요. {그때 가지고 그때 이리 넘어온 사람도 있고 또 그뒤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 군대로 들입다 썌었어요, 들입다 썌을 적에 저:썌 이북까지 들어 갔썌아요, 이북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후퇴해 나올 적엔 이북 썌치가 나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이리 다: 넘어 왔지요.}

10102 # 지금 이산가족들 다: 그 드러가따가 아:군들 나올 찌게 따라 나와서 이산가족이 그러케 만:차나요. {지금 이산가족들 다: 그 들어갔다가 아:군들 나올 적에 따라 나와서 이산가족이 그렇게 많:잖아요.}

10102 # 여기 이 사람드른 가까우니까 요리 너머와따가 수복되니까 다 드러 가짜요. {여기 이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요리 넘어와다가 수복되니까 다 들어 갔지요.}

10102 @ 아 인제 가튼, 그러다가 이제 홍천구네 이따가 이게 인제 두 개 며니 다시 인제구느로 드러? {아 인제 같은, 그러다가 이제 홍천군에 있다가 이게 이제 두 개 면이 다시 인제군으로 들어?}

10102 # 예 도로 드러 차징 거지요. {예 도로 들어 찾은 거지요.}

10102 @ 음 그머 요쪽, 강이 이짜나요, 요쪽 강, 이 강은 이르미 머예요? {음 그럼 요쪽, 강이 있잖아요, 요쪽 강, 이 강은 이름이 뭐예요?}

10102 # 어능 거요? {어느 것요?}

10102 @ 요, 요게. {요, 요기.}

10102 # 요기 \*\*\* 내려 오능 거요? {요기 \*\*\* 내려 오는 거요?}

10102 @ 예. {예.}

10102 # 여긴 강이라구 양 그래요, 기낭 개우리라 그러지. {여긴 강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개울이라 그러지.}

10102 @ 그 옛날부터 부르던 이르른 이씀니까? {그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은 있습니까?}

10102 # 기낭 개우리라 그래지. {그냥 개울이라 그러지.}

10102 # 여기 내려 가야 인제 관드리 강이라구 여그서 거기에 인제 삼팔선 너미예요, 그게 부강강이지요. {여기 내려 가야 이제 관들이 강일고 여기서 거기에 이제 삼팔선 너미예요, 그게 북한강이지요.}

10102 @ 아 고게 부강강이고 그머 이건 부강강 지류네요. {아 그게 북한강이고 그럼 이건 북한강 지류네요.}

10102 # 예 부강강 아주 상뉴서 내려오능 거지요. {예 북한강 아주 상류서 내려 오는 거지요.}

10102 # 이건 강이 아니구 그냥 개우리라 그러지요. {이건 강이 아니고 그냥 개울이라 그러지요.}

10102 @ 아 그머 이게 쭉: 내려 가면 인제 부강강이 되능 거조? {아 그럼 이게 쭉: 내려 가면 이제 북한강이 되는 거조?}

10102 # 예. {예.}

10102 @ 이게 여기는 부강강 상:뉴고요? {이게 여기는 북한강 상:류고요?}

10102 # 예 상뉴예요, 부강강 상뉴. {예 상류예요, 북한강 상류.}

10201 @ 그러머는 거 여기 유gio 때는 어트케 지내셔쎄요, 여기서 어르시는? {그러면 그 여기 육io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서 어르신은?}

10201 # 유gio 때 머 난, 그날 아치메 뿌뜰렌는데요 머, 나가질 모태쎄요. {육io 때 뭐 난, 그날 아침에 붙들렸는데요, 뭐, 나가질 못 했어요.}

10201 @ 누구한테 부뜰런? {누구한테 붙들렸어요?}

10201 # 임밍군한테 부뜰레:쎄요. {인민군한테 붙들렸지요.}

10201 @ 유gio 때 바로 부뜰려따고요? {육io 때 바로 붙들렸다고요?}

10201 # 그럼뇨. {그럼요.}

10201 @ 바로 이게 쳐드러 와서 점녕 바로 당항 거예요? {바로 이게 쳐들어 와서 점령 바로 당한 거예요?}

10201 # 예 아치메 한 일곱 씨 경에 쳐드러 와쎄요. {예 아침에 한 일곱 시 경에 쳐들어 왔어요.}

10201 @ 그르케 빨리 내려 오나요? {그렇게 빨리 내려 오나요?}

10201 # 아 요기 삼팔서니 일루 요기라니까요. {아 요기 삼팔선이 이리로 요기라니까요.}

10201 @ 음, 그래 어떠케 돼쎄요? {음, 그래 어떻게 됐어요?}

10201 # 아이 머, 부틀레:서 끌:구 갈라 그러드라구, 에이, 날 그때 머 정부위니라구 근데 구닌두 거 뿌틀레껴드요, 여 이 사라몬 머하는 사라밍가, 여 멩가니니라 그러니까 놔: 주드라구, 지비 가서 나와 도려 멩기지 말라구. {아니 뭐, 붙들려서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에이, 날 그때 뭐 정보 원이라고근데 군인도 거기 붙들렸거든요, 여기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여기 민간인이라 그러니까 놔: 주더라고, 집에 가서 나와 돌아 다니지 말라고.}

10201 # 그 지비 드루와 가마이 이쎄쎄요 머. {그 집에 들어와 가만히 있었지요, 뭐.}

10201 @ 아 임밍구니요? {아 인민군이요?}

10201 # 야. {예.}

10201 @ 아 그래도 놔: 존네요. {아 그래도 놔: 쫓네요.}

10201 # 예, 놔: 주구, 그다메 또 사느루 또 끌:구 가드라구, 지베 인는데 또 와서 그~이~까 이쪽 꾸닌드리 사네 꼭때기 이쎄나요, 그걸 가리켜서 안:내해 가자요. {예, 놔 주고, 그답에 또 산으로 또 끌:고 가더라고, 집에 있는데 또 와서 그러니까 이쪽 군인들이 산에 꼭대기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안:내해 가자고 해요.}

10201 # 그러니 양 가지 모타자나요, 거 총 든 누미 가자~이~, 가마이 생각하니까 가다가 생가니까 암마 해두 올라가다 아군 총에 마자 죽쎄쎄요, 임밍군 가치 올라 가니까. {그러니 안 가지 못 하잖아요, 그거 총 든 놈이 가자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가 아군 총에 맞아 죽쎄어요, 인민군 같이 올라가니까.}

10201 # 개, 올라가주 제::일 까파르구 아주 이러 테루 끌:구 올라가쎄, 일루 해 가야 조:타구. {그래, 올라 가지고 제::일 가파르고 아주 이런 데로 끌:고 올라갔지, 이리로 해 가야 좋:다고.}

10201 # 원 기리 조용 개가 인능 걸 이리 간다구, 아 올라가다 보더니 아, 이눔드리 아이 힘드니까 가자구, 이 여기서 다: 자봉 거라구. {원래 길이 좋은 것이 있는 걸 이리 간다고, 아 올라가다 보더니 아, 이눔들이 아니 힘드니까 가지고, 이 여기서 다: 잡은 거라고.}

10201 # 그래 내려가자 그러드라구, 내려 와선 지부루 보내 주드라구. {그래 내려가자 그러더라고, 내려와서는 집으로 보내 주더라고.}

10201 # 그애, 아군드른 바:메, 나제 고냥 업뜨레따가 바:메 저 산똥으루 해서 빠져 나가때요, 그 뒤루 드르니께. {그래, 아군들은 밤:에, 낮에 그냥 업드렸다가 밤:에 저 산등으로 해서 빠져 나갔대요, 그 뒤로 들으니까.}

10201 @ 아군들도 미쳐 못 피헨네요. {아군들도 미쳐 못 피헨네요.}

10201 # 몸 피해쎄요. {못 피했어요.}

10201 # 아군드리 여긴뎡 거 다 부틀레쎄는데요 머, 여기 사네, 여기 이쁜 사름드른 다 부틀레쎄요. {아군들이 여기 있던 거 다 붙들렸었는데요 뭐, 여기 산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붙들렸어요.}

10201 @ 그머 어터게 돼요, 부틀리면,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붙들리면, 다?}

10201 # 포로루 너머 가쎄요 머. {포로로 넘어 갔지요 뭐.}

10201 @ 어유 그 참 그 어려운 시저리 이쎄네요. {어유 그 참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네요.}

10201 # 그래가주 머 내가 마이 고상 마니 해쎄요, 도라 멩기두 마이 도라 멩기구. {그래 가지고 뭐 내가 많이 고생 많이 했어요, 돌아 다니기도 많이 돌아 다니고.}

10201 # 임밍군한테 부틀레서 머, 탄:짐 지구 가자구 \*\* 나갈 썩게, 거기두 부틀레 가 보구 이:부그루 드러갈 썩게두 또 부틀레서 또 드러 가다 도망하구 그랜는데요 내가. {인민군한테 붙들려서 뭐, 탄:짐 지고 가자고 \*\* 나갈 적에, 거기두 붙들려 가 보고 이:북으로 들어 갈 적에도 또 붙들려

서 또 들어 가다 도망치고 그랬는데요 내가.}

10201 @ 아 그애, 우리나라가 쫓: 밀고 저::기 원사닝가 그까지 평양 지나서까지 올라가짜나요, 그때는? {아 그래, 우리나라가 쫓: 밀고 저::기 원산인가 그까지 평양 지나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10201 # 그때는 난 여기서 그때는 뒤에 임핑군드리 만차나요, 개네는 그 굽번 음는 총, 이, 저 밍가니니 가:들 총 빼서가주구 그걸루 가치 싸우능 결싸대라구 그걸루 이썬썬여, 저는. {그때는 난 여기서 그때는 뒤에 인민군들이 많잖아요, 개네는 그 군번 없는 총, 이, 저 민간인이 개:들 총 뺏어 가지고 그걸로 같이 싸우는 결사대라고 그걸로 있었어요, 저는.}

10201 @ 그때 아니, 부칸구니 이썬 때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그때 아니, 북한군이 있을 때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10201 # 그때두 조용이 묻 썬내지요, 가드리 부뜨러 가주구 우리 가튼 그때 구닌 나이니까 으:용구니라구 으:용구느루 뽀페가서 그 사네 가 수머서 이썬썬요, 수머서, 그잉까 아군드리 총 내 버리구, 가:들두 머, 총, 마저 주구니깐 내버렁 거 만:차나요, 사네, 그렁 걸 주서다가 실탕 이르게 가서 사네서 올라오른 쏜:다구, 바우 미테 가서 전부다 이러케 수머 사라썬. {그때도 조용히 못 지내지요, 개들이 붙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그때 군인 나이니까 의:용군이라고 의:용군으로 뽀혀 가서 그 산에 가 숨어서 있었지요, 숨어서, 그러니까 아군들이 총 내 버리고, 개:들도 뭐, 총, 맞아 죽으니까 내버린 거 많:잖아요, 산에, 그렁 걸 주워다가 실탕 이렇게 가서 산에서 올라오면 쏜:다고, 바위 밑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살았지.}

10201 # 아이 머, 그때 여기 이 삼팔썬 미테 사람들 고상 마이 해썬요. {아니 뭐, 그때 여기 이 삼팔썬 밑에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10201 # 가들 기관총 머 박꺽포꺼정 가주 이썬는데 우리 \*\*드리. {개들 기관총 뭐 박꺽포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들이.}

10201 # 그래 가주구 우리가 일불러 결싸대루 드러가서 가들하구 싸우구 그래썬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결사대로 들어 가서 개들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10201 # 우리가 일 개 중대가, 가드리 이썬 구인드리 기낭 흑:: 끼 내려 가니깐 요기. {우리가 일 개 중대가, 개들이 이썬 군인들이 그냥 흑:: 끄집어 내려 가니까 요기.}

10201 @ 북썬해서 드러가썬 때요? {북썬해서 들어갔을 때요?}

10201 # 응, 지내구, 다 암 부뜰구 기낭 드러가서 이 서화라는 데 가썬, 인제구네. {응, 지내고, 다 안 붙들고 그냥 들어가서 이 서화라는 데 갔어, 인제군에.}

10201 @ 서화? {서화?}

10201 # 예, 서화라는, 데 거기에 임핑군 일 개 사다니 이썬썬요, 사단하과 우리 일 개 중대 하과가 부트니 거 배기게썬, 암만 패점벙이라두. {예, 서화라는, 데 거기에 인민군 일 개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하고 우리 일 개 중대 하과가 붙으니 그 배기겠어, 아무리 패전병이라도.}

10201 @ 그러게요, 거 어트게 돼썬요? {그러게요, 그 어떻게 됐어요?}

10201 # 결국 가:드리 그래다, 그다메 이썬 아군드리 후:퇴해 나오니까 가:드리 또 사라낭 거지, 우리두 그때 마이 주거썬요. {결국 개:들이 그래다, 그다메 이썬 아군들이 후:퇴해 나오니까 개:들이 또 살아 난 거지, 우리도 그때 많이 죽었어요.}

10201 @ 아, 올라갈 때 인제 \*\*\* 딱딱. {아 올라갈 때 이제 \*\*\* 딱딱.}

10201 # 예 패전병이 이르게. {예 패전병이 이렇게.}

10201 @ 가치 이따가. {같이 있다가.}

10201 # 예. {예.}

10201 # 가들하고 싸우다가 마이 주거썬요, 나랑 가치 나간 사람두 요그서 나간 사라른 나 하나 사라썬요, 어트케, 다: 죽꾸. {개들하고 싸우다가 많이 죽었어요, 나랑 같이 나간 사람도 요기서 나



간 사람은 나 하나 살았어요, 어떻게, 다: 죽고.}

10201 @ 아. {아.}

10201 # 여럿, 개, 요기 오더 보든 여, 북평초등학교 오다보든 여 머 삼팔씨니라구 허구, 저, 거기 공원 하나 이짜나요, 거기 그때 주근 사람드리 거기 다: 이깁 이씨요, 거기, 위령비라구 해 세우구. {여럿, 그레, 요기 오다 보면 여기, 북평초등학교 오다보면 여기 뭐 삼팔선이라고 하고, 저,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긴 있어요, 거기, 위령비라고 해 세우고.}

10201 # 나랑 가치 나가면 사라미 거기 한 대여서 딴는데 요그서 나간 사라미, 예, 나만 어트케 사란는데 그애, 난 그레가주 인제 그 그렁 거뚜 허구 해따구 국가유공자루 좀 이제 머지, 도:늘 쪼끔씩 머 한 다리 팔마 너닝가 얼마 주구. {나랑 같이 나갔던 사람이 거기 한 대여섯 있는데 요기서 나간 사라미, 예, 나만 어떻게 살았는데 그레, 난 그레 가지고 이제 그 그런 것도 하고 했다고 국가유공자로 좀 이제 뭐지, 돈:을 쪼끔씩 뭐 한 달에 팔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10201 @ 국가유공잔데 고르케빠게 안 주네요. {국가유공자인데 그렇게 밖에 안 주네요.}

10201 @ 그거 머 생활도 안 되는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행세만 하능 거네요, 쪼끔만. {그거 뭐 생활도 안 되는데 그냥 그냥 그냥 행세만 하는 거네요, 쪼끔만.}

10201 # 예. {예.}

10102 @ 근데 여기 골짜기가 이러케, 여기는 골짜기가 평장이 기퍼요, 드러가니까? {그런데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여기는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들어가니까?}

10102 # 예 기퍼요. {예 깊어요.}

10102 @ 이쪼게도 예저네 사람드리 마니, 얼마나? {이쪽에도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10102 # 아 이 아넌 안 싸러요, 조 우에 거 별통인는데 고꾸정만 사라씨요. {아 이 안엔 안 살아요, 저 위에 거기 별통있는데 그까지만 살았어요.}

10201 @ 아 그 별:통 이뜨라고요. {아 그 별:통 있더라고요.}

10201 # 예, 고꾸정은 사라씨요. {예, 그까지는 살았어요.}

10102 @ 함 머 토 정도 사란나요? {한 몇 호 정도 살았나요?}

10102 # 여기가요? {여기가요?}

10102 @ 예. {예.}

10102 # 와서 이: 개 바니 나쁘니 한 오시포 돼씨꺼예요, 여 학교 이꾸 그러 쪼게. {와서 이: 개 반이 남으니 한 오십 호 됐을 거예요, 여기 학교 있고 그럴 적에.}

10102 @ 학교 이쓸 때는뇨? {학교 있을 때는뇨?}

10102 # 야. {예.}

10102 @ 여기서 아주 거이 여기가 거이 머 면:소재지, 면:소재두 이씨꾸 이쓰니까. {여기서 아주 거의 여기가 거의 뭐 면:소재지, 면:소재도 있었고 있으니까.}

10102 # 예 그르케 마:너찌 여기가. {예 그렇게 많:았지 여기가.}

10102 @ 근데 어르신 여기서 이게 오래 사:셔쓰니까 이 마:리 말, 사투리 이짜나요 이 사투리가 어르신 바쓸 때 이게 쫘 양구나 인제나 화천 이러케 해쓸 때 쫘 비스타고 다릉 걸 쫘 알: 수가 인나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이게 오래 사:셨으니까 이 말:이 말, 사투리 있잖아요, 이 사투리가 어르신 바쓸 때 이게 쫘 양구나 인제나 화천 이렇게 했을 때 쫘 비슷하고 다른 걸 쫘 알: 수가 있나요?}

10102 # 여긴 모르는데요, 우리는, 내가 화천두 가 보구 머 다 그랜는데 우리더른 배우질 모텐는 지 차이를 모르게씨요. {여긴 모르는데요, 우리는, 내가 화천도 가 보고 뭐 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배우질 못 했는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10102 @ 흥쳐니나. {흥천이나.}

10102 # 예, 흥천이나 다 그러쿠, 다른 마른 모르게쎄요. {예, 흥천이나 다 그렇고, 다른 말은 모르겠어요.}

10102 #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두 그이까 말:소리 틀링 게 태백, 삼척 머 이리 좀 틀링 거 가트구요 요리는 잘 모르게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러니까 말:소리 틀린 게 태백, 삼척 뭐 이리 틀린 거 같고 요리는 잘 모르겠어요.}

10102 @ 양양이나 고성 쪽 하고는 좀 어때요? {양양이나 고성 쪽 하고는 좀 어때요?}

10102 # 야~양~은 거기는 이:북 말쑤릴 마이 쓰지요, 야~양~ 쪽엔. {양양은 거기는 이:북 말쑤릴 많이 쓰지요, 양양쪽엔.}

10102 # 이:북, 이북 싸라미 마나가주구. {이:북, 이북 사람이 많아 가지고.}

10102 @ 예 양양은 제:가 간는데 좀 다르드라구요. {예 양양은 제:가 갔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10102 # 예 이:북 말:소리지요 마니. {예 이:북 말 소리지요 많이.}

10102 # 거긴 거기가 처:메 이 너머와서 거기 이:북, 그잉까 함경도 사람만 사른 데 아니에요. {거긴 거기가 침:메 이 넘어와서 거기 이:북,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만 산 데 아니에요.}

10102 @ 여기서도 이북에서 마니 너머온 사람드리 이쪼게 인제에도? {여기서도 이북에서 많이 넘어 온 사람들이 이쪼게 인제에도?}

10102 # 마:너쎄요, 여기도. {많:왔지요, 여기도.}

10102 # 인제 그 그사람드리 거문 다: 주거쎄요, 인제는, 나이드리 마느니까. {이제 그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인제는, 나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그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젠, 나이들이 많으니까.}

10102 # 인제 그런 미테 자손들만 이쎄요. {이제 그런 밑에 자손들만 있지요.}

10102 @ 예, 그케 마니, 어떠케 이게 함경도 쪼게서 너머 오나요, 그 강원도 조:기 지금, 아직 수보 간 똥 고세서? {예, 그렇게 많이, 어떻게 이게 함경도 쪽에서 넘어 오나요, 그 강원도 저:기 지금, 아직 수복 안 된 곳에서?}

10102 # 아이, 너머오다가 여그 안:저서 눌러 드러거거니 하구, 가까운 데 안따 보니까 강원도 여기 삼팔선, 제:와 너머와서 안자쎄 거지요 머. {아니, 넘어다가 여기 앉아서 눌러 들어 가거니 하고, 가까운 데 았다 보니까 강원도 여기 삼팔선, 겨우 넘어와서 았았던 거지요 뭐.}

10102 # 빨리 드러갈라구, 그잉께 드러가게 돼:요 그게?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가게 돼:요 그게?}

10102 # 그래서 여기 이:북 싸라미 마나쎄요, 가까운 데 이따가. {그래서 여기 이:북 사람이 많았어요, 가까운 데 있다가.}

10102 @ 아 여기 함경도나 이쪼게요? {아 여기 함경도나 이쪼게요?}

10102 # 예. {예.}

10102 @ 그 평안도 쪼근 잘 아 노고? {그 평안도 쪽은 잘 안 오고?}

10102 # 평안도두 여기 마니 와쎄요. {평안도도 여기 많이 왔어요.}

10102 # 근데 저쪼겐 함경도가 쥔: 마니. {그런데 저쪽엔 함경도가 쥔: 많아.}

10102 @ 어디예요? {어디예요?}

10102 # 야~양~ 쪼그루, 속초 그쪼그루. {양양 쪽으로, 속초 쪽으로.}

10102 @ 아 양양 쪼그로. {아 양양 쪽으로.}

10102 # 예. {예.}

10102 @ 이쪼그로는? {이쪼그로는?}

10102 # 여긴 함경도 사람두 오구 머 평안도 사람두 오구 머 다 와, 사라쎄요. {여긴 함경도 사람도 오고 뭐 평안도 사람도 오고 뭐 다 와, 살았어요.}

10102 @ 금 토바기가 만:치는 양켄네요? {그럼 토박이가 많:지는 았겠네요?}

10102 # 예. {예.}

10102 @ 저기 이쪽에 보면, 이쪽 동네 보며는 이케 사니 이짜나요 사니 마니 이짜나요, 산 머 이 근:처에 아:는 사네, 그 산 이르미 이씀니까? {저기 이쪽에 보면, 이쪽 동네 보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많이 있잖아요, 산 뭐 이 근:처에 아:는 산에, 그 산 이름이 있습니까?}

10102 # 이르 미썌요. {이름 있지요.}

10102 @ 어떤 어떤? {어떤 어떤?}

10102 # 머 이르미 특뽕랑 게 \*\* 읍썌, 우리가 동네른 여기 저 노푼 봉언 머 기때봉이니, 머 그러 치, 그릉 게 읍썌요. {뭐 이름이 특별한 게 \*\* 없어, 우리가 동네면 여기 저 높은 봉은 뭐 깃대봉이니, 뭐 그렇지, 그런 게 없어요.}

10102 @ 예 그머 인제 고기는 기때봉이라고 하고 또? {예 그럼 이제 거기는 깃대봉이라고 하고 또?}

10102 # 요 뒤꼐모게는? {요 뒷골목에는?}

10102 @ 요 근처에 또 어르시니 부르능 게 이짜나요, 머라고 부르니까, 기때봉 이꼬? {요 근처에 또 어르신이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니까, 깃대봉 있고?}

10102 # 기때봉이 이꾸 머 여기 젤:루 \*\* 옌:나렌 이름 읍썌요, 별로, 기때봉 하나배께. {깃대봉이 있고 뭐 여기 제일로 \*\* 옛:날엔 이름 없어요, 별로, 깃대봉 하나밖에.}

10102 # 여 머 양구 무르른 양구 노푼 거 머 봉화사니니 머 이렇 게, 그런 이름 읍썌요. {여기 뭐 양구 물으면 양구 높은 거 뭐 봉화산이니 뭐 이런 게, 그런 이름 없어요.}

10102 @ 음 여기는뇨, 그냥 그냥 사니라고? {음 여기는요, 그냥 그냥 산이라고?}

10102 # 예. {예.}

10102 @ 금 여기 예저네 인제 나무 하러 갈 때는 어디까지 가썌요? {그럼 여기 예전에 이제 나무 하러 갈 때는 어디까지 갔어요?}

10102 # 아이, 이 꼐짜건 \*\*\*꺼징 저 너메꺼징 가구 이 기때보~이~ 이꾸 저:짱 저기 노::푼게 수리 봉이라구 이꾸 그래구 인제 정자리 가른 머 매:봉사니니 머 이렇 게 이찌 머. {아니, 이 꼐짜는 \*\*\*까지 저 너메까지 가고 이 깃대봉이 있고 저:쪽 저기 높::은 게 수리봉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자리 가면 뭐 매:봉산이니 뭐 이런 게 있지 뭐.}

10102 @ 정자리에 매:봉산뇨? {정자리에 매:봉산요?}

10102 # 예 매:봉사니 이썌요. {예 매:봉산이 있어요.}

10102 @ 그 아까 그 부면장님 아번님 거기 이썌? {그 아까 그 부면장님 아버님 거기 있썌?}

10102 # 예예, 거기가 매봉사니 이썌요. {예예, 거기가 매봉산이 있어요.}

10102 @ 거기에도 사라미 마니 사라썌요, 정자리에도?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정자리에 요?}

10102 # 거기두 마이 사라썌요. {거기도 많이 살았지요.}

10102 # 옌:나레 거기 학교가 이꼬 다: 이썌는데. {옛:날에 거기 학교가 있고 다: 있었는데.}

10102 @ 거기도 남머닝가요? {거기도 남면인가요?}

10102 # 예, 남머니요. {예, 남면이요.}

10102 # 학교가 글썌 한 사:십니 도러 땡게썌, 옌:나레 거기 다 이꾸 근테 지그른 학교 하나두 읍 썌요 그썌그루, 다 학생드리 이리 오지. {학교가 글썌 한 사:십리 돌아 다녔어, 옛:날에 거기 다 있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쪽으로, 다 학생들이 이리 오지.}

10102 # 그까, 아치미른 학교 차가 가 시러오구 시러가구. {그러니까, 아침으면 학교 차가 기ㅏ 실어오고 실어가고.}

10102 @ 그머 옌나레 이게 남머니라는 큰 동네가 머 께 정도가 이썌썌니까? {그럼 옛날에 이게 남면이라는 큰 동네가 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까?}

10102 # 여기요? {여기요?}

10102 @ 예. {예.}

10102 # 남머니 흥천느루 가씨 지겐 머 얼마 안 돼씨 머, 그때는. {남머니 흥천으로 갔을 적엔 뭐 얼마 안 됐지 뭐, 그때는.}

10102 @ 엔나레 그잉까 남면 쪼게 보면 큰 동네가 여기처럼 심풍이 이씨쓸테고, 심풍. 그다메는 논 또? {옛날에 그러니까 남면 쪽에 보면 큰 동네가 여기처럼 심풍이 있었을테고, 심풍, 그담에는 요 또?}

10102 # 여기 부평니, 이 신남니 머 거 엔:나레 여기 심풍니루 돼: 이씨니까 머, 어른니, 정자리, 부평니. {여기 부평리, 이 신남리 뭐 거 옛:날에 여기 심풍리로 돼: 있으니까 뭐, 어른리, 정자리, 부평리.}

10102 @ 부평니. {부평리.}

10102 # 갑툐니. {갑둔리.}

10102 @ 갑툐? {갑둔?}

10102 # 예, 갑툐니. {예 갑둔리.}

10102 @ 갑툐니요? {갑둔리요?}

10102 # 예 갑툐니가 이씨요. {예 갑둔리가 있어요.}

10102 # 갑툐니는 지금 요기 한쪽 쪼끔 남꼬 군사지역이 다 돼서 사람 하나두 업씨요. {갑둔리는 지금 요기 한쪽 조금 남고 군사지역이 다 돼서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102 @ 아 갑툐니가요? {아 갑둔리가요?}

10102 # 예. {예.}

10102 @ 고 고려케 다서 깨 마으리 이썸나요? {그 그렇게 다섯 개 마을이 있었나요?}

10102 # 예. {예.}

10102 @ 그중에서 젤: 큰 데가 어디여씨요? {그중에서 젤: 큰 데가 어디였어요?}

10102 # 젤: 큰 데가 부평이 젤: 커씨요. {젤: 큰 데가 부평이 젤: 컸지요.}

10102 @ 아 부평이요. {아 부평이요.}

10102 @ 그머 부평은 여기, 저기 강 건너편 쪼기 다 지금 초등학교 인는 그쪼그로? {그럼 부평은 여기, 저기 강 건너편 쪽이 다 지금 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10102 # 초등학교 인는데 여긴 신남니구 요그 미테 니라 가든 지금 수물찌구가 다 돼:씨. {초등학교 있는데 여긴 신남리고 요기 밑에 내려 가면 지금 수물지구가 다 됐:지.}

10102 @ 그 아주 강 인는 그 널븐? {그 아주 강 있는 그 넓은?}

10102 # 예 그쪼그루 부평니에요. {예 그쪽으로 부평리에요.}

10102 @ 거기가 월래 그 사람드리 마니 사라씨씨요? {거기가 원래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10102 # 예 마이 사라씨요. {예 많이 살았지요.}

10102 @ 그 보며는 자갈, 크다나게 자가를 세워두기도 해짜나요? {그 보면 자갈, 커다랗게 자갈을 세워 두기도 했잖아요?}

10102 # 자갈료? {자갈요?}

10102 @ 그이까 막 돌 \*\*? {그러니까 막 돌 \*\*?}

10102 # 돌: \*\*\* 이긴 여긴 신남니에요 여긴. {돌: \*\*\* 이긴 여긴 신남리에요 여긴.}

10102 # 고 미테 이제 좀 더 니러 가서 부평니가 돼:씨요. {그 밑에 이제 좀 더 내려 가서 부평리가 됐:지요.}

10102 @ 아 그쪼그로 가야 월래 사라미 마니 사라쥔네요. {아 그쪽으로 가야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겠네요.}

10102 # 그쪼게 지금 무리 차가 그러치, 그게 드:리 젤: 인제구네서 젤: 크다는, 노니 젤: 만타는

데가 거기에요. {그쪽에 지금 물이 차서 그렇지, 그게 들:이 제일 인제군에서 제일 크다는, 논이 제일 많다는 데가 거기에요.}

10201 @ 금 그 사람드리 전:부 판 데로 가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판 데로 갔겠네요?}

10201 # 그르치 판 데루 다 가지요. {그렇지 판 데로 다 갔지요.}

10201 @ 어르시는 그 판 데로 왜 앙 가서씨요? {어르신은 그 판 데로 왜 안 가셨어요?}

10201 # 아유 나두 메뻔 땡긴 터기지요. {아유 나도 몇 번 다닌 터이지요.}

10201 @ 그래요, 어디어디로? {그래요, 어디어디로?}

10201 # 난 인:츠메 이거 보상바다 가주 경기도, 그릉까 양주군 백성머닌는 데루 가서 사라씨, 지 별 여기다 두구 거기 가서 노를 사가주 농사두 지꾸. {난 맨 처음에 이거 보상 받아 가지고 경기도, 그러니까 양주군 백성면 있는 데로 가서 살았어, 집을 여기다 두고 거기 가서 논을 사 가지고 농사도 짓고.}

10201 @ 얼마나 이씨씨요? {얼마나 있었어요?}

10201 # 한 온:년 제:씨, 제: 거그서. {한 오: 년 지었어, 지어 거기서.}

10201 # 그래가주 거기 또 멀:다구 가서 걸 파러가주 양구 가서 또 지어씨요. {그래 가지고 거기 또 멀:다고 가서 그걸 팔아 가지고 양구 가서 또 지었어요.}

10201 @ 얼마나 이씨씨요? {얼마나 있었어요?}

10201 # 양구에서도 한 십년 너머찌 우리가. {양구에서도 한 십 년 넘었지 우리가.}

10201 # 그러케 여기 지별 그냥 두구 그래다가 애:덜 때무네 양구 논두 다 팔구 이러구선 인제 여그 와선 아무거뚜 읍씨 이러구 이찌요. {그렇게 여기 집을 그냥 두고 그러다가 애:들 때문에 양구 논도 다 팔고 이려고선 이제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려고 있지요.}

10201 @ 음, 언제 여기 한, 멘년 돼썬니까? {음, 언제 여기 한, 몇 년 됐습니까?}

10201 # 머가요? {뭐가요?}

10201 @ 그러면 여기 절물 때는 계:속 여기 살다가? {그러면 여기 젊을 때는 계:속 여기 살다가?}

10201 # 예 여기 살구 거기 나가 사능 거두 지번 여기 두구 머 식꾸들 다들 냉기구 와따가따 하 미 그르케 제:씨요. {예 여기 살고 거기 나가 사는 것도 집은 여기 두고 뭐 식구들 다들 남기고 왔다갔다 하며 그렇게 지었어요.}

10201 @ 금 지븐 여기 누가 사라씨요? {그럼 집은 여기 누가 살았어요?}

10201 # 아 우리 집싸람두, 우리 어머니 모두 이르게 사러찌요, 우리 어머니가. {아 우리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 모두 이렇게 살았지요, 우리 어머니가.}

10201 @ 아 여기 사:시구요? {아 여기 사:시고요?}

10201 # 예. {예.}

10201 @ 살:다가 이제 이쫓그로 이사, 다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다시.}

10201 # 도루 인제 웅 거지요. {도로 이제 온 거지요.}

10201 # 그애 주민등노기 그저네 머 저 뭐르 땡:라른 와따가따 해따고 도:널 더 내라 그러대요, 그런 와따가튼 게 이씨가지구. {그래 주민등록이 그전에 뭐 저 뭐를 때:려면 왔다갔다 했다고 돈:을 더 내라 그러대요, 그런 왔다갔던 게 있어 가지고.}

10201 # 여 머 잉가멸 때:던지 머 이러른 여는 사라른 배건 널: 꺼른 난 배고시 버늘 조:야. {여기 뭐 인감을 때:든지 뭐 이러면 여느 사람은 백 원 났: 거면 난 백오십 원을 줘:야.}

10201 # 그거 와따가따 하능 그게 서루예 다: 드러가가지구. {그거 왔다갔다 하는 그게 서류에 다: 들어가 가지고.}

10201 @ 그러머는, 어르신 한, 그, 경기도로 강 건 언제쫓미쫓? {그러면, 어르신 한, 그, 경기도로 간 건 언제쫓미쫓?}

10201 # 머 한 삼십년 저닌데요. {뭐 한 삼십년 전인데요.}

10201 @ 아 그래요 그머 한참 그 쯔 일할 때 장간 가서똥 게, 장간 가따가 이제 이따가 이쪼그로 드러 오셔쎄네요. {아 그래요 그럼 한참 그 쯔 일할 때 잠깐 가셨던 게, 잠깐 갔다가 이제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 오셨쎄네요.}

10201 # 예. {예.}

10201 # 삼십년 저네예요, 그. {삼십 년 전이에요, 그.}

10201 @ 거기 살다가 드러와 보시니까 쯔 어때, 생화리 쯔 괜찬나나요? {거기 살다가 들어와 보시니까 쯔 어때, 생활이 쯔 괜찮았나요?}

10201 # 아 그때만 해두 점무니까 난 괜찬나요, 지금서 그러치. {아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난 괜찮지요, 지금이 그렇지.}

10201 # 내가 이 사네 땡깁 게 여느 사람보다 빨라요, 쯔, 땡기능 게. {내가 이 산에 다닌 게 여느 사람보다 빨라요, 쯔, 다니는 게.}

10201 @ 사늘 마니 타 보션네요? {산을 많이 타 보셨네요?}

10201 # 예, 가치 땡게 보른 날 따라오질 모 태게따구 자꾸 그래요. {예 같이 다녀 보면 날 따라오질 못 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10201 # 그 절문 사람들두 가치 \*\* 거튼 데 가른 따라 오질 모 태가주구. {그 젊은 사람들도 같이 \*\* 같은 데 가면 따라 오질 못 해 가지고.}

10201 @ 아이구 머 정정하셔쎄네요, 그러며는. {아이고 뭐 정정하셨쎄네요, 그러면.}

10201 # 빨리두 땡게썩요, 땡기기는. {빨리도 다녔어요, 다니기는.}

10201 @ 아 예, 알게썩니다. {아 예, 알썩습니다.}

10101 @ 이 마으레 이 마으리 이제 언제 형성 댜는지는 알 쯔? {이 마을에 이 마을이 이제 언제 형성 댜는지는 알 수?}

10101 # 그건 모르지요 머,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요 뭐, 그건 모르지.}

10102 @ 그러며는 어른 태어나썩 때 이 마으른 전부 어느, 이르미 머연나요, 이 마을 전체를? {그러면 어른 태어났을 대 이 마을은 전부 어느, 이름이 댜였나요, 이 마을 전체를?}

10102 # 여기가요? {여기가요?}

10102 @ 예. {예.}

10102 # 인:나레 여기가 심풍이라 그래짜나요 심풍이, 여긴 또 요기는 요 문태를 양짐마리라구 그래썩요 양짐말. {옛:날에 여기가 신평이라 그랫잖아요 신평이, 여긴 또 요기는 요 곳을 양지 마을 이라고 그랫어요 양지 마을.}

10102 @ 아 요기를료? {아 요기를료?}

10102 # 예, 양짐마리라 하기도, 뒤흔리라 그러기도 해썩요, 여그 꼴짜근 이르미 뒤흔리예요. {예, 양지 마을이라 하기도, 뒫골이라 그러기도 했지요, 여기 꼴짜은 이름이 뒫골이에요.}

10102 @ 아 요기는? {아 요기는?}

10102 # 요 뒤흔리라. {요 뒫골이라.}

10102 @ 지금 어르시는 그러며는? {지금 어르신은 그러면?}

10102 # 뒫꼴루 나썩요. {뒫골로 났지요.}

10102 @ 아 양진마리 어디조? {아 양지 마을이 어디조?}

10102 # 양지마리 이썩 개울 저썩 끈내서 이썩 끈내를 양짐마리라 그래썩요, 저썩겐 겨우리믄 맨 날 웅다리구 여긴 해만 드니까 양짐마리라 그래썩요. {양지 마을이 이썩 개울 저썩 건너서 이썩 건너를 양지 마을이라 그랫어요, 저썩엔 겨울이면 맨날 웅달이고 여긴 해만 드니까 양지 마을이라 그랫지요.}

10102 @ 그래서 그럼 개울 저 건너뵈는? {그래서 그럼 개울 저 건너뵈은?}

10102 # 거긴. {거긴.}

10102 @ 머라고 해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102 # 거기를료? {거기를요?}

10102 @ 예. {예.}

10102 # 거긴 옴:나레 뚝새우리라 그래썩요. {거긴 옴:날에 뚝새올이라 그랫어요.}

10102 @ 뚝? {뚝?}

10102 # 뚝새올. {뚝새올.}

10102 @ 뚝새올료? {뚝새올요?}

10102 # 예. {예.}

10102 @ 뚝새우리 머:조? {뚝새올이 뭇조?}

10102 # 아이 동네 거기를 뚝새우리라그래썩요, 뚝새우리 먼:지 모르지만, 나두 몰라 뚝새우리라 그래썩요. {아니 동네 거기를 뚝새올이라 그랫어요, 뚝새올이 뭇:지 모르지만, 나도 몰라 뚝새올이라 그랫어요.}

10102 # 원, 이르른 여기가 저근네하과 여기 이찌 아::주 옴:날 그 이르른 심풍니고 또 조근네 우리 바디꼬 인는텐 여기가 기낭 또 유묵또~이~라구두 허구 머. {원래, 이름은 여기가 저 건너하고 여기 있지 아::주 옴:날 그 이름은 심풍리고 또 저 건너 우리 밧있고 있는데는 여기가 그냥 또 유묵둥이라고도 하고 뭇.}

10102 @ 예? {예?}

10102 # 유묵똥이라구 허기두 허구. {유묵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10102 @ 여기가요? {여기가요?}

10102 # 예. {예.}

10102 @ 아 그러면 저기 인제 개우를 중심, 월래 심풍이언는데 개우를 중시므로 해서 거기는? {아 그러면 저기 이제 개올을 중심, 원래 싼풍이었는데 개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10102 # 뚝새올. {뚝새올.}

10102 @ 이쪼근? {이쪼은?}

10102 # 옴, 양지말. {옴, 양지 마을.}

10102 @ 그다메 이쪼 똥네는? {그다메 이쪼 동네는?}

10102 # 똥:꼴, 요기는. {똥:꼴, 요기는.}

10102 @ 그, 싼남 거기 가니까 무슨 이르미, 무슨, 자른 모르겐는데 머라고 또 그러던데 거기 뚝새올 중에서도 그 지금 면사무소 인는? {그, 싼남 거기 가니까 무슨 이름이, 무슨, 잘은 모르겠는데 뭇라고 또 그러던데 거기 뚝새올 중에서도 그 지금 면사무소 인는?}

10102 # 건, 다리꼴. {그건, 다리꼴.}

10102 @ 아, 마자요, 다리꼴, 예. {아, 맞아요, 다리꼴, 예.}

10102 # 다리꼬리. {다리꼴이.}

10102 # 요기 요기 이러케 도라가서 저 논뼤미는텐 거긴 절뚜루. {요기 요기 이렇게 돌아가서 저 논들이 있는 데는 거긴 절뚜루.}

10102 @ 절? {절?}

10102 # 절뚜루라 그래요. {절뚜루라 그래요.}

10102 @ 절뚜요? {절뚜요?}

10102 # 예, 우리, 절뚜루. {예, 우리, 절뚜루.}

10102 @ 절뚜루요? {절뚜루요?}

10102 # 예. {예.}

10102 @ 절뚜루, 절뚜루가 어디조? {절들, 절뚜루가 어디쪼?}

10102 # 요기 이, 요 상까는데 도러가서 그 다리 밭, 이 큰 다리 이짜나요, 그 다리 꼬테 그짜기 다 절뚜루예요, 거 노니꾸 그런 데가, 예, 거기가 우리 한 바니예요, 절뚜루꺼정. {요기 이, 요 \*\*\*\* 돌아 가서 그 다리 밭, 이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끝에 그쪽이 다 절뚜루예요, 거 논있고 그런 데가 예, 거기가 우리 한 반이예요, 절뚜루까지.}

10102 @ 금 전::부다 해서 심풍이어짜나요? {그럼 전::부 다 해서 심풍이었잖아요?}

10102 # 옴:나레 심풍니조. {옛:날에 심풍리조.}

10102 @ 그제 언제 신나므로 되어나요? {그제 어제 신남으로 되었나요?}

10102 # 신나므로요? {신남으로요?}

10102 @ 네. {네.}

10102 # 이젠 글썽 신나므로 되능 게 언:제 되냐 하른 삼팔썸 매키민 이 흥청구느루 드러가민 그 애, 며:니 새루 생기미 난제 요기 신나미 돼:썸요. {이젠 글썽 신남으로 되는 게 언:제 되냐 하면 삼팔썸 막히면서 이 흥청군으로 들어가면서 그래, 면: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요기 신남이 됐:지요.}

10102 @ 아 그럼 인제 그때 신나믄, 월래는 인제여쭙? {아 그럼 이제 그때 신남은, 원래는 인제였쥬?}

101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102 @ 여기가 월래는? {여기가 원래는?}

10102 # 월래 인제군 따이지요. {원래 인제군 땅이지요.}

10102 @ 인제군 땅이여따가. {인제군 땅이었다가.}

10102 # 인제 삼팔썸 매키민 저긴 모 드러가니까 흥청구느루 부터서 인제 흥청 신남면, 어디 부칠 쭈가, 신남며:니라 그래썸요.

10102 @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삼팔썸이 막히면서 저긴 못 들어가니까 흥청군으로 붙어서 이제 흥청 신남면, 어디 붙일 쭈가, 신남면이라 그랬어요.}

10102 # 다시 보꾸해 드로미 인제군 남며니 되고, 그저네 옴:날버텀 인제군 남며니거든노, 그니까 워 니르를 차징 거지. {다시 복구해 들어오면서 인제군 남면이 되고, 그전에 옴:날부터 인제군 남면이거든노, 그러니까 원 이름을 찾은 거지.}

10102 @ 음, 그러면 아까 그 똑썸울도 이꼬 다리꼴:도 이꼬 그다메 이쪽 양진마 리꼬 어디가 썸: 커썸니까? {음, 그러면 아까 그 똑새울도 있고 다릿꼴:도 있고 그담에 이쪽양지 마을 있고 어디가 제일 컷습니까?}

10102 # 옴:나렌 쿵 게두 읍썸요, 다 개갈만::해썸. {옛:날엔 큰 것도 없어요, 다 개갈만::했지.}

10102 @ 멀 마니요? {뭘 많지요?}

10102 # 개갈만 해요, 다, 별루 큰 데가 읍썸요. {개갈만해요, 다, 별로 큰 데가 없어요.}

10102 @ 개갈마리 머니까? {개갈말이 뭘니까?}

10102 # 여근 다 어지간한 걸 개갈만하다 그래요. {여기는 다 어지간한 걸 개갈만하다 그래요.}

10102 @ 개갈, 개갈말하다. {개갈, 개갈만하다.}

10102 # 응. {응.}

10102 # 거기나 거기나 거웅 가트다 썸리가 개갈만하다 그러지요. {거기나 거기나 거의 같다 소리가 개갈만하다 그러지요.}

10102 @ 아 거기나 거기나 개갈만하다? {아 거기나 거기나 개갈만하다?}

10102 # 응, 이 잉구가 머 별루 읍썸니까. {응, 이 인구가 뭘 별로 없으니까.}

10102 # 그래두 썸: 잉구 마는 데가 요기가 썸 마:나썸썸요. {그래도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요기가 썸 많:았었지요.}

10102 @ 여기 이 여기 양진마:리 마:난능 거예요, 아님 뒤꼬리 마나땡 거예요? {여기 이 여기 양



지 마을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뒷골이 많았던 거예요?

10102 # 아이, 양진, 요길 뒤:꼴 전체 요걸 전체를 가따 요기 양진말 와서 뒤꼬리라 그래구 요기는 전체를 인제 양지마리라 그래쪼요. {아니, 양지, 요기를 뒤:꼴 전체 요걸 전체를 갖다 요기 양지 마을 와서 뒷골이라 그러고 요기는 전체를 이제 양지 마을이라 그랬지요.}

10102 @ 아, 요쪽만 뒤꼬리고 전체는 양진말. {아, 요쪽만 뒷골이고 전체는 양지 마을.}

10102 # 예 요쪽 근네는 양짐마리라 그래쪼요. {예 이쪽 건너는 양지 마을이라 그랬지요.}

10102 # 조짜그루 도라가서는 절뚜루라 그래구. {저쪽으로 돌아가서는 절뚜루라 그러고.}

10102 @ 거기도 사람 마니 사란나요? {거기도 사람 많이 살았나요?}

10102 # 절뚜루예요? {절뚜루예요?}

10102 # 절뚜루에는 그림케 사람 마이 안 사라쪼요. {절뚜루에는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살았어요.}

10102 # 지금 집쭈보다 정작 만:칠 아나요, 절뚜루에두 지금두 저기 옴:나레 읍뎌 데 지별 전부라 지어서 절뚜루에는 정:작 그때보다 집쭈가 더 만:치요, 그뎌 지금 비함 열:마 안 돼:쪼요. {지금 집쭈보다 정작 많:질 않아요, 절뚜루에도 지금도 저기 옛:날에 없던 데 집을 전부 다 지어서 절뚜루에는 정:작 그때보다 집 수가 더 많:지요, 그뎌 지금 비하면 열:마 안 됐:어요.}

10102 @ 여기는 한, 예저네는 한 메 토가 댜:나요, 더 마나쪼? {여기는 한,예전에는 한 몇 호가 댜:나요, 더 많았쪼?}

10102 # 그럼뇨, 지금 다 대:문 미 빼 돼:쪼요, 우리 어려서두 마:나쪼요, 여기는. {그럼요, 지금에 다가 대:면 몇 배 댜:지요, 우리 어려서도 많:았어요, 여기는.}

10103 @ 사람드리 점부 머하고 지내쨌나요?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지냈었나요?}

10103 # 그때요? {그때요?}

10103 @ 예. {예.}

10103 # 농사 지:치요. {농사 짓:지요.}

10103 @ 어떻 거 지어쪼요? {어떤 거 지었어요?}

10103 # 머 반농사, 머 저 화전농사 머 이렇 거 농사야 여러가지지 머. {뭐 밭농사, 뭐 저 화전농사 뭐 이런 거 농사야 여러가지지 뭐.}

10103 @ 화전농사도 지어쪼요? {화전농사도 지었어요?}

10103 # 그럼뇨, 화전, 그때 전부라 화전농사지요 머. {그럼요, 화전, 그때 전부 다 화전농사지요 뭐.}

10103 @ 화저농사는 어트케 지었나요? {화전농사는 어떻게 지었나요?}

10103 # 조런 사네 나물 까꾸, 불싸루쿠 거기다, 그뎌 나무가 참 귀해쪼요, 나무하러 갈라른 이\*\* 저 산너를 너머가서 해오구 그래쪼요, 나무가 업쪼서. {저런 산에 나무를 꺾고, 불 사르고 거기다, 그뎌 나무가 참 귀했어요, 나무하러 가려면 이\*\* 저 산 너머를 넘어가서 해 오고 그랬어요, 나무가 없어서.}

10103 # 저::기 저 압, 저 아페 아페 산 저기 저 다: 화전 해 먹뎌 데가 저기 나무가 이르게 큰 거예요. {저::기 저 앞, 저 앞에 앞에 산 저기 저 다: 화전 해 먹던 데가 저기 나무가 이렇게 큰 거예요.}

10103 @ 어르신도 하셔쪼요, 어르신네도? {어르신도 하셨어요, 어르신네도?}

10103 # 그럼뇨, \*\*\*\*\* 아마 한 시가는 드러가이 될꺼요, 거그 가서 화전두 하구 그래쪼요. {그럼요, \*\*\*\*\* 아마 한 시간은 들어가야 될 거요, 거기 가서 화전도 하고 그랬어요.}

10103 @ 아 거기서 그림 바들 만드려쪼요? {아 거기서 그림 받을 만들었어요?}

10103 # 그러치요, 사늘. {그렇지요, 산을.}

10103 @ 그 녀 멀자나요 이 지배서? {그 너무 멀잖아요 이 집에서?}

10103 # 아 머러두, 해:쪼요. {아 멀어도, 했:지요.}

10103 # 그러 저, 보메 같:, 메물 가통 건 이 \*\*자나요, 그이까 바:메 한 세:시 되든 가요, 일허러, 세 시 되든 가서 소가 더워서 이를 묻 허니까. {그래, 저 봄에 같, 메밀 같은 건 이 \*\*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한 세: 시 되면 가요, 일하러, 세 시 되면 가서 소가 더워서 일을 못 하니까.}

10103 @ 소랑 가치 가요? {소랑 같이 가요?}

10103 # 소가 가라야 이:를 하자나요. {소가 같아야 일:을 하잖아요.}

10103 @ 소 먼 마리, 소? {소 몇 마리, 소?}

10103 # 두 마리 가지고. {두 마리 가지고.}

10103 @ 아 제리, 제리. {아 겨리, 겨리.}

10103 # 그럼, 게리를 가지구 인제 가서 갈:구 메물허구 쯔 한 지그므 누르먼 한 열: 씨 되든 안 해요. {그럼 겨리를 가지고 이제 가서 갈:고 메밀하고 쯔 한 지금으로 치면 한 열: 시 되면 안 해요.}

10103 @ 아니 지금 새벽 세 시 쯔메 인제. {아니 지금 새벽 세 시 쯔메 이제.}

10103 # 예 가가주구. {예 가 가지고.}

10103 @ 소를 데리고 어디 어디? {소를 데리고 어디 어디?}

10103 # 몰:구 가지요. {몰:고 가지요.}

10103 @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10103 # 아이 그 사느루지요 거기, 화전 바트루 가능 거예요. {아니 그 산으로지요 거기, 화전 밭으로 가는 거예요.}

10103 # 그때 가서 허먼 지그므루든 아마 열: 씨쯔 되든 모 태:요, 더워서, 소가 혁혁걱거리니까, 묻: 허구 인제 켈: 웅다레 자지요, 소두 이제 웅다레다 매구. {그때 가서 하면 지금으로는 아마 열: 씨쯔 되면 못 해:요, 더워서, 소가 혁혁거리니까, 못 하고 이제 제일 웅달에 자지요, 소도 이제 웅달에다 매고.}

10103 # 그때따 인제 해가 해가 겨우, 거기에 인제 그느리 지구 이래든 사~이~ 노푸~이~까 그때 쯔 허구선 또 어두우니 내려 와요, 지베 와 자구 그래쥬요. {그랬다가 이제 해가 해가 거의, 거기에 이제 그늘이 지고 이러면 산이 높으니까 그때 쯔 하고선 또 어두우니 내려 와요, 집에 와 자고 그랬지요.}

10307 @ 거기 그 멀리 그 멀리까지 가면 한 메물만 헨나요, 땅 건 안 헨나요? {거기 그 멀리 그 멀리까지 가면 한 메밀만 헨나요, 탄 건 안 헨나요?}

10307 # 아이 보메 하능 건, 메물만 그러치 보메 하능 건 하루 쯔일 하니깐 조반 먹꾸 천:쳐니 가구. {아니 봄에 하는 건, 메밀만 그렇지 봄에 하는 건 하루 쯔일 하니깐 조반 먹고 천:천히 가고.}

10307 # 그이까 쿵 쿵 마이 상:꾸 조, 그때는 주시기 쯔쌀 마이 먹짜나요, 조이를 마이 해:쥬요. {그러니까 쿵 쿵 많이 심:고, 조, 그때는 주식이 쯔쌀 많이 먹잖아요, 조를 많이 했:지요.}

10102 @ 그러머는 그 그 쯔그로 가서 화전하면서 그쯔게 머 내려오는 머 애:기 가통 게 업썸니까, 이러케 여기에 저내 내려오는 애기 가통 거, 이 마을과 팔려내서? {그러면 그 그 쪽으로 가서 화전하면서 그쪽에 뭐 내려오는 뭐 애:기 같은 게 없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전해 내려오는 애기 같은 거, 이 마을과 관련해서?}

10102 # 머 그런 애기 별루 묻 뜨런데요. {뭐 그런 애기 별로 못 들었는데요.}

10103 @ 그럼 인제 어르신들 동네 사람 이케, 농사를 진는데 보통 혼자 갑니까 아니머는? {그럼 이제 어르신들 동네 사람 이케, 농사를 짓는데 보통 혼자 갑니까 아니면?}

10103 # 아, 혼자든 안 되지요, 짐: 가통 거 인제 다 할 그거는, 혼자두 가 매지만, 이 부치미할 썸겐 글 저, 보메 이 나달 땅소게 넌능 건 부치미라 그래요, 그 부치미헬 썸근 여러시 가야지요, 받까는 사람 이찌, 궤이로 파는 사람 미찌, 또 시머애지, 그건 여라시 가지요. {아 혼자든 안 되지

요, 김: 같은 거 이제 다 할 그거는, 혼자도 가 매지만, 이 부침이할 적엔 그걸, 저, 봄에 이 낱알 땅속에 넣는 건 부침이라 그래요, 그 부침이할 적은 여럿이 가야지요, 밭가는 사람 있지, 팽이로 파는 사람 있지, 또 심어야지, 그건 여럿이 가지요.}

10103 @ 함 멈 명 감니까? {한 몇 명 감니까?}

10103 # 그거 인제 조이 가통 거 해:두 패이질허구 그래믄 대여섯씩 까이 돼요. {그거 이제 조 같은 거 해도 팽이질하고 그러면 대여섯씩 가야 돼요.}

10103 # 혼잔. {혼자는.}

10103 @ 패이 한다고요? {팽이 한다고요?}

10103 # 패이질. {팽이질.}

10103 @ 아 패이질 할려며는. {아 팽이질 하려면.}

10103 # 한 대여섯씩 가야 돼요. {한 대여섯씩 가야 돼요.}|

10103 @ 그애 전부 돌: 아니예요, 도:리나 바위? {그애 전부 돌: 아니예요, 돌:이나 바위?}

10103 # 아 바위두 이긴 이찌만 사네 그르케 바위는 이리 도라서 가구 이제 소가, 쏘 바우가 이르케 아주 큰:: 바우가 이썬 이르케 돌레서 또 이짜그루 갈구 또 그짱 너머가 갈:구 인제 그래지만, 이 쪼그만 바운 아마 요런 상망큼 \*\* 바우 이짜나요, 그럼 소를 바우 위로로 하믄 하난 바우 위:루 가구, 하나는 미트루 이르케 빠져 나가요, 다:, 소가. {아 바위도 있긴 있지만 산에 그렇게 바위는 이리 돌아서 가고 이제 소가, 쏘 바위가 이렇게 아주 큰::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또 이쪽으로 갈고 또 그쪽 넘어 가서 갈:고 이제 그러지만, 이 쪼그만 바위는 아마 요런 상망큼 \*\*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소를 바위 위로로 하면 하나는 바위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요, 다:, 소가.}

10103 # 그르케 갈:구 인제 연장언 거기 가서, 거 바까능 거뜨리 버섯 딸링 걸 연장이라 그래요, 버서서 번쩍 들구 사라미, 나가구 그러케 갈:지요. {그렇게 갈:고 이제 쟁기는 거기 가서, 거 밭 가는 것들이 보습 달린 걸 연장이라 그래요, 벗어서 번쩍 들고 사람이, 나가고 그렇게 갈:지요.}

10103 @ 음, 거기서는 한, 어느 정도 그 개가늘 하셔썬요, 어느 정도 개가늘 하셔썬요? {음, 거기서는 한, 어느 정도 그 개간을 하셔썬요, 어느 정도 개간을 하셔썬요?}

10103 # 건 머 여긴 다: 머 개간들 마이 해썬요 머, 아 여기 사니 다 원만한 텐 머 아주 대:우 까 파르지 아는 텐 다: 그르케 해 머거썬요, 아주 대:우 까파라서 소가 못 갈: 때는, 패이루 이르케 파구 해 먹꾸 그래썬요. {그건 뭐 여긴 다: 뭐 개간들 많이 했지요, 뭐, 아 여기 산이 다 원만한 데는 뭐 아주 대:개 가파르지 않은 텐 다: 그렇게 해 먹었어요, 아주 대:개 가팔라서 소가 못 갈: 때는, 팽이로 이렇게 파고 해 먹고 그랬어요.}

10103 @ 힘드러썬썬요, 그러면. {힘들었썬썬요, 그러면.}

10103 # 예. {예.}

10103 # 그래두 지금처럼 머글 낀 읍썬요 그뻐. {그래도 지금처럼 먹을 건 없어요 그뻐.}

10103 # 그래서 그 보리두 허구 머 밀두 해지만 그래서 보리꼬개 보리꼬개, 보리가 미쳐 여물지두 아너서 그걸 잘라다 훑터서 머 따껴서두 해 먹꾸 그래썬나요. {그래서 그 보리도 하고 뭐 밀도 하지만 그래서 보릿고개 보릿고개, 보리가 미쳐 여물지도 않아서 그걸 잘라다 훑어서 뭐 닦아서도 해 먹고 그랬잖아요.}

10103 # 그러자늘 여르믄 감자, 옥썬수 이러케 먹꾸 살:구. {그러잖으면 여름은 감자, 옥썬수 이렇게 먹고 살:고.}

10103 # 옥썬수두 그때는 지금처럼 마이 시물 쫄두 몰라요, 쪼끔 시머 가주 인제 그르케 몬: 썬:. {옥썬수도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심을 줄도 몰라요, 조금 심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 지어.}

10103 # 지금 지그믄 옥썬수, 주로 옥썬수 마니 해자나요, 파라 멍느라구, 지금두 글 멍는다구, 지비서 멍는다구 하믄 옥썬수 그르케 머 안 허지요, 파라멍는다라메 하지요. {지금 지금은 옥썬수,

주로 옥수수 많이 하잖아요, 팔아 먹느라고, 지금도 그걸 먹는다고, 집에서 먹는다고 하면 옥수수  
그렇게 뭐 안 하지요, 팔아 먹는다니까 하지요.}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예, 먼저 어르신 그 성하미 어떠케 되는지 좀 알 쥬...? {예, 먼저 어르신 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10201 # 오영호입니다. {오영호입니다.}

10201 @ 오짜? {오 자?}

10201 # 영호요. {영호요.}

10201 @ 영짜 호짜 되시고요. {영 자 호 자 되시고요.}

10201 # 예. {예.}

10201 @ 그 어르신 이쪼기 토바기시라고 얘기 드런는데 그 선대 어르신드른 어디서 태어 나셨습니까? {그 어르신 이쪽이 토박이시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선대 어르신들은 어디서 태어 나셨습니까?}

10201 # 우리 지번 선조드런 저 기저 머 우리 육때조, 육때조가 해:줍미다, 황해도. {우리 집은 선조들은 저 그저 뭐 우리 육대조, 육대조가 해주입니다, 황해도.}

10201 @ 아 해주시고요. {아 해주시고요.}

10201 # 예. {예.}

10201 # 그래가주구 우리 육때조 하라버지가 여기 저 홍천 두출머닌는데 살:다가 우리 아버지 대:예 여길 드라심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육대조 할아버지가 여기 저 홍천 두촌면 있는데 살다가 우리 아버지 대에 여길 들어 왔습니다.}

10201 @ 아 아번님 대:부터 여기... {아 아버님 대부터 여기...}

10201 # 예, 전 여기 나와서 태:나구요. {예, 전 여기 나와서 태어나고요.}

10201 @ 아 어르신 아번니문 이제 이쪼게 드러오션네요, 여기. {아 어르신 아버님은 이제 이쪽에 들어오셨네요, 여기.}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여기가 주소가 어트게 됩니까?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10201 # 가원도 인:제군 남면임미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입니다.}

10201 @ 남면? {남면?}

10201 # 신남니. {신남리.}

10201 @ 옛날 신남니요, 예. {옛날 신남리요, 예.}

10201 # 이:반. {이 반.}

10201 @ 예, 여기가 이:바남니까? {예, 여기가 이 반입니까?}

10201 # 예. {예.}

10202 @ 예, 그 할머니는 그 성하미 어뜨케 되세요? {예, 그 할머니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0202 #1 전금수니요. {전금순이요.}

10202 @ 전짜 금짜 순짜 되시고요. {전 자 금 자 순 자 되시고요.}

10202 #1 예. {예.}

10202 @ 할머니도 여기서 토바기세요? {할머니도 여기서 토박이세요?}

10202 #1 전 토배근 인제 고사리래는데 거:가 토배기예요. {전 토박이는 인제 고사리라는 데 거기 가 토박이예요.}

10202 @ 아, 인제 고사래요. {아, 인제 고사리에요.}

10202 @ 어르신 거기 어르신니 그, 아번님 하라번님 그쪼게서 태어나서썩요? {어르신 거기 어르신이 그 아버님 할아버님 그 쪽에서 태어나셨어요?}

10202 #1 하라부지는 몰루고 아번니른 거그서 태어나따가 홍천 신내라고인는데 거구서 살다가 또 저 화처느로 가서 사망돼썩요. {할아버지는 모르고 아버님은 거기서 태어났다가 홍천 신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또 저 화천으로 가서 사망됐어요.}

10202 @ 아,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서 살다가 시지블 이쪼그로 오싱거예요? {아,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서 살다가 시집을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10202 #1 어, 신내요. {어, 신내요.}

10202 #1 신내, 홍천 신내라고 저:기. {신내, 홍천 신내라고 저:기.}

10202 @ 신내며닝가요? {신내면인가요?}

10202 #1 예. {예.}

10202 # 아 신내며니 아니고, 신내가, 거기 북빵며니요, 홍천 북빵면. {아 신내면이 아니고, 신내가, 거기 북방면이요, 홍천 북방면.}

10202 @ 아, 북빵면 신내. {아, 북방면 신내.}

10202 # 예. {예.}

10202 @ 거기서 인제 시지보션네요. {거기서 인제 시집오셨네요.}

10202 #1 예. {예.}

10202 @ 아. {아.}

10201 @ 그러면, 음. {그러면, 음.}

10201 @ 어르신네, 금, 하라버지, 하라번니른 홍처네서 사서썩평경가요? {어르신의, 그럼, 할아버지, 할아버님은 홍천에서 사셨던 건가요?}

10201 # 예예. {예예.}

10201 @ 홍처네 이따가 그다메 어르신... {홍천에 있다가 그담에 어르신...}

10201 # 아버지가 이제 이리 웅거지요. {아버지가 이제 이리 온 거지요.}

10201 @ 아, 이쪼그로 오싱거구요. {아, 이쪽으로 오신 거고요.}

10201 # 예. {예.}

10201 @ 어르신는 지금 이대째이시네요. {어르신은 지금 이 대째이시네요.}

10201 # 예. {예.}

10201 @ 예. {예.}

10201 @ 그럼 어르신는 인제 어디서 태어나션나요, 태어나신? {그럼 어르신은 인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10201 # 여그서 태:나심니다, 여그서 요 요기서 요짜게 우리 집 저 하우스진:데 거기 지비썩는데 거그서 태:나썩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요기서 이쪽에 우리 지금 저 하우스 지은 데 거기 집 있었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10201 @ 아 거 집, 거기. {아 거 집, 거기.}

10201 # 지금 지비 업썩요, 지금. {지금 집이 없어요, 지금.}

10201 @ 지그른 업꼬요. {지금은 없고요.}

10201 # 예. {예.}

10201 @ 예, 거기서 태어나셔서. {예, 거기서 태어나셔서.}

10201 # 여그서 쭉: 큼거지요. {여기서 쭉 큰 거지요.}

10201 @ 아, 그러며는, 음. {아, 그러면, 음.}

10201 @ 출썩은 신나미구요, 인제 여기서 인제 거주하셔썩, 그다텐 그. {출생은 신남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거주하셨고, 그담엔 그.}

10201 @ 하서뎡 그 지거븐 머 어떤니를 주로... {하셧던 그 직업은 뉼 어떤 일을 주로...}

10201 # 지거븐 머 주로 농사지요 머, 땅거 행게 업찌요, 머. {직업은 뉼 주로 농사지요, 뉼, 뎡 거 한 게 업지요, 뉼.}

10201 @ 주로. {주로.}

10201 # 예. {예.}

10201 @ 어떤 농사 지으셔썌요. {어떤 농사 지으셧어요.}

10201 # 머 논농사도 지꼬 반농사도 지꼬 여러가지 다 지어찌요, 지끼는. {뉼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여러가지 다 지었지요, 짓끼는.}

10201 @ 지그븐 지금도 논농사 지어요? {지금은 지금도 논농사 지어요?}

10201 # 지그븐 올버터븐 논농사를 안 해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논농사를 안 해요.}

10201 @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10201 # 올버텀, 금년버텀요. {올해부터, 금년부터요.}

10201 @ 아, 올버텀 안 하셔썌요. {아, 올버텀 안 하셧어요.}

10201 @ 아, 논농사는, 벼농사 지으셔썌요? {아, 논농사는, 벼농사 지으셧고요?}

10201 # 예. {예.}

10201 # 벼농사도 마이 질:썌겐 마이 지어찌요, 내가, 한참, 저 머야, 한 십, 시븐년저넨 머 노를 한 삼천평 이상 썌썌요. {벼농사도 많이 지을 적엔 많이 지었지요, 내가, 한참, 저 뉼야, 한 십, 십 오 년 전엔 뉼 논을 한 삼천 평 이상 지었어요.}

10201 @ 아, 예. {아, 예.}

10201 #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부치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부치고.}

10201 @ 네네, 아. {네네, 아.}

10201 @ 그러머는, 삼천평 부썌썌도머는 저기 이리 썌말 마느썌겐네요, 그때는. {그러머는, 삼천평 부썌 썌도면 저기 일이 썌말 많으셧썌네요, 그때는.}

10201 # 네, 그래도 머 전부터 짐 기계로 허니까 쉬:위, \*\*\* 나메 이를 가서 도와, 기계르 가주가 도와주 썌고 그래썌요, \*\*. {네, 그래도 뉼 전부터 다 지금 기계로 하니까, 쉬위, \*\*\* 남의 일을 가서 도와, 기계를 가지고 가서 도와 주고, 썌고 그랬어요, \*\*.}

10201 @ 예. {예.}

10201 @ 혹썌 그 어르신 아까 암배우셔따고 얘기헸는데 궁미나썌나 소하썌... {혹썌 그 어르신 아까 안 배우셧다고 얘기헸는데 국민학교나 소학교...}

10201 # 아이, 그르 암배워썌요. {아이, 글을 안 배웠어요.}

10201 # 하썌 마당은 가지도 아나썌요. {학교 마당은 가지도 앓았어요.}

102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 예. {예.}

10201 @ 어트게 그 가질 아느셔썌요. {어떻게 그 가지를 앓으셧어요?}

10201 # 엔:나렌 모썌르니까 하썌르 암보내찌요. {옛:날엔 못 사니까 학교를 안 보냈지요.}

10201 @ 아, 그래썌요. {아, 그랬어요.}

10201 # 머 재썌때 그 한참 모썌글썌 머 사네 송기도 베퍌머꼬 그래썌는데 하썌 보낼 히미 되나요? {뉼 왜썌 때 그 한참 못 살고 그럴 썌 뉼 산에 송구도 벗거 먹고 그랬었었는데 학교 보낼 힘이 되나요?}

10201 @ 송기요? {송기요?}

10201 # 사네 솔라무요, 껌뎡길 까서 그걸로 베퍌 머꾸 살:구 그래썌요. {산에 솔라무요, 껌뎡기를 까서 그걸로 벗거 먹고 살고 그랬어요.}

10201 @ 아, 그걸 송...? {아, 그걸 송...?}

10201 # 예, 송기라 그러지요. {예, 송구라 그러지요.}

10201 @ 송기라구요. {송구라고요.}

10201 # 예. {예.}

10201 @ 어르신 그 군대는 가따 오셔썌요. {어르신 그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10201 # 예, 구니는 가따 와썌요. {예, 군인은 갔다 왔어요.}

10201 @ 구닌, 어디 가따 오셔썌요? {군인, 어디 갔다 오셨어요?}

10201 # 군대요? {군대요?}

10201 @ 예. {예.}

10201 # 구니는 내가 짐 내 나이보다 쪼끔 호저기 느려선 좀 느께 간는데 가가준 머 여기 주로 머 마이 땡게썌요, 땡기긴 내가. {군인은 내가 지금 내 나이보다 쪼끔 호적이 느려선 좀 늦게 갔는데 가 가지고는 뭐 여기 주로 뭐 많이 다녔지요, 다니긴 내가.}

10201 # 경기도 김포도 이썌꾸 머 처룬도 가 이썌꾸, 제대할썌겐 양구가서 해:썌요. {경기도 김포도 있었고 뭐 철원도 가 있었고, 제대할 적엔 양구 가서 했어요.}

10201 # 인제, 인제: 와서 주로 마이 이썌썌요. {인제, 인제에 와서 주로 많이 있었어요.}

10201 @ 아, 군생활은 얼마나 오래 하썌썌요? {아, 군생활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0201 # 사:십썌:개월 해:썌요. {사십 사 개월 했어요.}

10201 @ 아, 사십썌:개월 이르케. {아, 사십 사 개월 이렇게.}

10201 # 예. {예.}

10201 @ 하시고. {하시고.}

10201 @ 아, 여기 이따가 이제 징집뽕:가지고 이제 군생활 하싱거네요. {아, 여기 있다가 이제 징집뽕 가지고 이제 군생활 하신 거네요.}

10201 # 예. {예.}

10201 @ 사십썌:개월 하시고 다시 이썌그로 드로싱거예요? {사십 사 개월 하시고 다시 이썌쪽으로 들어 오신 거예요?}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아. {아.}

10201 @ 어르신 혹썌 그 자제분드리 인나요? {어르신 혹시 그 자제분들이 있나요?}

10201 # 이썌요. {있지요.}

10201 @ 아, 그래요, 자제분드른 지금 가치 안 사네요. {아, 그래요, 자제분들은 지금 같이 안 사네요.}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아, 다... {아, 다...}

10201 # 망내가 장년버텨 인제 드러와이썌요, 요즈므느. {막내가 작년부터 이제 들어와 있어요, 요즘은.}

10201 @ 아, 여기예요? {아, 여기예요?}

10201 # 예. {예.}

10201 @ 아 가치 사라요, 망내? {아 같이 살아요, 막내?}

10201 # 지금 직썰에 나가 지금 이썌요. {지금 직썰에 나가 지금 있어요.}

10201 @ 아 이제 여기 가치 사시는 분뇨? {아 이제 여기 같이 사시는 분요?}

10201 # 그래. {그래.}

10201 @ 아. {아.}

10201 # 그래 손주하나 텔꾸 이꾸요. {그래 손주 하나 데리고 있고요.}



10201 @ 아 손주랑 가치, 그럼 나제는 아무도 없네요? {아 손주랑 같이, 그럼 낮에는 아무도 없네요?}

10201 # 예, 나제는 우리 둘:빠께 업썬요, 두리도 머 일라가면 저여썬 머... {예, 낮엔 우리 둘밖에 없어요, 둘이도 뭐 일 나가면 저녁 때 뭐...}

10201 @ 아, 인제 저녁썬메, 저녁썬 되시면 이제 다 드로시젠네요? {아, 이제 저녁썬에 저녁썬 되시면 이제 다 들어오시겠네요?}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예, 손주드른 어리니집 간나요? {예, 손주들은 어린이집 갔나요?}

10201 # 손주가 지금 궁미나꼬예요. {손주가 지금 국민학교예요.}

102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 이, 맏손주가 궁민하꼬 해요. {이 맏손주가 국민학교 해요.}

10201 @ 아, 그래요, 아, 그러구나.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10201 @ 그럼 어르신 자제부니 면명이 되세요? {그럼 어르신 자제분이 몇 명이 되세요?}

10201 # 용남텐데 위로 전부라 딸, 딸만 서:히가 이꼬 그다메 또 아들하나 나쿠 이따가. {용남텐데 위로 전부 다 딸, 딸말 셋이 있고 그담에 또 아들 하나 낳고 있다가.}

10201 @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10101 @ 혹씨 머 땅, 일탄 음. {혹시 뭐 땅, 일탄 음.}

10101 @ 혹씨 이 마을과 팔려내서 이 마으리 언제썬 형성됐는지 좀 알썬 인나요, 이 마으리? {혹시 이 마을과 관련해서 이 마을이 언제썬 형성됐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이 마을이?}

10101 @ 어르신 얘기 드려보신저기쓰신, 언제썬? {어르신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언제썬?}

10101 # 머 운제썬 되는지 그건 모르지 \*\*\*\*\* \*\*\*. {뭐 언제썬 되는지 그건 모르지 \*\*\*\*\* \*\*\*.}

10101 @ 예. {예.}

10103 @ 이썬게 마을 분드른 주로 어떤니를 하면서 지내세요? {이썬에 마을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세요?}

10103 # 여기 대개 머 농사이리지요 머. {여기 대개 뭐 농삿일이지요 뭐.}

10103 @ 농사일 지꾸요. {농삿일 짓고요.}

10103 # 머 공장두 읍꾸 아무거꾸 읍쓰니깐 주로 농사일. {뭐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로 농삿일.}

10103 @ 네. {네.}

10103 # 거 아주 음:는 사라몬 사네 땡기머 이렇거나 하구. {거 아주 없는 사람은 산에 다니며 이런 거나 하고.}

10103 @ 네. {네.}

10201 @ 예 그 어르신니 어르싱과 팔려뵈 거 함번 썬 여썬 불라고요, 머냐 하며는 그냥 어르신 그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해썬는데 그 어르신니 그 태생지가 어디라고 해썬요? {예 그 어르신이 어르신과 관련된 거 한번 썬 여썬 보려고요, 뭐냐 하면 그냥 어르신 그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태생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10201 # 여기예요. {여기예요.}

10201 @ 그 주소를 좀 알 썬 인나요? {그 주소를 좀 알 수 있나요?}

10201 # 알:지요, 그~이~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니 일리 이:바니이예요. {알:지요,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일리 이:반이예요.}

10201 @ 아:반, 주소 그 머야, 이:반인데 주소는 업씀니까? {아:반, 주소 그 뭐야, 이:반인데 주소는 없습니까?}

10201 # 주소가 이찌요. {주소가 있지요.}

10201 @ 아, 그 번지. {아 그 번지.}

10201 # 번지, 번지는 안 대:두 \*\*\*. {번지, 번지는 안 대:도 \*\*\*.}

10201 @ 아 번지는 업써도 여기. {아 번지는 없어도 여기.}

10201 # 어, 구십삼 번지예요. {어, 구십삼 번지예요.}

10201 @ 어르신 그, 태어나신 그, 연세가 연세가 아까 천? {어르신 그, 태어나신 그, 연세가 연세가 아까 천?}

10201 # 여든 두:리예요. {여든둘:이예요.}

10201 @ 아 켜년 생이세요? {아, 몇 년 생이세요?}

10201 # 내가 호:저겐 이:사 년생인데 고거 삼녀닐 압쎄 마찌요. {내가 호:적엔 이:사 년생인데 그 거 삼 년을 앞서야 맞지요.}

10201 @ 네, 월래 이십썩년 생인데 그 월래 나이로는 팔썩? {네, 원래 이십사 년 생인데 그 원래 나이로는 팔썩?}

10201 # 두:리요. {둘:이요.}

10201 @ 팔썩 둘, 인제. {팔썩 둘, 이제.}

10201 # 두:리고 근테 세:사리 느러서 이사년 새~이~ 돼:찌요. {둘이고 근테 세: 살이 늘어서 이사년 생이 됐지요.}

10201 @ 거 호:저게는 팔썩보: 세로 돼 이꼬 실쎄 나이는? {그 호:적에는 팔썩오: 세로 돼 있고 실쎄 나이는?}

10201 # 두:리요. {둘:이요.}

10201 @ 팔썩? {팔썩?}

10201 # 둘:. {둘:.}

10201 @ 네. {네.}

10201 @ 어르시는 그럼 어디서 주로 성장을 하셔씀니까? {어르신은 그럼 어디서 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10201 # 아 여그서 사라쎄요. {아 여기서 살았어요.}

10201 @ 학교는? {학교는?}

10201 # 학교는 안 댁기구요. {학교는 안 다니고요.}

10201 @ 어르신 그 지거비 이썩씀니까, 지거븐 어떻 거 어떻 거 해 보셔쎄요? {어르신 그 직업이 있썩습니까, 직업은 어떤 거 어떤 거 해 보셨어요?}

10201 # 머 행 게 머, 주로 농사일만 해:찌요, 머. {뭐 한 것이 뭐, 주로 농사일만 했:지요, 뭐.}

10201 @ 언제부터? {언제부터?}

10201 # 아 어려서버텀 아주 계속캥 거예찌 머. {아 어려서부터 아주 계속한 거였지 뭐.}

10201 @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10201 # 예. {예.}

10201 @ 어려서부터 여기서 썩:: 나고 자라쎄능 거조? {어려서부터 여기서 썩:: 나고 자라신 거쥌?}

10201 # 네. {네.}

10201 @ 부몬님에 고향이 어디라고 하쎄나요?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쎄나요?}

10201 # 흥쳐니요. {흥천이요.}

10201 @ 흥천군? {흥천군?}

10201 # 두촌면. {두촌면.}

10201 @ 두촌. {두촌.}

10201 # 두촌면 원동니. {두촌면 원동리.}

10201 @ 원동니요. {원동리요.}

10201 # 네. {네.}

10201 @ 부몬니든 무슨 니를 하셔썬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10201 # 농사이리예요. {농사일이예요.}@ 할머니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셴나요? {할머니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셴나요?}

10201 #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요?}

10201 @ 네. {네.}

10201 # 우리 어머니든 여기 출신이라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출신이예요.}

10201 # 여그서 시지블 원동으루 가따가 처가집 부그느루, 그 이 아무거뚜 읍씨까 이리 이사로 웅 거예요. {여기서 시집을 원동으로 갔다가 처가집 부근으로, 그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리 이사를 온 거예요.}

10202 @ 아 할머니 원래 태어남 고슨 인제가요? {아 할머니 원래 태어난 곳은 인제인가요?}

10202 # 인제지요. {인제지요.}

10202 @ 인제에서 태어 나서따가 그다메?: {인제에서 태어 나셨다가 그답에?:}

10202 # 여, 도라가실 때 여그 와서 도라가싱 거지요. {여기, 돌아가실 때 여기 와서 돌아가신 거지요.}

10202 # 시지븐 원도~으~루 가따가 원동씨 인제 이리 이살 와 가지구. {시집은 원동으로 갔다가 원동에서 인제 이리 이사를 와 가지고.}

10202 @ 아, 어르신네 어머니는 그 인제 부니시네요. {아, 어르신의 어머니는 그 인제 분이시네요.}

10202 # 예. {예.}

10202 @ 그다메 요게 인제, 어르신은 여기 지금 할머니랑 겨론하셔짜나요, 언제썬, 이 할머니는 어제 홍천 부니라고 하셔땡 거 가튼데? {그답에 요게 이제, 어르신은 여기 지금 할머니랑 결혼하셨잖아요, 언제썬 이 할머니는 어제 홍천 분이라고 하셴던 것 같은데?}

10202 # 인제, 인제서 고사리래든 데서 태:나 가지구 홍천, 그래~이~까 신 니 꼴짜 가네서 가 커썬, 크기를. {인제, 인제에서 고사리라는 데서 태어 나 가지고 홍천, 그러니까 신 리 꼴짜 안에서 가 썬지요, 크기를.}

10202 @ 크다가 이제 다시 인제로 시집, 다시 오셴네요 고향으로? {크다가 이제 다시 인제로 시집, 다시 오셴네요, 고향으로?}

10202 # 아 원청언 저 양구루 시지벌 가썬썬요. {아 원래는 저 양구로 시집을 갔었어요.}

102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2 # 예 양구루 시지벌 가가주구 양구서 남편이 죽꾸 그다메 나한테루 또 웅 거지요. {예 양구로 시집을 가 가지고 양구서 남편이 죽고 그답에 나한테로 또 온 거지요.}

10202 @ 아 그렇 거구나 예. {아 그런 거구나 예.}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 어르신 그 여기 장례 절차 가튼 거또, 장례 가튼, 마니 치러 보썬썬니까, 여기 동네에서? {어르신 그 여기 장례 절차 같은 것도, 장례 같은, 많이 치러 보썬썬니까, 여기 동네에서?}

10226 # 그 치루지요. {그것 치르지요.}

10226 @ 그럴 때 사라미 주구며는 그 장례를 치르자나요, 장례 치르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인나요? {그럴 때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10226 # 여기가 보:통 사밀장으루 지내지요, 사밀장으루 지내는데 우리 동네가 모여서 이, 지금 우리두 쌀 한 되씩. {여기가 보:통 삼일장으로 지내지요, 삼일장으로 지내는데 우리 동네가 모여서, 이, 지금 우리도 쌀 한 되씩.}

### 1.3. 생업 활동

#### 1.3.1. 논농사

10301 @ 그 논농사 지을 때 그 노네 인제 농사를 진, 진는 경우가 인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베가튼경우에 품종이 여러가지 이짜나요, 어떻거시 이썬나요 예저네는 논농사 지을때? {그 논농사 지을 때 그 논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벼 같은 경우에 품종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논농사 지을 때?}

10301 # 예::나레 우리 어려서는 저거 이 제정때는 기계가 업씨니까 태를 쳐서 이러케 털:게 \*\* 녹뚜베래능게 꺼:치래요, 찌리타낭게 인는데 이르케 사:라미 들머서서 떠러썬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저거 이 왜정 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태를 쳐서 이렇게 털게 \*\* 녹두벼라는 게 꺼칠해요, 기다란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고 서서 떨었습니다.}

10301 @ 예. {예.}

10301 # 고 뒤로 또 일본사라미 나와가주고 할찌게 탈구끼라구 발루 디더서 이러케 터:는 기계가. {그 뒤로 또 일본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할 적에 탈곡기라고 발로 디더서 이렇게 터:는 기계가.

10301 # 고때버텀 귀가 좀 찢리능게 그때 는뉴구라구 그걸 해구, 는뉴구, 올류구래는 벼를 해가주 허구 지그른... {그때부터 귀가 좀 찢리는 게 그때 늦유구라고 그걸 하고, 늦유구, 올유구라는 벼를 해 가지고 허고 지금은...}

10301 @ 는? {늦?}

10301 # 는뉴구 올:류구. {늦유구 올:유구.}

10301 @ 는뉴구가 머예요? {늦유구가 뭐예요?}

10301 # 베 이르미래요. {벼 이름이에요.}

10301 @ 아. {아.}

10301 # 벼 이르미 는뉴구 올류구 인제 그르케 우리가 불려썬요. {벼 이름이 늦유구 올유구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렀어요.}

10301 @ 아 는뉴구 올류구. {아 늦유구 올유구.}

10301 # 예예. {예예.}

10301 @ 예 그건 어떤 일본? {예 그건 어떤 일본?}

10301 # 예예 제정때요. {예예 왜정 때요.}

103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1 # 예. {예.}

10301 # 그리구 지금 나와서는 우리가 유기오난 후:는 여라가지 하다가 쯔 머 토일베두 허구 머 이르케 하다가 그래 이, 그때는 싸리 읍씨니까 통일벨 수황마이 나능거슬 하다가 지그른 점부라 오:대베 해요 아주. {그리고 지금 나와서는 우리가 육이오 난 이후는 여라가지 하다가 쯔 뭐 통일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 그때는 쌀이 없으니까 통일벼를 수확 많이 나는 것을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오대베 해요 아주.}

10301 @ 오대베요? {오대벼요?}

10301 # 예. {예.}

10301 # 지그른 오대베만 아라주자나, 싸를 파라무거두 그거여야 팔지 여느헐 팔지를 못해요. {지금은 오대벼만 알아주잖아, 쌀을 팔아 먹어도 그거여야 팔지 여느 것은 팔지를 못 해요.}

10301 @ 아. {아.}

10301 @ 그게 젤: 조은 모양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모양이에요?}

10301 # 예. {예.}

10302 @ 근데 어르신 인제 벼농사 지어짤습니까, 그 지을 때 그 과정을 이제 잘 모르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참부터 쪽:: 설명해 주실쥬 이쨌세요? {근데 어르신 이제 벼농사 지었잖습니까, 그 지을 때 그 과정을 이제 잘 모르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쪽::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302 @ 처음 인제 농사를 지을 때는 지으려면 먼저 밭 쟈 먼저 해야 됩니까, 인제? {처음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지으려면 먼저 밭 쟈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10302 # 쟈: 먼저는 농가리 해노쿠 그다메 벼씨 당구능게 쟈: 먼저지요. {제일 먼저는 논같이 해 놓고 그답에 벼씨 담그는 게 제일 먼저지요.}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예. {예.}

10302 @ 노늘 어트게 한다고요, 노늘? {논을 어떻게 한다고요, 논을?}

10302 # 노는 아이노늘 가라놔:요, 가라노코 벼씨를 당귀노쿠선. {논을 아이 논을 갈아 놔:요, 갈아 놓고 벼씨를 담귀 놓고선.}

10302 @ 멀로 가라 노썰니까? {멀로 갈아 농습니까?}

10302 #1 겨웅기루 갈:지요. {경운기로 갈:지요.}

10302 # 아, 옴:나렌 수루 갈:지. {아, 옴:날엔 소로 갈:지.}

10302 #1 옴:나렌 소루 가라. {옴:날엔 소로 갈아.}

10302 # 지금 겨웅기루 갈:구 지금 트랙터지만 옴:나렌 소루 이르케 가라썰다, 소두바릴 해가주구. {지금 경운기로 갈:고 지금 트랙터지만 옴:날엔 소로 이렇게 갈았습시다, 소 두 마리 해 가지고.}

10302 @ 네. {네.}

10302 @ 소 두마리 해가주구 이제. {소 두 마리 해 가지고 이제.}

10302 # 예, 머가주구 이러마라 이러케 소릴 질러가미. {예, 메 가지고 이러 마라 이렇게 소릴 질러 가며.}

10302 @ 예예. {예예.}

10302 #1 하하하하. {하하하하.}

10302 @ 그래 인제 보통 그 이게 소를 이러케 함 쫓 힘들잔습니까, 그러케 갈고나서 아이 갈고나서 그다메? {그래 이제 보통 그 이게 소를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습니까, 그렇게 갈고 나서 아이 갈고 나서 그답에?}

10302 # 그다메는 인제 모자릴 할라문 무를 대:고 그 또 쓰:레래능게 이쨌요, 쓰:레로 소두바릴 메워가주구 이르케 하구선 거그다 이제 인나렌 모자릴 가따 저 벼씨를 가따 빨게짜나야, 빨겅겅 가따 막 뿌레쨌요. {그답에는 이제 모자릴 하려면 물을 대:고 그 또 써:레라는 게 이쨌요, 써:레로 소두 마리를 메 가지고 이렇게 하고선 거기다 이제 옛날엔 못자리를 갖다 저 벼씨를 갖다 불렀잖아요, 불린 걸 갖다 막 뿌렸어요.}

10302 @ 아. {아.}

10302 # 뿌레노, 뿌레노코 이따가 고다:메는 또 일본싸라미 개:령이 돼가주구 요 팡기를 맨드러쨌요. {뿌려놓, 뿌려놓고 있다가 그답에는 또 일본 사람이 개:량이 돼 가지고 요 판을 만들었잖아요.}

10302 @ 판때기요? {판때기요?}

10302 # 예. {예.}

10302 # 요러케 쪽:: 이러케 주를 그꾸 고그다 뷔:서 이러케 맨들고. {요렇게 쪽:: 이렇게 줄을 굵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만들고.}

10302 @ 그럼 벼씨는 언제 아까 벼씨 고른다는거는 언제 합니까? {그럼 벼씨는 언제 아까 벼씨 고른다는 거는 언제 합니까?}

10302 # 벼씨는 대:개 머 양여그로는 사:월 초수네 인제 빨기지요. {벼씨는 대:개 뭐 양력으로로는

사: 월 초순에 이제 불리지요.}

10302 @ 아. {아.}

10302 # 양여그로 사:월 초순이에요. {양력으로 사: 월 초순이에요.}

10302 @ 빨긴다고요? {불린다고요?}

10302 # 예 무레다 당귀서 뿌려야 인제. {예 물에다 담가서 불어야 이제.}

10302 @ 아 뿌려야 되니까, 빨려가주고 그다메 어떠케 합니까 빨려노코 난 그거를? {아 불어야 되니까, 불려 가지고 그담에 어떻게 합니까 불려 놓고 난 그거를?}

10302 # 그 뿌려난 다메 인제 미칠 된 다메 건져가주구 노네다 거따 뿌려써요 엔:나레. {그 불어 난 담에 이제 며칠 된 다음에 건져 가지고 논에다 갖다 뿌렸어요 옛:날에.}

10302 @ 아이맨 아이논... {아이 맨 아이 논...}

10302 # 예예예. {예예예.}

10302 # 쓰:레로 이래 싹:: 공군 다:메 사라미 공과노코 뿌리고 고다:메 일본싸라미 나와쓰찌게는 요거를 쪽:: 주를 매고선 \*\*\*\* 파고 이러케 편::하게 공구구선 고기다 뿌려써쪄. {쓰레로 이렇게 싹:: 고른 다음에 사람이 고르게 해 놓고 뿌리고 그담에 일본 사람이 나왔을 적에는 요거를 쪽:: 줄을 매고선 \*\*\*\* 파고 이렇게 편편하게 고르고선 거기다 뿌렸었쪄.}

10302 @ 인제 뿌릴 때 그 이게 아까 쓰:레로 하고 나서 거다가 인제 뱍씨를 뿌리자나요 그리고 이제 논 갈: 때는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노를 가능거든? {이제 뿌릴 때 그 이게 아까 쓰:레로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뱍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 갈: 때는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논 을 가는 거는?}

# 시기는 이 느지만 노네 푸리 나고 딱딱하고 이르게 \*니까 이 해:토하믄\*\* 가능케 젤: 히미 좀 덜:들고 그래써요. {시기는 이 늦으면 논에 풀이 나고 딱딱하고 이렇게 \*니까 이 해:토하면\*\* 가는 게 제일 힘이 좀 덜: 들고 그랬어요.}}

10302 @ 해토하며는 간다고요? {해토하면 간다고요?}

10302 # 예 겨우레는 땅이 빠::작 어러따가 이제 노구먼 그때 갈:면 히미 좀 안들거등. {예 겨울에 는 땅이 바::작 얼었다가 이제 녹으면 그때 갈:면 힘이 좀 안 들거든.}

10302 @ 그 시기가 한 언제쯤 됩니까? {그 시기가 한 언제쯤 됩니까?}

10302 # 그게 머 사멸말쯤 되지요. {그게 뭐 삼월 말쯤 되지요.}

10302 @ 아 사멸말 경에 해서. {아 삼월 말 경에 해서.}

10302 @ 그다메 인제 그 그담 모파늘 또 만드러씀니까, 엔나레도 이쨌나요? {그담에 이제 그 그 담 모판을 또 만들었습니까?}

10302 # 엔:나렌 그세 땅에 요러케 \*\*\* 이러케 무레다 피안하게 공구고서는 기양 벼씨를 뿌려써 요. {옛:날엔 글썽 땅에 요렇게 \*\*\* 이렇게 물에다 편편하게 고르고서는 그냥 벼씨를 뿌렸어요.}

10302 @ 그걸 머라고 합니까 엔나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10302 # 그걸 모자리한다 그래능거지. {그걸 못자리한다 그러는 거지.}

10302 @ 아. {아.}

10302 @ 엔나레는 그러케 모자리를 해노코 나서 인제 모자리 인제 벼씨를 먼저 뿌리능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자리를 해 놓고 나서 이제 못자리 이제 벼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10302 # 예. {예.}

10302 @ 뿌리고 나서 그다메 예저넌 그러케 헛는데 그다메 최그네 와서는 모파느로? {뿌리고 나서 그담에 예전엔 그렇게 헛는데 그담에 최근에 와서는 모판으로?}

10302 # 지그믄 지금 모파느로 해:서 딱:: 이러케 해서 씨 벼씨를 너서 기냥 가따 느:믄 모가 잘 자라자나요. {지금은 지금 모판으로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씨 벼씨를 넣어서 그냥 갖다 넣으면 모 가 잘 자라잖아요.}

10302 @ 예. {예.}

10302 @ 이제 모파늘 만드려 노코 그다메 인제 그거를 이제, 그러며는 모파늘 만드려서 이제 그거를 노네 가져다가 인제 심는데 심끼저네 법씨를 언제 뿌려쪄? {이제 모파늘 만들어 놓고 그답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모파늘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논에 가져다가 이제 심는데 심기 전에 법씨를 언제 뿌렸쪄?}

10302 # 저기 모파네 넌능거요? {저기 모파네 넣는 거요?}

10302 @ 네네. {네네.}

10302 # 모파네 넌능건 지금 사월 시빌서버터 이시빌겨정 캐:요, 여기선. {모파네 넣는 건 지금 사월 십 일서부터 이십 일까지 캐:요, 여기선 }

10302 @ 아 캔다고요. {아 캔다고요.}

10302 # 예. {예.}

10302 @ 그걸 캐가주고 이제 노네다가 심짜나요, 그 혼자 심나요? {그걸 캐 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심잖아요, 그 혼자 심나요?}

10302 # 심:능거는 머 혼자도 시물수 이꾸 그언 머 한사라물 \*\* 해줄수두 이꾸 심:능건 기계가 하니까 지그몬. {심는 거는 뭐 혼자도 심을 수 있고 그건 뭐 한 사람을 \*\* 해 줄 수도 있고 심는 건 기계가 하니까 지금은.}

10302 @ 아. {아.}

10302 @ 그걸 이제 멀 한다고 합니까? {그걸 이제 뭘 한다고 합니까?}

10302 # 걸 이:양이라 그러지 그거, 모 내:능거는. {그걸 이양이라 그러지 그거, 모 내는 거는.}

10302 @ 아 모내능거요. {아 모내는 거요.}

10302 @ 그러케 그 모내고 모낼때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가치 이러케 하능거예요? {그렇게 그 모내고 모낼 때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302 # 에이, 엔:나렌 그랜는데 지그몬 앙그래요. {에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10302 @ 엔나레는 어뜨케 해췄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2 # 엔나렌 이 소누로 이르게 하나하나 시무니까 동네 사라므 으:더가주 이르게 시머짜나요. {옛날엔 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으니까 동네 사람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심었잖아요.}

10302 # 지그몬 기계가 허니까 기계 혼자서 머 엔:나레 수무명 허딩걸 혼자 다 하니까요. {지금은 기계가 하니까 기계 혼자서 뭐 옛:날에 스무 명 하던 걸 혼자 다 하니까요.}

10302 @ 수무명 하딩거를료? {스무 명 하던 거를요?}

10302 # 예. {예.}

10302 @ 제가 인제 여쭙보능거 인제 엔날 말고 아 지금 말고 엔나레는 이제 어뜨케 한는지 고령 건만 이르게 쫘. {제가 이제 여쭙 보는 거 이제 옛날 말고 아 지금 말고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만 이렇게 쫘.}

10302 # 엔:나레는 모 하랄 시물라른 동네싸라물 다: 일:과서 땡기민 은췌니다, 어:더가지구. {옛:날에는 모 하루를 심으려면 동네 사람을 다: \*\*\*\* 다니면서 얻습니다, 얻어 가지고.}

10302 # 또 사라미 마:느니까 밥또 여자드리 혼자 못하자나요 \*\* 여자드리 푸마시르 해가주구 가치 이 푸마시래능게 그 집 일할쩌게 내가 가 도와주구 또 서로가 이래 도와주구 이러케 해췌니다. {또 사람이 많으니까 밥도 여자들이 혼자 못 하잖아요 \*\* 여자들이 품앗이를 해 가지고 같이 이 품앗이라는 게 그 집 일할 켜에 내가 가 도와 주고 또 서로가 이렇게 도와 주고 이렇게 했췌니다.}

10302 @ 예. {예.}

10302 @ 그러케 그러면 그 참 서로 도와가면서 오느른 우리집 하고 다:멘 판 집 하고 그러면 그 지비 이게 어떻 경우는 내꺼는 적꼬 판 집께 마:능 경우는 그러며는 푸마시를 하고. {그렇게 그러



면 그 참 서로 도와 가면서 오늘은 우리집 하고 답:엔 탄 집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이게 어떤 경우는 내 것은 적고 탄 집 것이 많은 경우는 그러면 품앗이를 하고.}

10302 # 아 푸마시라능게 그때는 인제 노니 즉:꼬 이런 사라몬 풍까쓸 주능거지요. {아 품앗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논이 적:고 이런 사람은 품값을 주는 거지요.}

10302 @ 아 풍갑쓸 줘니까? {아 품값을 줘니까?}

10302 # 예. {예.}

10302 @ 예 풍갑쓴 한 어느 정도 주...? {예 품값은 한 어느 정도 주...?}

10302 # 아 엔:나렌 풍갑씨 머 지금또:느루 마:넌 쟁도두 안 될꺼요 지금똥 움는데도. {아 옛날에 품값이 뭐 지금 돈:으로 만: 원 정도도 안 될 거요 지금 돈 없는데도.}

10302 # 쌀 머 저 서:되 두:되 이러케배게 안주구 엔:나렌 해씨요, 지그몬 품 하나 가꼬 \*몬 씨리 담말씩 넘짜나요, 엔:나렌 그래씨요. {쌀 뭇 저 석: 되 두: 되 이렇게 밖에 안 주고 옛:날엔 했어요, 지금은 품 하나 갖고 \*면 쌀이 닷 말씩 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10303 @ 아 예, 그다메 그 아까 뽕씨 뿌리고 이제 모를 모를 길러야 되잔씀니까, 모를 이제 아, 시를 때 요 주를 이러케 예저네도 줄, 주리. {아 예, 그담에 그 아까 뽕씨 뿌리고 이제 모를 모를 길러야 되잖습니까, 모를 이제 아, 심을 때 요 줄을 이렇게 예전에도 줄, 줄이.}

10303 # 예예. {예예.}

10303 #1 모쭈 이제 머. {못줄 있지 뭐.}

10303 @ 모쭈를 인제 딱 고정시켜 노코. {못줄을 이제 딱 고정시켜 놓고.}

10303 # 예 이러케 하몬 요거 요만큼씩 해 빨가케 요러케 매:씨요. {예 이렇게 하면 요거 요만큼씩 해 빨강게 요렇게 매었어요.}

10303 # 그래 고기다 꼬지라구 인제, 거꾸 우리 엔:나렌 그게 읍:씨꾸요, 그거꾸 일본사لامي 맨드러 놓거지요. {그래 고기다 꽃으라고 이제, 것도 우리 옛:날엔 그게 없었고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요.}

10303 @ 예저네는 그럼 머 어떠케 해씀니까? {예전에는 그럼 뭐 어떻게 했습니까?}

10303 # 엔:나렌 기냥 줄두 업씨 막 기냥 꼬자씨요, 아주 엔:나렌. {옛:날엔 그냥 줄도 없이 막 그냥 꽃았어요, 아주 옛:날엔.}

10303 @ 아 그냥 줄 업씨 그냥. {아 그냥 줄 없이, 그냥.}

10303 # 그냥 막 이래. {그냥 막 이래.}

10303 # 그애 어떤 잘 심는 사라몬 제대로 심:는 사لامي 이꼬 어떤 사람 이만큼씩 심:꾸 머. {그래 어떤 잘 심는 사람은 제대로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만큼씩 심:고 뭐.}

10303 @ 예. {예.}

10302 @ 그러면 이제 모를 기를 때 이제 아까 얘기해뎡거처럼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인제 모를 이케 그걸 딸: 한다고 모내기를 하잔씀니까,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다메 인제 어트케 길러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제 모를 기를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모를 이렇게 그걸 딸 한다고 모내기를 하잖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담에 이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거를?}

10302 # 그다멘 물 대:구 길르구 엔:나렌 이 머야. {그담엔 물 대:고 기르고 옛날엔 이 머야.}

10302 @ 처메는 이제 무리 이러케 차 이잔씀니까,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나뉘야 됩니까 자랄 때까지? {침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잖습니까,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놔 뉘야 됩니까 자랄 때까지?}

10302 # 그러치 그르케 늘 물 \*\*는 무를 자꾸 대:민서 그다메 멀 허느냐 하면 논매기를 해이 돼요. {그렇지 그렇게 늘 물\*\*는 물을 자꾸 대:면서 그담에 멀 하느냐 하면 논매기를 해야 돼요.}

10302 @ 아. {아.}

10302 # 엔나라는 지그른 저 야그루 전부라 저 푸를 잡는데 엔:나란 호미루 이르케 풀 매이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저 약으로 전부 다 저 풀을 잡는데 옛:날엔 호미로 이렇게 풀 매야 돼요.}

10302 @ 네. {네.}

10302 # 논두. {논도.}

10302 @ 예. {예.}

10304 @ 고 호미도 종늬가 이편데요 보니까. {그 호미도 종류가 있던데요 보니까.}

10304 # 예. {예.}

10304 # 호미가 이 저 이르케 넘적항게 이꾸 이 이케 잘릉게 이꾸, 이게 이 지름항걸 해이 돼요,  
 넘적항 그건 등저무라능건 그건 모써요. {호미가 이 저 이렇게 넘적한 게 있고 이렇게 짧은 게 있  
 고, 이게 이 기다란 걸 해야 돼요, 넘적한 그건 등저무라는 건 그건 못 써요.}

10304 @ 아 왜? {아 왜?}

10304 # 외기 허무래능게 이꾸 등저무래능거 이르케 양짜그루 이러케 \*\*\* 그건 모써요. {외기호미  
 라는 게 있고 등저무라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 그건 못 써요.}

10304 @ 여기는 호미라 호미보다 호맹이라는 말 마니 쓰던데요. {여기는 호미라 호미보다 호맹이  
 라는 말 많이 쓰던데요.}

10304 # 예 호미라 그래요. {예 호미라 그래요.}

10304 @ 예? {예?}

10304 # 호미라 그래요. {호미라 그래요.}

10304 @ 호미요? {호미요?}

10304 # 예. {예.}

10304 @ 머 호맹이라는 마:른 마니 안쓰나요? {뭐 호맹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나요?}

10304 # 예. {예.}

10304 # 전부라 그 호미라 그래지요. {전부 다 그 호미라 그러지요.}

10304 @ 아. {아.}

10304 #1 호매이도 저 별쇠 호매이 저가주 짐:, 논 매:찌 멀. {호미도 저 별쇠 호미 저거 가지고  
 감:, 논 맏:지 뭇.}

10304 # 논매는 유기 호미, 유기,그 귀작. {논 매는 유기 호미, 유기, 그 귀작.}

10304 #1 그거 별쇠 호매이라 그러지. {그거 별쇠 호미라 그러지.}

10304 # 응. {응.}

10304 # 거 유기호미유. {그거 유기호미요.}

10304 @ 아 예. {아 예.}

10304 @ 근데 이제 이 사투리 중에서 여기 호미라고 하잔씀니까, 저기 어떤 부는 호맹이라고 하  
 던데요? {근데 이제 이 사투리 중에서 어기 호미라고 하잖습니까, 저기 어떤 분은 호맹이라고 하  
 던데요?}

10304 # 하하, 호미라 그래요. {하하, 호미라 그래요.}

10304 @ 아. {아.}

10304 #1 사투리 머 여러가지 씨니깐뇨 하하하. {사투리 뭐 여러가지 쓰니까요 하하하.}

10304 @ 어르신은 그냥 호미라고 그냥. {어르신은 그냥 호미라고 그냥.}

10304 # 어. {응.}

10304 @ 예. {예.}

10302 @ 그다:매 그 인제 그 베 진는 과정이 인제 무를 대:고 짐: 매고 그다매 모찌능거는 뭇가  
 요? {그담:에 그 이제 그 벼 짓는 과정이 이제 물을 대:고 짐: 매고 그담에 모찌는 거는 뭇가요?}

10302 # 예? {예?}

10302 @ 모찌능거는? {모 찌는 거는?}

10302 # 모찌능거요, 그거는 모 내, 이르게 길러 아까 얘기해짜나요, 길러 가주고 사라미 소느루 가따 시물라른 모를 하나하나 뽐바요. {모 찌는 거는요, 그거는 모 내, 이렇게 길러 아까 얘기했잖 아요, 길러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갖다 심으려면 모를 하나하나 뽐아요.}

10302 # 뽐바서 이러케 부뜨러 매 가주구 시물 때 이러케 빼:서 심능거지요. {뽐아서 이렇게 붙들 어 매 가지고 심을 때 이렇게 빼:서 심는 거지요.}

10302 @ 예 그걸 모찐다 그럼니까? {예 그걸 모 찐다 그럼니까?}

10302 # 예 그걸 모찌능거라 그래요. {예 그걸 모 찌는 거라 그래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다메 인제 모를 저나르고 그다메 이제 김을 매고 나서 이제 그다메 가으리 되며는 고 거를? {그담에 이제 모를 저 나르고 그담에 이제 김을 매고 나서 이제 그담에 가을이 되면 그거 를?}

10302 # 인제 나스로 또 비:야지요. {이제 낮으로 또 베:야지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리고 나서 이제 베: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 가지고?}

10302 # 또 막 무꺼야지요, 이리 봐:서 무꺼가주구 또 말린 다:메 이 \*\*\*\* 이제 갈게 인제 베를 터:능거야. {또 막 묶어야지요, 이리 모아서 묶어 가지고 또 말린 다음에 이 \*\*\*\* 이제 가을에 이제 벼를 터는 거야.}

10302 @ 아 예. {아 예.}

10302 @ 그 엔나레 인는데 지금 말고 엔나레는 모내기할 때 그 방버비나 절차가통거뜨를 조금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이썬요, 아까 방금 고러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인 제 정말 모르는 사람, 저가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트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이썬까요? {그 옛날에 있는데 지금 말고 옛날에는 모내기할 때 그 방법이나 절차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정말 모 르는 사람,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요?}

10302 @ 어르신 인제 계절별로 아 이 계절에는 먼저 내가 이런 이를 해꼬 저런 이를 해꼬 하는 거를 계절별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아까 벼씨를 뿌리기 저네 멀 하나며는 그 벼씨 뿌리 기 저네 바를 갈자나요? {어르신 이제 계절별로 아 이 계절에는 먼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하는 거를 계절별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아까 벼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하나면 그 벼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잖아요?}

10302 # 예예 노를 갈:지요. {예예 논을 갈:지요.}

10302 @ 아 노를 갈:자나요, 노는 한 면 언제쯤 갈:지요, 해:토가 되능게? {아 논을 갈잖아요, 논은 한 몇 언제쯤 갈:지요, 해:토가 되는 게?}

10302 # 해:토하른 놀러 일찍 가는사람 일찍 놀러 가는 사람 이꾸 어떤 사라른 느께두 가:는 사람 두 이꾸 머 대중이 읍쭈다 그거는. {해:토하면 바로 일찍 가는 사람 일찍 바로 가는 사람 있고 어 떤 사람은 늦게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대중이 없어요 그거는.}

10302 @ 엽는데 보통은 며뒤레 주로 하나요? {없는데 보통은 몇 월에 주로 하나요?}

10302 # 보:통 사월따레 양너그루 지금 사월따레 젤: 마니 가:능거지요. {보:통 사 월달에 양력으 로 지금 사 월달에 제일 많이 가:는 거지요.}

10304 @ 예 양너 사월따레 이제 갈때 아까 얘기 해:던 것처럼 소 두바리 가주고 뭇로 이러케 갑: 니까, 갈: 때? {예 양력 사 월달에 이제 갈 때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소 두 마리 가지고 뭇로 이 렇게 갑:니까, 갈: 때?}

10304 # 그게 연장이라구 인는데 그걸 저 바까능거는 흑찌라 그러구 농가능거는 보가래 그래요.

{그게 연장이라고 있는데 그걸 저 밭 가는 거는 흑지라 그러고 논 가는 거는 보구래 그래요.}

10304 # 보가래에다 이르게 저 쇠주글 달구 여기다 호기 또 너머가게 이런 쇠가 또 하나 달래 이썬요. {보구래에다 이렇게 저 쇠를 달고 여기에다 흙이 또 넘어 가게 이런 쇠가 또 하나 달려 있어요.}

10304 @ 아. {아.}

10304 # 그래가주 가라요. {그래 가지고 갈아요.}

10304 @ 음. {음.}

10304 @ 그 농갈때는 보가래로 하고 반갈때는? {그 논 갈 때는 보구래로 하고 밭 갈 때는?}

10304 # 흑찌라 그래능게 이썬요. {흑지라 그러는 게 있어요.}

10304 @ 흑찌가튼. {흑지 같은.}

10304 @ 제리라능거또 인나요? {겨리라는 것도 있나요?}

10304 # 제리라능건 소 두:바리랄 가주고 겨리라 그래요, 두, 한 자. {겨리라는 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겨리라 그래요, 두, 한 자.}

10304 # 하 혼자 대고느 모까르니까. {혼자 대고느 못 가:니까.}

10304 @ 아 혼자 하나 갈, 소 한 바리로 갈 경우에. {혼자 하나 갈, 소 한 마리로 갈 경우에.}

10304 # 여기는 모까라요. {여기는 못 갈아요.}

10304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4 # 인제 여기 땅은 땅이 구드민 도:리 마느니까 혼자 끌:질 모태요. {인제 여기 땅은 땅이 굳으면 돌:이 많으니까 혼자 끌:지를 못 해요.}

10304 @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두바리로 그거를 두바리로 이르게 끄는 거를, 흑?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두 마리로 그거를 두 마리로 이렇게 끄는 거를, 흑?}

10304 # 흑, 이 농가:능 건 보가래고 저 받까:능건 흑찌라 그래요. {흑, 이 논 가는 건 보구래고 저 밭 가:는 건 흑지라 그래요.}

10304 @ 흑찌요? {흑지요?}

10304 # 예. {예.}

10304 @ 아 예. {아 예.}

10302 @ 그러며는 인제 고러케 이제 농갈때 보가래로 가:네요, 보가래로 이러케 둘러 이게 머조, 노늘 이러케 쪽 갈자나요 노늘 이러케 가는데 노늘 갈고 나서 그다메 첨 가능거를 머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논 갈 때 보구래로 가:네요, 보구래로 이렇게 둘러 이게 뭐죠, 논을 이렇게 쪽 갈잖아요, 논을 이렇게 가는데 논을 갈고 나서 그다메 첨 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10302 # 아이논 가능거지요. {아이 논 가는 거지요.}

10302 @ 아이논 갈고 그 아이논 갈고 그다메 또또 감:니까 아니며는? {아이 논 갈고 그 아이 논 갈고 그다메 또또 감:니까 아니면?}

10302 # 그다메는 인제 모낼때 가서 물때:구 인제. {그다메는 이제 모낼 때 가서 물 대:고 이제.}

10302 @ 아 그럼 아이노늘 먼저 갈면 그때는 노네 무리 업짜나요. {아 그럼 아이 논을 먼저 갈면 그때는 논에 물이 없잖아요.}

10302 # 예 무리 음:능거 갈지. {예 물이 없는 거 갈지.}

10302 @ 무릅씨 인제 쪽 갈고 나서 그다메는 머합니까, 무를 땀니까? {물 없이 이제 쪽 갈고 나서 그다메는 뭐합니까, 물을 땀니까?}

10302 # 물 안 대:지요 기양 뒤따가 모낼때 무를 대:지요. {물 안 대:지요 그냥 뒹다가 모낼 때 물을 대:지요.}

10302 @ 아 모내기 저네. {아 모내기 전에.}

10302 # 예, 모낼 때가 되든 인제 무를 대:따가 이 보가래루 이제. {예, 모낼 때가 되면 이제 물을

땀:다가 이 보구래로 이제.}

10302 @ 무를 이제 노네 무리 찰랑찰랑 찰 정도로 무를 쭉 대고 나서 그다메 인제 다시 한번 가:능경가요? {물을 이제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물을 쭉 대고 나서 그담에 이제 다시 한번 가는 건가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래 갈:구 나서 그다메 쓰:레를 또 공과이 돼요. {그래 갈:고 나서 그담에 써:레를 또 골라야 돼요.}

10302 @ 아. {아.}

10302 # 쓰:레능게 이썬요. {써:레라는 게 있어요.}

10302 @ 아 그러며는 보가래로 한번 죽:: 갈고 그다메 쓰:레로. {아 그러면 보구래로 한번 죽:: 갈고 그담에 써:레로.}

10302 # 예 고건 노를 피안하게 공구지요. {예 그건 논을 편편하게 고르지요.}

10302 @ 예 이르게 죽:: 공구고 그 다메는 번지가 이썬? {예 이렇게 죽:: 고르고 그 담에는 번지가 이썬?}

10302 # 예 번지, 번지치는 사람두 이꾸 안 치는 사람두 이꾸 머. {예 번지, 번지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고 뭐.}

10302 @ 아 여기는 어르시는 어뜨케 하셔썬요? {아 여기는 어르신은 어떻게 하셔썬요?}

10302 # 우리더른 번지 쳐썬, 그니깐 이 저 자갈 망:꾸 이른 노는 번질 모쳐요 그냥 쓰:레루 이러케 이러케 하구선 우리가 따라 심:썬. {우리들은 번지 쳤지, 그러니까 이 저 자갈 망:고 이런 논은 번지를 못 쳐요 그냥 써:레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선 우리가 따라 심:지.}

10302 # 그래 좀 이 좀 무니 까란썬 앙꾸 이러는데는 번질 치구 그러케. {그래 좀 이 좀 문{흙덩어리}이 깔아 앉지 않고 이러는 데는 번지를 치고 그렇게.}

10302 @ 아. {아.}

10302 @ 그 번지를 칠때 아 자가리 마니, 여기는 자가리 만습니까? {그 번지를 칠 때 아 자갈이 많이, 여기는 자갈이 많습니까?}

10302 # 예 자갈 만:치요. {예 자갈 많:지요.}

10302 @ 그럼 번지를 못 치젠네요. {그럼 번지를 못 치겠네요.}

10302 # 예 번지 못 치는 노니 이꾸 치는 노니 이꾸 그래썬요. {예 번지 못 치는 논이 있고 치는 논이 있고 그랬어요.}

10302 # 근데 지그른 대:개들 인제 다 칠수 이썬요. {근데 지금은 대:개들 이제 다 칠 수 있어요.}

10302 # 엔:나렌 저 자갈바썬 금방 노를 맨드러가주구 해니깐 그걸 모:치구 그러케 한:는데 지그른 인제 다 개:령이 되니까 흑뚜 다: 가따 부꾸 이래니깐 인제 다 인제 번질 칠수 이썬요. {옛:날엔 저 자갈밭을 금방 논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깐 그걸 못 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게량이 되니까 흑도 다: 갓다 붓고 이러니깐 이제 다 이제 번지를 칠 수 있어요.}

10302 @ 아 그런데 인제 농가튼데 흑 마니 해서 인제 노를 만드네요. {아 그런데 이제 논 같은데 흑 많이 해서 이제 논을 만드네요.}

10302 # 예 만드능거지요. {예 만드는 거지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러케 해서 번지를 번지 치고 나서 번질 치는 경우도 이썬 안 치는 경우도 이썬. {그렇게 해서 번지를 번지 치고 나서 번지를 치는 경우도 있고 안 치는 경우도 있고.}

10302 # 예, 언짜가레는 번질 모쳐요 번질 치문 시물썬가 업썬요. {예, 언짜가레는 번지를 못 쳐요 번지를 치면 심을 수가 없어요.}

10302 @ 아. {아.}

10302 @ 그러면 번지를 치고 나서 그다메는 이제 치든 안 치든 가네 그다메 그다메 인제 모자리를 만드러야 되질 안나요 예저네는? {그러면 번지를 치고 나서 그다메 이제 치든 안 치든 간에 그다메 그다메 이제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지를 않나요 예전에는?}

10302 # 모자리는 벌써 해:찌. {못자리는 벌써 했지.}

10302 @ 아 모자리는 이미 한 상태고, 그럼 모자리에 인는 그 뽕씨를 아 그 모를 찌능거네요, 찌가주고 인제 노네다가 이제. {아 못자리는 이미 한 상태고, 그럼 못자리에 있는 그 뽕씨를 아 그 모를 찌는 거네요, 찌 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이제.}

10302 # 예 시머찌요. {예 심었지요.}

10302 @ 고게 한 며월따름니까 시물때는? {그게 안 몇 월달입니까 심을 때는?}

10302 # 모시물때는 오월따리요. {모 심을 때는 오 월달이요.}

10302 @ 아 모심능건 한 오월따레, 양녁 오월팔정도 되능거조? {아 모심는 건 한 오 월달에, 양력 오 월달정도 되는 거조?}

10302 # 예. {예.}

10302 @ 오워레 이제 모를 거기다가 이제 모를, 모를 심는, 오월따레 모를 송군다고 합니까, 심는다고 합니까, 모내기하는? {오 월에 이제 모를 거기다가 이제 모를, 모를 심는, 오 월달에 모를 송군다고 합니까, 심는다고 합니까, 모내기하는?}

10302 # 예 심는다 그러지요. {예 심는다 그러지요.}

10302 @ 모내기한다라는 마를 쓰나요? {모내기한다라는 말을 쓰나요?}

10302 # 모를 낸:다고두 허구, 심는다구 마니 허지요. {모를 낸:다고도 하고, 심는다고 많이 하지요.}

10302 @ 아 어떤 마를 이르시는? {아 어떤 말을 이르신은?}

10302 # 우리 심는다 그러지요, 모심는다구. {우리 심는다 그러지요, 모심는다고.}

10302 @ 아 그래 시머서 모를 상:꼬 나서 그다메 모를 심:꼬 나서 인제 그다메 인제 계속 쪽: 그대로 이썸니까? {아 그래 심어서 모를 심:고 나서 그다메 모를 심:고 나서 이제 그다메 이제 계속 쪽:: 그대로 있습니까?}

10302 # 그대로 인능게 아이라 아까 내말따나 고기 인제 한다리나 두달 그러케 되믄 푸리 나자나요, 호미루 찌거 매:이 돼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 말처럼 거기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그렇게 되면 풀이 나잖아요, 호미로 찍어 매:야 돼요.}

10302 @ 호미로요? {호미로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럼 그때는 인제 무른 어느 정도 말라 인는 상태겐네요? {그럼 그때는 이제 물은 어느 정도 말라 있는 상태겠네요?}

10302 # 아이 말릉겉로는 안 되지. {아니 마른 겉로는 안 되지.}

10302 @ 금 계속 무를 대:야 됩니까? {그럼 계속 물을 대:야 됩니까?}

10302 # 예 무리 이썸이 돼요. {예 물이 있어야 돼요.}

10302 # 그래야 이게 후떡후떡 너머가구 그다메 이르케 찌거서 맨드루 일쭙일 내:예 또 소느루 이르케 또 걸려서 매:야 돼요 소느루. {그래야 이게 후딱후딱 넘어 가고 그다메 이렇게 찍어서 \*\*\*, 일쭙일 내:예 또 손으로 이렇게 또 걸려서 매:야 돼요 손으로.}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그게 인제 오월 한 육치월따리라도 게:속 그러케 물대고. {그게 이제 오 월 한 육칠 월달 이라도 게:속 그렇게 물 대고.}

10302 # 무른 머 창창 대:야. {물은 뭐 계속 대:야.}

10302 @ 대구 인제 기:물 매, 지:물 매네요, 지:물 매고 나서 그다메 고려케 게:속 짐매기 지:물 매

뻔정도 맵니까? {대고 이제 김:을 매, 김:을 매네요, 김:을 매고 나서 그답에 그렇게 계속 김매기 김:을 몇 번정도 맵니까?}

10302 # 지:른 그이까 머 고러케 호미루 찌거 매:구선 그다메 소느루 한번 걸러내:구 그다메는 이 \*\*이나 하나 허구 그래요. {김: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호미로 찍어 매:고선 그답에 손으로 한번 걸러 내:고 그답에는 이 \*\*이나 하나 하고 그래요.}

10302 @ 음. {음.}

10302 # 그다메 또 매능거지요 머 뽕꾸 잡초 자꾸 뽕부니까. {그답에 또 매는 거지요 뭐 뽕고 잡초 자꾸 뽕으니까.}

10302 @ 예. {예.}

10302 # 그건 수스로 자꾸 허니까. {그건 수시로 자꾸 하니까.}

10302 @ 그래서 인제 모가 어느 정도 크잔습니까 그러케 인제 여르미 다 가능거조, 그러케 해:서. {그래서 이제 모가 어느 정도 크잖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름이 다 가는 거조, 그렇게 해:서.}

10302 @ 인제 지금쯤 보니까 지금쯤 인제 모, 하니까 땅은 이제 거의 다 무를 안 대고 땅이 어느 정도 물, 무리 업뜨라고요, 요즘 인제 지그른 보니,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 지금쯤 보니까 지금쯤 이제 모, 하니까 땅은 이제 거의 다 물을 안 대고 땅이 어느 정도 물, 물이 없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금은 보니, 지금 정도 되니까.}

10302 # 아이 지금두 다 물 대:이 되는데 지금 보드리 망가져 무를 안 대:서 그래요. {아니 지금도 다 물 대:야 되는데 지금 보들이 망가져 물을 안 대:서 그래요.}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무를 대:이 돼요. {물을 대:야 돼요.}

10302 @ 아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대:는 겁니까, 무를? {아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대:는 겁니까, 물을?}

10302 # 그건 추수허기 저네 이 벼 비기 저네 머야 한 여를저네 떼야 돼요. {그건 추수하기 전에 이 벼 베기 전에 뭐야 한 열흘 전에 떼야 돼요.}

10302 @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추수하기 정까지 계:속 지:를 매고 한 세번 정도 매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 계:혹 김:을 매고 한 세 번 정도 매나요?}

10302 # 머 잘 허는 사라른 세:번 정도두 허구 또 계:른 사람 여게 노네 풀 마는 사라른 한번 허군 끈나구 지그른 한버니구 안 허구 전부라 야그루 다 하구선 노네들 드러가지두 안차나여. {뭐 잘 하는 사람은 세: 번 정도도 하고 또 계:른 사람 여기 논에 풀 많은 사람은 한번 하고 끝나고 지금은 한번이고 안 하고 전부 다 약으로 다 하고선 논에들 들어 가지도 않잖아요.}

10302 @ 예. {예.}

10302 # 논뚝뚝 이래 이 수스루 늘 이르게 엔나렌 까꺼짜나야, 소느루 이러케 나슬 들구 깡는데 지그른 전부라 야그루 다 치구 어떤 사라른 지금 또 깡는 사람두 만:치요 망킨 마는데 지그른 그 나스루 잘 앙까꺼요. {논뚝도 이렇게 이 수시로 늘 이렇게 옛날엔 깡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낫을 들고 깡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약으로 다 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또 깡는 사람도 많:지요 많긴 많은데 지금은 그 낫으로 잘 안 깡아요.}

10302 # 멀:로 하건 예:추기로 예:초기가주 기계루 돌레 까꾸 말:지. {뭇:로 하건 예초기 가지고 기계로 돌려 깡고 말:지.}

10302 @ 음. {음.}

10302 @ 그래 인제 모를 이러케 할, 그러케 해서 인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머는 이제 그 짐:도 매고 인제 해쓰면 인제 가을 가을 되며는 어뜨게 하나요 가을 되며는? {그래 이제 모를 이렇게 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그 김:도 매고 이제 했으면 이제 가을 가을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을 되면?}

10302 # 갈: 되든 엔:나레는 이 사라멸 으:더가주, 혼자 그 마:는 노닐 다 못 비자나여. {가을 되면 옛:날에는 이 사람을 얻:어 가지고, 혼자 그 많은 논을 다 못 베잖아요.}

10302 @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알고기 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알곡 이 다?}

10302 # 예 알그째 다 여무리 이근 다:메는 그다메는 사:라를 으:더가지고 이 여라시 이러케 또 비지요. {예 알곡째 다 여몰어 익은 담에는 그담에는 사:람을 얻:어 가지고 이 여럿이 이렇게 또 비지요.}

10302 @ 아. {아.}

10302 @ 그럼 인제 베잔습니까 베머는 그거를 베고 어뜨케 합니까, 베어서? {그럼 이제 베잖습니까 베면 그것을 베고 어떻게 합니까, 베어서?}

10302 # 베서 노네다 제켜 봐:요. {베서 논에다 젓혀 봐:요.}

10302 @ 아 제켜 노쿠요. {아 젓혀 놓고요.}

10302 # 예 제켜 노른, 제켜 노쿠 그래서 나리 조으른 걸 뒤저기지 앙쿠 기냥 이르케 봐:서 무꿀 수 인는데 나리나 또 갈:게 오른 전부라 이게 나스로 또 돼, 돼:나이 돼요. {예 젓혀 놓으면, 젓혀 놓고 그래서 날이 좋으면 그걸 뒤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아서 묶을 수 있는데 날이나 또 가을에 오면 전부 다 이게 낫으로 또 뒤집어 봐야 돼요.}

10302 # 돼:파가. {뒤집었다가.}

10302 @ 어뜨케 나슬 어뜨케? {어떻게 낫을 어떻게?}

10302 # 나스로 이르케 웅쿠므로 벼 나짜나요, 이르케, 비 제켜, 또 돼:노치요. {낫으로 이렇게 움큼으로 베 났잖아요, 이렇게, 베 젓혀, 또 뒤집어 놓지요.}

10302 @ 돼:논는다고요? {뒤집어 놓는다고요?}

10302 # 예. {예.}

10302 @ 예 음. {예 음.}

10302 @ 돼:노코 나서 그르케 이제 바짝 마른. {뒤집어 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바짝 마른.}

10302 # 그다메, 마른 다메 또 봐: 싸애지요. {그담에, 마른 담에 또 모아 쌓아야지요.}

10302 @ 어뜨케 싸습니까, 싸을 때는? {어떻게 쌓습니까, 싸을 때는?}

10302 # 찬능거는 머 보통 이 늑:탄씩 사:갈래루 이르케 해서 올레 싸:요. {쌓는 거는 뭐 보통 이 녀 단씩 네 갈래로 이렇게 해서 올려 쌓아요.}

10302 @ 쌀:때 그 어제 드르니까 머 묵단도 이꼬 채판도 이때요. {쌓을 때 그 어제 들으니까 뭐 묵단도 있고 찻단도 있대요.}

10302 # 묵파는 대:개 여기는 읍썸다, 묵파는 저 고노네서 묵파늘 마이 허구 여기는 고노니 읍 씨~이~까. {묵단은 대:개 여기는 없습시다, 묵단은 저 고논[물이 많은 논]에서 묵단을 많이 하고 여기는 고논이 없으니까.}

10302 @ 고노니 머니까? {고논이 뭘니까?}

10302 # 고논 그니깐 논빠다기 마르지 앙쿠 창창 무린는 논. {고논 그러니까 논바닥이 마르지 않고 창창 물 있는 논.}

10302 @ 아 그게 고노녕가요? {아 그게 고논인가요?}

10302 # 예 여기선 고노니라그래요. {예 여기선 고논이라 그래요.}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그 노네선 벼 깔쭈가 엽짜나여, 대개 묵파느루 해서 전부라 저내가주구 이 사네다 가따 세워서 말리지요. {그 논에선 벼 깔 수가 없잖아요, 대개 묵단으로 해서 전부 다 저 내 가지고 이 산에다 갖다 세워서 말리지요.}

10302 @ 세워서 말리고, 고노니 아닝 고순 그냥 채파느루 이러케 해논능거예요? {세워서 말리고,



고논이 아닌 곳은 그냥 챗단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10302 # 예. {예.}

10302 @ 아 그럼 채파느로 이러케 무꺼 나서 일판 싸아 노는데 그 싸아 논능거를 멀 한다고 합니까? {아 그럼 챗단으로 이렇게 묶어 놔서 일단 쌓아 놓는데 그 쌓아 놓는 거를 뭇 한다고 합니까?}

10302 # 벼화지라 그러지요. {벼화지라 그러지요.}

10302 @ 아 벼화지요. {아 벼화지요.}

10302 # 예. {예.}

10302 @ 아. {아.}

10302 @ 화지하고 가리능거 하고 가쑈니까, 가리가? {화지하고 가리는 거 하고 같습니까, 가리가?}

10302 # 가리나 그거나 가튼데 여기는 벼화지라 그래요. {가리나 그거나 같은데 여기는 벼화지라 그래요.}

10302 @ 아 가리능거는 가리라는 마른? {아 가리는 거는 가리라는 말은?}

10302 # 가리능거는 인제 벼를 그러케 화제파가 지베다 가따가 이 금시 모털:꺼 엔나렌. {가리는 거는 이제 벼를 그렇게 화졌다가 집에다 갖다가 이 금시 못 털 것 옛날엔.}

10302 # 지금 엘 드러서 바루 모털:꺼 이짜나여, 털:질 몬하능건 바빠서 모: 털꺼 까트른 지베다 가따 가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못 털: 거 있잖아요, 털: 지를 못 하는 건 바빠서 못 털: 것 같으면 집에다 갖다 가려요.}

10302 @ 아. {아.}

10302 # 이러케 나까릴 크::게 이러케 가라서 뒤따가 쫘 부:자 사람드른 보메두 털:구 머 하하. {이렇게 날가리를 크게 이렇게 갈아서 뒀다가 쫘 부:자 사람들은 봄에도 털:고 뭐 하하.}

10302 @ 아 나까리로 이러케 가리. {아 날가리로 이렇게 가리.}

10302 # 예예, 가래서. {예예, 가려서.}

10302 @ 아 그러케 가리 나까리로 이러케 가는 경우 이러케 가리는 경우가 이게 똥:구러케도 가리는 경우가? {아 그렇게 가리 날가리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러케 가리는 경우가 이게 둥:그렇게도 가리는 경우가?}

10302 # 예 똥구러케 가리지요 대:개. {예 둥그렇게 가리지요 대:개.}

10302 @ 대개요? {대개요?}

10302 # 예. {예.}

10302 @ 아 이러케 딱딱딱 이러케? {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10302 # 에이, 똥구러케 돌레 싸고 이사기 복퍼느루 이러케 도러가게 똥:돌레 이러케 하자나, 꼭대기 내중에 씨우구 그러케. {에이, 둥그렇게 돌려 싸고 이삭이 복판으로 이렇게 돌아 가게 둥그렇게 돌려 이렇게 하잖아, 꼭대기 나중에 씨우고 그렇게.}

10302 @ 부자드른 나뉘따가 나중에 이드매 인제 그걸 터러서 머꼬 이러케. {부자들은 놔뒀다가 나중에 이듬 해 이제 그걸 털어서 먹고 이렇게.}

10302 # 예. {예.}

10302 # 음:는 사라른 머 머글께 읍씨이까 금시 당장 터러야 머그니까. {없:는 사람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시 당장 털어야 먹으니까.}

10302 @ 예. {예.}

10302 @ 그럼 그러케 화제 나따가, 화진 거슬 지브로 가져 와서 가리능거조? {그럼 그렇게 화져 났다가, 화진 것을 집으로 가져 와서 가리는 거조?}

10302 # 예. {예.}

10302 @ 그러케 가려 노코 나서는 털잔습니까, 멀:로 텀:니까? {그렇게 가려 놓고 나서는 털잔습니까?}

10302 # 옴:나레는 그세 저 발기게래능게 사라미 \*\*\* 이러케 도라가능게 이썬요, 그걸로 디더서 털:구. {옴:날에는 글세 저 발기게라는 게 사람이 \*\*\* 이렇게 돌아 가는 게 있어요, 그걸로 디더서 털:고.}

10302 @ 발기게 말:고 이러케 머 쪽 이러케? {발기게 말:고 이렇게 뭐 쪽 이렇게?}

10302 # 그거는 아주 옴:날쩍 그거구 그거 저 흘, 흘개, 그게 이썬요. {그거는 아주 옴:날 적 그거고 그거 저 흘, 흘개, 그게 있지요.}

10302 @ 아 흘개요. {아 흘개요.}

10302 # 예. {예.}

10302 @ 흘치깁가 흘깁가요? {흘치인가 흘깁인가요?}

10302 # 흘개라구. {흘개라고.}

10302 @ 아. {아.}

10302 # 여기선 그랜는데. {여기선 그랜는데.}

10302 @ 아 그래요, 그렁겔로 그러케 하는 경우도 이꼬 무꾼 채:따늘 이르케 머 이르케 이케 머지 이 나무 요르케 똥그런 나무에다 이케 가따 대:면? {아 그래요, 그런 겔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묶은 채:단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케 똥지 이 나무 요렇게 똥그런 나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10302 # 예, 예 그건 털친다 그러지요 이러케 들머쳐서 치능건. {예, 예 그건 테를 친다 그러지요 이렇게 들들고 쳐서 치는 건.}

10302 @ 예. {예.}

10302 # 지금 베는 그러케 묻 터려요. {지금 벼는 그렇게 못 털어요.}

10302 @ 아 옴:나레는 다 그러케. {아 옴:날에는 다 그렇게.}

10302 # 옴:나렌 아까 내말대로 저 털 이꾸 이런 벼가 귀가 옴:하기 때무네 이러케 터러썬는데 지금 베는 이케 들머쳐서 꼬떡꾸 안해요 터러지질 아나요. {옴:날엔 아까 내 말대로 저 털 있고 이런 벼가 귀가 옴:하기 때문에 이렇게 털었었는데 지금 벼는 이렇게 들고 쳐서 꼬떡도 안 해요 털어지질 않아요.}

10302 @ 아 옴:날베는 귀가 연한? {아 옴:날 벼는 귀가 연한?}

10302 # 예. {예.}

10302 # 거 벼 이르케 까라따가 소네 벼 하나만 놔도 벼가 마이 떠러저썬요 옴:나렌. {거 벼 이렇게 깔았다가 손에 벼 하나만 놔도 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옴:날엔.}

10302 @ 음. {음.}

10302 # 지금 통일베가 그래썬썬나요, 통일베가 귀가 옴:해가주 마이 떠러저썬요. {지금 통일벼가 그랬었잖아요, 통일벼가 귀가 옴: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10302 @ 네. {네.}

10302 @ 그머 그 베를 인제 다 떨:머는 떨:면 머가, 나다리 이잔습니까? {그러면 그 벼를 이제 다 떨:면 떨:면 뭐가, 난알이 있잔습니까?}

10302 # 예예, 그거 그거는 또 어뜨케 하면 사라미 남자드리 털:면 비루 이케 썬썬 썬내구. {예예, 그거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남자들이 털:면 비로 이렇게 썬썬 썬어 내고.}

10302 @ 그 밋에 떨 까라야 되진네요? {그 밋에 뭘 깔아야 되겠네요?}

10302 # 아 막 기낭 마당이지, 옴:날, 지금 머, 옴:나렌 이 마당을 이맘때면 지:털 저다가, 지:를 저다가 쪽:: 폐노코 이러케 무를 가따 부꾸 이러케 해가주구 또 겔 말릴때는 꾸덕꾸덕 말리믄 그거 사라미 밧:꾸 똥디리구 이래서 피안하게 저, 고:게 맨드러 노치요. {아 막 그냥 마당이지, 옴:날 지

금 댜, 옛:날엔 이 마당을 이맘 때면 진흙을 저다가, 진흙을 저닥 쪽:: 퍼 놓고 이렇게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걸 말릴 때는 꾸덕꾸덕 말리면 그거 사람이 밟:고 두드리고 이래서 편편하게 저, 곱:게 만들어 놓지요.}

10302 # 그래 거기다가 기양 털지 지금모냐으로 머 깔개가 이썸니까, 머 이썸, 아무거뚜 읍씨 그 래카주구 엔:나렌 이 싸레 도:리 마나쥬요. {그래 거기다가 그냥 털지 지금 모양으로 댜 깔개가 있 습니까, 댜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래 가지고 옛:날엔 이 쌀에 돌:이 많았지요.}

10302 @ 아 그머 그렇거 그걸 마다:지리라고, 이러케 하나요, 마댕이지리라고 해요? {아 그럼 그 런 거 그걸 마대질이라고, 이렇게 하나요, 마댕이질이라고 해요?}

10302 # 예 마대이지리라 그래요. {예 마댕이질이라 그래요.}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그까 그 마당에다가 이러케 이케 터러 터능거를 마?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 령게 털어 터는 거를 마?}

10302 # 예 터러노쿠서 그다:멘 지그몬 머 부치구 한는데 엔:나렌 여자덜또 사 가주 까부릅니다. {예 털어 놓고서 그담엔 지금은 댜 붙이고 했는데 옛:날엔 여자들도 사 가지고 까부입니다.}

10302 @ 그머 인제 일파는 나다를 그러? {그럼 이제 일단은 낱알을 그러?}

10302 # 예 그러 파: 가주구 그걸 또 검부쟁이 이러케 마:느니까 아지매드리 그걸 또 까불러요. {예 그러 모아 가지고 그걸 또 검불 이렇게 많:으니까 아줌마들이 그걸 또 까불어요.}

10302 @ 뉘로 까부니까? {뉘로 까부니까?}

10302 # 치이지. {키지.}

10302 @ 아. {아.}

10302 @ 그걸로 이제 까불면 어트게 되조? {그걸로 이제 까불면 어떻게 되조?}

10302 # 까불면 인제 지저부난 자꺼시 다 날라가짜나여, 그래몬 그거를 다마따가 하하. {까불면 이제 지저분한 잡것이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담았다가 하하.}

10302 @ 아. {아.}

10302 @ 고걸 이제 다마가지고 그다메 어트게 합니까? {그걸 이제 담아 가지고 그담에 어떻게 합 니까?}

10302 # 고다:메 지비 뉘:따가 바아까네 가야지 또. {그담:에 집에 뉘:다가 방앗간에 가야지 또.}

10302 @ 예. {예.}

10302 # 바아에더. {방아에다.}

10302 @ 예저네는 방아까니 읍씨쪼? {예전에는 방앗간이 없었쪼?}

10302 # 여기는 방아까니라능 게 머이나 하몬 저 짐 물방애 지금 저 찹짜나여, 그거지 머. {여기 는 방앗간이라는 게 댜 있나 하몬 저 지금 물레방아 지금 저 찹잖아요, 그거지 뉘.}

10302 # 거기다 인제 지구 와서 거기서 찼능거지 머 물방애서. {거기다 이제 지고 와서 거기서 찹는 거지 뉘 물레방아에서.}

10302 @ 아 물방애요, 방애가 물방애바께 읍씀니까? {아 물레방아애요, 방아가 물레방아밖에 없습 니까?}

10302 # 여기 엔나렌 물방애빠께 읍씨지요. {여기 옛날엔 물레방아밖에 없었지요.}

10302 @ 아. {아.}

10302 @ 발로 이러케 밟:능건? {발로 이렇게 밟:는 것?}

10302 # 아 그거뚜 이쥬요. {아 그것도 있지요.}

10302 # 그거는 머 소소, 얼마 모찌짜나요, 물방아는 그래두 무리 도라가민서 게:속 이르게 찹는 데 이 발방애라능건 얼마 모찌:요, 사람 다리만 아프지. {그거는 뉘 소소, 얼마 못 찹잖아요, 물레

방아는 그래도 물이 돌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쪼는데 이 발방아라는 건 얼마 못 쪼어요, 사람 다리만 아프지.}

10302 # 여기 지금 우리 방아깁두 하나 이썬요, 우리 바네서 맨드러 놓게. {여기 지금 우리 방앗간도 하나 있어요, 우리 반에서 만들어 놓은 계.}

10302 # 인는데 거 지금 오새 폐심년째 사용치 아나요, 지금 이깁 이썬두. {있는데 그거 지금 요새 몇 십 년째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있긴 있어도.}

10321 @ 아 고려케 인제 해서 방애를 만들, 그 방애를 다 찌짜나요, 찌으며는 머가 남:습니까 찌:며는? {아 그렇게 이제 해서 방아를 만들, 그 방아를 다 쪼잖아요, 쪼으면 뭐가 남:습니까 쪼으면?}

10321 # 찌:른 인제 거기서 또 풍채가 이꾸 그러자느른 아쭈마네드리 까불구 그대대요 까블러서 이 제:는 제대루 내:버리구 쌀만 가져오능거조. {쪼으면 이제 거기서 또 풍채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아쭈마네들이 까불고 그러데요 까블어서 이 겨:는 겨대로 내: 버리고 쌀만 가져 오는 거죠.}

10321 @ 아 제는 그 제를 보며는 침 한번 찌:며는 제가 나옴? {아 겨는 그 겨를 보면 침 한번 쪼으면 겨가 나옴?}

10321 # 그건 아주 왕게라구 소두 몸머꾸 두:번 세:번째 쪼:거는 인제 고거는 텅게라구 해서 그걸 소로 미기구. {그건 아주 왕겨라고 소도 못 먹고 두: 번 세: 번째 쪼은 거는 이제 그거는 등겨라고 해서 그걸 소를 먹이고.}

1032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1 @ 왕게는 어디에다 주로 썬나요? {왕겨는 어디에다 주로 썬나요?}

10321 # 엔:나렌 머 그러케 썬:다고 왕게는 얼마 안 돼요, 전부라 그걸. {옛:날에 뭐 그렇게 쪼는다고 왕겨는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그걸.}

10321 # 지그른 왕게가 베 하날 찌:른 왕게가 고대루 다 나오자나요, 마이. {지금은 왕겨가 벼 하나를 쪼으면 왕겨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많이.}

10321 @ 왕게이꼬 텅게가 이게, 아. {왕겨 있고 등겨가 이게, 아.}

10321 # 예. {예.}

10321 @ 그러면 이제 고려케 해서 인제 등게 왕게, 인제 왕게 등게 다 빼내고 나서 그다메 이제 쌀만 남짜나, 남는데 이제 그 쌀가지고 이제, 보통 예저네 쌀만 가지고 밥해먹찌 앙코 서껴서 머 거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등겨 왕겨, 이제 왕겨 등겨 다 빼 내고 나서 그담에 이제 쌀만 남잖아, 남는데 이제 그 쌀 가지고 이제, 볼오 예전에 쌀만 가지고 밥 해 먹지 않고 섞어서 먹었쥌?}

10321 # 엔:나렌 참 자꼬기조 머. {옛:날에 참 잡곡이쥌 뭐.}

10321 # 쌀만 해 명는데가 드물조. {쌀만 해 먹는 데가 드물쥌.}

10321 @ 음, 또 어떻게? {음, 또 어떤 거?}

10321 # 쿵, 또 저 수수, 조이가 젤 만초. {쿵, 또 저 수수, 조가 제일 많쥌.}

10321 @ 아. {아.}

10321 # 줍싸리. {줍쌀이.}

10321 @ 예 조이로 주로 마니 해썬꾸요. {예 조로 주로 많이 했었고요.}

10302 @ 그러며는 이제 모내기 해가주고 쌀까지 다 어더쓰니까 인제 모내기는 다 헨네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 해 가지고 쌀까지 다 얻어 쓰니까 이제 모내기는 다 했네요.}

10304 @ 그리고 나머는 인제 농사 예저네 농사 지을때 쓰던 농기구들 이썬습니까, 어떻게 이썬니까 지그른 마니 엽썬텐데, 지배 인능거 이썬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농사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쓰던 농기구들 있잖습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썬텐데, 집에 있는 거 있습니까?}

10304 # 지배 머 다 업새찌 인나요. {집에 뭐 다 없었지 있나요.}

10304 @ 보가래 아까 보가래도 이써따 그랜는데. {보구래 아까 보구래도 있었다 그랜는데.}

10304 # 여기 하우스에 어태까지 야 아래찌비 내버링거 가따 놓:거 그건 이썰 때, 그건 이찌 머. {여기 하우스에 여태까지 여기 아랫집이 내 버린 것 갖다 놓은 거 그건 있을텐데, 그건 있지 뭐.}

10304 @ 농사지을 때 어떻기구드리 주로 인나요, 쓰는, 생강나능거 이쓰세요? }농사 지을 때 어떤 기구들이 주로 있나요, 쓰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0304 # 옴:나레 기구예요? {옴:날의 기구예요?}

10304 @ 네. {네.}

10304 # 주로 머 쇠시라이 켈: 만치 머 지금두 쇠시랑을 마이 써지만. {주로 뭐 쇠스랑이 제일 많지 뭐 지금도 쇠스랑을 많이 쓰지만.}

10304 @ 예 쇠시랑이 이꼬 또. {예 쇠스랑이 있고 또.}

10304 # 호미, 쾡이, 쾡이하과, 쾡:일 최:고 마이 써썩요. {호미, 쾡이, 쾡이하고, 쾡:이를 최:고 많이 썼어요.}

10304 @ 쾡이는 소다, 소가 이제 갈:다 묻까는데 이견, 또 파야 되니까. {쾡이는 소 다, 소가 이제 갈:다 못 가는 데 있진, 또 파야 되니까.}

10304 @ 땅 파는 데는 머 어떻거 썩거 인나요, 땅파는 데? {땅 파는 데는 뭐 어떤 거 썩 거 있나요, 땅 파는 데?}

10304 # 아 소루 갈:든 그걸루 파능거예요, 전부라. {아 소로 갈:면 그걸로 파는 거예요, 전부 다.}

10305 @ 예저네 이제 노네 무를 대:기 위해서, 무를 델러머는 어떤 도구를 주로 썩나요, 무를 대는 데? {예전에 이제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대려면 어떤 도구를 주로 썩나요, 물을 대는 데?}

10305 # 무른 머 아:무 도구나 막 까지고 막 대:는데 인제 그걸 무를 델라든 여기는 미칠저네 모내기 저네 보:라능게 이짜나요, 보:를 하루구 이트리구 또 마가야 돼요. {물은 뭐 아:무 도구나 막 까지고 막 대:는데 이제 그걸 물을 대려면 여기는 며칠 전에 모내기 전에 보:라는 게 있잖아요, 보:를 하루고 이틀이고 또 막아야 돼요.}

10305 # 보뜨라\* \*\*\* \*\*라든. {봇도랑\* \*\*\* \*\*라든.}

10305 @ 네 아 보또랑 보를 막꼬 보또랑도 이케 막꼬 해가주고 무를? {네 아 봇도랑 보를 막고 봇도랑도 이렇게 막고 해 가지고 물을?}

10305 # 예 거 인제 오든 그제사 인제 아:무나 가서 \*\*\* \*\*라든 거 무리 드로든 구녕을 맨드러서 거그다 따 노든 무리 드러가게. {예 그 이제 오면 그제사 이제 아:무나 가서 \*\*\* \*\*라든 그 물이 들어오면 그명을 만들어서 거기다 따서 놓으면 물이 들어 가게.}

10306 @ 예저네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면 노네 푸리 마니 나잔습니까, 어떤 푸리 주로 마니 난나요? {예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면 눈에 풀이 많이 나잔습니까, 어떤 풀이 주로 많이 났나요?}

10306 # 푸른 머 여:러가지로 마이 나오지요 머. {푸른 뭐 여:러가지로 많이 나오지요 뭐.}

10306 @ 여기서는 보통 모내고 나면 짐:땀때 한 며뻬늘 맨다 그랜나요 아까? {여기서는 보통 모내고 나면 짐: 땀 때 한 몇 번을 맨다 그랜나요 아까?}

10306 # 아께 호미로 한번 매구 소느루 이리케. {아까 호미로 한번 매고 손으로 이렇게.}

10306 @ 침: 매능거는? {처음 매는 거는?}

10306 # 처:미라능게 호미루 이리케 매이 돼요 옴:나렌. {처음이라는 게 호미로 이렇게 매야 돼요 옴:날옴.}

10306 @ 아 예 호미로 인제 처:메 외구회무로. {아 예 호미로 이제 처음에 외구호미로.}

10306 # 찌거서 매구. {찍어서 매고.}

10306 @ 찌거서 매고 첨: 인제 그러케 매고. {찌어서 매고 처음 이제 그렇게 매고.}

10306 # 고다메 한 일주일 저네 고걸 또 소느루 전부라, 호미루 쟁능게 덩어리가 이러케 돼짜나  
요, 그걸 전부라 걸러서 소느루 매:요. {그담에 한 일주일 전에 그걸 또 손으로 전부 다, 호미로  
찍는 게 덩어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전부 다 걸러서 손으로 매:요.}

10306 @ 아 일주일 후에요, 소느루 맨다고요? {아 일주일 후에요, 손으로 맨다고요?}

10306 # 소느루 이게, 호미루 찌그먼 흑땡어리 이르게 나가 자빠져짜나요, 그걸 소느루 다 이케  
주물럭거려서 다 매구 푸르 다 뽑꾸 그러케 매:요. {손으로 이게, 호미로 찍으면 흑땡어리 이렇게  
나가 자빠졌잖아요, 그걸 손으로 다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다 매고 풀을 다 뽑고 그렇게 매:요.}

10306 @ 그게 인제 두벌 매능정가요? {그게 이제 두 벌 매는 건가요?}

10306 # 예 두벌 매능거지요. {예 두 벌 매는 거지요.}

10306 @ 그다메는 또 피가통 게 이짚습니까? {그담에는 또 피 같은 게 있잖습니까?}

10306 # 피가통거는 수수로 하민서 머 뽑는 사람두 이꾸 암 뽑는 사람 이꾸. {피 같은 거는 수수  
시로 하면서 뭐 뽑는 사람도 있고 안 뽑는 사람 있고.}

10306 @ 머뻔 그게 머뻔쟁가요? {몇 번 그게 몇 번째인가요?}

10306 # 세:번째지요, \*\*\* 머 수수로 하나두 업씨 뽑는 사라문 수업씨 뽕꼬 또 함번도 암 뽑는 사  
람도 이꼬. {세: 번째지요, \*\*\* 뭐 수수로 하나도 없이 뽑는 사람은 수없이 뽑고 또 한번도 안 뽑  
는 사람도 있고.}

10306 # 지금두 보든 이 노네 보든 피가 이러케 마:니 팬 사람두 이꾸, 하나도 엄는 사람 이짜나  
요, 그거 드, 지금두 아무리 야걸 쳐두 그 피을 뽕바 조이 돼요, 암 뽕부른. {지금도 보면 이 눈에  
보면 피가 이렇게 많:이 팬 사람도 있고,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아무리 약을  
쳐도 그 피를 뽑아 줘야 돼요, 안 뽑으면.}

10306 @ 피를 뽕바야 그래도 베가 잘 될텐데. {피를 뽑아야 그래도 벼가 잘 될텐데.}

10306 # 거 암 뽑는 사람두 이씨요. {그 안 뽑는 사람도 있어요.}

10306 @ 보통은 피도 뽑쪼? {보통은 피도 뽑쪼?}

1030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6 @ 그러머는 거이 세버리 마지막강가요, 세벌 놔 매능게? {그러면 거의 세 벌이 마지막인가  
요, 세 벌 논 매는 게?}

10306 # 그러치요 마지막 띄능거지요. {그렇지요 마지막 되는 거지요.}

10306 @ 마지막 매능거를 머 만도리한다 이럼 말 하나요? {마지막 매는 거를 뭐 만도리한다 이런  
말 하나요?}

10306 # 그릉건 욱:꾸요, 이게 치월따리 되든 만도리래능거는 그건 욱꼬 이:를 다해따고 동:네서  
호무씨세라는 그런 \*\*\*\* 허지요.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칠 월달에 되면 만도리라는 거는 그건 없  
고 일:을 다 했다고 동:네서 호미씻이라는 그런 \*\*\*\* 하지요.}

10306 # 그담버터든 인제 우리 짐:두 다: 매구 머 논두 다: 매구 인제 끝나따는 그렁거 이씨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김:도 다: 매고 이제 끝났다는 그런 거 있어요.}

10306 @ 아 그런, 여기서도 하나요? {아 그런, 여기서도 하나요?}

10306 # 여그서두 해:찌요, \*\* 지그든 안해요. {여기서도 했:지요, \*\* 지금은 안 해요.}

10306 # 호무씨세라고 해요, 호미씨씨. {호미씻이라고 해요, 호미씻이.}

10306 @ 호미씨씨, 아 그렁걸 여기도 헨나요, 그거 어떻 겹니까? {호미씻이, 아 그런 걸 여기도  
헨나요, 그거 어떤 겹니까?}

10306 # 그거는 옴:나레는 그이가 쪼끔 나:께 사는 사라미 이 수란주깸 머 저 밀까루적뚜 부치고  
또 술도 한동이씩 해 가주 이러케 머꾸 하루썩 노라찌요 머, 옴:나렌 이 사다 멍능게 그 돈:두 욱  
꾸 또 읍짜나여, 그러케 지내씨요. {그거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금 낫:게 사는 사람이 이 술안주

감 뭐 저 밀가루 전도 부치고 또 술도 한 동이씩 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루씩 놀았지요 뭐, 옛날엔 이 사다 먹는 게 그 돈:도 없고 또 없잖아요, 그렇게 지냈어요.}

10306 @ 그러면 그러케 해서 이제 그 머 과일도 하고 떡도 하고 그러케 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과일도 하고 떡도 하고 그렇게 했나요?}

10306 # 그저 머 과일두 벨루 욱:꾸 엔나레 머 이썬요, 여는 족족 다 따 먹꾸 그런데 저 머 밀가루 가주구 적꾸 부치구 머 요즈믄 호:박두 이썬이까 호박 해가주구 이르게 해서 먹꾸 하루씩 놀꾸 그래썬요. {그저 뭐 과일도 별로 없:고 옛날에 뭐 있었요, 여는 족족 다 따 먹고 그런데 저 뭐 밀가루 가지고 전도 부치고 뭐 요즘은 호:박도 있으니까 호박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하루씩 놀꾸 그랬어요.}

10306 @ 아 호박도 해서 먹꼬요, 호박글 살마 멩나요? {아 호박도 해서 먹고요, 호박을 삶아 먹나요?}

10306 # 호:바근 살믄게 아니구 그잉까 이제 \*\*라서 머 적꾸 부치구 머 안주도 머시 이르게 허구. {호:박은 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라서 뭐 전도 부치고 뭐 안주도 뭐냐 이렇게 하고.}

10302 @ 그다메 여기 이제 논농사 주로 지어짜나요, 요즈믄 논농사 진나요, 요즈메? {그담에 여기 이제 논농사 주로 지었잖아요, 요즘엔 논농사 짓나요, 요즘에?}

10302 # 내가 장녕꺼정 헐는데 올헐 안하는데 논농사는 지금 머 편하지여 머, 논농사 진능게. {내가 작년까지 헐는데 올해는 안 하는데 논농사는 지금 뭐 편하지요 뭐, 논농사 짓는 게.}

10302 # 먼저는 미테정꺼정 내가 기계루 이르게 거 바인덜 가주 벼:서 또 털:구 그랜는데 지그믄 콤바이가 비민선 터러 나오니까 머, 하하. {먼저는 몇 해 전까지 내가 기계로 이렇게 그 바인터를 가지고 벼:서 또 털:고 그랬는데 지금은 콤바인이 벼면서 털어 나오니까 뭐, 하하.}

### 1.3.2. 밭농사

10307 @ 어르신 그럼 농사를 지어짤습니까, 아까 어떤 농사 어떤 지으셔썬요? {어르신 그럼 농사를 지었잖습니까, 아까 어떤 농사 어떤 지으셨어요?}

10307 # 오래요? {올해요?}

10307 @ 네, 예전, 예저네. {네 예전 예전에.}

10307 # 예저넌 머 여러가질 마이 썬썬, 예저넌 주로 벼를 마이 해썬요. {예전엔 뭐 여러가지를 많이 썬지, 예전엔 주로 별르 많이 했지요.}

10307 @ 아, 그래요, 그거 그거랑 또 반... {아 그래요 그거 그거랑 또 밭....}

10307 # 예, 밭뚜 허구요. {예 밭도 허고요.}

10307 @ 네. {네.}

10307 @ 밭할때는 어떻거 주로 재:배를 헐나요? {밭 할 때는 어떤 거 주로 재배를 했나요?}

10307 # 지금 그저넌 머 저 조이, 옥썬수, 이렇걸 마이 헐는데 지그믄 조이를 안하자나야, 지금 주로 옥썬수 마이 해 이젠. {지금 그전엔 뭐 조, 옥수수 이런 걸 많이 헐는데 지금은 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주로 옥수수 많이 해 이젠.}

1030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7 @ 여기는 옥썬수를 강내이라고 하던데 어르신 옥썬수라고 하시네요. {여기는 옥수수를 강냉이라고 하던데 어르신 옥수수라고 하시네요.}

10307 #1 허허. {허허.}

10307 # 월래 옥썬수지요, 기런데 지금 강내이라고 또 이리미 바꾸체:서 그러치요. {원래 옥수수지요, 그런데 지금 강냉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10307 @ 아, 그 여기서 다른 분들도 다: 옥수수라고 하시나요? {아 그 여기서 다른 분들도 다 옥수수라고 하시나요?}

10307 # 그러치 옥수수 \*\*지요. {그렇지 옥수수 \*\*지요.}

10307 @ 음. {음.}

10307 @ 이제 지그몬, 엔나레는 이제 그렇게 업써쓰니까, 엔나레도 반농사 쫘 지꼬는 하셔쪄?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도 반농사 쫘 짓고는 하셨쪄?}

10307 @ 어르신도 바치 이썰니까 받? {어르신도 받이 있습니까 받?}

10307 # 받뚜 이썰, 부쳐쪄요. {밭도 있어, 부쳤지요.}

10307 @ 아 요 근처에 이썰요? {아 요 근처에 있어요?}

10307 # 예. {예.}

10307 # 지금두 저 옥수수 시머쪄요. {지금도 저 옥수수 심었어요.}

10307 @ 아 그 바테요? {아 그 밭에요?}

10307 # 예. {예.}

10307 @ 아 마니, 옥수수는 한 구월 정도 지나야 쫘. {아 많이, 옥수수는 한 구 월 정도 지나야 쫘.}

10307 # 옥수수는 머 영글머 영그른 대루 눌러 비니까요. {옥수수는 뭐 영글면 영근 대로 바로 베니까요.}

10307 # 그애, 왜 비냐하른 옥수수때털 소를 메길라고, 그이가 아주 바짱 마르\*\* 이\* 왜, 입싸구가 다: 떠러지구 그래니까 소메길게 읍쪄요. {그래 왜 베냐 하면 옥수수 대를 소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바짱 마르\*\* 이\* 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 먹일 게 없어요.}

10307 # 그잉까 옥수수만 여물른 눌러 비능거예요 그거는, 대주~이~ 읍쪄요. {그러니까 옥수수만 여물면 바로 베는 거예요 그거는, 대중이 없어요.}

10307 @ 반농사엔 어떠너떻거 주로 지언나요, 여기서는? {반농사엔 어떤 어떤 거 주로 지었나요, 여기서는?}

10307 # 인:나렌 조~이~ 농살 지서 마이 하딩게 지그몬 조이 농사는 안 하고 지금 옥수수가 쪼, 마니 해요. {옛:날엔 조 농사를 지어서 많이 하던 게 지금은 조 농사는 안 하고 지금 옥수수가 제일, 많이 해요.}

10307 @ 옥수수 또 어떻게, 어르시니 해평거는 어떻게 인나요? {옥수수 또 어떤 게, 어르신이 했던 거는 어떤 게 있나요?}

10307 # 옥수수하과 지금 주루 쪼꿈 마:능거시 꼬추지요 머. {옥수수하고 지금 주로 조금 많:은 것이 꼬추지요 뭐.}

10307 @ 꼬추, 옥수수, 그다메. {꼬추, 옥수수, 그답에.}

10307 #1 콩. {콩.}

10307 @ 콩. {콩.}

10307 # 콩두 쪼굼 심:꼬, 머 들깨두 심:꾸 머, 창깨두 쫘 심:꾸. {콩도 조금 심:고, 뭐 들깨도 심:고 뭐, 참깨도 심:고.}

10307 @ 감자는뇨? {감자는요?}

10307 # 감자년 크게 마이 안 시머요. {감자는 크게 많이 안 심어요.}

10307 @ 강원도 하면 감자 마니 하자나요, 여긴 주로 안 하나요? {강원도 하면 감자 많이 하잖아요, 여긴 주로 안 하나요?}

10307 # 우린 감잘 크게 안 해요. {우린 감잘 크게 안 해요.}

10307 # 제:워 여는 사라른 머 여기서 삼십박스씩 심:는데 우린 함 박스 정도 이러케배게 안 시머요. {겨:우 여는 사람은 뭐 여기서 삼십 박스씩 심:는데 우린 한 박스 정도 이렇게 밖에 안 심어



요.}

10307 @ 보리는 안 하셨나요? {보리는 안 하셨나요?}

10307 # 보리는, 옛:나렌 헨:는데 지금 안 해요. {보리는, 옛:날엔 했:는데 지금 안 해요.}

10307 @ 옛:나렌는 하셔서요? {옛:날에는 하셨어요?}

10307 # 예. {예.}

10307 @ 올해 좀 하셨나요? {올해 좀 하셨나요?}

10307 # 안 해서, 버써 보리 농사 안 한제가 한 이십년 돼:요. {안 했어, 벌써 보리 농사 안 한 때가 한 이십 년 돼:요.}

10307 @ 아 그래도 좀 기억할 하시죠, 해떻게 이쁘니까? {아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시죠, 했던 게 있습니까?}

10307 # 예. {예.}

10309 @ 반농사를 진:는데 이 반농사 주로 이 반농사 중에서 예저네 인제 보리를 시머따고 하셔 짜나요, 보리에는 종뉴가 어떻거드리 어떻게 심:고, 어떤 종뉴드리 이썸나요? {반농사를 짓:는데 이 반농사 주로 이 반농사 주에서 예전에 이제 보리를 심었다고 하셨잖아요, 보리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어떤 걸 심:고, 어떤 종류들이 있었나요?}

10309 # 보리 이걸 종뉴는 모르겐는데, 이르를 내가. {보리 이것 종류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내가.}

10309 @ 예, 할머니는 좀 아세요? {예, 할할머니는 좀 아세요?}

10309 # 모:르지, 이사라문 더군다나 보리농살 한번, 심능거나 아:는지. {모:르지, 이 사람은 더군다나 보리 농사를 한번, 심는 거나 아:는지.}

10309 @ 거 \*니가 머 쌀보리라능게 이따고 하던데요. {거 \*니가 뭐 쌀보리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10309 # 여기 쌀보리는 안 해요. {여기 쌀보리는 안 해요.}

10309 # 예 쌀보리라능건 읍써써요. {예 쌀보리라는 건 없었어요.}

10309 @ 그냥 그냥 보리농사? {그냥 그냥 보리농사?}

10309 # 예예 보리. {예예 보리.}

10309 @ 보리 중에서 보메 씨뿌려서 가으레 하는? {보리 중에서 봄에 씨뿌려서 가을에 하는?}

10309 # 아니요 가으레 심찌요, 가으레 시머가지고 오월따레 추수하능 거지. {아니요 가을에 심지요, 가을에 심어 가지고 오 월달에 추수하는 거지.}

10309 # 겨우를 거그서 나요. {겨울을 거기서 나요.}

10309 @ 근데 봄보리도 이따고 하던데요? {근데 봄보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10309 # 봄보리가 쯔 이썸는데 봄보리는 보메 일찍 긴제 해:토하자마자 시프른 그게 인저 사:라미 먹지 못:해는 길:릉게 마이 생게요, 그래서 그 봄보링 그르케 잘 안 시머써요. {봄보리가 쯔 있었는데 봄보리는 봄에 일찍 인제 해:토하자마자 심으면 그게 이제 사:람이 먹지 못: 하는 기다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봄보리 그렇게 잘 안 심었어요.}

10309 @ 아 봄보리도 인네, 하긴 하썸, 함 해보신. {아 봄봄보리도 있네, 하긴 하썸, 한번 해 보신.}

10309 # 예 해보니 그 기:르랭게 생게요. {예 해보니 그 기다란 게 생겨요.}

10309 #1 귀:리 이꼬 머 밀두 이꼬 다 이찌 머. {귀:리 있고 뭐 밀도 있고 다 있지 뭐.}

10309 @ 보리농사, 그러면 인제 보리 중에 보니까 봄보리 이꼬 머 건뽕리도 이따고 얘길 하던데요, 아까 어떤? {보리농사, 그러면 이제 보리 중에 보니까 봄보리 있고 뭐 갇보리도 있다고 얘길 하던데요, 아까 어떤?}

10309 # 우린 겉뽕링가 그거지요. {우린 겉보리가 그거지요.}

10309 @ 예? {예?}

10309 # 겉뽕링가 그거지요 머. {겉보리가 그거지요 뭐.}

10309 # 거, 지, 쟤야 머그니까. {거, 지, 쫘어야 먹으니까.}

10309 # 거 아주 까치래이 망:쿠. {그거 아주 까끄라기 많:고.}

10309 @ 아 그래요 그럼 보리는 두가지 종농가요? {아 그래요 그럼 보리는 두 가지 종류인가요?}

10309 # 예. {예.}

10309 @ 겉뽕리도, 그잉까 대체로 겉뽕리를 마니 해썬나요? {겉보리도, 그러니까 대체로 겉보리를 많이 했었나요?}

10309 # 예예 겉뽕리조. {예예 겉보리조.}

10309 @ 어떠썬니, 겉뽕리는, 생긴? {어떻습니까, 겉보리는, 생긴?}

10309 # 이러케 주루\*\* 베풀, 여기 올라와가주고 이게 늑줄루 이르게 아리 배가지, 늑줄루. {이렇게 주루\*\* 베풀, 여기 올라 와 가지고 이게 녀 줄로 이렇게 알이 박히지, 녀 줄로.}

10309 @ 아 늑:줄로 아리 배게요. {아 녀: 줄로 알이 박혀요.}

10309 @ 그게 인제 까칠까칠한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까칠까칠한 모양이네요?}

10309 # 예. {예.}

10309 @ 보통 보리는 가을보리라고 하나요, 그냥 보통 보리라고? {보통 보리는 가을보리라고 하나요, 그냥 보통 보리라고?}

10309 # 여기는 갈:보린데 그걸 보통 보리라고만 해:쥬요, 봄보린 안 하니까. {여기는 가을보리인데 그걸 보통 보리라고만 했:지요, 봄보리는 안 하니까.}

10309 @ 아 봄보리는 안 하니까, 어르신 예저네 쪼끔 하셔꾸요? {아 봄보리는 안 하니까, 어르신 예전에 조금 하셨고요?}

10309 # 예. {예.}

10309 # 밀두 쪼 썬머썬구요. {밀도 쪼 썬었었고요.}

10310 @ 그러며는 그 보리농사는 어르신드리 예저네 보리농사 지어썬나요, 보리농사는 지을 때 어트게 썬나요, 먼저, 보리농사 지으려면? {그러면 그 보리농사는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리농사 지었썬나요, 보리농사는 지을 때 어떻게 썬나요, 먼저, 보리농사 지으려면?}

10310 # 보리농사 썬는, 쪼 까:다롭꾸 히미 마이 들지요. {보리농사 썬는, 쪼 까:다롭고 힘이 많이 들지요.}

10310 @ 아 그래요, 어트케, 어트케? {아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10310 # 왜 그랜냐 하른 이맘때 푸를 마니 베풀:야 돼요, 푸를 마:니 베풀:주 퇴:비럴 맨드러서 썬커가주고 그다멘 소로 바칠 갈:고 씨를 가따 뿌립니다, 뿌리구 그다가 퇴:비럴 걸 해:땡거를 저다고:라아다 뿌려야 돼요, 썬:. {왜 그랜냐 하면 이맘 때 풀을 많이 베풀:야 돼요, 풀을 많:이 베풀: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썬혀 가지고 그담엔 소로 밭을 갈:고 씨를 갖다 뿌립니다, 뿌리고 거기다가 퇴:비를 그걸 했:던 거를 저다가 골에 뿌려야 돼요, 썬:.}

10310 @ 바를 먼저 갈:고 그다메, 머를 뿌린다고요? {밭을 먼저 갈:고 그담에, 뒤를 뿌린다고요?}

10310 # 씨를 뿌리지요. {씨를 뿌리지요.}

10310 @ 퇴비? {퇴비?}

10310 # 아 씨를 먼저 뿌려야 돼요, 씨를 먼저 뿌리구서는 알:마게 점 점 뿌레노쿠 그다메 퇴비가따 내:요, 그래구서 무더 뿌리지요, 무더 뿌리든 인제 그제. {아 씨를 먼저 뿌려야 돼요, 씨를 먼저 뿌리고서는 알:맞게 점 점 뿌려 놓고, 그담에 퇴비 갖다 내:요, 그러고서 묻어 버리지요, 묻어 버리면 이제 그제.}

10310 @ 무더가 뭘니까? {묻어가 뭘니까?}

10310 # 파문능 거. {파문는 거.}

10310 @ 아 무더뿌린다고요. {아 묻어 버린다고요.}

10310 # 예. {예.}

10310 @ 그리고 인제 고 씨를 인제 뿌리고 나서 씨를 더퍼 두지 안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씨를 이제 뿌리고 나서 씨를 덮어 두지 않습니까?}

10310 # 아 글썸 덩능 게 그게 아까 퇴:비를 뿌리구서 이 문능 게 그게 더풍거지요. {아 글썸 덮는 게 그게 아까 퇴:비를 뿌리고서 이 묻는 게 그게 덮은 거지요.}

10311 @ 아 덩꾸요, 그럼 그러케 쫓 나두면 이제 보리가 자라? {아 덮고요, 그럼 그렇게 쫓 놔 두면 이제 보리가 자라?}

10311 # 예 그게 인제 가:래 이만:춤쭉 나와따가 겨우리 됴 인제 어러 죽짜나요, 어떻 거는 어러 주꼬 어떻 거는 안 어러 주꼬 그래따가 보미 오면 고 쪼끔씩 밭바 조이 돼요, 보메 이러케 커 나 올쥬게. {예 그게 이제 가을에 이만큼씩 나왔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얼어 죽잖아요, 어떤 거는 얼어 죽고 어떤 거는 안 얼어 죽고 그랬다가 봄이 오면 그 쪼금씩 밭바 쥬야 돼요, 봄에 이렇게 커 나올 적에.}

10311 # 밭바주며 그게 땅이 겨울게 저 보메 어러따 부푸러따 하믄 땅이 들뜬니다, 들뜬제 고메 밭바주믄 이게 어러 죽질 아나요. {밭바 주면 그게 땅이 겨울에 저 봄에 얼었다 부풀었다 하면 땅이 들뜬니다, 들뜬 때 그때 밭바 주면 이게 얼어 죽지를 앓아요.}

10311 # 그래서 보리가 자라서 되능 거지. {그래서 보리가 자라서 되는 거지.}

10312 @ 보리도 이 지:를 매지 안씀니까? {보리도 이 김:을 매지 않습니까?}

10312 # 머 지:믄 별루 그케 암 매:쥬요. {뭇 김:은 별로 그렇게 안 땀:어요.}

10312 # 보메 그느미 먼저 일짱 나오니까 그 잡초가. {봄에 그놈이 먼저 일찍 나오니까 그 잡초가.}

10311 @ 아 그래서 아까 그 보리를 밭:는, 아까 봄 되면 인제 보리가 들뜨니까 그래서 보리밭:끼를 하능 거네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보리를 밭:는, 아까 봄 되면 이제 보리가 들뜨니까 그래서 보리밭:끼를 하는 거네요.}

10311 # 예. {예.}

10311 @ 근데 보리밭:끼를 할 때 무슨 예저네는 여기 행사하고 노래도 불러씀니까, 예저네? {그런데 보리밭:끼를 할 때 무슨 예전에는 여기 행사하고 노래도 불렀습니까, 예전에?}

10311 # 앙 그래쥬요. {안 그랬어요.}

10311 # 여긴 워낙 쪼금씩 하니까 저 아페션 머 그릉걸 허는데 여긴 그른 이:를 안 해쥬요. {여긴 워낙 쪼금씩 하니까 저 앞에선 뭇 그런 걸 하는데 여긴 그런 일:을 안 했어요.}

10312 @ 음, 그다메 그 아까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지:를 인제 머 거이 암 맨다고 헨나요? {음, 그담에 그 아까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김:을 이제 뭇 거의 안 맨다고 헨나요?}

10312 # 예. {예.}

10312 @ 함번도 암 매나요? {한번도 안 매나요?}

10312 # 암 매두 돼:요, 그건. {안 매도 돼:요, 그건.}

10310 @ 밀도 함번 지어 보셔따고 헨나요, 미른 또 어떠케, 밀롱사는? {밀도 한번 지어 보셨다고 헨나요, 밀은 또 어떻게, 밀농사는?}

10310 # 밀두 또 과정이 또까태요, 보리 농새하과. {밀도 또 과정이 똑같아요, 보리 농사하고.}

10310 @ 그러면 밀롱사도 마창가지로 인제 땅을 이제 고라서 땅을 이제 쪼. {그러면 밀농사도 마창가지로 이제 땅을 이제 고르게 해서 땅을 이제 쪼.}

10310 # 예, 아까 보리 그 과정~이~ 또까트구 밀 미리 보리보다 한달 쪼 느께 베:애지여, 느께 베:요. {예, 아까 보리 그 과정이 똑같고 밀 밀이 보리보다 한달 쪼 늦게 베:야지요, 늦게 베:요.}

10310 # 과거~언~ 갈:게 또까치 하는데. {과정은 가을에 똑같이 하는데.}

10315 @ 그, 마니 해떻게 옥썴수라고 또 하셔싼습니까, 옥썴수는 어떠케 언제 어트케 재:배를 하  
선나요? {그, 많이 했던 게 옥썴수라고 또 하셔싼습니까, 옥썴수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재:배를 하  
셨나요?}

10315 # 옥썴수는 며 바까러 노쿠션 바철 이제 갈:자나요, 가러 노쿠 그다음 지맘대루 심:능 거에  
요. {옥썴수는 뭐 밭 갈아 놓고선 밭을 이제 갈:잖아요, 갈아 놓고 그다음 제 마음대로 심:는 거에  
요.}

10315 @ 예 그래서 그 옥썴수 농사는 어떠케 다시 한번, 아까 소를 가주, 소는 어디든지 항상 사  
용이 마니 됐:네요, 소를 이제 바틀 받 이러케 가라 가지구요 예. {예 그래서 그 옥썴수 농사는 어  
떻게 다시 한번, 아까 소를 가지고, 소는 어디든지 항상 사용이 많이 됐:네요, 소를 이제 밭을 이  
렇게 갈아 가지고요 예.}

10315 # 고:를 타다 노:른 인제, 고:리라능 게 이르케 이짜나요, 거그다가 이제 드문드문 이르케  
사라미 심:능 거지요. {골을 타다 놓으면 이제, 골: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드문  
드문 이렇게 사람이 심:는 거지요.}

10315 @ 촌초미 하면 안 되조, 촌초미 해 노면 안 되조, 옥썴수를? {촌촌히 하면 안 되쥬, 촌촌히  
해 놓으면 안 되쥬, 옥썴수를?}

10315 # 예 너무 촌초미 하믄 솜만 드지 토싸기 안 달레요. {예 너무 촌촌히 하면 손만 들지 토  
썩[열매]이 안 달려요.}

10315 @ 예? {예?}

10315 # 이 솜만 크구 토싸기 안 달레요, 보이믄. {이 손만 크고 토썩이 안 달려요, 보이면[촌촌하  
면].}

10315 @ 아 이게 소니 크다고요? {아 이게 손이 크다고요?}

10315 # 아이. {아니.}

10315 @ 서니 커진다고요? {선이 커진다고요?}

10315 # 이르케 보이믄 토싸기 안 달리구, 보이, 이르케. {이렇게 보이면 열매가 안 달리고, 보이,  
이렇게.}

10315 #1 이사가 앙 크다구. {이삭이 안 크다고.}

10315 # 이사가 안 달레요. {이삭이 안 달려요.}

10315 @ 아 그거를? {아 그거를?}

10315 # 여기선 뵈:게 시므문 안 된다 그러지요, 그걸 뵈:다 그러지요, 여기 말:룬. {여기선 보이게  
심으면 안 된다 그러지요, 그걸 뵈:다 그러지요, 여기 말:로는.}

10315 @ 아, 뵈기 실. {아, 뵈기 실.}

10315 # 뵈:다구. {뵈:다고.}

10315 @ 아 뵈:다요, 뵈:다라는 마리 멩가요? {아 뵈:다요, 뵈:다라는 말이 뭔가요?}

10315 # 여기 마:리 그러 카능 거. {여기 말:이 그렇게 하는 거.}

10315 #1 촌:초미 심녕거 뵈:다구. {촌촌히 심는 거 뵈:다고.}

10315 # 여기 가뜰 심:능 걸료 여기 마:른 뵈:다 그래요 그걸. {여기 가뜰 심:는 걸료 여기 말:은  
뵈:다 그래요 그걸.}

10315 @ 아 뵈다, 이게 너무 뵈:다 시무며는 안 된다 그러나요? {아 뵈다 이게 너무 뵈:다 심으면  
안 된다 그러나요?}

10315 # 예예. {예예.}

10315 # 드문드문 드물게 시무믄 토싸기 이르케 크게 나오고. {드문드문 드물게 심으면 열매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10315 @ 아 토싸기 크게 나온다고요? {아 열매가 크게 나온다고요?}

10315 # 예. {예.}

10315 @ 토썩은 또 머조? {토썩은 또 뭐죠?}

10315 # 토썩근 옥씨기 통얼 가지구. {토썩은 옥수수 통을 가지고.}

10315 @ 아 옥씨기 통. {아 옥수수 통.}

10315 @ 아 제가 무슨 말쓰민지 몰라서.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10315 #1 강안도 말 강안도 사:투리 그래요, 하하. {강원도 말 강원도 사:투리 그래요, 하하.}

10315 @ 아이 그럼 마:리 아주 소중한 마:립니다, 고 통이 토싸기고 그 토싸기 그? {아니 그런 말:이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그 통이 토썩이고 그 토썩이 그?}

10315 # 보이든 아주 요러케두 나오구 또 안 나온 게 마:너여. {보이면 아주 요렇게도 나오고 또 안 나온 게 많:아요.}

10315 # 전부라 그걸 저 안 달리능 건 또 그얼 군:대라구 해여, 군:대래능 게 마이 저요. {전부 다 그걸 저 안 달리는 것은 또 그걸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는 게 많이 저요.}

10315 @ 아 군대가 마니 진다고요? {아 군대가 많이 진다고요?}

10315 # 예, 보이든 군대가 저서 모썩요. {예, 보이면 군대가 저서 못 썩요.}

10315 그러며는 그 저도 잘 몰라서 여쭙보능 건데 만나게 아까 씨를 촌초미 뿌리며는 너무 보이다? {그러면 그 저도 잘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 만약에 아까 씨를 촌촌히 뿌리면 너무 보이다?}

10315 # 응, 보이다, 보이면서 그게 토싸기 안 달레능 거지요. {응 보이다, 보이면서 그게 토썩이 안 달리는 거지요.}

10315 #1 여는 데션 봐:다 그러지 봐:다구. {여느 곳에션 봐:다 그러지 봐:다고.}

10315 @ 아, 여기서는 인제 보이서, 보이서 토싸기 크게 된다구? {아, 여기서는 이제 보이어서, 보이어서 토썩이 크게 된다고?}

10315 # 드무러애제, 드무러야 크게 나오제. {드물어야지, 들물어야 크게 나오지.}

10315 @ 아 토싸기 크게 나온다고요. {아 토썩이 크게 나온다고요.}

10315 @ 드무러야 크게 나오고 보이면? {드물어야 크게 나오고 보이면?}

10315 # 안, 토싸기 썰래:항 게, 군대 마이 지구. {안, 토썩이 짧은 게, 군대가 많이 지고.}

10315 @ 군대 마니 지능 거는 또 머예요? {군대 많이 지는 거는 또 뭐예요?}

10315 # 군대는 그 저 기낭 옥씨기 대궁만 나오지 토썰기 안 달레요. {군대는 그 저 그냥 옥수수 대궁만 나오지 열매가 안 달려요.}

10315 @ 아 토썰기 안 달리능 거를 군대진다고 합니까? {아 토썩이 안 달리는 거를 군대진다고 합니까?}

10315 # 예예. {예예.}

10315 @ 참 어려운 마리네요, 이게 저 잘 모 다라 드러서. {참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저 잘 못 알아 들어서.}

10315 #1 여 강원도 사라든 지금 \*\* 머 그거 마:르 쉬께. {여기 강원도 사람은 지금 \*\* 뭐 그거 말:을 쉽게.}

10315 # 여기 사람드른 서루 다: 아러 듣찌만 인제 침: 드르니, 이게 사:투리니까. {여기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 듣지만 이제 처음 들으니, 이게 사:투리니까.}

10315 @ 예 그마리 아주 조은 말:쓰를 마니 해 주시네요, 아 제가 잘 모 다라 드러서. {예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요, 아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10315 @ 근데 아 그러니까 아를 드문드문 시머야 그 보이게 되고, 그래서 토새기 이제 커지게 되  
능 거죠? {근데 아 그러니까 알을 드문드문 심어야 그 보이게 되고, 그래서 토새기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10315 # 예예. {예예.}

10315 @ 그르케 인제 옥수수 가통 경우에는 그냥 잘 자라나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자라나요, 여기에서는?}

10315 # 잘 자라지요 옥수수는. {잘 자라지요 옥수수는.}

10315 @ 무른 암 뿌려 조도 되나요? {물은 안 뿌려 줘도 되나요?}

10315 # 무른 암 뿌려요. {물은 안 뿌려요.}

10315 # 그 무를 무슨 수루 그 널분 바텔 뿌리게써요. {그 물을 무슨 수로 그 넓은 밭엘 뿌리겠  
어요.}

10315 @ 옥수수가 자라머는 이제 언제쯤 옥수수를 뱀니까? {옥수수가 자라면 이제 언제쯤 뱀니  
까?}

10315 # 아 옥수수는 글썄 내가 아까:두 얘기해지만 옥수수가 여무는 대로 눌러 수확걸 하능 거  
예요. {아 옥수수는 글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수수가 여무는 대로 바로 수확을 하는 거에  
요.}

10315 @ 언제쯤 여물조, 여무는, 대:채로? {언제쯤 여물조, 여무는, 대:채로?}

10315 # 머 벌써, 일찍 평 건 벌써 수확 헨 사람두 이꾸, 저 차록쭈수 가통 건. {뭐 벌써, 일찍 된  
건 벌써 수확한 사람도 있고, 저 찰옥수수 같은 건.}

10315 # 저 여는, 옥수수는 인제 겨우 돼: 가구 그러치요 머. {저 여는, 옥수수는 이제 거의 돼:  
가고 그렇지요, 뭐.}

10315 @ 그러머는 그 옥수수를 인제 자르자나요, 잘라서 그 옥수수를 따조, 옥수수를 따잔썸니까,  
옥수수를 따머는 그 어트케 합니까, 그다메 옥수수를 따서? {그러면 그 옥수수를 이제 자르잖아  
요, 잘라서 그 옥수수를 따조, 옥수수를 따잔썸니까, 옥수수를 따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담에 옥  
수수를 따서?}

10315 # 옥수수는 따서 지그른 저 자루가 마이 나와요, 여 엉성한 자루, 거기다 너:서 무꺼다 가  
따 싸아서 한다리구 두:다리구 \*\*\*\* 거그서 말려요, 마른 다:메 갈:게 인제 탈곡끼루 털:지요. {옥수  
수는 따서 지금은 저 자루가 많이 나와요, 여기 엉성한 자루, 거기다 넣어서 묶어서 갖다 쌓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 거기서 말려요, 마른 다음에 가을에 이제 탈곡기로 털:지요.}

10315 @ 아 그거또 탈곡끼로 텀:니까? {아 그것도 탈곡기로 텀:니까?}

10315 # 예. {예.}

10315 @ 근데 옥수수 인제 말리려고 이게 저기 실경에다가 요러케 요루:게, 고걸 머라고 합니까?  
{근데 옥수수 이제 말리려고 이게 저기 시렁에다가 요렇게 요령: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15 # 고거를 쪼:끔 씨 하능 거나 이러케 매: 다러 노치, 마이 하능 거 그걸 어따 다: 매다려요?  
{그거를 조금 씨 하는 거나 이렇게 매: 달아 놓지, 많이 하는 거 그걸 어디다 다: 매 달아요?}

10315 @ 그머 씨 하능 거는 어디다가 어트케 이게 옥수수 머깨를 이르게 하나로 무꺼가주고 이  
케 딱 언저 노코? {그럼 씨 하는 거는 어디다가 어떻게 이게 옥수수 몇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딱 엮어 놓고?}

10315 # 고거는 니: 토썽뚜 무꿀 쭈 이꾸 두 통씩뚜 무꿀 쭈 이꾸, 그래 하이튼 거러 노음. {그거  
는 네 토썽[옥수수 통]도 묶을 수 있고 두 통씩도 묶을 수 있고, 그래 하여튼 걸어 놓으면.}

10315 @ 옥수수를 한 통 두: 통 이러케 얘기하능 건가요? {옥수수를 한 통 두: 통 이렇게 얘기하  
는 건가요?}

10315 # 예예. {예예.}

10315 @ 옥수수 이제 한 토씨기에는 그 한 통이 나오능 거예요? {옥수수 이제 한 토씨에는 그 한 통이 나오는 거예요?}

10315 # 예예. {예예.}

10315 @ 한 먼개 며통을 이르게 가치 무꺼? {한 몇 개 몇 통을 이렇게 같이 묶어?}

10315 # 대:개 보:통 두: 통얼 자주 이르게 서루 묶지요. {대:개 보:통 두: 통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묶지요.}

10315 # 그래 자주 이르게 걸:은 자꾸 이케, 엘 드려 올레 걸:다 보든 이 머 나까리 모양 이르게 되기두 하구 그러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걸:면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올려 걸:다 보면 이 뭐 난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10315 @ 그머 그러케 무꺼 노:면 그다메는 이제, 그걸 씨를 할:려고 씨옥수수를 할려고 말리능 거 자나요, 그담: 보통 그냥 보:통 옥수수는 이케 말려 나:따가 이제 떠러서 어떻게 해 먹썸니, 그거를? {그럼 그렇게 묶어 놓으면 그담에는 이제, 그걸 씨를 하려고 씨 옥수수를 하려고 말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그냥 보:통 옥수수는 이렇게 말려 났:다가 이제 떨어져 어떻게 해 먹썸니까, 그거를?}

10315 # 그거는 멍능 게 아니구 전부라 머 파라 머그니까, 지금 여기서 멍년 옥수수는 안 해애.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팔아 먹으니까, 지금 여기서 먹는 옥수수는 안 해요.}

10315 @ 아 예저네 머거짜나요. {아 예전에 먹었잖아요.}

10315 # 엔:나레 차록쭈수 해 자주 이르게 머거찌 지그든 사:람 멍년 옥수수는 차록쭈수라능 거 그거만 하지 여능 건 사루용 머 이렇 거 해요. {옛:날에 찰옥수수 해 가지고 이렇게 먹었지 지금은 사:람 먹는 옥수수는 찰옥수수라는 거 그거만 하지 여느 것은 사료용 뭐 이런 거 해요.}

10318 @ 엔나레 차록쭈수 하려는 그거 아까 탈곡끼에 떠러서 보관해따가 어뜨게 해 먹썸니까? {옛날에 찰옥수수 하면 그거 아까 탈곡기에 떨어져 보관했다가 어떻게 해 먹썸니까?}

10318 # 고거는 이 초:네서는 매토:리래능 게 이짜나요, 이케 돌리는, 매토레다 태레가주구 이르게 해서 까불러가주구. {그거는 이 촌:에서는 맷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맷돌에다 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까불어 가지고.}

10318 @ 매토레 태긴다고요? {맷돌에 태긴다고요?}

10318 # 예 태긴다 그러지요 그거를. {예 태긴다 그러지요 그거를.}

10318 @ 아 매토레 이르게. {아 맷돌에 이렇게.}

10318 # 이르게 이케 구녕 이짜나여, 구녕어다 이거 지버노쿠 이르게 돌레가주 이케 나와요, 그러든 까:불러가주구 싸를 다시 골라가주 그걸루 바벌 해 먹꾸 그래찌요. {이렇게 이케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 이거 집어 놓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케 나와요, 그러면 까:불어 가지고 쌀을 다시 골라 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 먹고 그랬지요.}

10318 @ 아 태긴다능 거는 이거 매토:로 가:능 걸 태긴다고 하나요? {아 태긴다는 거는 이거 맷돌:로 가:는 걸 태긴다고 하나요?}

10318 # 예. {예.}

10318 @ 아 그걸 이제. {아 그걸 이제.}

10318 #1 그거또 사투리야. {그것도 사투리야.}

10318 @ 예 매토로 옥수수를 태기머는 아주 머. {예 맷돌로 옥수수를 태기면 아주 뭐.}

10318 # 여 옥수수가 이제 부서서 나오지요, 부서서 나오든 거 가루는 따루 또 머 해 먹꾸 또 이 까불러가주구 그걸 알개~이~ 나옹 건 바벌 해 먹꾸. {여기 옥수수가 이제 부서져서 나오지요, 부서져서 나오면 거 가루는 따로 또 뭐 해 먹고 또 이 까불어 가지고 그걸 알갱이 나온 거는 밥을 해 먹고.}

10318 @ 예, 아 그러케 그러케 알갱이로 바벌 해 노쿠. {예, 아 그렇게 그렇게 알갱이로 밥을

해 놓고.}

10318 @ 옥수수를 옥수수 그럼 인제 대 이짜나요, 옥수수 대, 따고 나면 대, 그렇거는 어뜨케?  
{옥수수를 옥수수 그럼 이제 대 있잖아요, 옥수수 대, 따고 나면 대, 그런 거는 어떻게?}

10318 # 그거는 쇠, 소메기루 쓰능 거야. {그거는 소, 소 먹이로 쓰는 거야.}

10318 @ 그 미똥을 자릅니까? {그 밀등을 자릅니까?}

10318 # 예 미똥을 잘라가주고 요러케 무껴서 다 이러커 세워 놔:따가 고게 가:리든 잘 말라요,  
그래 말려서 겨울게 저다가 쏘라서 주능 거예요. {예 밀등을 잘라 가지고 요렇게 묶어서 다 이렇  
게 세워 놔:다가 그게 가을이면 잘 말라요, 그래 말려서 겨울에 저다가 썰어서 주는 거예요.}

10318 @ 아 쏘라가지고요. {아 쏘아 가지고요.}

10318 # 예. {예.}

10318 @ 아 그걸 이제 거이 다 그거는? {아 그걸 이제 거의 다 그거는?}

10318 # 그게 마지막 파저~이~지 머. {그게 마지막 과정이지 뭐.}

10318 @ 그러며는 그 옥수수 껍질도 이짜나요, 옥수수 뺨 나머지 알도 이꼬, 껍때기 이짜나요.  
{그러면 그 옥수수 껍질도 있잖아요, 옥수수 뺨 나머지 알도 있고, 껍때기 있잖아요.}

10318 # 그건 머 거그서 인제 대궁, 속:때궁. {그건 뭐 거기서 이제 대궁, 속: 대궁.}

10318 @ 예 속때궁도 이꼬 껍질 그렇거는 어디에 씹니까? {예 속 대궁도 있고 껍질 그런 거는 어  
디에 씹니까?}

10318 # 그거 속:때구~은~ 메태전엔 머 사가는 사람들 이떠니 이제 사가지 앙쿠 지비서 태워뿌리  
구 마라요. {그거 속: 대궁은 몇 해 전에 뭐 사 가는 사람들 있더니 이제 사 가지 않고 집에서 태  
워 버리고 말아요.}

10318 @ 아 그래요, 옥수수 대궁을요? {아 그래요, 옥수수 대궁을요?}

10318 # 예. {예.}

10318 @ 엔:나레는 그걸 뭘:로 사용했나요, 옥수수 대궁이나? {옛:날에는 그걸 뭘:로 사용했나요,  
옥수수 대궁이나?}

10318 # 엔:나레 다 기낭 불쌀러꾸 마러지 머 메태저넌 걸 또 장사꾸니 마이 사가씨요, 그땐 파라  
무꾸 그래 \*게 지그른 가져가질 아나요. {옛:날에 다 그냥 불살랐고 말았지 뭐 몇 해 전엔 그걸  
또 장사꾼이 많이 사 갔어요, 그땐 팔아 먹고 그래 \*게 지금은 가져 가질 않아요.}

10318 @ 엔나레는 어디에다가?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10318 # 엔:나렌 아궁이에 다: 태워뿌레쨌요. {옛:날엔 아궁이에 다: 태워 버렸지요.}

10318 # 근데 그 아주 엔:나렌 지금보다두 옥수수 마니 안 해쨌요, 조이허구 머 저 콩 시꾸 이러  
다 보니까 옥수수 쪼끔씩 했는데 지그른 옥수수를 주로 마니 하자나요. {근데 그 아주 옛:날엔 지  
금보다도 옥수수 많이 안 했지요, 조하고 뭐 저 콩 심고 이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쪼끔씩 했는데  
지금은 옥수수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10315 @ 엔나레 그럼 어르신 조이를 마니 하셔쨌요? {옛날엔 그럼 어르신 조를 많이 하셨어요?}

10315 # 그러치 조이를 마이 해쨌. {그렇지 조를 많이 했지.}

10315 @ 콩은? {콩은?}

10315 # 콩, 콩, 조이를 마이 하능 거예요, 엔:나레느. {콩, 콩, 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315 @ 그럼 콩은 어뜨케 재배를 해쨌나요? {그럼 콩은 어떻게 재배를 했었나요?}

10315 # 콩은, 그러까 소루 가러노쿠 고 이제 시기가 되든 콩 시기가 되든 그때 심:능 거지요.  
{콩은, 그러니까 소로 갈아놓고 그 이제 시기가 되면 콩 시기가 되면 그때 심:는 거지요.}

10315 @ 보통 옥수수 그대:메 밀, 그다메 옥수수 밀 보리하고 시기저긴 차이가 인나요? {보통 옥  
수수 그다음에 밀, 그다음에 옥수수 밀 보리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나요?}

10315 # 차이가 만치요. {차이가 많지요.}



10315 # 콩이 젤: 느께 시머요. {콩이 제일 늦게 심어요.}

10315 @ 한 유월파래 심:나요? {한 유 월달에 심:나요?}

10315 # 유월파래 시머두 먹꾸 머 오월파래 시머두 먹꾸. {유 월달에 심어도 먹고 뭐 오 월달에 심어도 먹고.}

10315 @ 주로 어떻 콩을 주로 하션나요? {주로 어떤 콩을 주로 하셨나요?}

10315 # 콩이 머이 하두 여러가지가 돼:서요 머. {콩이 뭐 하도 여러가지가 되어서요 뭐.}

10315 @ 여러가지 다: 하셔썬요? {여러가지 다: 하셨어요?}

10315 # 그러치, 엔:나레 배미코이라능 게 이꼬. {그렇지, 옛:날에 뱀콩이라는 게 있고.}

10315 @ 배미콩뇨? {뱀콩요?}

10315 # 응, 배미코~이라능 게 또 이썬요. {응, 뱀콩이라는 게 또 있어요.}

10315 @ 배미콩. {뱀콩.}

10315 # 예. {예.}

10315 # 배미코~이~라능 게 쯔 똥구르리하미션 이르게 바벌 해른 거 마시 조:쿠 이제 그렇 게 이꾸, 기낭 저 흰콩은 백태라능 거는 건 바벌 모:태 머거요, 미주나 쭈구 그렇 거지. {뱀콩이라는 게 쯔 둥그스름하면서 이렇게 밥을 하면 그거 맛이 좋: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냥 저 흰콩은 백태라는 거는 그건 밥을 못 해 먹어요.}

10315 @ 아 그머 인제 그 두 개만 주로 하셔썬니까? {아 그럼 이제 그 두 개만 주로 하셨습니까?}

10315 # 거 콩두 또 또 여러가지예요. {그거 콩도 또 또 여러가지예요.}

10315 # 청태라능 게 또 이썬요, 이 새파랑 콩이 또 이썬요, 새파랑 게. {청태라는 게 똥 있어요, 이 새파란 콩이 또 있어요, 새파란 게.}

10315 # 그렇 콩두 하구 머, 여 지비서 지비서 멍녕 건 인제 그렇 걸 주루 해 머지. {그런 콩도 하고 뭐, 여기 집에서 집에서 먹는 건 이제 그런 걸 주로 해 먹지.}

10315 @ 청태를료? {청태를요?}

10315 # 예 청태두 허구 배미코~이~라능 거뚜 마니 허고. {예 청태도 하고 뱀콩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10315 @ 아 배미콩도 해서 마니 드시고 그러셔썬요. {아 뱀콩도 해서 많이 드시고 그러셨어요.}

10315 # 예. {예.}

10315 @ 그머 그 콩가통 거뜨른 유월파래 똑까치 소로 바틀 가라가지고. {그럼 그 콩 같은 것들은 유 월달에 똑같이 소로 밭을 갈아 가지고.}

10315 # 예, 가치 심녕거요. {예, 같이 심는 거요.}

10315 @ 그거는 머 또 옥수수나 씨뿌리능 거하고 가썬니까 어뎌, 쯔 다릅니까? {그거는 뭐 또 옥수수나 씨 뿌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어뎌, 쯔 다릅니까?}

10315 # 다르지요, 옥수수는 하날씩 이러케 심지만 , 그거는 열 알씩 시무니까 별썬. {다르지요, 옥수수는 한 알씩 이렇게 심지만, 그거는 열 알씩 심으니까 별썬.}

10315 @ 아 열 알씩. {아 열 알씩.}

10315 # 예 호미루 파구서느 노쿠 시머요. {예 호미로 파고서는 놓고 심어요.}

10315 @ 그거는 인제 드문드문 하나요, 촘촘미 하나요? {그거는 이제 드문드문 하나요, 촘촘히 하나요?}

10315 # 드문드문 해이지. {드문드문 해야지.}

10315 @ 드문드문 해:서 그다메 이게 덩썬? {드문드문 해:서 그답에 이게 덩썬?}

10315 # 호미루 파민서 \*\*\*\* 노쿠선 호미루 이르게 더퐁 거지요. {호미로 파면서 \*\*\*\* 놓고선 호미로 이렇게 덩은 거지요.}

10315 @ 음, 결국 반농사는 거이 비스빠스타네요, 약까네 이제 시기만 다를뿐이지. {음 결국 밭농사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약간의 이제 시기만 다를 뿐이지.}

10315 # 예 시기만 다르지 다 비스태요. {예 시기만 다르지 다 비슷해요.}

10313 @ 엔나레 여기는 콩이나 서리가통 거 어릴 때 장난친다고 막 서리도 마니 하조, 사람드리, 장난친다고, 어른도 장난 한번 쳐, 하면서? {옛날에 여기는 콩이나 서리 같은 거 어릴 때 장난친다고 막 서리도 많이 하조,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어른도 장난 한번 쳐, 하면서?}

10313 # 아 엔:나레 다 그래쪄요 머. {아 옛:날에 다 그랬지요 뭐.}

10313 @ 어떤 서리를 마니 해썬나요? {어떤 서리를 많이 했었나요?}

10313 # 우리느 옥수수가튼 서리하구 감자가튼 걸 해:쪄요. {우리는 옥수수 같은 서리하고 감자 같은 걸 했:지요.}

10313 # 여르메, 엔:나렌 우리 클 쪄 머글 께 읍썩가 가서 저 갱변에다 도:르 이르케 파:노쿠 부를 마:이 해 놔:요. {여름에, 옛:날엔 우리 클 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저 강변에다 돌:을 이렇게 모아 놓고 불을 많:이 해 놔:요.}

10313 # 그럼 구시랄 거그다 노코 한쪄게다 이르케 노쿠션 파무꾸서느 이 푸를 베:다가 그얼 파 무더요. {그럼 삼굿을 거기다가 놓고 한쪄에다 이렇게 놓고선 파묻고선 이 풀을 베:다가 그걸 파 묻어요.}

10313 @ 구슬 한다고요? {굿을 한다고요?}

10313 # 예 상꾸시라구 인제. {예 삼굿이라고 이제.}

10313 @ 아 상꾸슬. {아 삼굿을.}

10313 # 예. {예.}

10313 # 그래서 도:를 당게가주구 이르케 해서 이짜아다 구녕얼 내 노쿠션 거더 폭: 더꾸서는 거다 무를 퍼다 폭: 쭈른 그느무 지:미 잘 다른 데서 빠져 나오질 못하이 그쪄그루 나가게 망그러썩썩 요, 거기 드러가서 이거가꼬, 지:메. {그래서 돌:을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쪄에다 구멍을 내 놓고 거기다가 폭: 덮고서는 거기다 물을 퍼다 폭: 주면 그놈의 김:이 잘 다른 데서 빠져 나오질 못 하니 그쪄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 가서 익어 갖고, 김:에.}

10313 @ 아 그이까 상꾸슬 이르케 쪄 파노코 그다메 거기를 밭:로 덩나요? {아 그러니까 삼굿을 이렇게 쪄 파 놓고 그담에 거기를 밭:로 덩나요?}

10313 # 거 \* 다시 부를 짜뜩 해노쿠션 내중에 고 물쪄 때는 더퍼이 돼요, 푸를 베:다 노쿠서느 그다메 흐그루 아주 지:미 몬 나오게 쪄 더퍼노쿠션 그쪄그루만 나가야만 그 지:메 다 이겨요. {거 \* 다시 불을 잔뜩 해 놓고선 나중에 그 물 쪄 때는 덮어야 돼요, 풀을 베:다 놓고서는 그담에 흙으로 아주 김:이 못 나오게 쪄 덮어 놓고선 그쪄으로만 나가야만 그 김:에 다 익어요.}

10313 @ 아 고기다가 그럼 이제 콩이나 이렇 걸 놔? {아 거기다가 그럼 이제 콩이나 이런 걸 놔?}

10313 # 예 콩두, 콩은 대:개 인제 황덕 해 노쿠. {예 콩도, 콩은 대:개 이제 황덕 해 놓고.}

10313 @ 황덕? {황덕?}

10313 # 예 부를, 불 마이 해 놓겔 황더기라 그래요, 여기선. {예 불을, 불 많이 해 놓은 걸 황덕이라 그래요, 여기선.}

10313 # 저 야외 나감 저 불덜 마이 피우자나요, 지금, 우린 그걸 불 마이 \*\* 걸 보고 황더기 그러지 황더글 해: 노쿠션 거그다 콩얼 가따 지버 너:른 그 익:짜나요, 이그른 부를 다 그러내구션 거기서 주워서 까먹꾸 그래쪄요. {저 야외 나가면 저 불들 많이 피우잖아요, 지금, 우린 그걸 불 많이 \*\* 그걸 보고 황덕이라 그러지 황덕을 해: 놓고선 거기다 콩을 갖다 집어 넣으면 그 익:잖아요, 익으면 불을 다 굶어 내고선 거기서 주워서 까 먹고 그랬지요.}

10313 @ 아 인제 콩이나 밀 옥수수가튼 거요, 닥가튼 거도 헨나요? {아 이제 콩이나 밀 옥수수

같은 거요, 닭 같은 거도 했나요?)

10313 # 에이 닭까튼 거는 안 해썬요. {에이 닭 같은 거는 안 했어요.}

10314 @ 이 지피 이짚썬니까 엔나레 보리짚, 보리도 이꼬, 집, 보리나 베짚, 이렇 게 이썬썬 안썬니까, 지푸로는 머 예저네 머 마니 만드러썬 이거썬. {이 짚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보리짚, 보리도 있고, 짚, 보리나 벼짚,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짚으로는 뭐 예전에 뭐 많이 만들었썬 이것저것.}

10314 # 지푸론 마:니 맨드런는데 엔:나레 머 전부라 이 초가지비니까 갈:게 지:른 그걸루 이영 여껴서 집 해 이:느라구 지핀 머 별루. {짚으로는 많:이 만들었는데 옛날에 뭐 전부 다 이 초가지비니까 가을에 지으면 그걸로 이영 엮어서 집 해 이:느라고 짚은 뭐 별로.}

10314 @ 그 방성 만드능 거나 집썬 만드능? {그 방석 만드능 거나 짚신 만드능?}

10314 # 예 집썬는 \*\*\* 다: 쌍:꾸, 또 멍석뚜 엔나렌 그걸 멍서기라 그러지요, 멍서건 겨우리른 다: 멍성 맨들구. {예 짚신은 \*\*\* 다: 삼:고, 또 멍석도 옛날엔 그걸 멍석이라 그러지요, 멍석은 겨울이면 다: 멍석 만들고.}

10314 # 지그른 머 침막 머 이렇게 참 까를 게 만:치만 엔나렌 다: 맨드러 썬썬나요. {지금은 뭐 천막 뭐 이런 게 참 깔 것이 많:지만 옛날엔 다: 만들어 썬썬아요.}

10316 @ 여기 과이른 과일 룡사도 썬 지언나요? {여기 과일은 과일 농사도 썬 지었나요?}

10316 # 안 제:썬요 과일 룡사는. {안 지었어요 과일 농사는.}

10317 @ 여기 인제 바치나 인제 드리나 사네 가면 풀\*이 굉장이 만초, 풀, 어르시니 이제 머 아는 풀 썬 이썬니까? {여기 이제 밭이나 이제 들이나 산에 가면 풀\*이 굉장히 많썬, 풀, 어르신이 이제뭐 아는 풀 썬 있습니까?}

10317 # 풀 머 이르믄 다: 델: 썬가 인나요 머, 이름두 다: 모르지만 푸리 허두 마느니. {풀 뭐 이름을 다: 델: 수가 있나요 뭐, 이름도 다: 모르지만 풀이 매우 많으니.}

10317 @ 예 그러케썬. {예 그렇썬썬.}

10307 @ 금 예저네는 옥썬수 마니 안 하고 어떻 걸 주로 마니 해썬요? {그럼 예전에는 옥썬수 많 이 안 하고 어떤 걸 주로 많이 했어요?}

10307 # 콩, 콩 조이를 마이 해요. {콩, 콩, 조를 많이 해요.}

10307 @ 콩은 어떻 콩, 종뉴가 이짜나요? {콩은 어떤 콩, 종류가 있잖아요?}

10307 # 백캐래능 거뚜 이꾸 그러지요, 허영 콩을 백태라 그래요, 백태 마이 해요. {백태라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하얀 콩을 백태라 그래요, 백태 많이 해요.}

10307 @ 그거는 어떤, 어떠썬니까, 만, 만또 괜찬코? {그거는 어떤, 어떻습니까, 맛, 맛도 괜찮고?}

10511 # 그걸루 메주 썬지요, 메주 썬구, 두부 해 먹꾸 그래니까 주로 콩탕이라능 걸 아:시나? {그걸로 메주 썬지요, 메주 썬고, 두부 해 먹고 그러니까 주로 콩탕이라는 걸 아:시나?}

10511 @ 예? {예?}

10511 # 콩탕이라능 걸. {콩탕이라는 것.}

10511 @ 콩탕은 모르겐는데요. {콩탕은 모르썬는데요.}

10511 # 콩얼 가라서 매또레다 가라서 이르케 저 끄레요, 그래 콩탕이라능 게 이썬요, 그 주로 그 걸 마이 해 머거썬요. {콩을 갈아서 맷돌에다 갈아서 이렇게 저 끓여요, 그래 콩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로 그걸 많이 해 먹었어요.}

10511 @ 아 콩을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아 콩을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10511 # 매또레다 가라서 해요. {맷돌에다 갈아서 해요.}

10511 @ 갈면 인제 그 머 콩무리, 콩무리 나오네요. {갈면 이제 그 뭐 콩물이, 콩물이 나오네요.}

10511 # 예 콩무리 나와가주 비지채루 그얼 쌀머서 이르케 멍능 걸 콩탕이라 그래요, 주로 그걸

마이 해 머거썬요. {예, 콩물이 나와 가지고 비지찌로 그걸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걸 콩탕이라 그래요, 주로 그걸 많이 해 먹었어요.}

10511 @ 콩으로 그걸 해 먹꼬요, 그다:메 조이? {콩으로 그걸 해 먹고요, 그다음에 조?}

10511 # 조이는 좁쌀밥. {조는 좁쌀밥.}

10308 @ 그럼 저 화저를 할 때 먼저 인제 사니 이쓰면 아무 사니나 무조건 하나요 아니며는 무슨? {그럼 저 화전을 할 때 먼저 이제 산이 있으면 아무 산이나 무조건 하나요, 아니면 무슨?}

10308 # 그때야 무조건 행: 거지요 머. {그때 무조건 한 거지요 뭐.}

10308 @ 그머 사네 가서 먼저? {그럼 산에 가서 먼저?}

10308 # 먼저 그 저 걸, 자리 잡는다 그래요, 가서 인제 어디에 사니 이짜나요, 그램 고 모테를 나물 까껴서, 이만::침 봐:나요. {먼저 그 저 그걸, 자리 잡는다 그래요, 가서 이제 어디에 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곳을 나무를 깎아서, 이만::큼 모아 봐요.}

10308 @ 아, 고 할 꼬슬? {아, 그 할 곳을?}

10308 # 예, 요거 할 꼬슬 인제, 그 마:능 건 다: 못 태자나요, 그르이가 자리 잡는다능 거시 요만::침 미 평 해: 노치, 딴 사라미 소늘 못 때요. {예, 요거 할 곳을 이제, 그 많:은 건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다는 것이 요만::큼 몇 평 해: 놓지, 딴 사람이 손을 못 대요.}

10308 @ 아 그럼 미리 먼저. {아 그럼 미리 먼저.}

10308 # 자리 자리 자븐 사라미 허지. {자리 자리 잡은 사람이 하지.}

10308 @ 임:자네요. {임:자네요.}

10308 # 예, 임:자지. {예, 임:자지.}

10308 @ 고르케 그러면 자리를 잡는다능 거는 나무를 전부 까까서. {그렇게 그러면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나무를 전부 깎아서.}

10308 # 예 까까서 이르케. {예 깎아서 이렇게.}

10308 @ 만냐게 똥:구러케. {만약에 똥:그렇게.}

10308 # 예예 봐: 노치요, 그걸 자리자버따 그래요. {예예 모아 놓지요, 그걸 자리잡았다 그래요.}

10308 @ 그럼 고게 나무는 머:로 이러케 하나요? {그럼 그게 나무는 뭐:로 이렇게 하나요?}

10308 # 나스루 짜르지요 머. {낫으로 자르지요 뭐.}

10308 # 낫, 나다과 도끼하과. {낫, 낫하고 도끼하고.}

10308 # 큰 나무는 도끼루 찌거이 되구 나스루 못 찌그니까. {큰 나무는 도끼로 찍어야 되고 낫으로 못 찍으니까.}

10308 @ 그거 도:끼 잘못 찍따가 다치기도 하자나요. {그거 도:끼 잘못 찍다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10308 # 예. {예.}

10308 # 근데 그때만 해두 토비 드무러요, 토번 참 우리가 전부라 도끼루 허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톱이 드물어요, 톱은 참 우리가 전부 다 도끼로 하지요.}

10308 # 인:나레 그 사네 저런 수철 구와두 토비 읍:썬요, 도끼루 다 비:치. {옛:날에 그 산에 저런 솥을 구워도 톱이 없:어요, 도끼로 다 뺏:지.}

10103 @ 그럼 도끼를 해 가지고 인제 그 다 모이자나요 모이면 어떠캄니까, 자리 잡꼬? {그럼 도끼를 해 가지고 이제 그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 잡꼬?}

10308 # 부를 싸 노치요. {불을 쌓아 놓지요.}

10308 @ 아 거게 싸: 논 상태에서. {아 거기에 쌓아 놓은 상태에서.}

10308 # 예, 부를 다: 싸: 노타 보문 등거지가 드문드문 남짜나요, 이 터러기 다: 안 타자나요, 걸 봐: 노코 또 다 태워요. {예, 불을 다: 쌓아 놓다 보면 등거지가 드문드문 남잖아요, 이 터럭이 다: 안 타잖아요, 그걸 모아 놓고 또 다 태워요.}

10308 @ 그러며는 머로 태웁니까? {그러면 뭐로 태웁니까?}

10308 @ 옌나렌 라이타, 지그른 라이타도 이찌만, 라이타도 엄는데요? {옛날엔 라이타, 지금은 라이타도 있지만, 라이타도 없는데요?}

10308 # 사무 성냥, 성냥 아니른 부시, 부시루 이르케 처 가주, 그 가주 여기서 이개 부시깨르 마니 해 가주 불:문 부리 나와요, 부리 부터요, 타요. {항상 성냥, 성냥 아니면 부시, 부싯돌로 이렇게 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개 불쏘시개를 많이 해 가지고 불:면 불이 나와요, 불이 붙어요, 타요.}

10308 @ 그래서 이제 그 삼뿔라고 양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불나고 안 그러나요?}

10308 # 삼뿌리 마이 나찌요, 재정 땐, 그랭간 나:무가 업써요 요새 사네 나무가, 삼뿔 마~이~ 나찌요. {산불이 많이 났지요, 왜정 땐,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요새 산에 나무가, 산불 많이 나찌요.}

10308 # 그러니까 그때 이 사니 부리 타른 고사리 나무리 그르케 마이 나와요, 지그른 그 그룽게 자 란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산이 불이 타면 고사리 나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 그룬 게 잘 안 나오지요.}

10308 # 나무가 자라른 그룽 게 다 읍써져요. {나무가 자라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10308 @ 예 그래서 왜정 때는 머 거이 머 나무가 다 타가지고 머? {예 그래서 왜정 때는 뭐 거의 뭐 나무가 다 타 가지고 뭐?}

10308 # 그럼뇨. {그럼요.}

10308 # 그이까 저른 데 저 화전두 몬 혈 때 요르케 똑 불거전은 데 그런 데만 좀 나무가 이찌 요르케 저런 텐 하지를 몬 하자나요. {그러니까 저런 데 저 화전도 못 할 데 요렇게 똑 불거진 데 그런 데만 좀 나무가 있지 요렇게 저런 데는 하지를 못 하잖아요.}

10308 # 까파르구 머 여기 또 미말르구 자갈 망쿠 그르잉까 몬 허구 사네 인제 자갈 읍:꾸 좀 그 수매가 집따 그러지 여기서, 도:릅씨 이르케 그렁 거 여기서 수매가 집따 그래요 그걸, 그런 텐 게:속 짜꾸 해 먹찌요. {가파르고 뭐 여기 또 메마르고 자갈 많고 그러니까 못 하고 산에 이제 자갈 없:고 좀 그 수풀이 깊다 그러지 여기서, 돌: 없이 이렇게 그런 거 여기서 수풀이 깊다 그래요 그걸, 그런 텐 게:속 자꾸 해 먹찌요.}

10308 # 함버니고 아니, 그해만 해 멍능 게 아이라 메태구 자꾸 해머겨요, 곡써기 안 되두루, 그런 텐 곡써기 잘 돼:, 잘 되기두. {한번이고 아니, 그해만 해 먹는 게 아니라 몇 해고 자꾸 해 먹어요, 곡식이 안 되도록, 그런 텐 곡식이 잘 돼:, 잘 되기도.}

10308 @ 다 타고 나머는 바로 할 쏘 업짜나요, 해고 나서 태우고 나서 그다:메는? {다 타고 나면 바로 할 쏘 없잖아요, 하고 나서 태우고 나서 그다음에는?}

10308 # 아이 그이까 태우고 나서 그해는 다: 하지요, 그해. {아니 그러니까 태우고 나서 그해는 다: 하지요, 그해.}

10308 # 인제 보메 일찌감치 해 가주구 그제 인제 뜨구워선 금방은 몬 허지요, 이트리구 사호리구 이따가 또 갈:구 인제 해 부치능 거지요. {이제 봄에 일찌감치 해 가지고 그제 이제 뜨거워선 금방은 못 하지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다가 또 갈:고 이제 해 부치는 거지요.}

10308 @ 그래 그머 한쪽만 하능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가치 하능 거네요. {그래 그럼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같이 하는 거네요.}

10308 # 그러치요 다 가치 허지요. {그렇지요 다 같이 하지요.}

10308 # 그잉까 나는 함 바짜리 이만::춤 해따른 판 사람 또 저::짜게 또 판 데 이르케 크구 머 이르케. {그러니까 나는 한 발자리 이만::큼 했다면 판 사람 또 저::쪽에 또 판 데 이렇게 크고 뭐 이렇게.}

10308 # 꺼너 어떤 사라른 크게 하지만 한, 이 이골짜그루 드러가서두 머 무싱 골 무싱 골 따로

이짜나, 아주 항 고:를 차지하는 사람두 이꾸 한 골짜우에 머 두:집 하는 사람두 이꾸 그러치요 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하지만 한, 이 이 골짜기로 들어 가서도 뭐 무슨 골 무슨 골 따로 있잖아, 아주 한 골: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한 골짜에 뭐 두: 집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뭐.}

10308 @ 아 그러면 갈 때는 여러 사라마 가치 가겠네요? {아 그러면 갈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겠네요.}

10308 # 가치 가지요. {같이 가지요.}

10308 @ 아 가치 가서 그다메 차를 때는 어트게 인제 자리 자를 때는 어트케? {아 같이 가서 그답에 찾을 때는 어떻게 이제 자리 잡을 때는 어떻게?}

10308 # 자리자를 켜 저 혼자 하구요. {자리 잡을 적엔 저 혼자 하고요.}

10308 @ 아 그머 인제 근데 아무때나 모타고 아까 까프린 데는 안 된다 그래꼬. {아 그럼 이제 근데 아무때나 못 하고 아까 가파른 데는 안 된다 그랬고.}

10308 # 그러치요 까파른 텐 모 다지요, 그래 어느 골짜기에도 어지가니 소두 갈:구 켜퍼난 데가 이짜나요, 그런 데를 가서 자릴 자버가주 허능 거지요. {그렇지요 가파른 텐 못 하지요, 그래 어느 골짜기에도 어지간히 소도 갈:고 편편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10308 @ 금 먼저 자리 잡능 게 임:장가요? {그럼 먼저 자리 잡는 게 임자인가요?}

1030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8 # 그래 가주 김: 땀 때 인제 혼자 매는 때두 이꾸 혼자 몸 땀 때 서루 푸마시루 해서 도려 가서 한 여라무씩 가서 이르게 매구. {그래 가지고 김: 땀 때 이제 혼자 매는 때도 있고 혼자 못 땀 때 서로 품앗이로 해서 돌아 가서 한 여남은씩 가서 이렇게 매고.}

10307 @ 그러케 인제 그췌게서 그런 데서는 주로 어떤 쿡을 쿡도 삼:꼬? {그렇게 이제 그췌에서 그런 데서는 주로 어떤 쿡을 쿡도 삼:고?}

10307 # 쿡하과 조이를 마이 시머요. {쿡하고 조를 많이 삼어요.}

10307 # 주로 쿡과 조이, 판. {주로 쿡과 조, 팔.}

10307 @ 아 판. {아 팔.}

10307 # 예 팔두 마이 심꾸. {예 팔도 많이 심고.}

10201 @ 언제부터 어르시는 어르신 그? {언제부터 어르신은 어르신 그?}

10201 # 난 머 췌꼬매서버텨 췌차 대, 으른들 췌차 땡기민 이:를 그르케, 학교 안 땡기니까 그룽 걸 배우구 지게질 허구 그래 그룽 거지요. {난 땡 조그마해서부터 췌차 대, 어른들 췌차 다니며 일:을 그렇게, 학교 안 다니니까 그런 걸 배우고 지게질 하고 그래 그런 거지요.}

10327 @ 지게 이제 지게를 지고 그다메 소 데리고 그르케 가능 거네요. {지게 이제 지게를 지고 그답에 소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거네요.}

10327 # 여르미른 꼴, 나꼬리 비고. {여름이면 꼴, 낫꼴 베고.}

10327 # 지그른 꼬를 췌:꿈 이르게 췌:라 미기니까 췌꿈 주는데 엔:나란 아:무 푸리구 잔:뚝 한 짐 저다 기낭 이르게 지게 채루 디리대 준다구요. {지금은 꼴을 조금 이렇게 췌:어 먹이니까 조금 주는데 옛:날엔 아:무 풀이고 잔:뚝 한 짐 저다 그냥 이렇게 지게 채로 들이 대 준다고요.}

10327 # 디리대른 소가 이르게 먹다 확: 툴리든 뒤에 가 다: 떨어지구 소머글 께 업췌요. {들이 대면 소가 이렇게 먹다 확: 돌리면 뒤에 가 다: 떨어지고 소머글 께 없어요.}

10327 # 지그른 벼:다가 어느 정도씩 췌:러 주니까 췌 따 먹짜나요, 엔나렌 비어 와야, 한 짐 이빠 이 지구 오른 하나람 머글가 말:까 해요, 인:나린. {지금은 벼:다가 어느 정도씩 췌:어 주니까 췌 다 먹잖아요, 옛날엔 벼어 와야, 한 짐 가득 지고 오면 한아름 먹을까 말:까 해요, 옛:날은.}

10327 # 지그른 기계가 이씨이가 해쩌만 엔:나렌 그걸 무신 수루 작뚜루 이래 하른 한 사람 이르

케 디레 대이지 한 사람 디더애지, 그 송꾸락뚜 찢러지구 그러자나요.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했지만 옛날엔 그걸 무슨 수로 작두로 이렇게 하면 한 사람 이렇게 들이 대야지 한 사람 디더야지, 그 손가락도 잘라지고 그러잖아요.}

10327 @ 그 옛날에는 소가 그르케 그냥 주면 암 머거요? {그 옛날에는 소가 그렇게 그냥 주면 안 먹어요?}

10327 # 예? {예?}

10327 @ 안 쏘라 주지 아르면 암 머거요? {안 썰어 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10327 # 아 지그른 이게 폴드리 드러가능 거 쏘라주구 옛날엔 글썸 기낭 준다니까요. {아 지금은 이게 폴들이 들어 가는 거 썰어 주고 옛날엔 글썸 그냥 준다니까요.}

10327 # 기양두 지금두 잘 먹쥬요, 멍는데 지금두 그 가파 드리대른 물구 확:: 땡기른 뒤에가 다 떠러지구 머글 게 얼마 안 돼요, 저러케 쏘:라가주 다머 주니까 다 먹쥬. {그냥도 지금도 잘 먹쥬요, 먹는데 지금도 그 갖다 들이 대면 물고 확:: 당기면 뒤에 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얼마 안 돼요, 저렇게 썰:어 가지고 담아 주니까 다 먹쥬.}

10327 @ 그러니까 이제 저러케 쏘라서 향군데 다 다마주면 그르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썰어서 향군데 다 담아 주면 그렇게.}

10327 # 예, 다 먹짜나요. {예, 다 먹잖아요.}

10327 @ 이르케 막 해치면서 먹뜬데요? {이렇게 막 해치면서 먹던데요?}

10327 # 예, 해침서요, 그래 몸: 머글 건 다 골라 나:요, 요르케. {예, 해치면서요, 그래 못: 먹을 건 다 골라 나:요, 이렇게.}

10327 @ 아 그래요, 영니하네요. {아 그래요, 영리하네요.}

10308 @ 그르케 이제 받까튼, 그러며는 어르신 이게 일러네 일런, 이러케 이쓰며는 이를 마니 하자나요, 일러네, 이를 하는데 먼저 보미 되며는 만냐게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보미 되자나요, 이제, 겨울 지나서 보미 되며는 보미 되면 쥬 먼저 어떻 걸 함니까, 보미 되면 이제 뭘 준비를 하나요? {그렇게 이제 밭 같은, 그러면 어르신 이게 일 년에 일 년, 이렇게 있으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 년에, 일을 하는데 먼저 봄이 되면 만약에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봄이 되잖아요, 이제, 겨울 지나서 봄이 되면 봄이 되면 쥬 먼저 어떤 걸 함니까, 봄이 되면 이제 뭘 준비를 하나요?}

10308 # 보미 되믄뇨? {봄이 되면요?}

10308 @ 예 이를 할려며는, 이를 할 때? {예 일을 하려면, 일을 할 때?}

10308 # 이:를 처::매 하른 보메 이 해:토허자마자 뒤에 소를 가주 갈키능 거지 먼저 이걸 보:냄헌다 그래요, 보:냄. {일:을 처음에 하면 봄에 이 해:토하자마자 뒤에 소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먼저 이걸 보:냄헌다 그래요, 보:냄.}

10308 @ 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10308 # 보:냄헌다 그래요. {보:냄헌다 그래요.}

10308 # 소 두: 개를 두: 짜걸 해가주 바철 가라요. {소 두: 개를 두: 짹을 해 가지고 밭을 갈아요.}

10308 @ 아 소 두:짜글 세워서. {아 소 두: 짹을 세워서.}

10308 # 예, \*\*\*\* 매워 가주구 가:넝 걸 그걸 보:냄헌다 그러지요, 그게 쥬: 먼저 해요. {예, \*\*\*\* 매 가지고 가는 걸 그걸 보:냄헌다 그러지요, 그게 제일 먼저 해요.}

10308 @ 아 해토가 되며는뇨? {아 해토가 되면요?}

10308 # 예. {예.}

10308 # 농사이른 그게 먼저구 겨우레나 보메 하능 건 일런 뭇 여름 뭇 나무해다가 나무까리 이르케 크게 가:능 걸 그걸 농무기라 그러지요. {농사일을 그게 먼저고 겨울에나 봄에 하는 건 일년 뭇 여름 뭇 나무 해다가 나뭇가리 이렇게 크게 가:는 걸 그걸 농목이라 그러지요.}

10308 @ 농? {농?}

10308 # 농묵. {농묵.}

10308 # 농사일 땀 게:속 때:는 걸 농무기라 그래, 그거 봄내나 그거 해서 가리능 거예요, 그거 끝나자마자 걸 저, 소가주 해능 걸 보내미라 그러구. {농사일 때 게:속 때:는 걸 농묵이라 그래, 그거 봄내내 그거 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거 끝나자마자, 그걸 저, 소 가지고 하는 걸 보냄이라 그러고.}

10308 @ 아 다시 농무? {아 다시 농무?}

10308 # 농묵. {농묵.}

10308 @ 농무 한다고요? {농무 한다고요?}

10308 # 농묵. {농묵.}

10308 @ 농묵. {농묵.}

10308 # 예 농무간다. {예 농묵한다.}

10308 @ 농무하능 게 머라고요? {농묵하는 게 뭐라고요?}

10308 # 나무 이르게 해, 마이 해 디레서 이르게 썬능 거, 거 혼자 못 싸:요 또 동네싸라미 여러 시 모예이 싸치. {나무 이렇게 해, 많이 해 들어서 이렇게 썬는 거, 그거 혼자 못 썬아요 똥 동네 사람이 여럿이 모여야 썬지.}

10308 @ 아 그게 농묵 한다. {아 그게 농묵 한다.}

10308 # 예 농묵한다. {예 농묵한다.}

10308 @ 그다메는논, 아까 방금 해물? {그답에는요, 아까 방금 해물?}

10308 # 무어요, 소 가주구 하능 거요? {뭐요, 소 가지고 하는 거요?}

10308 @ 예, 아니 해냄, 소냄 말고 방금 아까 농묵 끝나고 나서? {예, 아니 해냄, 소냄 말고 방금 아까 농묵 끝나고 나서?}

10308 # 농묵 \*\*\* 보:냄. {농묵 \*\*\* 보:냄.}

10308 @ 아 보냄. {아 보냄.}

10308 # 보:냄한다 그러지요. {보:냄한다 그러지요.}

10308 @ 보내른 머조? {보냄은 뭐죠?}

10308 # 글썤 소 두 마리 가주 저 다다 그거 해 가주 하능 게, 예, 보냄한다. {글썤 소 두 마리 가지고 저 다 다 그거 해 가지고 하는 게, 예, 보냄한다.}

10308 @ 그다메 또 머조, 농묵 찌나고 나서? {그답에 또 뭐죠, 농묵 지나고 나서?}

10308 # 그다메 머 인제 \*\*\* \*\* 땅에 씨감 는능 걸 부침한다 그러지요. {그답에 뭐 이제 \*\*\* \*\* 땅에 씨값 넣는 걸 부침한다 그러지요.}

10308 @ 아 그럼 씨값. {아 그럼 씨값.}

10308 # 응 씨를 늘: 찌겐 부침한다 그래요. {응 씨를 넣을 적엔 부침한다 그래요.}

10308 @ 아 그러면 인제 고걸 인제 계절별로 한번 제가 여쭙보고 시퐁데, 젤 먼저 보미 돼서보내 물 하자나요, 보내른 어디 논, 논?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계절별로 한번 제가 여쭙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봄이 되어서 보냄을 하잖아요, 보냄은 어디 논, 논?}

10308 # 노니구 바치구 대:개 바쳐서 마이 해요. {논이고 밭이고 대:개 밭에서 많이 해요.}

10308 @ 바쳐서요? {밭에서요?}

10308 # 예 바쳐서 해:서 오래 머 어디가 메켄니 머 이런 소리허자나요, 머 동이, 동이 메켄니 머 서가 메켄니. {예 밭에서 해:서 올해 뭐 어디가 막혔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동이, 동이 막혔니 뭐 서가 막혔니.}

10308 @ 그게 무슨 마리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308 # 그 저, 어디 아:는 데 가서 머 하는 사람덜 무려 보시른 거 잘 알텐데, 머 북쫓기 메켄니,



동쪼기 메켄니 머 어디가 어디가 텃니 그러자나요. {그 저, 어디 아:는 데 가서 뭐 하는 사람들 물어 보시면 거 잘 알텐데, 뭐 북쪽이 막혔니, 동쪽이 막혔니 뭐 어디가 어디가 텃니 그러잖아요.}

10308 #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아:는 사람덜 저 엔:날 사람드른 우리는 배우지 아난는데 엔:날 사람 다: 거 아라요, 왜 아:나쁜.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아:는 사람들 저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 옛:날 사람 다: 그거 알아요, 왜 아:나면.}

10308 @ 머 기리린지 머 이게 조은 나린지 안 조은, 날반능 거젠네요. {뭐 길일인지 뭐 이게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반는 거겠네요.}

10308 # 날, 날반는, 거는 이제 건 뱀:날 마니 해요, 배:미 잘 쑈시구 잘 나간다구, 또 돼:지날 하구, 그런 나를 해 가주. {날, 날반는, 거는 이제 그건 뱀:날 많이 해요, 뱀:이 잘 쑈시고 잘 나간다고, 또 돼:지날 하고, 그런 날을 해 가지고.}

10308 @ 보냄합니까? {보냄합니까?}

10308 # 예 그래 가주 보내를 하는데 그걸 메킨 쪼구론 앙 가요. {예 그래 가지고 보냄을 하는데 그걸 막힌 쪽으론 안 가요. {예 그래 가지고 보냄을 하는데 그걸 막힌 쪽으로는 안 가요.}}

10308 # 메킨 쪼게서 반:대루 가지. {막힌 쪽에서 반:대로 가지.}

10308 @ 아 그머 동이 메케따고 하려는? {아 그럼 동이 막혔다고 하면?}

10308 # 동이 메케따 하든 머야. {동이 막혔다 하면 뭐야.}

10308 @ 서쪽. {서쪽.}

10308 # 서쪼게서 이르케. {서쪽에서 이렇게.}

10308 @ 남쪽 북쪼근 안 하나요? {남쪽 북쪽은 안 하나요?}

10308 # 그거뚜 해지요. {그것도 하지요.}

10308 @ 아 그냥 동쪼만 동쪼기 메케따 하든 동쪼만. {아 그냥 동쪽만 동쪽이 막혔다 하면 동쪽만.}

10308 # 동쪼기 메케따 하든 동쪼게서 이쪼그루 오긴 해지요, 가질 아나요, 그쪽. {동쪽이 막혔다 하면 동쪽에서 이쪽으로 오긴 하지요, 가지를 앓아요, 그쪽.}

10308 # 서쪼기 메케따, 서쪼게서 이르케 올 쑈는 이꾸 그리 가질 아나요, 딱 반:대루 가지. {서쪽이 막혔다, 서쪽에서 이렇게 올 수는 있고 그리 가질 앓아요, 딱 반:대로 가지.}

10308 # 그래 바치 이르케 이런 바치든 그래 바틀 바루 이로::케 갈:텐데 보냄할 찌이 이리루 가따 머 일루두 가따 이르케 막 까지요. {그래 발이 이렇게 이런 발이면 그래 발을 바로 이렇::게 갈:텐데 보냄할 적에 이리로 갔다 뭐 이리로도 갔다 이렇게 막 가지요.}

10308 @ 아 메케따능 거 때무네요? {아 막혔다는 거 때문예요?}

10308 # 예. {예.}

10308 # 근데 지그든 그렁 거 안 썬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썬요.}

10308 # 머 서루 허지두 앙쿠 나버텀두 머 보메 가서, 짐 기계루 허니까 기계 가기 조은 데루 갈:지 그. {뭐 서로 하지도 앓고 나부터도 뭐 봄에 가서, 지금 기계로 하니까 기계 가기 좋은 데로 갈:지 그.}

10308 @ 음, 그럼 보냄하능 건, 보냄 함번 쑈 하자나요, 보냄하면 뒤죽, 막, 흐기 막 이르케 얼그러지젠네요? {음, 그럼 보냄하능 건, 보냄 한번 쑈 하잖아요, 보냄하면 뒤죽, 막, 흙이 막 이렇게 얼그러지겠네요?}

10308 # 그러치, 그러치요. {그렇지, 그렇지요.}

10308 # 그래 가주 그나른 두:고랑을 가르나 항 고랑을 가르나 그나런 소두 여무를 잘: 해 조:요 아주. {그래 가지고 그날은 두: 고랑을 가나 한 고랑을 가나 그날은 소도 여물을 잘: 해 줘:요 아주.}

10308 @ 힘드러서 그렁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10308 # 어 힘드려따구, 조금 갈민서두. {어 힘들었다고, 조금 갈면서도.}

10308 @ 한 메칠, 언제쯤 해토가 언제쯤 되고 언제쯤 갑:니까, 고르케? {한 며칠, 언제쯤 해토가 언제쯤 되고 언제쯤 갑:니까, 그렇게?}

10308 # 한식 짜내른 해:토가 되지요. {한식 지내면 해:토가 되지요.}

10308 @ 해:토 되고 고르케 되면 바로 보내를 하능거네요? {해:토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보냄을 하는 거네요?}

10308 # 예. {예.}

10308 @ 보내를 할 때 침: 하능 거를 보냄한다고 합니까? {보냄을 할 때 침: 하는 거를 보냄한다고 합니까?}

10308 # 예 침:하능 걸 보냄한다 그래요. {예 침: 하는 걸 보냄한다 그래요.}

10308 @ 근데 두번째부터는? {그런데 두번째부터는?}

10308 # 두번째부터는 보냄한다 소리 아 내요 기냥 부치미한다 그러지, 씨감 느:른 부치미한다 그러지요, 부치미. {두번째부터는 보냄한다 소리 안 해요 그냥 부침이한다 그러지, 씨값 넣으면 부침이한다 그러지요, 부침이.}

10308 @ 네 부치미. {네 부침이.}

10308 @ 씨감 너키 위해서 이제 바틀 이려::게 가:는. {씨값 넣기 위해서 이제 받을 이려::게 가:는.}

10308 # 갈:구, \*\*\* 씨감 느선 부치미한다 그래구. {갈:고, \*\*\* 씨값 넣어선 부침이한다 그러고.}

10308 @ 부치미는 보통 며뻔 합니까? {부침이는 보통 몇번 합니까?}

10308 # 한번허지요 머, 이 한번 허른 그해 그게 자라 가주 그해 가:레 가 비게 되니까. {한번하지요 뭐, 이 한번 하면 그해 그게 자라 가지고 그해 가을에 가서 베게 되니까.}

10302 @ 그러면 보냄 한번 하고 그다메 부치미 한번 하고 고르케 하고 나서? {그러면 보냄 한번 하고 그답에 부침이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10302 # 그 머 모자리허구 머 부치미허구 고르치요 머. {그 뭐 못자리하고 뭐 부침이하고 그렇지요 뭐.}

10302 # 모자리하능 건 머 일 하나른 이 노네 벼 시물라른 벼씨 가따 는능 걸 모자리라 그래요. {못자리하는 건 무슨 일 하나면 이 논에 벼 심으려면 벼씨 갖다 넣는 걸 못자리라 그래요.}

10302 @ 고르케 해서 인제 보내를 하자나요, 노네는 보내를 왜 안 하조, 잘 안 하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냄을 하잖아요, 논에는 보냄을 왜 안 하조, 잘 안 하조?}

10302 # 노네 잘 안 해요, 바치 갈기가 조차나요. {논에 잘 안 해요, 받이 갈기가 좋잖아요.}

10302 @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10302 # 예. {예.}

10302 @ 바를 보냄하고 보냄하고 나서는 그다메 부치미를 하자나요 부치미하고 나며는? {받을 보냄하고 보냄하고 나서는 그답에 부침이를 하잖아요 부침이하고 나면?}

10302 # 머 부치미허민 논두 갈:민 머 고르치요 머. {뭐 부침이하면서 논도 갈:면서 뭐 그렇지요 뭐.}

10302 @ 부치미하능 거랑 농 가:능 게 어뜨게 다르조? {부침이하는 거랑 논 가:는 게 어떻게 다르조?}

10302 # 논 가능 거는 사람 아 니짜나요, 소만 텔구 가서 그 가:는 사람만 혼자 갈:지. {논 가는 거는 사람 안 있잖아요, 소만 데리고 가서 그 가:는 사람만 혼자 갈:지.}

10302 @ 예 그걸 머한다고 합니까? {예 그걸 뭐한다고 합니까?}

10302 # 농 간:다 그러지요. {논 간:다 그러지요.}

10302 @ 부치미는뇨? {부침이는요?}

10302 # 부치미든 현자 몬 허구 사라마 여러시아 되구. {부침은 혼자 못 하고 사람이 여럿이어야 되고.}

10302 @ 사람만 부치미를 하나요? {사람만 부침이를 하나요?}

10302 # 아 소가 가라야 하지요. {아 소가 갈아야 하지요.}

10302 @ 아 소가 가라야. {아 소가 갈아야.}

10302 # 응, 소가 간: 뒤루 쪼차가미 심:넝 걸 부침한다 그래요. {응, 소가 간: 뒤로 쫓아 가며 심:는 걸 부침한다 그래요.}

10307 @ 아 부치능 거를, 그때 인제 보미 돼서, 인제 주로 심능 게 어떻 거라고 하션나요? {아, 부치는 거를, 그때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주로 심는 게 어떤 거라고 하셨나요?}

10307 # 주로 글썤 콩, 저 조이, 팔, 바테 그제 주로 마나요. {주로 글썤 콩, 저 조, 팔, 밭에 그제 주로 팔아요.}

10308 @ 인제 사멸 인제 보메 인제 콩 조이 팔 이걸 인제 씨를, 심는데 심:끼 저네 바틀 이제 한번 갈자나요, 바틀 함범만 갈면 되능 거예요? {이제 삼월 이제 봄에 이제 콩 조 팔 이걸 이제 씨를, 심는데 심:기 전에 밭을 이제 한번 갈잖아요, 밭은 한번만 갈면 되는 거예요?}

10308 # 예 놀러 갈:구 놀러 따러 시머요. {예 바로 갈:고 바로 따라 심어요.}

10308 @ 근데 바틀 갈: 때 처메 인제 바틀 갈:고 나서 그다메 그냥 심는, 이걸 내:능 걸 멀 랜:다고 하나요? {그런데 밭을 갈: 때 처음에 이제 밭을 갈:고 나서 그담에 그냥 심는, 이걸 내:는 걸 멀 낸:다고 하나요?}

10308 # 멀료? {뭘요?}

10308 @ 바틀 인제 가라서 소가 소를, 이게 해서 바틀 갈자나요, 갈면 고랑, 요기 동그란? {밭을 이제 갈아서 소가 소를, 이게 해서 밭을 갈잖아요, 갈면 고랑, 요기 동그란?}

10308 # 예, 처:메 이르케 막 커능 거는 저 고:랑 썬우능 거는 바철 된다 그래요 여기선. {예, 처음에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저 고:랑 만드는 거는 밭을 된다 그래요, 여기선.}

10308 # 바철 된다 그래구 고다메 골: 태기자나, 골: 태긴다 그러구. {밭을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골: 만들잖아, 골: 만든다 그러고.}

10308 @ 아 처:메는 바틀: {아 처음에는 밭을?}

10308 # 되구. {되고.}

10308 @ 그거는 어떻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10308 # 기낭 고:리 읍씨 기낭 대개 가리 놓 거, 막 뛰져 보넝 걸 걸 된다 그래요, 바철 된다구. {그냥 골:이 없이 그냥 대개 갈아 놓은 거, 막 뛰져 보는 걸 된다 그래요, 밭을 된다고.}

10308 @ 그다메는뇨? {그다음에는요?}

10308 # 그다멘 고:를 따구. {그담엔 골:을 타고.}

10308 @ 고:를 따능 건 머조? {골:을 따는 건 뭘조?}

10308 # 고:를 이르케 맨드능 걸 고:를 판다 그래요. {골:을 이렇게 만드는 걸 골:을 판다 그래요.}

10308 @ 아 그르케 만드능 거를료? {아 그렇게 만드는 거를요?}

10308 # 예 골: 맨드는, 골: 판다구. {예 골: 만드는, 골: 판다고.}

10308 @ 고:를 따능 경우도 인는데 그다메 어떻 경운 그냥 골고:루 고:를 따는데 어떻 경운 골: 따고 나서 야간 두툼하게 요리케? {골: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담에 어떤 경우는 그냥 골고:루 골:을 타는데 어떤 경우는 골: 타고 나서 약간 두툼하게 요리케?}

10308 # 그건 고:랑이라 그러구, 기낭 고:랑 뚜기라 그래요, 고:랑 똑. {그건 고:랑이라 그러고, 그냥 고:랑독이라 그래요, 고:랑독.}

10308 @ 밭, 바테 인는 똑. {밭, 밭에 있는 독.}

10308 # 예, 바뚜기라 그러구, 그 고:랑뚜기라 그러구. {예, 밭독이라 그러고, 그 고:랑독이라

그리고.}

10308 @ 바뚜근 보통 이 바테. {발독은 보통 이 발에.}

10308 # 바뚜근 여 가:를 바뚜기라 그러구 복파네 이 고:랑언 고:랑, 이르게 여기두 이르게 생기구 여기두 이르게, 그건 고:랑 뚜기라 그래요. {발독은 여기 가장자리를 발독이라 그러고 복판에 이 고:랑은 고:랑,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그건 고:랑독이라 그래요.}

10308 # 이 바뚜근 가:생바이 이걸 바뚜기라 그러구. {이 발독은 가장자리 이걸 발독이라 그러고.}

10308 @ 아 고 두툼한 거는 고랑? {아 그 두툼한 거는 고랑?}

10308 # 고:랑 똑. {고:랑독.}

10308 @ 뚜기라고 하고요? {독이라고 하고요?}

10308 # 예. {예.}

10308 @ 그냥 고랑 뚱 말고 요거는 인제 요 짝 파잉 건 고랑이쥬? {그냥 고랑독 말고 요거는 이제 요 짝 파인 건 고랑이쥬?}

10308 # 그거느 골:. {그거는 골:.}

10308 @ 이케 올라온 거는뇨? {이렇게 올라온 거는요?}

10308 # 건 고:랑 똑. {그건 고:랑독.}

10308 @ 근데 고랑 뚜기 요러케 그냥 쪼끔 올라온 거 이꼬 쭉:: 이르게 뵈 거 이짜나요? {그런데 고랑독이 요렇게 그냥 조금 올라온 거 있고 쭉::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10308 # 그래두 다: 고랑 뚜기라 그래요 그건. {그래도 다: 고랑독이라 그래요 그건.}

10308 @ 그거도 다: 고:랑 뚜기예요? {그거도 다: 고:랑독이에요?}

10308 # 예. {예.}

10308 @ 그르케 인제 만드러서 근데 보통 고랑 이르게 고랑 뚜글 요러케 만드는데 고랑 뚜글 이려::케 만든 그거는 거기는 주로 뭘: 심나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런데 보통 고랑 이렇게 고랑독을 요렇게 만드는데 고랑독을 이렇::게 만든 그거는 거기는 주로 뭘: 심나요?}

10308 # \*\* \*\*\*\*? {\*\* \*\*\*\*?}

10308 @ 네. {네.}

10308 # 거기에 머, 고:랑 뚜게다 다: 거 머, 콩 싱꾸, 조이 싱꾸 엔:나렌 다 그래쥬요, 머, 지그른 이 크게 아주, 예:저넨 그르케 콩 게 읍쥬요, 이제 지그른 크게 하지만 전부라 또::까치 맨드러 가 주 거기다 콩상:꾸, 파쌌:꾸 머, 조이 싱:꾸 그르케 삼:쥬. {거기에 뭘, 고:랑독에다 다: 그 뭘, 콩 심고, 조 심고 옛:날엔 다 그랬지요, 뭘, 지금은 이 크게 아주, 예:전엔 그렇게 큰 게 없어요, 이제 지금은 크게 하지만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콩 심:고, 파 심:고 뭘, 조 심:고 그렇게 심:지.}

10308 @ 그럼 보미 되자나요, 보미 되며는 이제 보통 머 씨에 이러납니까? {그럼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보통 몇 시에 일어납니까?}

10308 # 아이 그건 머 시가니 읍쥬요, 일찌 길허는 사라른 보메, 으른드른 대:개 머 네: 시에 이러나구 그러치요. {아니 그건 뭘 시간이 없어요, 일찍 일하는 사람은 봄에, 어른들은 대:개 뭘 네: 시에 일어나고 그렇지요.}

10308 # 나두 그런데요 머 지금, 봄 되든 네: 시에 마이 이러나야 아주, 요샌 조금 더 늦게 이러나지요, 보멘 네 :시만 되든 환:해요. {나도 그런데요 뭘 지금, 봄 되면 네: 시에 많이 일어나야 아주, 요새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나지요, 봄엔 네: 시만 되면 환:해요.}

10308 @ 금 네: 시에 이러나서 찜: 하능 거슨 멍니까? {그럼 네: 시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것은 뭍니까?}

10308 # 처:메 해서 머 나가 나가 혈 리:리 이씨머 그 이:를 허능 거지요 머. {처음에 해서 뭘 나가 나가 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뭘.}

10308 @ 혈 리:리 어떻 걸 합니까? {할 일:이 어떤 걸 합니까?}

10308 # 논 부칠 찌겐 논물 보능 게 젤:, 제:리예요, 논물. {논 부칠 적엔 논물 보는 게 젤:, 제일 이예요, 논물.}

10308 # 노네 내가 저 근네 이짜나요, 저 근네 가서 노네 감 무를 대:던지 떼던지 이르게 노닐 함 바꾸 도라 오능 게 이찌요. {논에 내가 저 건너 있잖아요, 저 건너 가서 논에 가면 물을 대:든지 떼든지 이렇게 논을 한바퀴 돌아 오는 게 있지요.}

10308 @ 노니 인제 무리 제대로? {논이 이제 물이 제대로?}

10308 # 예 드러, 인나 엄나 인제 그렇 걸 화긴허구 또 바:메 이 지드리 뜰러 구녕이 나서 또 무리 샌:나 안 샌나 그렇 거 보구 오능 게 농사꾸는 그거예요. {예 들어,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또 밤:에 이 쥐들이 뚫어 구멍이 나서 또 물이 샌:나 안 샌나 그런 거 보고 오는 게 농사꾼은 그거예요.}

10308 @ 아 쥐가 구멍을 뚫:기도 하나요? {아 쥐가 구멍을 뚫:기도 하나요?}

10308 # 그러치요, 뜰러서 이게 무리 잔:뜩 드러따 다 새: 나가는 때가 만:치요. {그렇지요, 뚫어서 이게 물이 잔:뜩 들었다 다 새: 나가는 때가 많:지요.}

10308 @ 아 그러며는 젤: 먼저 하는 니리? {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0308 # 그 논물 보능 게 젤: 먼저 허는 니리예요. {그 논물 보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10308 # 그리구 소 이씨머 소 메기 주능 게하과 그게 젤: 자구 이러남 난 지금두 나가면 소비텀 주구 인제 노닐 가지요. {그리고 소 있으면 소 먹이 주는 것하고 그게 제일 자고 일어나면 난 지금도 나가면 소부터 주고 이제 논엘 가지요.}

10308 @ 아 소한테? {아 소한테?}

10308 # 메길 주고. {먹이를 주고.}

10308 @ 예 젤: 먼저 인제 논물 보고 그다메 그다메는 소가 이쓰면? {예 제일 먼저 이제 논물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소가 있으면?}

10308 # 소, 이썸 메기 주구 그러치요. {소, 있으면 먹이 주고 그렇지요.}

10308 # 그다메 인제 혈 리리 이씨른 나감 또 판 이:를 허구, 짐: 땀 께 이썸 김: 매구.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으면 나가면 또 판 일:을 하고, 김: 땀 것이 있으면 김: 매고.}

10308 # 근데 머 지금 싸람 김: 땀 께 이씨요, 머, 다: 야그루 치지. {근데 뭐 지금 사람 김: 땀 것이 있어요, 뭐, 다: 약으로 치지.}

10308 @ 예저네는노? {예전에는요?}

10308 # 예:저넌 김: 매이지요. {예:전엔 김: 매야지요.}

10308 @ 아 어디 논, 밭? {아 어디 논, 밭?}

10308 # 논두 매구 머 밭두 매구 다 매이자나요. {논도 매고 뭐 밭도 매고 다 매야잖아요.}

10308 # 그 머 가:른 사라면 암 매구 그러는 사람두 이찌만 농사 제대루 진는 사람드런 다 매:요. {그 뭐 게으른 사람은 안 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은 다 매:요.}

10308 @ 아치른 언제 드세요 \*\*\*\*? {아침은 언제 드세요 \*\*\*\*?}

10308 # 아치른 암: 매구 때가 되른 되는데 나:두 지금 요주매두 나 혼자 멍는 때가 마나요. {아침은 아무 때고 때가 되면 되는데 나:도 지금 요즘에도 나 혼자 먹는 때가 많아요.}

10308 @ 아, 엔나리며는? {아, 옛날이면?}

10308 # 엔:나렌 다 가치 머야 날쌔면 놀러 밥허른 놀러 멍녕 거예요. {옛:날엔 다 같이 뭐야 날 새면 바로 밥하면 바로 먹는 거예요.}

10308 @ 날 쌔면 먼저 머거요, 가치? {날 새면 먼저 먹어요, 같이?}

10308 # 아이 그, 바비 돼:야지요, 나가 일허다 바비 되른 나가 업뜨려 가 일허른 지비서 부르지요, 불르른 드가 밤 먹꾸 또 그 나가 일허구. {아니 그, 밥이 돼:야지요, 나가 일하다 밥이 되면 나

가 옆드려 가 일하면 집에서 부르지요, 부르면 들어가 밥 먹고 또 그 나가 일하고.}

10312 @ 밥 먹꾸 인제 나가서 어떤 니를 합니까? {밥 먹고 이제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10312 # 머이, 허던 날: 인제 기:덜 매떠 그먼 김: 가 매구 머 그렇 거지요. {뭐, 하던 일: 이제 김: 을 땀다 그러면 김: 가서 매고 뭐 뭐 그런 거지요.}

10312 @ 다메 김: 매고 나서는뇨, 계:속 김:만 매나요? {다음에 김: 매고 나서는뇨, 계:속 김:만 매나요?}

10312 # 김:만 매지요, 여르메는. {김:만 매지요, 여름에는.}

10312 @ 어릴 때는 그럼 인제 김: 매고 나서 인제 저녁이 되능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럼 이제 김: 매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10312 # 점심 먹꾸. {점심 먹고.}

10308 @ 아 점심 먹꼬, 예 그다메는뇨? {아 점심 먹고, 예 그다음에는요?}

10308 # 머 또 가 일허지요 머. {뭐 또 가 일하지요 뭐.}

10308 @ 땡뻘치 내리썰: 땡 일: 모 타자나요? {땡별이 내리 썰: 땡 일: 못 하잖아요?}

10308 # 고 한 시간씩 조 응달 미테 자기도 허구 머. {그 한 시간씩 저기 응달 밑에 자기도 하고 뭐.}

10308 # 우리 애들 쪼겐 안 자구 그땐 저:기 쿵 개우레 가서 모곡뚜 허구, 그걸 미역 감는다 그러지요. {우리 애들 적엔 안 자고 그땐 저:기 큰 개울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걸 미역 감는다 그러지요.}

10308 @ 미역 감:꼬 예. {미역 감:고 예.}

10308 # 그래 으:른드른 한 잠씩 쥐무시구. {그래 어:른들은 한 잠씩 주무시고.}

10308 @ 예 쥐무시고 나서 그다메 다시? {예 주무시고 나서 그담에 다시?}

10308 # 다시 또 이제 재:처 또 일허능 거지요. {다시 또 이제 재:차 또 일하는 거지요.}

10308 @ 까는 인제 한창 이제 일:하다가 그다메 켄누리는 암 먹썸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일:하다가 그담에 켄누리는 안 먹썸니까?}

10308 # 그때 시저레는 켄누리가 업썸요. {그때 시절에는 켄누리가 없어요.}

10308 # 머글 께 업는데 이 하루 삼썸 머글 께뚜 즈:근데 머 사라미나 마이 으:더 가주 어트게 이제 켄누리나 먹찌, 저누리두 그거뚜 마이 으:더두 짐: 매녕 건 켄누릴 몸 먹꾸 모 시물 때나 인제 모 시물 때가 썰: 힘들자나요, 하루 쥬일 무레서 업뜨려 허구 그래른 거기나 그때나 먹찌 몸 머거요. {먹을 게 없는데 이 하루 삼식 먹을 것도 적:은데 뭐 사람이나 많이 얻: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켄누리나 먹지, 켄누리도 그것도 많이 얻:어도 김: 매는 건 켄누릴 못 먹고 모심을 때나 이제 모심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물에서 옆드려 하고 그러면 거기나 그때나 먹지 못 먹어요.}

10308 # 이 사:라덜 그저 열: 명 이상 부치른 이 드래라 그래요 한 드래, 그르케 부쳐서 매구 그릴 쪼게두 켄누리 읍썸요, 점시미나 머거찌. {이 사:람을 그저 열: 명 이상 부치면 이 드래라 그래요, 한 드래, 그렇게 부쳐서 매고 그릴 적에도 켄누리 없어요, 점심이나 먹었지.}

10308 @ 드래, 드래라능 거는, 어떠케 열 명이서 멀 하능 겁니까? {드래, 드래라는 거는, 어떻게 열 명이서 뭘 하는 겁니까?}

10308 # 김: 매지요 머. {김: 매지요 뭐.}

10308 @ 아 열 명이서 김매능 걸, 그르케 한다고 한다고요. {아 열 명이서 김매는 걸,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요.}

10308 # 그래, 어떤 사라면 엔:나레두 이제 품파는 사람 이짜나요, 그애, \*\*\* 혼자 푸마시두 몰 허른 어떤 사람 보고 야, 우리 짐: 뭇 께 마느니 한 드래 썸 텔구 와라 이래른 한 드래가 오지요, 와서 가치 지:덜 매능 거지 머. {그래, 어떤 사람은 옛:날에도 이제 품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 혼자 품앗이도 못 하면 어떤 사람 보고 야, 우리 김: 땀 것이 많으니 한 드래 좀 데리고 와라  
이러면 한 드래가 오지요, 와서 같이 김:을 매는 거지 뭐.}

10308 @ 한 드래가 보:통 열 명입니까? {한 드래가 보:통 열 명입니까?}

10308 # 예 열 명이. {예 열 명이.}

10308 @ 그 열 명이고 또 더 마늘 쭈도 이썸니까? {그 열 명이고 또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10308 # 더 마늘 쭈 이썸 머. {더 많을 수 있지 뭐.}

10308 @ 한 드래는 보통 열 명에서 먼 명까지입니까? {한 드래는 보통 열 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10308 # 머 한 열 땀: 명까지 땀:짜요 머. {뭐 한 열땀: 명까지 땀:지요 뭐.}

10308 @ 아 그래요, 그르케 인제 김: 매고 나서 그르케 이를 다 이르케 하자나요, 하면 인제 저녁  
기 되며는 머 하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김: 매고 나서 그렇게 일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제 저녁이 되면 뭐 하나요?}

10308 # 저녁이 되든 그분드런 가구, 또 제 짐망쿰 가능 거지요 머. {저녁이 되면 그분들은 가고,  
또 제 집에 각각 가는 거지요 뭐.}

10308 @ 음 지브로 와서 그다메? {음 집으로 와서 그다음에?}

10308 # 저영 먹꾸 머. {저녁 먹고 뭐.}

10308 @ 그다메 머하나요 바메? {그다음에 뭐하나요 밤에?}

10308 # 바:메요? {밤:메요?}

10308 # 여르멘 새끼 꼬고 신 삼:녕 게. {여름엔 새끼 꼬고 신 삼:는 게.}

10308 @ 보메는뇨? {봄:메는뇨?}

10308 # 보메두 그래요, 새끼 꼬고 신 삼:녕 게 주로예요. {봄:메도 그래요, 새끼 꼬고 신 삼:는 게  
주로예요.}

10308 # 켈: 신 삼:능 게 주로지 머. {제일 신 삼:는 게 주로지 뭐.}

10308 # 신 한 밤새도루 사무먼 향 커리 현:재 삼:꾸 눌러 고다느니까 잘 꺼 아니예요, 그래머 식  
꾸가 만타 허른 저영마등 사머두 모잘라요. {신 한 밤새도록 삼으면 한 켈레 현:재 삼:고 바로 고  
단하니까 잘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식구가 많다 하면 저녁마다 삼아도 모잘라요.}

10308 @ 그머 인제 집썸 상:꼬 그다:메는 인제 자물, 자물 자고 예, 보메 주로 보메 인제 그르케  
하능 거조, 그러며는 아까 보메 화전도 나간다고 그래짜나요, 그르케 보통 하루가 도라가는데 화  
전할 때는 또 어떻게 도라가나요? {그럼 이제 쥔신 신:고 그다음에는 이제 잠을, 잠을 자고 예, 봄  
에 주로 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조, 그러면 아까 봄에 화전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  
통 하루가 돌아가는데 화전할 때는 또 어떻게 돌아가나요?}

10308 # 화전할 때두 역씨 향 가지예요. {화전할 때도 역시 한 가지예요.}

10308 @ 그럼 미리 그 가족 쥔에서야 너는 내일 화전 쥔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  
떠케 합니까? {그럼 미리 그 가족 쥔에서야 너는 내일 화전 쥔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면 어떻게 합니까?}

10308 # 아 머, 그러지 안치요 머, 내:릴 어느, 밭: 어느 바친 일한다 그러치요. {아 뭐, 그렇지 않  
지요, 뭐, 내일은 언, 내일 어느 밭은 일한다 그렇지요.}

10308 # 어느 바칠 일, 일하러 간다구 인제 그래믄 이 가꼬운 데 가트믄 상관없는데 먼: 데 저런  
데는 아:문 데루 일허루 갈테니 점:서믄 싸라 그르캐지요. {어느 밭을 일, 일하러 간다고 이제 그  
러면 이 가까운 데 같으면 상관없는데 먼: 데 저런 데는 아:무 데로 일하러 갈테니 점:심을 싸라  
그렇게 하지요.}

10308 @ 아 그전날? {아 그전날?}

10308 # 그럼뇨, 그 바벌 싸서 이걸 해: 질머 지구 가요, 그래 가주 그 사네 가면 머 달라 부짜나  
요, 그머 이 나:무에다 다라 매:구 그러자눔 무리. {그럼요, 그 밭을 싸서 이걸 해: 짚어 지고 가요,

그래 가지고 그 산에 가면 뭐 달라 붙잖아요, 그 뭐 이 나무에다 달아 매고 그러잖으면 물이.}

10308 @ 머가 달라 부터? {뭐가 달라 붙어?}

10308 # 아 파:리들, 머 이렇 거시 부짜나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다라 매구 개:미 자꾸 부꾸 이러니까 그러자능 무리 이씨른 무래다 가따 이르게 당귀 노치요. {아 파:리들, 뭐 이런 것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달아 매고 개:미 자꾸 붙고 이러니까 그러잖으면 물이 있으면 물에다 갖다 이렇게 담가 놓지요.}

10308 # 그래따가 인제 때가 되른 점서덜 먹꾸, 먹꾸 또 쉼:서 또 허구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먹고 또 쉬어서 또 하고 그래요.}

10308 @ 아 화전 갈 때는 미리 화전 갈 때는 점심 싸 노라고 그러케 얘기를 한다고요? {아 화전 갈 때는 미리 화전 갈 때는 점심 싸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0308 # 예예. {예예.}

10308 @ 그래 가서 일하고 그다메 해가 빠저, 해가 느저야 드로젠네요? {그래 가서 일하고 그담에 해가 빠저, 해가 늦어야 들어오겠네요?}

10308 # 그러치요, 해가 저야 와요. {그렇지요, 해가 저야 와요.}

10308 # 일찌기 끝나른 쯔 일찍 오는 때가 이찌만 느께 끝나른 머 어두워야 드로지요 머. {일찍이 끝나면 쯔 일찍 오는 때가 있지만 늦게 끝나면 뭐 어두워야 들어오지요 뭐.}

10308 @ 보메 인제 그러케 일쌍 생화를 하는데 씨뿌릴 때는뇨, 어떤 하루는 어트게 되나요, 씨뿌릴 때는? {봄에 이제 그렇게 일상 생활을 하는데 씨뿌릴 때는뇨, 어떤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씨뿌릴 때는?}

10308 # 씨뿌릴 때는, 씨두 그래요, 이르게 하루에 허다 보른 요걸 랭기기두 몬 허구 그래든 해가 질 때까지 해:요 그래든 어두우민 때가 이찌요, 그래 일찌기 끝나른 쯔 일찌기 오구. {씨뿌릴 때는, 씨도 그래요, 이렇게 하루에 허다 보면 요걸 남기기도 못 하고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해:요 그러면 어두우면 때가 있지요, 그래 일찍이 끝나면 쯔 일찍이 오고.}

10308 @ 씨는 하루에 다 뿌리나요? {씨는 하루에 다 뿌리나요?}

10308 # 아 그 인제 때에 따라서 이거, 이틀 뿌릴 꺼면 와따가 고 이튼날 가 하구, 그애 요, 자딸게 인제 그걸 쯔끔 남녕 걸 자딸다 구래 요기서는. {아 그 이제 때에 따라서 이거, 이틀 뿌릴 거면 왔다가 그 이튼날 가 하고, 그래 요, 자딸게[쯔끔 남게] 이제 그걸 쯔끔 남는 걸 자딸다 그래 요기서는.}

10308 @ 예? {예?}

10308 # 쯔끔 냉기든 고걸 자딸다 그래 자딸다구, 그래 자딸게 나무든. {쯔끔 남기면 그걸 자딸다 그래 자딸다고, 그래 자딸게 남으면.}

10308 @ 자딸다. {자딸다.}

10308 # 응, 자딸게 남는다 그래든 고걸 마주허다 보른 어둡찌요, 고걸 마주허구 오능 거예요. {응, 자딸게 남는다 그러면 그걸 마주하다 보면 어둡지요, 그걸 마주하고 오는 거예요.}

10308 @ 그럼 보통 이게 조이하고 콩 씨를 뿌릴 때는 그 둘다 뿌립니까 아니면 하나 뿌리고 그다메? {그그럼 보통 이게 조하고 콩 씨를 뿌릴 때는 그 둘다 뿌립니까 아니면 하나 뿌리고 그담에?}

10308 # 아 항 가지썩만 해요. {아 한 가지썩만 해요.}

10308 # 함 바테 두 가지는 안 하자나요. {한 밭에 두 가지는 안 하잖아요.}

10308 # 그잉까 이 바:닐 쿵얼 시머따 하른 오:저넨 쿵얼 상:꾸 오:웁는 조이를 심꾸 이르게 이르게 심찌 항꺼버네 두: 개는 몬 태요. {그러니까 이 반:을 쿵을 심었다 하면 오:전엔 쿵을 심:고 오 후에는 조를 심고 이렇게 심지 한꺼번에 두: 개는 못 해요.}

10308 @ 그면 둘, 하룬마네 할 쏜 이찌만 하룬마네 다 몬 끝나기도 하자나요, 바치 널부먼? {그러



면 둘, 하룻만에 할 순 있지만 하룻만에 다 못 끝나기도 하잖아요, 발이 넓으면?}

10308 #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예.}

10308 # 그래튼 글썸 이트레두 허구 쫄:꿈 남:능 걸 자팔게나마따 그러거등, 고거는 마주힐 쉰  
이썸 고거 허다 보른 저물게 오는 수가 이꾸 그러치요. {그러면 글썸 이틀에도 하고 조금 남는 걸  
자팔게 남았다 그러거등, 그거는 마저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다 보면 저물게 오는 수가 있고 그렇  
지요.}

10308 # 그게 또 땅 거 혈 게 읍:꾸 일찌기 끈날 땀 일찌기 오구. {그게 또 땀 거 할 것이 없:고  
일찍이 끈날 땀 일찍이 오고.}

10308 @ 일찌기 와서 머 일찌기 와서 그다메 또? {일찍이 와서 뭐 일찍이 와서 그다메 또?}

10308 # 일찌기 와선 머 혈 릴 이썸든 또 허구 머 읍썸든 글로 끈나구 그러치요 머. {일찍이 와  
선 뭐 할 일 있으면 또 하고 뭐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렇지요 뭐.}

10308 @ 소는 그 꼬를 소꼬른 언제 맵니까? {소는 그 꼴을 소 꼴은 언제 맵니까?}

10308 # 해지녀요, 해가 가 가 녀게요. {해질 녀예요, 해가 가 갈 녀예요.}

10308 # 그양 꼴 비:, 해가 다: 가면 비:요, 해가 다: 거운 진다고요. {그냥 꼴 베:, 해가 다: 가면  
베:요, 해가 다: 거의 진다고요.}

10308 @ 그르케 돼쓸 때? {그렇게 됐을 때?}

10308 # 꼬릴 비능 거예요. {꼴을 베는 거예요?}

10308 # 그래니 꼴 비여 지고 올 때 어떤 땀 강:까매서 오지 못 혈 때가 이썸요, 잘. {그러니 꼴  
베어 지고 올 때는 어떤 땀 감:감해서 오지 못 할 때가 있어요, 잘.}

10308 # 더듬:더듬해구 내려오지. {더듬:더듬하고 내려오지.}

10308 @ 아 달도 안 뜨고 나면 오기도 힘들겐네요? {아 달도 안 뜨고 나면 오기도 힘들겠네요?}

10308 # 예 그럴 때가 마:나요. {예 그럴 때가 많:아요.}

10308 @ 그르케 해서 이제 보메는 이케 인제 생활하자나요, 씨뿌리고 고다:메, 그다메 모를 밭:  
때는노, 하루는 어떠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봄에는 이렇게 이제 생활하잖아요, 씨뿌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밭: 때는요,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10303 # 모낼 때요? {모낼 때요?}

10303 @ 네. {네.}

10303 # 모낼 때는 \* 항가지지요. {모낼 때는 \* 한가지지요.}

10303 # 모낼 때는 또 어두워서 나가기 돼요. {모낼 때는 또 어두워서 나가야 돼요.}

10303 # 날 썰자마자 나가서 소루 허는 사라른 소루 허구. {날 새자마자 나가서 소로 하는 사람  
은 소로 하고.}

10303 @ 소로 멀 힘니까? {소로 멀 힘니까?}

10303 # 논 썸:썸요, 노를 여긴, 이르케 평평허게 소루 갈:구선 이케 삼:능 거, 쓰:레루 편안하게  
맨들자나요, 걸: 삼:는다 그래요 논 상:꾸 머. {논 삼:지요, 논을 여긴, 이렇게 평평하게 소로 갈:고  
선 이렇게 삼:는 거, 써:레로 편편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삼:는다 그래요 논 삼:고 뭐.}

10303 @ 그 논 삼:끼 저네 먼저 멀 하나요, 바틀, 어 노를 갈:자나요? {그 논 삼:기 전에 먼저 밭  
하나요, 밭을, 어 논을 갈:잖아요?}

10303 # 노를 가리애지요. {논을 갈아야지요.}

10303 # 거 소부리는 사라면 그거 허구 여는 사라면 가서 모를 뽑바애지요. {그 소부리는 사람은  
그거 하고 여는 사람은 가서 모를 뽑아야지요.}

10303 @ 아 가치 하능 거예요? {아 같이 하는 거예요?}

10303 # 예? {예?}

10303 @ 가치 인제 하능 거? {같이 이제 하는 거?}

10303 # 거 가치 해애지요. {그거 같이 해야지요.}

10303 @ 바틀 같고. {발을 같고.}

10303 # 어 노를 같:고, 또 모 심:넌 사라면 가서 모를 뽐바애지요. {어 논을 같:고, 또 모 심:는 사람은 가서 모를 뽐아야지요.}

10303 @ 음 모를 뽐바서 인제. {음 모를 뽐아서 이제.}

10303 # 모를 뽐블 똥아~이~른 소가 벌써 뽐 뽐:미 해 놔:요, 여긴 거 한 배:미 이씨머 함 배:미, 머 두 배:미 해 거 해 노른 가서 놀러 심:넌 거예요. {모를 뽐을 동안이면 소가 벌써 뽐 뽐:미[논의 넓이] 해 놔:요, 여긴 그거 한 뽐:이 있으면 한 뽐:이, 뽐 두 뽐:이 해 그거 해 놓으면 가서 바로 심:는 거예요.}

10303 @ 네네 금 심:꼬 나서는뇨? {네네 그럼 심:고 나서는요?}

10303 # 상:꼬 나른 그 꼬치지요 머. {심:고 나면 그 끝이지요 뽐.}

10303 @ 노를 인제 그러케, 그럼 그 하루마네 다 끝나진 안차나요? {논을 이제 그렇게, 그럼 그 하룻만에 다 끝나진 않잖아요?}

10303 # 그거는 하루 가네 끝나는 집뚜 이꾸 이틀 허는 집뚜 이꾸 머 근데 거듭 이트른 안 해 조 요. {그거는 하루 간에 끝나는 집도 있고 이틀 하는 집도 있고 뽐 근데 거듭 이틀은 안 해 줘요.}

10303 # 왜 그 해냐른 하루 푸마시루 도라 가니까 너만 할 쑤 읍따, 하루에 뽐 끝나른 뽐 지비 걸 해요, 그 지비 또 그 다:매 도라 가요, 채래루 도라 가니까. {왜 그 하나면 하루 품앗이를 돌아 가니까 너만 할 수 없다, 하루에 뽐 끝나면 뽐 집의 걸 해요, 그 집이 또 그 다음에 돌아 가요, 차례로 돌아 가니까.}

10303 @ 금 자기 뽐 타능 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자기 뽐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10303 # 아 사:람 사서 인제 그 남 조서 돈:만 조 가주 인제 소루 해: 노코 걸, 여기선 도그비라 그래요. {아 사:람 사서 이제 그 남 줘서 돈:만 줘 가지고 이제 소로 해: 놓고 그걸, 여기선 도급이라 그래요.}

10303 @ 아 도급뇨? {아 도급요?}

10303 # 응, 도그별 조요. {응, 도급을 줘요.}

10303 @ 음 도그블 주고 나서 예. {음 도급을 주고 나서 예.}

10303 # 그 도그별 주른 그 도급 마튼 사라미 와 다: 시머 주지요, 그래서 내중에 함 마지기에 엘: 드러서 배 귀니면 배 권, 이:배 귀니면 이:배 권, 그 마지기 당으루 쳐서 다: 주능 거지. {그 도급을 주면 그 도급 맡은 사람이 와 다: 심어 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한 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백 원이면 백 원, 이:백 원이면 이:백 원, 그 마지기 당으루 쳐서 다: 주는 거지.}

10303 @ 보통 얼마 조쑤니까? {보통 얼마 줬습니까?}

10303 # 엘:나렌 쌀루 함 마지기에 단 뽐, 단 뽐, 백 평에 단 뽐뽐게 안 조요. {엘:날엔 쌀로 한 마지기에 뽐 뽐, 뽐 뽐, 백 평에 뽐 뽐뽐에 안 줘요.}

10303 @ 얼마 안 주네요. {얼마 안 주네요.}

10303 # 아이구 마이 주능 거지. {아이고 많이 주는 거지.}

10303 @ 마니 주능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10303 # 응, 엘:나렌 그게 마이 주능 거예요. {응, 엘:날엔 그게 많이 주는 거예요.}

10303 # 지그른 머 쌀 단 뽐 받꼬 일하랴른 다: 요걸 허구 저: 도둥노미라구 욱 허게찌만 지금 어디가 파라두 쌀 한 사면 지구 오질 뽐 터자나요. {지금은 뽐 쌀 뽐 뽐 받꼬 일하랴면 다 욱을 하고 저 도둑놈이라고 욱 하겠지만 지금 어디 가 팔아도 쌀 한 섬은 지고 오지를 뽐 하잖아요.}

10303 # 엘:나렌 또 엄청 주능 거예요 그거. {엘:날엔 또 엄청 주는 거예요 그거.}

10303 # 짐: 매닝 건 글썤 저 여르메 짐: 매구 이러능 건 쌀 뽐 가운 빠꾸두 허구 머 서: 뽐, 향끈 서: 뽐에요 아주, 서: 뽐른 엄청 주능 거예요, 엘:날. {짐: 매는 건 글썤 저 여름에 짐: 매고 이러는

건 쌀 되 가웃 받고도 하고 뭐 서: 되, 한껏 서: 되예요, 아주, 서: 되면 엄청 주는 거예요, 옛날.)

10303 @ 아 뭤 때는뇨? {아 뭤 때는요?}

10303 # 예. {예.}

10303 @ 매능 건 훨씬 더 정:네요. {매는 건 훨씬 더 적:네요.}

10303 # 예? {예?}

10303 @ 뭤 때는 훨씬 더 정:네요. {뭤 때는 훨씬 더 적:네요.}

10303 # 예. {예.}

10303 # 짐: 매능 건 그르케 저:거요. {짐: 매는 건 그렇게 적:어요.}

10303 # 인제 쌀 단 띄는 모 싱꾸능 거하과. {이제 쌀 닷 되는 모심는 거하고.}

10303 @ 머하고요? {뭐하고요?}

10303 # 모, 모 싱꾸능 거하과 엔:나렌 이 가:리라능 걸 꺼꺼요, 갈:, 풀, 풀 가따 닌는 \*\*, 그게 단 띄예요, 읍:써요 예. {모, 모심는 거하고 옛:날엔 이 갈:이라는 걸 꺾어요, 갈:, 풀, 풀 갖다 넣는 \*\*, 그게 닷 되예요, 읍:어요 예.}

10303 @ 고게 젤: 힘드른? {그게 제일 힘든?}

10303 # 예 젤: 힘등 거 그거 단 띄가 그거빠께 읍써요, 갈:게 베타적허능 거 그게 단 띄구. {예 제일 힘든 거 그거 닷 띄가 그거밖에 없어요, 가을에 벼 타작하는 거 그게 닷 띄고.}

10303 @ 고 그 세:버네예요, 단 띄 주능 거는? {그 그 세: 번이에요, 닷 띄 주는 거는?}

10303 # 그르치요, 세:번빠께 읍써요. {그렇지요, 세: 번밖에 없어요.}

10303 @ 그다:매는 보통? {그다음에는 보통?}

10303 # 쌀 서: 대, 두: 대 머 그르치요 머. {쌀 서: 되, 두: 되 뭐 그렇지요 뭐.}

10303 @ 두: 대는 언:제 두: 대 주능 거예요? {두: 되는 언:제 두: 되 주는 거예요?}

10303 # 여르메 머 피모기나 허구 그랴 쪼게 머 두: 대두 주구 그르치요. {여름에 뭐 피목이나 하고 그럴 적에 뭐 두: 되도 주고 그렇지요.}

10303 @ 음 피목할 때요? {음 피목할 때요?}

10303 # 예. {예.}

10303 # 이 치 뽕따레 피나 땡기미, 요새 이 업뜨려 하장코 피나 이르게 땡기머 뽕닝 거 그르케 배께 안 조요. {이 칠 월달에 피나 다니며, 오새 이 업뜨려 하지 않고 피나 이렇게 다니며 뽕는 거 그렇게 밖에 안 줘요.}

10303 @ 인제 보메 보메는 그래도 모내기 할 때가 젤: 힘드네요. {이제 봄에 봄에는 그래도 모내기 할 때가 제일 힘드네요.}

10303 # 예, 모내기하과 갈:꺼끼가 젤: 마이 조:요. {예, 모내기하고 갈: 꺾기가 제일 많이 줘:요.}

10303 @ 예. {예.}

10312 @ 그래 인제 모내기 인제 보메는 인제 고러케 하고 여름 인제 보메 인제 그르케 다: 심꼬 씨뿌리고 이래 하고 나서 여르메는 주로 여르메는 하루 일과가 어뜨게 돼요, 여르메도? {그래 이제 모내기 이제 봄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여름 이제 봄에 그렇게 다: 심고 씨뿌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름에는 주로 여름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여름에도?}

10312 # 짐: 매능 거지요 머. {짐: 매는 거지요 뭐.}

10312 @ 여르메는 그거바께 업씀니까? {여름에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10312 # 그르치, 그거빠께 읍써요.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요.}

10312 @ 여르메는 이제 화저는 안 하구요? {여름에는 이제 화전은 안 하고요?}

10312 # 아 화전반 매이지요 그거뚜. {아 화전밭 매야지요 그것도.}

10312 @ 화전바틀 매구. {화전밭을 매고.}

10312 # 응 매애 돼요. {응 매야 돼요.}

10312 @ 매능 게 이리네요 여르메. {매는 게 일이네요 여름에.}

10312 # 예 매능 게 이리예요. {예 매는 게 일이에요.}

10312 @ 근데 너무 덥잖나요? {그런데 너무 덥잖아요?}

10312 # 아 더워두 해이지 그건, 안, 매지 아느른 풀 쏘게 다 드러가서 곡써기 망거지자나요. {아 더워도 해야지 그건, 안, 매지 않으면 풀 속에 다 들어가서 곡식이 망가지잖아요.}

10312 # 그잉까 그걸 매: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매:야 돼요.}

10312 # 그잉까 아이 매구 두벌 매구 세: 번꺼점 매니까 밤낫 그거 곱또라 그거 하능 거예요. {그러니까 초벌 매고 두벌 매고 세:번까지 매니까 밤낫 그거 바로 돌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10312 @ 곱또라가, 아 예 곱또라서요. {곱돌아가, 아 예 곱돌아서요.}

10312 # 곱또라서 그거 허구. {곱돌아서 그거 하고.}

10312 @ 거 머 하이튼 빨리 자라니까 그조, 예. {그 뭐 하여튼 빨리 자라니까 그조, 예.}

10312 # 예. {예.}

10312 # 세: 번꺼점 매이 돼요. {세: 번까지 매야 돼요.}

10312 @ 뭇 때는뇨? {뭇 때는요?}

10312 # 예. {예.}

10308 @ 그르케 인제 여르메는 인제 매능 게 이리고 그다메 인제 갈: 되자나요, 갈: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여름에는 이제 매는 게 일이고 그담에 이제 가을 되잖아요, 가을 되면 이제?}

10308 # 까, 저, 그걸 저 와이지요, 사네 그 먼: 데 켄 저다 이 나까레다 가레따가 가:레 또 터러 애지요. {그러니까, 저, 그걸 저 와야지요, 산에 그 먼: 데 것을 저다가 이 날가리에다 가려 뵈다가 가을에 또 털어야지요.}

10308 @ 아 그럴 때 이제 순서대로 이러케 한다면는 갈:기 되며는, 우리 집 근처 인능 걸 먼저 함니까, 화전 나강 걸 먼저 함니까? {아 그럴 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면 가을이 되면, 우리 집 근처 있는 걸 먼저 함니까, 화전 나간 걸 먼저 함니까?}

10308 # 화:저니구 머 먼저 잉는 대루 허지요. {화:전이고 뭐 먼저 익는 대로 하지요.}

10308 # 먼저 다 어등 게 바치 다 영그런는지, 개, 너무 영그러서 이르게 되든 이게 나가 자빠지던지 콩 가통 건 또 절루 켜예요, 켜에서 바테 떠러지니까 이 영그는 대루 하능 거지요 머. {먼저 다 어떤 게 밭이 다 영글었는지, 그래, 너무 영글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나가 자빠지든지 콩 같은 건 또 저절로 찢어져요, 찢어져서 밭에 떨어지니까 이 영그는 대로 하는 거지요 뭐.}

10308 @ 그런데 고 화저늘 일귀 노며는 매일 묻 까자나요? {그런데 그 화전을 일귀 놓으면 매일 못 가잖아요?}

10308 # 아유, 매이른 묻 까조, 메칠만 그리 가지요. {아유, 매일은 못 가죠, 며칠만 그리 가지요.}

10302 @ 인제 그르케 해서 인제 되며는 인제 먼저 되는 순서대로 하자나요, 그럼 머 그는 인제 일과는 어트게 됩니까 이제 논, 밭, 가:레 거드미를 할, 거지를 할러며는 먼저 일찍 이러나서 그때도 또 노네 가야 되나요, 논무를 바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이제 먼저 되는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이제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논, 밭, 가을에 거дум이를 할, 건 이를 하려면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때도 또 논에 가야 되나요, 논물을 봐야 되나요?}

10302 # 논무를 \*\* 논무를 뎡다 그러지 안 뎡 켜는, 그때는 자루, 자주 양 가요 인제 벼가 얼마나 이진나, 이글 쟁도면 양 가요 그때는. {논물을 \*\* 논물을 뎡다 그러지 안 뎡 적에는, 그때는 자주, 자주 안 가요 이제 벼가 얼마나 익었나, 익을 정도면 안 가요 그때는.}

10302 @ 벼가 지금처럼 인제 이그며는 논무를 다 때조? {벼가 지금처럼 이제 익으면 논물을 다 때죠?}

10302 # 아 좀 더 대이지요. {아 좀 더 대야지요.}

10302 @ 더 이써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10302 # 예. {예.}

10302 @ 아. {아.}

10302 # 이제 누:러코 어느 정도 되든 인제 논무를 떼:요. {이제 누:랑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논물을 떼:요.}

10302 # 그때서버텀 노네 잘 앙 가지요. {그때서부터 눈에 잘 안 가지요.}

10302 @ 그럼 한 여르메 아까 여르메 일 할 때, 비가 한참 올 때는 그럼 어떠케 해요? {그럼 한 여름에 아까 여름에 일 할 때, 비가 한참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10302 # 비 올 때요, 노네 가야 돼, 논버텀. {비 올 때요, 눈에 가야 돼, 논부터.}

10302 # 놈 무리 마이 드러 가든 이 논뚜기 터지자나요, 그거 터지까봐서 물, 드러가늬 물 막꾸, 이 물꼴 파 놔요, 그럼 무리 비오는 족족 다 빠지라구. {논 물이 많이 들어 가면 이 논둑이 터지잖아요, 그거 터질까봐 물, 들어가는 물 막고, 이 물꼴 파 놔요, 그럼 물이 비오는 족족 다 빠지라고.}

10302 # 그래 그 일버텀 하늬 거예요. {그래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10302 @ 그다메 머 바람 부러서 논, 이게 막 쓰러지기도 하자나요. {그답에 뭘 바람 불어서 논, 이게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10302 # 옴:나레 쓰러진 벼가 인나요, 하하, 지금 쓰러지지. {옴:날에 쓰러진 벼가 있나요, 하하, 지금 쓰러지지.}

10302 @ 지그든, 그때는 안 쓰러져썬요, 암만? {지금은, 그때는 안 쓰러졌어요, 아무리?}

10302 # 머 쓰러질 거르 미썬요? {뭘 쓰러질 거름 있어요?}

10302 # 비:료라든가 하나두 읍찌, 제:웨 향끈 저 마운, 똥얼 저다 부운 거 그거빠게 읍:는데요. {비:료라든가 하나도 없지, 겨우 한껏 저 마운, 똥을 저다 부운 거 그거밖에 읍:는데요.}

10302 # 개 모자리 길들라든 이, 겨우내내 땀: 재 이짜나요, 쟈: 가따 내:구 이르케 해서 모를 길러요. {그래 못자리 기르려면 이, 겨우내내 땀: 재 있잖아요, 재를 갖다 내:고 이렇게 해서 모를 길러요.}

10302 # 그래 모:가 크지두 아나요, 지그든 모:가 머 금방 크지만 비:로 때무레, 옴:나레 비:로가 업썬, 업짜나요. {그래 모:가 크지도 않아요, 지금은 모:가 뭘 금방 크지만 비:료 때문에, 옴:날에 비:료가 없이, 없잖아요.}

10302 @ 그르케 인제 가으레 그르케 해서 인제 논무른 땀: 때썬 돼:꼬 그다메 거지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이제 난 뜰고 가이 되겐네요? {그렇게 이제 가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물은 땀: 때썬 땀:고 그답에 걸이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이제 낮 뜰고 가야 되겠네요?}

10302 # 그럼뉴 나시지요, 주로 나시지요 머. {그럼요 낮이지요, 주로 낮이지요 뭘.}

10302 @ 난, 난만 가지 가면 안 되자나요? {낮, 낮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10302 # 지게 지구 가애지, 지게는 항상 머 잘 때나 좀 빼: 노치 나가면 지겐 저야 되니까. {지게 지고 가야지, 지게는 항상 뭘 잘 때나 좀 빼: 놓지 나가면 지게는 저야 되니까.}

10302 @ 무조건 가주 가능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302 # 예, 지겐. {예, 지게는.}

10302 @ 일 라갈 때 땀: 주로 가지고 갑니까 지게 가주 가고? {일 나갈 때 땀: 주로 가지고 갑니까 지게 가지고 가고?}

10302 # 지게 지늬 거시지요 머, 예:를 드러서 이 패이루 할 리리든 패이를 질머 지구 가구 나산 머 늘 지구 땀:게이 되구 또 지게에다 뽕쭈기 요래해서 잘 짐:끼 나뽕든 소쿠리, 소쿠릴 해 지구 가야 되구. {지게 지는 것이지요 뭘, 예:를 들어서 이 팽이로 할 일이면 팽이를 짚어 지고 가고 낮은 뭘 늘 지고 다녀야 되고 또 지게에다 \*\*\* 요렇게 해서 잘 짚어 지기 나쁘면 소쿠리, 소쿠릴 해 지고 가야 되고.}

10302 @ 음 소쿠리도 자주 가이 되지요. {음 소쿠리도 가지고 가야 되지요.}

10302 # 소쿠리, 질 이:리 이씨며 소쿠릴 지구 가이 돼요. {소쿠리, 질 일:이 있으면 소쿠리를 지고 가야 돼요.}

10308 @ 소쿠리가 소쿠리 질 라:른 어떤 이링가요? {소쿠리가 소쿠리 질 일:은 어떤 일인가요?}

10308 # 일: 드러서 곡씨기 감잘 캔대든지, 이러른 감자 가통 거 어트게 가져 올 쭈가 업짜나요, 소쿠리 지구 가서 소쿠리에 다머 지구 오능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식이 감자를 캔대든지, 이러면 감자 같은 거 어떻게 가져 올 수가 없잖아요, 소쿠리를 지고 가서 소쿠리에 담아 지고 오는 거예요.}

10308 @ 소쿠리 업씨 가져 갈 때도 인네요? {소쿠리 없이 가져 갈 때도 있네요?}

10308 # 소쿠리 가져 갈, 조이 가통 걸 비구 머 이렇 거 할 썸에는 소쿠리 읍찌요. {소쿠리 가져 갈, 조 같은 걸 베고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소쿠리 없지요.}

10308 @ 그다음 곡씨 가지고 올 때도? {그다음 곡식 가지고 올 때도?}

10308 # 그러치요, 항:시 지게는 이씨야 돼요. {그렇지요, 항:상 지게는 있어야 돼요.}

10308 @ 지게 나슨, 항상 필쭈네요. {지게 낮은, 항상 필수예요.}

10308 # 그래 낱하과 지게는 아주 필쭈예요 그건. {그래 낮하고 지게는 아주 필수예요, 그건.}

10308 @ 소는 그러며는 거 받 깔: 때만 일하고 그담에는 또 언제 일합니까? {소는 그러면 그거 받 깔: 때만 일하고 그담에는 또 언제 일합니까?}

10308 # 받 깔 때만 일허지요 머. {받 깔 때만 일하지요 뭐.}

10308 @ 그머 인제 그다:메는 소는 탕탕 노는데요? {그럼 이제 그담에는 소는 탕탕 노는데요?}

10308 # 예 놀:지요. {예 놀:지요.}

10308 @ 한너르메부터 게:송 노라요 소가? {한 여름에부터 게:속 놀아요 소가?}

10308 # 예 놀:지요. {예 놀:지요.}

10308 @ 그머 받 깔: 때 말:고는 소는 머 하는 니리 엄:네요? {그럼 받 깔: 때 말:고는 소는 뭐 하는 일이 없:네요?}

10308 # 아 읍:찌요 {아 없:지요.}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그담에 그 예저네 그 그, 지금 탈곡 하능 거랑 옛날엔 가을걷, 가으레 이제, 가으리 되면 가을거지 하자나요, 그담에 인제 겨울되면 인제 겨울 준비도 해야 되구 하는데 예저네 이게 가으리 돼:서 탈곡 할 때 요즘하고 탈곡하는 방버비 좀 마니 달라짜나요, 기구도 다르조? {그담에 그 예전에 그 그, 지금 탈곡하는 거랑 옛날엔 가을걷, 다을에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걷이 하잖아요, 그담에 이제 겨울되면 이제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 이게 가을이 되어서 탈곡할 때 요즘하고 탈곡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기구도 다르쥬?}

10318 # 그럼뇨, 다르조. {그럼요, 다르쥬.}

10318 @ 어떻 게 가장 크게 다름 경가요, 옛날과 지그메 차이? {어떤 게 가장 크게 다른 건가요, 옛날과 지금의 차이?}

10318 # 머 차이나마나 머 엄청 차이가 지능 거지요 머 옛:날엔 탈곡 할라면서 발루 디더가주구 이르게 탈고글 허구 그랬는데 지그른 전부라 노네서 콤바이가 다 비민서 털자나요, 그이 아주 완저니 틀리지요. {뭐 차이나마나 뭐 엄청 차이가 지는 거지요, 뭐 옛:날엔 탈곡하려면 발로 디더 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논에서 콤바인이 다 베면서 털잖아요, 그러니 아주 완전히 다르지요.}

10318 @ 아 옛날엔 발로 해따고요? {아 옛날엔 발로 했다고요?}

10318 # 예. {예.}

10318 @ 발로 어떻게 해썬니까? {발로 어떻게 했습니까?}

10318 # \*\* 글썸 아까 저다, 지비다 저다 노쿠 발루 이르게 발:른 그 기계가 이케 도라가야. {\*\* 글썸 아까 저다가, 집에다 저다가 놓고 발로 이렇게 밟는 그 기계가 이렇게 돌아 가요.}

10318 # 한번 발부머 함바꾸 도라가능 거뚜 이꾸 머 또. {한번 밟으면 한 바퀴 돌아 가는 것도 있고 뭐 또.}

10318 @ 아 발로 이러케 발부머는 이케 회저니 되면서 막 떠러내:조? {아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케 회전이 되면서 막 떨어 내:조?}

10318 # 예예. {예예.}

10318 @ 그머 예저네는 그거보다 더 예저네는 어떠케 발로? {그럼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예전에는 어떻게 발로?}

10318 # 아주 예저네는 글썸 또 여그서느 이르게 들머치는 서, 그걸 텔친다그러지 태. {아주 예전에는 글썸 또 여기서는 이렇게 들머치는 서, 그걸 태를 친다고 그러지 태.}

10318 @ 예 태를 쳐서. {예 태를 쳐서.}

10318 # 태를 쳐서 터러먹꾸 고 또 \*\*\* 그르케 찢깁 거는 그 흘태래능 거 영성형 게 이르게 사리 돼 이짜나요. {태를 쳐서 털어 먹고 그 또 \*(\* 그렇게 찢긴 것은 그 흘태라는 거 영성한 거 이렇게 살이 돼 있잖아요.}

10318 @ 아 흘태요. {아 흘태요.}

10318 # 응. {응.}

10318 # 그걸루 이르게 자버댕게서 흘터꾸. {그걸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훑었고.}

10318 @ 아 그르가 예저네는 이제 흘태루 이러케 발루 이케 바레다 걸:고 이러케 자바 땡건나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흘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에다 걸:고 이렇게 잡아 당겼나요?}

10318 # 아이 기계가 이러케 이썸요, 나무때기 이러:케 대: 가주 이르게 짜 가주 와서 이르게 생 갠는데 거그다 \*\* 자버댕기지요, 텅 너:가주구, 자버댕기른 흘터저요. {아니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조각 이렇게 대: 가지고 이렇게 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 \*\*잡아 당기지요, 탁 넣어 가지고, 잡아 당기면 훑어져요.}

10318 @ 그게 여기서도 흘태라고 헨나요? {그게 여기서도 흘태라고 했나요?}

10318 # 예, 흘태라 그러지. {예, 흘태라 그러지.}

10318 # 이케 이 요:러, 그게 어트케 생겐냐문. {이케 이 요령,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10318 @ 혹시 이렇 거 아닝가요? {혹시 이런 거 아닝가요?}

10318 # 이견네여. {이거네요.}

10318 # 이거 이러케 탕 여꾸 자버댕기능 거예요. {이거 이렇게 탁 넣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10318 @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도 인제 벼를 여다 땅 노코 이르게 확 자바. {요거 요거는 요거는, 요거도 이제 벼를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확 잡아.}

10318 # 자 그건 저, 옛날에 그러니까 먹글 게 읍쓸 썬게는 벼를 일찌감:치 또 먼저 비: 와요, 베다가. {자 그건 저, 옛날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벼를 일찌감치 또 먼저 베: 와요, 베다가.}

10318 @ 요거 푸빠시미하는. {요거 풋바심이하는.}

10318 # 예 푸빠시미라구 요걸 하나하나 요러케 찢버서 땡게요. {예 풋바심이라고 요걸 하나하나 요렇게 집어서 당겨요.}

10318 @ 요건 머라고 한다고, \*\*? {요건 뭐라고 한다고, \*\*?}

10318 # 그건 나 이르믄 잘 모르겐대요. {그건 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10318 #1 나두 저 까머건는데. {나도 저 까먹었는데.}

10318 # 이름, 이러머겨써, 이르게 홀터써여. {이름, 잊어 먹었어, 이렇게 홀었어요.}

10318 #1 인:나른 수수대궁으루다가 헨는데. {옛:날은 수수대궁으로다가 했는데.}

10318 @ 이거를 머 찍깁가 머 그런 마를 하던데, 그건 모르시구요? {이거를 뭐 찍개인가 뭐 그런 말을 하던데, 그건 모르시고요?}

10318 # 네, 잘 모르게써요. {네, 잘 모르겠어요.}

10318 @ 아 이게 홀태라, 홀태, 예. {아 이게 홀태라, 홀태, 예.}

10318 @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인제 이르게 해썬네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했었네요.}

10318 @ 인제 그제 시기별로 다르네요, 처음은 인제 홀태가지고 하다가 쪼끔 지나서 발로 밟:는, 그 이르미 멈니까, 그거 기계가? {이제 그제 시기별로 다르네요, 처음은 이제 홀태 가지고 하다가 조금 지나서 바를 밟:는, 그 이름이 뭐니까, 그거 기계가?}

10318 # 걸 탈곡기라 그래는데 그때두. {그걸 탈곡기라 그러는데 그때도.}

10318 @ 아 그때도 탈곡기요? {아 그때도 탈곡기요?}

10318 # 예. {예.}

10318 @ 특빠란 이르른 업꾸? {특별한 이름은 없고?}

10318 # 예. {예.}

10318 @ 그다메 인제 콤파인 나옴 거네요. {그담에 이제 콤파인 나온 거예요.}

10318 # 예. {예.}

10318 @ 홀태 나올 그때도 그 태치능 건 가치 태도 가치 치면서 홀태로 이러케? {홀태 나올 그때도 그 태치는 것 같이 태도 같이 치면서 홀태로 이렇게?}

10318 # 예예. {예예.}

10318 @ 어떻 게 먼저 나완나요? {어떤 게 먼저 나왔나요?}

10318 # 쥐, 귀 요 나옴 거 나옴 찌게는 태를 치고, 귀 절긴 벼가 또 이써요, 그거는 홀태로 해이조, 그건 들머쳐션 떠러지질 아느니까. {쥐, 귀 요 나온 거 나옴 적에는 태를 치고, 귀 절긴 벼가도 있어요, 그거는 홀태로 해야조, 그건 들고 쳐서는 떨어지지 않을뿐이까.}

10318 @ 그르케 해서 인제 타작, 인제 타:저글 하능 거네 타:작.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작, 이제 타:작을 하는 거네 타:작.}

10318 # 예. {예.}

10318 @ 타:저글 인제 해가지고 이거 떠러지면 아까 얘기해땡 그걸 가지고서 탈고글 해꼬. {타:작을 이제 해 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아까 얘기 했던 그걸 가지고서 탈곡을 했고.}

10318 @ 그럼 탈고글 그거 가지고 이르게 하게 되며는, 보면 이게, 그걸 타:작한다라고 하나요? {그럼 탈곡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면 이게, 그걸 타:작한다라고 하나요?}

10318 # 그러치 타작한다 그러지여. {그렇지 타작한다 그러지요.}

10318 @ 그 타:작하며는 마 이게 막, 막 이게 검, 이게 막 여푸로 막 튀고 막 그런 걸 머, 머가 막 튀고 하자나요, 태치고 나머는 머, 막 튀능 게 이짜나요, 그런 걸? {그 타:작하면 이게 막, 막 이게, 검, 이게 막 옆으로 막 튀고 막 그런 걸 뭐, 뭐가 막 튀고 하잖아요, 태치고 나면 뭐, 막 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10318 # 튀능 거는 그렇까 튀지, 저 못 가게 이 멍서그루 돌레 가리지요. {튀는 거는 그러니까 튀지, 저 못 가게 이 멍석으로 돌려 가리지요.}

10318 # 지그른 침마기 만:치만 엔:나렌 저 소누루 맨드른 멍석, 멍석 요렇게 튀어 나갈 땡 가려요. {지금은 천막이 많:지만 옛:날엔 저 손으로 만든 멍석, 멍석 요렇게 튀어 나갈 데를 가려요.}

10318 @ 인제 그걸 가지고서 그러고 인제 아른 여기 남:꼬 그다메 까칠까칠함게 막 튀어 나가능



거 그렇 건 머라고 합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러고 이제 알은 여기 남:고 그답에 까칠까칠한 게 막 튀어 나가는 거 그런 건 뭐라고 합니까?}

10318 # 벼깎치요? {벼까끄라기요?}

10318 @ 벼깎치요? {벼까끄라기요?}

10318 # 예. {예.}

10318 # 까:치가 뭐 별로 만:치 아느니까. {까끄라기가 뭐 별로 많:지 않으니까.}

10318 @ 깎치요? {까끄라기요?}

10318 # 예, 그건 그거는 치루 이제 까불러서 다: 그렇걸 다:. {예, 그건 그건 키로 이제 까불어서 다: 그런 걸 다:.}

10318 @ 아 깎치가 어떻습니까? {아 까끄라기가 어떤 겁니까?}

10318 # 벼에 이, 지금 깨드른 이르케 저, 똥구라케 기낭 생게찌만 예나렌 요 베끄트메 이러케 찢:따라케 이썬요, 고걸 깎치라 그래요. {벼에 이, 지금 것들은 이렇게 저, 동그랗게 그냥 생겼지만 옛날엔 요 벼 끝에 이렇게 기다랗게 있어요, 그걸 깎치라 그래요.}

10318 @ 그럼 머 그 깎치 말고 풍채 돌리면 먼지가통 거 나오고 머 이르케 막 튀고 마즈면 따끔 따꾸만 그러게? {그럼 뭐 그 까끄라기 말고 풍채 돌리면 먼지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막 튀고 맞으면 따끔따끔한 그런 거?}

10318 # 그거 벼깎치가 드러가서 따갑지요. {그거 벼 까끄라기가 들어 가서 따갑지요.}

10318 @ 북때기는, 북때기는 업썬나요? {북대기는, 북대기는 없었나요?}

10318 # 북때기 이썬요, 북때기는 거 그날 못: 털고 그날 또 털:기도 허지만 도리깨가주 또 뛰디 레이지요. {북대기 있지요, 북대기는 그 그날 못: 털고 그날 또 털:기도 하지만 도리깨 가지고 또 두드려야지요.}

10318 @ 그 북때기는 어떻 경가요? {그 북대기는 어떤 건가요?}

10318 # 북때기는 이르케 텔 처구두 이게 베이사기 요러케 찢러지는 수두 이꾸 그러차나요, 그래 른 그거를 일랑 그러내:따가 내중에 도리깨루 또 뛰디래서 빼:, 아를 빼:예 돼:요. {북대기는 이렇게 태를 치고도 이게 벼 이삭이 요렇게 잘라지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굵 어 냈:다가 나중에 도리깨로 또 두드려서 빼:, 알을 빼:야 돼:요.}

10318 @ 아 근데 그 북때기가 정확하게 먼:지를 제가 잘 몰라서. {아 근데 그 북대기가 정확하게 뭘:지를 제가 잘 몰라서.}

10318 # 북때기래능 게 글썤 텔 치구 이러 비루 이르케 베아를 썰자나요, 씨르민 거기 썰레 나오 능 걸 그 북때기라 그래요, \*\*. {북대기라는 게 글썤 태를 치고 이렇게 비로 이렇게 벼 알을 쓸잖 아요, 쓸면 거기 썰려서 나오는 걸 그 북대기라 그래요, \*\*.}

10318 @ 아 그 베아리 부터 인네요. {아 그 벼 알이 붙어 있네요.}

10318 # 예. {예.}

10318 @ 그럼 베아리 부터이썬만 베아리 쪼끄마케 인능 거, 벼깎치고, 티, 티도 인나요? {그럼 벼 알이 붙어 있지만 벼 알이 조그맣게 있는 거, 벼 까끄라기이고, 티, 티도 있나요?}

10318 # 예? {예?}

10318 @ 티요, 티. {티요, 티.}

10318 # 티:는 티:는 머가 티:나 하믄 그 가치 썰레 나가믄, 베에 \*\* 이 부서지구 머 이릉 게 다 그 티:지요. {티:는 티:는 뭐가 티:나 하믄 그 같이 썰려 나가면, 벼에 \*\* 이 부서지고 뭐 이런 게 다 그 티:지요.}

10318 @ 아 그게 티:구요. {아 그게 티:고요.}

10318 @ 아 그게 티고 북때기 가통 경운 벼 알하고 티하고 이러케 가치 부터 이썬네요, 벼 깎치 도 부터 인는 그렇 게 북때기고. {아 그게 티고 북대기 같은 경우는 벼 알하고 티하고 이렇게 갈

이 붙어 있겠네요, 벼 까끄라기도 붙어 있는 그런 게 북대기고.}

10318 # 예. {예.}

10318 @ 아 그게 조금 다르네요, 예. {아 그게 조금 다르네요, 예.}

10319 @ 아까 그 여기 방아는 옛날에는 어떤 방아 이따고 헨나요, 주로 인능 게? {아까 그 여기 방아는 옛날에는 어떤 방아 있다고 헨나요, 주로 있는 게?}

10319 # 주로 이제 디딜뽕아라능 거뚜 그 인는데 그걸루 주루 안 하구 물방아루 마니 해:쥬요. {주로 이제 디딜방아라는 것도 그 있는데 그걸로 주로 안 하고 물방아로 많이 했:쥬요.}

10319 @ 물방아. {물방아.}

10319 @ 이 디딜뽕아라고 방애라고 하기도 하고 발방애라고 하고 다른 마립니까? {이 디딜방아라고 방아라고 하기도 하고 발방아라고 하고, 다른 말입니까?}

10319 # 가튼 마린테 그르케 두가지루 썬여. {같은 말인데 그렇게 두 가지로 썬여.}

10319 @ 아 어떤 마를 마니 쓰나요, 여기서? {아 어떤 말을 많이 쓰나요, 여기서?}

10319 # 여긴 발방애라구 마이 쓰쥬요. {여기는 발방아라고 많이 쓰쥬요.}

10319 # 예 발루 디딘다, 발방아. {예 발로 디딘다, 발방아.}

10319 @ 예, 그 방아에 보며는 이기 옛날에는 고런 방아도 이꼬 무리 이르게 떠러져서 하는 무리 이르게 떠러지른 이게 도라가는? {예, 그 방아에 보면 이게 옛날에는 그런 방아도 있고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돌아가는?}

10319 #1 물:레방아. {물:레방아.}

10319 # 예 그기 물방아라 그래요. {예 그게 물방아라 그래요.}

10319 @ 그다메 이제 예저네 소를 이리케 끌고 머 이리케 도를 돌리는 방애도 이썬짜나요? {그담에 이제 예전에 소를 이렇게 끌고 뭐 이렇게 돌을 돌리는 방아도 있었잖아요?}

10319 # 그게 연자방아라능 건 그건 모뻘썬여, 그 이 이름만 드러썬 연자방아랭거 어디 가 판데 가서 보긴 해썬만. {그게 연자방아라는 건 그건 못 봤어요, 그 이 이름만 들었지 연자방아라는 거 어디 가 판 데 가서 보긴 했지만.}

10323 @ 그 지푸로, 예저네 인제 그 갈:거지가 끈난다메 집, 이짜나요 지피, 남는데 그걸로 뭇: 만 드러파고 헨나요, 아까 이영도 만들고 그다메 가:마? {그 쥬으로, 예전에 이제 그 가을건이가 끝난 다음에 쥬, 있잖아요 쥬이, 남는데 그걸로 뭇: 만들었다고 헨나요, 아까 이영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마?}

10323 # 집, 마니 해 이:쥬요, 머 그걸루 주로 집 마이 해 잉: 거예요. {집, 많이 해 이쥬요, 뭐 그걸로 주로 집 많이 해 이는 거예요.}

10323 # 그다메 쥬 냉기 집까지고는 겨우르먼 몽성 맨들고 신삼꼬. {그담에 쥬 남긴 쥬 가지고는 겨울이면 멍석 만들고 신 삼고.}

10323 @ 어르신 그러며는 그 예저네 신도 이게 사마 바썬나요? {어르신 그러면 그 예전에 신도 이게 삼아 봤었나요?}

10323 # 아이 신두 마:이 사머쥬요. {아니 신도 많:이 삼았쥬요.}

10323 @ 그 그걸 무슨 시늘? {그 그걸 무슨 신을?}

10323 # 집썬~이~라 그러쥬요. {쥬신이라 그러쥬요.}

10323 @ 예, 그거를 어트게 만드느지 만드는 방버블 쥬 알고 계쥬요? {예,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지 만드는 방법을 쥬 알고 계쥬요?}

10323 # 알:쥬요, 그야. {알:쥬요, 그거야.}

10323 @ 그 어떠케 만듭니까, 그 집썬도 보며 나리 머 다썬날? {그 어떻게 만듭니까, 그 쥬신도 보면 날이 뭐 다썬 날?}

10323 # 여긴 전부라 네:나리예요, 다 게. {여긴 전부 다 네 날이예요, 다 그게.}

10323 @ 아 네:나리에요? {아 네: 날이에요?}

10323 # 예, 네:날루 마이. {예, 네: 날로 많이.}

10323 @ 네:날 하는 데두 이꼬 또 어뜬 데는. {네: 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뜬 데는.}

10323 # 그건 저 미:투리라구 거 잘: 쌤녕 거 그건 저 가름씨니라구 아주 그릉 거 이찌요. {그건 저 미:투리라구 거 잘: 삼는 거 그건 저 가름신이라고 아주 그런 거 있지요.}

10323 @ 미투리는 한, 멘날로 이르게 하나요? {미투리는 한, 몇 날로 이렇게 하나요?}

10323 # 그거 머 여선날 가뜬데요, 그건 안: 해봐썬요. {그거 뭐 여섯 날 같은데요, 그건 안 해봤어요.}

10323 @ 그건 안 해보시고 네날로 주로 만드런나요? {그건 안 해 보시고 네 날로 주로 만들었나요?}

10323 # 네:날루요. {네: 날로요.}

10323 @ 어트게 만드런나요, 집, 집 먼저? {어떻게 만들었나요, 짚, 짚 먼저?}

10323 # 앤: 처음에는 이 새끼 꿈:니다. {맨: 처음에는 이 새끼를 꿈:니다.}

10323 # 새끼 팔:가주군 그걸. {새끼를 팔: 가지고 그걸.}

10323 @ 새끼를 어뜨게 꿈:니까, 오른? {새끼를 어떻게 꿈:니까, 오른?}

10323 # 머, 오른쪽, 오른 새끼조. {뭐, 오른쪽, 오른새끼조.}

10323 @ 오른새끼, 윈:새끼가 이따면뇨? {오른새끼, 윈:새끼가 있다면요?}

10323 # 오른새끼루 팔:가주구 네:나를 맨드러가주구 이르게 여기다 차구서는. {오른새끼로 팔: 가지고 네: 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차고서는.}

10323 @ 어디, 어디에다? {어디, 어디에다?}

10323 # 여기 허리에다 차야 돼요. {여기 허리에다 차야 돼요.}

10323 @ 허리에다 차구요. {허리에다 차고요.}

10323 # 예, 허리에다 이르게 차구선 여기다 발꼬레다 하낙씩 거러야 돼요. {예, 허리에다 이렇게 차고선 여기다 발가락에다 하나씩 걸어야 돼요.}

10323 @ 발, 엄지발가락에 하나씩 껌:니까? {발, 엄지발가락에 하나씩 껌:니까?}

10323 # 예예. {예예.}

10323 # 그릉까 이게 두:개씩 이러쿠 가씨까 네:나 라니에요, 그레가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이렇고 갔으니까 네: 날 아니에요, 그레 가지고.}

10323 @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노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고.}

10323 # 아이 아이 여기는 기낭 허리띠에다 인제. {아니 아니 여기는 그냥 허리띠에다 이제.}

10323 @ 허리띠에 매고. {허리띠에 매고.}

10323 # 예 매구선 인제. {예 매고선 이제.}

10323 @ 네:나리며는 여기 하나 두:개 이짤썬니까? {네: 날이면 여기 하나 두: 개 있잖습니까?}

10323 # 예. {예.}

10323 @ 또 하나, 또 두:개는 어디에 하나? {또 하나, 또 두: 개는 어디에 하나?}

10323 # 아이, 이거 여기서 곱쳐썬~이~까 요기서. {아니, 이거 여기서 곱쳤으니까 요기서.}

10323 @ 아, 여기서 두개 곱치고. {아 여기서 두 개 곱치고.}

10323 # 아이, 요기서 아 요기서 곱쳐썬요. {아니, 요기서 아 요기서 곱쳤어요.}

10323 @ 아 허리에서 곱치고요. {아 허리에서 곱치고요.}

10323 # 예예. {예예.}

10323 @ 아 허리에서 두:개 곱치고 그다메 엄지발깁게, 양:쪽 엄지발까라게 두:개 곱쳐서 인제 네: 나리 되능 거네요. {아 허리에서 두: 개 곱치고 그담에 엄지발가락에, 양쪽 엄지발가락에 두: 개 곱쳐서 이제 네: 날이 되는 거네요.}

10323 # 예 네:날러 해가지구 요그서 인제 시자걸 해 가주 삼능 거지요. {예 네: 날을 해 가지고 요기서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삼는 거지요.}

10323 @ 예저네는 보통 그 한 얼마나 걸려썬니까 집썬 삼는데? {예전에는 보통 그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쥔신 삼는데?}

10323 # 한 시간 잘 걸레이지요. {한 시간 잘 걸려야지요.}

10323 @ 그 바리 큰 사라른 쫘더 걸리잔썬니까? {그 발이 큰 사람은 쫘더 걸리잖습니까?}

10323 # 아니예요. {아니예요.}

10323 @ 그러면 그러케 해서 네:날 하면 보통 한 얼마나 신:썬니까 집썬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날 하면 보통 한 얼마나 신:습니까 쥔신는?}

10323 # 하이구 그 땡기게 달레썬요. {하이구 그 다니기 달렸어요.}

10323 # 사흘 가기가 힘드려요. {사흘 가기가 힘들어요.}

10323 @ 사흘 가기가요? {사흘 가기가요?}

10323 # 예. {예.}

10323 # \*\* 땡기며 사흘 \*\* 모 해요. {\*\* 다니며 사흘 \*\* 못 해요.}

10323 @ 그러면 그 집썬. {그러면 그 쥔신.}

10323 # 그르니 매일 사머애지요, 매일. {그러니 매일 삼아야지요, 매일.}

10323 # 그이가 식꾸나 마:느면 매일 사머이 돼요. {그러니까 식꾸나 많:으면 매일 삼아야 돼요.}

10323 # 그~이~까 저나기른 계:속 꼬걸 삼능 거지. {그러니까 저녁이면 계:속 그걸 삼는 거지.}

10323 @ 아 저녁 때마다 이르게. {아 저녁 때마다 이렇게.}

10323 # 응 저녁마다. {응 저녁마다.}

10323 @ 그이 지피 또 마니 이썬야 되는데 지피 마니 업쓰면 그거또 모타? {그래 쥔이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쥔이 많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하?}

10323 # 그이께 집뚜 마:나야 되구 또 멍서걸 맨들라든 그건 겨우레 누:니나 오구 그래 노:른 다 시가느루 따짐 엄청 걸리지요, 머 한 일쭈일 걸레이 돼요, 일쭈를, 멍서 가나 맨들라든 일쭈일 걸리는데 일쭈이레 요거야 정말 자미 업썬~이~까 겨우레도 진질 바:메두 또 허구, 머 나:제두 허구 그래~이~까 일쭈일 걸리지 기낭 저 나:제 이르게 시가느루 따저든 머 한 여를 걸레이 멍서 가나 맨드려요. {그러니까 쥔도 많:아야 되고 또 멍석을 만들려면 그건 겨우레 눈:이나 오고 그래 놓으면 다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걸리지요, 뭐 한 일쭈일 걸려야 돼요, 일쭈일을, 멍식 하나 만들려면 일쭈일 걸리는데 일쭈일에 요거야 정말 잠이 없으니까 겨우레도 긴 긴 밤:에도 또 하고, 뭐 낮:에도 하고 그러니까 일쭈일 걸리지 그냥 저 낮:에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열흘 걸려야 멍식 하나 만들어요.}

10323 @ 아 그래요, 어유 멍성 만드는데. {아 그래요, 어휴 멍식 만드는데.}

10323 @ 멍서근, 멍성 만들고, 여를 정도, 그게 혼자서 여를 정도면 되나요, 가치 만들 썬 업썬요? {멍식은, 멍식 만들고, 열흘 정도, 그게 혼자서 열흘 정도면 되나요, 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10323 # 가치 몸 맨들지요, 혼자 만들지요. {같이 못 만들지요, 혼자 만들지요.}

10323 @ 그다메 이제 가마니도 이러케 만들지 아난나요, 가마니? {그답에 이제 가마니도 이렇게 만들지 았나나요, 가마니?}

10323 # 예 가마이두 마이썬 맨드러썬요. {예 가마니도 많이썬 만들었지요.}

10323 @ 가마니는 금, 기계가 이썬따 그러던데, 가마니틀. {가마니는 그 무슨, 기계가 있었다 그러던데, 가마니틀.}

10323 # 가마이틀, 기계래능 거시 아니예요, 그~이~까 이 바디래능 게 인는데 구니~이~ 이르게 쯡썬 이르게 예, 그가주 이 가마이트른 나무마 이썬며 아무나 맨드러서 이르게 치게 맨드러썬요.

{가마니틀, 기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라는 게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숭숭 이런데 예, 그것 가지고 이 가마니틀은 나무만 있으면 아무나 만들어서 이렇게 치게 만들었어요.}

10323 # 근데 그 새꼬리를 잘 짜야 돼:요. {근데 그 새끼를 잘 짜야 돼:요.}

10323 @ 새꼬리가 뭐니까? {새꼬리가 뭘니까?}

10323 # 이 새끼 짜: 가주구, 그, 그걸 짜:서 거 구녕어다 끼여서 이러케 \*\* 부뜨러 매:가주 이게 바디루 치, 치지요. {이 새끼를 짜: 가지고, 그, 그걸 짜:서 그 구멍에다 끼어서 이렇게 \*\* 붙들어 매: 가지고 이게 바디로 치, 치지요.}

10323 # 그거 하루에 소니 마저야 일국개 쳐요, 그건. {그거 하루에 손이 맞아야 일곱 개 쳐요, 그건.}

10323 @ 그, 그 명성 말:고 머 메빵석, 도레방석, 머 거적, 이렇 거뜰도 만드러썬나요? {그, 그 명석 말:고 뭐 멧방석, 돌이방석, 뭐 거적,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나요?}

10323 # 그렇 거뚜 맨들지요. {그런 것도 만들지요.}

10323 @ 어르신이 만등 건 어떻 거시 이썬썬, 명석또 만드러꼬. {어르신이 만든 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명석도 만들었고.}

10323 # 명석뚜 맨드러보구 우린 저, 메빵서기래는 그거는 맨드러 봐:썬요. {명석도 만들어 보고 우린 저, 멧방석이라는 그거는 만들어 봤:어요.}

10323 # 예, 똥:구러케 이러::케 해가지구 똥그러케 이만::해게 해 가주 여, 추:미 요만:춤 올러오게 고저 저, 춤초미 매가주 가:리먼 머 쌀두 다, 짜리 안 새게 고러케 맨드러요. {예, 똥: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똥그렇게 이만::해게 해 가지고 여기, 춤:이 요만:춤 올라 오게 그거, 저, 춤춤히 매 어 가지고 가을이면 똥 쌀도 다, 쌀이 안 새게 그렇게 만들어요.}

10323 @ 추미 올라 온다는 게 뭐니까, 이게 똥 둘러 오면 이 꼬테 야까네 썬 도툸하게? {춤이 올라 온다는 게 뭘니까, 이게 똥 둘러 오면 이 끝에 약간의 썬 도툸한 게?}

10323 # 예, 이러케 올러오게 맨드러이지요. {예, 이렇게 올라 오게 만들어야지요.}

10323 @ 아 고게 추미라고 함니까, \*\*를? {아 그게 춤이라고 함니까?}

10323 # 예. {예.}

10323 @ 추를 썬 노피 만드러나요? {춤을 썬 높이 만들었나요?}

10323 # 아 노피 안 맨드러요, 그건, 대:개, 야치 맨드러요. {아 높이 안 만들어요, 그건, 대개, 얇게 만들어요.}

10324 @ 그다메 겨울, 겨울되려는 똔까미 예저네는 지그른 머 전부 연타니다 머 까스다 인는데 엔나레는 그제 업썬짜나요? {그답에 겨울, 겨울되면 똔감이 예전에는 지금은 똥 전부 연탄이다 똥 까스다 있는데 옛날에는 그제 없었잖아요?}

10324 # 엔나렌 순::저니 나무지요, 그~이~까 겨우레 그 저 나무하능 게 이:리예요. {옛날엔 순::전히 나무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저 나무하는 게 일:이예요.}

10324 @ 어떻, 나무도 하고 또 머 땅 건 업썬썬니까? {어떤, 나무도 하고 또 똥 건 없었습니까?}

10324 # 땅 건 머 업:썬요 머, 겨우레. {땅 건 똥 없:지요 똥, 겨울에.}

10324 @ 머, 술, 이케 술 가툼 경우에 이케 마룻 거 그거 가져 오기도 하고, 그렁 걸 머라고 함니까? {똥, 술, 이렇게 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룻 거 그거 가져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똥이라고 함니까?}

10324 # 근데 엔:나레 우리 할 썬게는 저, 어디예, 이 사네 산파이나 드로몬 썬 낭그나 비여서 목 썬입 비여서 파러 똥 썬게는 그런 마룻 나무가 이썬두, 업:썬요 우리때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할 적에는 저, 어디예, 이 산에 산파이나 들어 와서 썬 나무나 베서 목재를 베어서 팔아 먹을 적

에는 그런 마른 나무가 있어도, 없:어요 우리 때는.}

10324 # 하두 이 사람드리 나무를 해다이, 지그른 전부라 치다 보든 사니 아주 시퍼러치만 엔나레는 사니 빨개써쪼요. {하도 이 사람들이 나무를 해 대니, 지금은 전부 다 쳐다 보면 산이 아주 시퍼렁지만 옛날에는 산이 빨갳았쪼요.}

10324 @ 예 사네 가면 엔나레 산 가면 이게, 사네 가서 나무를 이게 딱, 쪼개자나요, 고걸 머라고 합니까? {예 산에 가면 옛날에 산 가면 이게,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닥, 쪼개쥬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24 # 장작 패논는다 그러지. {장작 패 놓는다 그러지.}

10324 @ 그거또 이꼬 그다메 인제 사네 가면 썩근 나무에 이게 나무에 이게 가지 이렇 거뜰도 막 따고 그래쪼, 그렁 걸 머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고 그담에 이제 산에 가면 썩은 나무에 이게 나무에 이게 가지 이런 것들도 막 따고 그렸쪼,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10324 # 건, 솔까지라 그러지요, 솔까지. {그건, 솔까지라 그러지요, 솔가지.}

10324 @ 솔까지는 소나무에 인는 거만 얘기하능 경가요? {솔가지는 소나무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10324 # 예. {예.}

10324 @ 다른 나무가지에 인능 거는? {다른 나뭇가지에 있는 것은?}

10324 # 다, 다른 나뭇 저 참나무 가지두 이꾸 머 여라, 여러가지지요. {다른 나무는 저 참나무 가지도 있고 뭐 여러, 여러가지지요.}

10324 @ 그다메 인제 나무 중에 머 삭, 삭? {그담에 이제 나무 중에 뭐 삭, 삭?}

10324 # 그걸 삭썰이라 그러지요. {그걸 삭정이라 그러지요.}

10324 @ 어떻 게 삭썰이? {어떤 게 삭정이?}

10324 # 그 저 나무에서 이르게 사른 낭게서 주거짜나요, 나무가. {그 저 나무에서 이렇게 산 나무에서 죽었쥬아요, 나무가.}

10324 @ 예 사라인는 나무에 이제 주근 가지. {예 살아 있는 나무에 이제 죽은 거지.}

10324 # 예 그걸 삭썰이라 그래요. {예 그걸 삭정이라 그래요.}

10324 @ 아 삭썰이라고 하나요? {아 삭정이라고 하나요?}

10324 @ 솔갈, 솔까지 말고 솔갈비도 이르게? {솔갈, 솔가지 말고 솔갈비도 이렇게?}

10324 # 예, 솔라무두 솔삭썰래 이꾸 다 이쪼요 머. {예 솔나무도 솔삭지가 있고 다 있지요 뭐.}

10324 @ 솔? {솔?}

10324 # 솔삭썰. {솔삭지.}

10324 @ 솔삭썰요, 솔삭썰는 머니까? {솔삭지요, 솔삭썰는 뭇니까?}

10324 # 삭썰, 그 가지 썩근. {삭지, 그 가지 썩은.}

10324 @ 아 솔삭썰. {아 솔삭지.}

10324 # 응, 썩건능 거. {응 썩은 것.}

10325 @ 겨울되머는 주로 머 머글 께 엔나렌 별로 업썩는데 겨우레 흑씨 머 머글 만항 게 또 머 이썩썩나요? {겨울되면 주로 뭐 먹을 게 옛날엔 별로 없었는데 겨울에 흑시 뭐 먹을 만한 게 또 뭐 있었었나요?}

10325 # 머 이, 주로 밥, 하루 세:끼 멩능 거고 업:썰요 머 엔:나레 머 이썩썰요? {뭐 이, 주로 밥, 하루 세: 끼 먹는 거고 없:지요 뭐 옛:날에 뭐 있었어요?}

10325 @ 예, 그러쪼. {예, 그렁쪼.}

10326 @ 지그른 인제 바메는 이 전등 켜는데 엔나레는 바메 불켜능 게 머가 이썩썩니까, 아주 엔:나레 어르신? {지금은 이제 밤에는 이 전등 켜는데 옛날에는 밤에 불 켜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어르신?}

10326 # 아주 엔나레는 저, 구서케다가요, 이러::케 흐그루 고쿠리래능 걸 맨드러써요, 고쿨. {아주 옛날에는 저, 구석에다가요, 이렇::게 흙으로 고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쿨.}

10326 @ 흘그루 이러케? {흙으로 이렇게?}

10326 # 예, 맨드러 가주 거그다 사네서 이 솔라무 써근 그 저 관소리라고 그걸 가따가 캐다가 찌개서 그걸루 불 해노쿠 사라써요. {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산에서 이 소나무 썩은 그 저 관솔이라고 그걸 갖다가 캐다가 쪼개서 그걸로 불 해 놓고 살았어요.}

10326 # 그래든 이 그게 고쿠리래능 게 또 내:든 아주 새카마케 되지요, 밤새 때:따 그런. {그러면 이 그게 고쿨이라는 게 또 연기가 많이 나면 아주 새카맣게 되지요, 밤새 불을 땀다 그러면.}

10326 @ 내면뇨? {내면요?}

10326 # 예. {예.}

10326 # 이게 지금 모양으루 머 저 뽀바내는 그게 읍:써든 그걸 내, 낸:다 그래요. {이게 지금 모양으로 뭐 저 뽀바내는 그게 없으면 그걸 낸:다 그래요.}

10326 @ 아 그르까 구멍을 이게 바꾸루 낸:다능 거조? {아 그러니까 구멍을 이게 밖으로 낸:다는 거조?}

10326 # 예, 구멍을 그러케 낸:는데 그게 영기가 잘 빠져 나가능 고코리 이꾸 또 암 빠져나가능 고쿠리 이써요, 고코리라 그래요. {예, 구멍을 그렇게 내:는데 그게 연기가 잘 빠져 나가는 고쿨이 있고 또 안 빠져 나가는 고쿨이 있어요, 고쿨이라 그래요.}

10326 # 그래든 그 내:든 사:라미 새카마쿠 그래, 하하. {그러면 그 연기가 많이 나면 사:람이 새카맣고 그래, 하하.}

10326 @ 그럼 그게 내:가 잘 라가며는? {그럼 그게 내:가 잘 나가며는?}

10326 # 예, 사라미 좀 들 까매지고. {예, 사람이 좀 덜 까매지고.}

10326 @ 고걸 내:가 나간다고 하나요? {그걸 내:가 나간다고 하나요?}

10326 # 예. {예.}

10326 @ 태우며는 내:가 나가나요? {태우면 내:가 나가나요?}

10326 # 영기, 영기 나가능 걸 가주 그러지요. {연기, 연기 나가는 걸 가지고 그러지요.}

10326 @ 영기 나가능 걸 내:가 나간다고 하나요? {연기 나가는 걸 내:가 나간다고 하나요?}

10326 # 예. {예.}

10326 @ 아 내:가 나간다고요? {아 내:가 나간다고요?}

10326 # 예. {예.}

10326 @ 그머 내:가 나가, 잘 안 나가면 지비 시켜머첸네요. {그럼 내:가 나가, 잘 안 나가면 집이 시켜머첸네요.}

10326 # 그러치, 시켜머지지요, 사람꺼징 꺼매지지요. {그렇지, 시켜메지지요, 사람까지 꺼매지지요.}

10326 @ 그러면 그거는 지베 요러케 구서키 하자나요. {그러면 그거는 집에 요렇게 구석에 하잖아요.}

10326 # 예, 요렁 구서케다가 해:써요. {예, 요런 구석에다가 했:어요.}

10326 @ 그러면 그거는 이게 발굽, 지블 따드다게 해 주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발굽, 집을 따듯하게 해 주겠네요.}

10326 # 어 따듯하지요, 그 마이 때:든 따듯허지요. {어 따듯하지요, 그 많이 때:면 따듯하지요.}

10326 @ 근데 지비 화낭가요, 그러며는, 지비? {그런데 집이 환한가요, 그러면, 집이?}

10326 # 아 암:치두 안 해져요 머, 그걸 화:나두룩 땀:라든 머 허허. {아 아무렇지도 안 했지요 뭐, 그걸 환:하도록 때:려면 뭐 허허.}

10326 @ 그머 그거 하루 때:고 나면 또 거기 지버 너:야, 너코, 재는 어떠케 글거 뉘:니까? {그럼

그거 하루 때:고 나면 또 거기 집어 넣어야, 넣고, 재는 어떻게 굵어 땀:니까?}  
 10326 # 재는 머 이. {재는 뭐, 이.}  
 10326 @ 고 구멍에서 이러케 글거 땀:니까? {그 구멍에서 이렇게 굵어 땀:니까?}  
 10326 # 그럼 그러 내:지요. {그럼 굵어 내:지요.}  
 10326 @ 아유, 그러면 방에 또 재가 또 마니 싸이고 그러젠데요? {아유, 그러면 방에 또 재가 또 많  
 이 쌓이고 그러겠네요?}  
 1032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26 @ 고쿨 인제 예저네는 인제 고쿨 이써꼬 그다메 지나머는 머가 인나요? {고쿨 이제 예전에  
 는 이제 고쿨 있었고 그담에 지나면 뭐가 있나요?}  
 10326 # 그다메는 나와서 머 저, 쪼:꾸만 호롱뿌리라구 등잔, 요 요마냥 거 이꾸. {그담에는 나와  
 서 뭐 저, 조그만 호롱불이라고 등잔, 요만한 거 있고.}  
 10326 @ 등잔 이써꾸요, 그다메 그 저루뿌리라능 게 인나요? {등잔 있었고요, 그담에 그 겨릅불이  
 라는 게 있나요?}  
 10326 # 저르뿌른. {겨릅불은.}  
 10326 @ 겨르빨, 겨릅, 저릅때. {겨릅불, 겨릅, 겨릅대.}  
 10326 # 저릅때는 저기가 삼, 빼깁 그제 저릅때데. {겨릅대는 저기가 삼, 벗긴 그제 겨릅대인데.}  
 10326 @ 예 그걸루 가지고 흑씨나 불 만들고 이게 하지 아난나요? {예 그걸로 가지고 흑씨나 불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10326 # 아 그거는 저:: 달마지허구 그랠 쪼게 화를 그걸루 마니 매:찌요. {아 그거는 저:: 달맞이  
 하고 그릴 적에 화를 그걸로 많이 땀:지요.}  
 10326 @ 보통은 인제 불, 바메 불 켜고 이럴 때는 그러케 아나구요, 그머 인제 고쿨, 고쿨 지나고  
 나서? {보통은 이제 불, 밤에 불 켜고 이럴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럼 이제 고쿨, 고쿨, 지나고  
 나서?}  
 10326 # 그다메 호로, 호롱뿌리지. {그담에 호롱, 호롱불이지.}  
 10326 @ 호롱빨, 호롱빨하고 등잔빨하고 가쓰니까? {호롱불, 호롱불하고 등잔불하고 같습니까?}  
 10326 # 등잔뿌를 호롱뿌리라 그러지요. {등잔불을 호롱불이라 그러지요.}  
 10326 @ 인제 그거 지나고 나서 그다메 머가 이쓰니까?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0326 # 그다메 머 이, 정기 드롱 거지요 머. {그다음에 뭐, 이, 전기 들어온 거지요 뭐.}  
 10326 #1 그거 나온 다메 호야뿌 리찌 머. {그거 나온 다음에 호야불 있지 뭐.}  
 10326 # 참 호야. {참 호야.}  
 1032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6 #1 예. {예.}  
 10326 @ 아 등잔빨 다:메 호야뿌리, 호야뿌른 어떻 경가요? {아 등잔불 다음에 호야불이, 호야불  
 은 어떤 건가요?}  
 10326 # 호야뿌른 부르 하나 이르케 등, 등자네다 고다 대구선 이 유리가 요만:해게 씨워져씨요.  
 {호야불은 불을 하나 이렇게 등, 등잔에다 거기다 대고선 이 유리가 요만하게 씨워졌어요.}  
 10326 @ 아 요러케 요러::게 된 유리에. {아 요렇게 요령::게 된 유리에.}  
 10326 # 그거를 호야뿌리라 그래요. {그거를 호야불이라 그래요.}  
 10326 # 그제 그제 마:니 발겨유 또. {그제 그제 많:이 밝아요, 또.}  
 10326 #1 그건 \*\*\*\* \*\*루 드리가이 돼, 지르미 드리가야 돼. {그건 \*\*\*\* \*\*로 들어가야 돼, 기름이  
 들어가야 돼.}  
 10326 #1 그이가 그거 함번 케머는 그거 \*\*\*\*\* 그거 따까이 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켜면 그거



\*\*\*\*\* 그거 닦아야 돼.}

1032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6 #1 예 그거 딱따가 마이 깨: 먹찌. {예 그거 닦다가 많이 깨: 먹지.}

10326 @ 어르신 잠깐만 또 쉬어따가 또. {어르신 잠깐만 또 쉬었다가 또.}

10326 # 예. {예.}

10324 # 겨우렌 또 허는 이:리 이썬요, 겨울게 아주 겨우레. {겨울엔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겨울  
에 아주 겨울에.}

10324 # 왜냐른 사:라미 저:: 먼: 데서 나무해 지고 오기가 힘들자나요, 그랭까 소털 이 발구라능  
게 이썬요, 이 멩엘 미:서 \*\*\* 질:질 끝:구 땡기게, 거기다 해 시꾸 끝:구 와요. {왜냐 하면, 사:람이  
저:: 먼: 데서 나무해 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이 발구라는 게 있어요, 이 멩엘  
메:서 \*\*\* 질:질 끝:고 다니게, 거기다 해 싣고 끝:고 와요.}

10324 @ 그 수레하고 쯔 다릉 경가요? {그 수레하고 쯔 다르 건가요?}

10324 # 다르지요. {다르지요.}

10324 @ 발구는 그 아페 머 저기 머야 바퀴가 이따 그래쥬, 아닝가요? {발구는 그 앞에 뭐 저기  
뭐야 바퀴가 있다 그랬쥬, 아닝가요?}

10324 # 아니에요. {아니에요.}

10324 # 우:차가 바퀴가 이꾸, 이썬요, 이거 저 발구라능 건 기낭 나무가 양짜그루 이르게 똤는데  
요그다 근:네 질르구 요기 멩에 미워서 기낭 끝:구 가요, 거 끝레 가요. {우:차가 바퀴가 있고, 있  
지요, 이거 저 발구라는 건 그냥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똤는데 요기다 건:너 지르고 요기 멩에  
메워서 그냥 끝:고 가요, 그 끝려 가요.}

10324 @ 아 바퀴만 인능 거요? {아 바퀴만 있는 거요?}

10324 # 어, 바퀴가 업썬요 그건. {어, 바퀴가 없어요 그건.}

10324 @ 바퀴가 업썬요? {바퀴가 없어요?}

10324 # 예 기낭 끝레 가요. {예 그냥 끝려 가요.}

10324 @ 어 거 힘들젠는데요 소가? {어 거 힘들겠는데요 소가?}

10324 # 소가 힘들지요. {소가 힘들지요.}

10324 @ 아 고걸 발구라고 해서 발구를 끌고 인제 가, 산, 올라가네요 그래도. {아 그걸 발구라고  
해서 발구를 끌고 이제 가, 산, 올라가네요 그래도.}

10324 # 올라가지요. {올라가지요.}

10324 # 그리구 올라 갈 쪼게 빙: 거 피안헌 데 갈 쪼머는 판차는데 언덕빠기 올라갈 쪼게 소두  
힘드러 해요. {그리고 올라갈 적에 빈: 것 편안한 데 갈 적에는 판찮은데 언덕빠기 올라갈 적에  
소도 힘들어 해요.}

10324 # 내려 올 쪼젠 또 누:니나 오구 그래른 이게 미끼러워서 너무 내려 달리구 막. {내려올 적  
엔 또 눈:이나 오고 그러면 이게 미끄러워서 너무 내려 달리고 막.}

10324 # 그룽까 소가 이르게 미:구 고겔 버쩍 들구 빠띠디며 니러 와요 그거뚜.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메:고 고개를 버쩍 들고 빠딩기며 내려와요 그것도.}

10324 @ 그르케 인제 소가 하는 나:른 그 두: 가지네요. {그렇게 이제 소가 하는 일:은 그 두: 가  
지네요.}

10324 # 네 그러치요. {네 그렇지요.}

10324 @ 겨우레 하능 거랑. {겨울에 하는 거랑.}

10324 # 예. {예.}

10318 @ 그다:메 이제 여르메, 아, 가으레 받 갈:고 이러케 해서 다 거뒀드리자나요, 그러머는 이

제 배능 게 이리젠네요, 일판 항상. {그담:에 이제 여름에, 아, 가을에 밭 갈:고 이렇게 해서 다 거 뒤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는 게 일이겠네요, 일단 항상.}

1031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8 @ 아치메 나가서 항상 배:서 가지고 오고 벤: 만큼 가지고 오고 그러케 하나요? {아침에 나가서 항상 배:서 가지고 오고 벤: 만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나요?}

10318 # 아니조, 마:니, 좌:일 비지요, 비든 인제 벼:서 저러케 아까 저 모양으로 이리::케 해능 걸 또 화진다 그래요 서르 이르게 행 거. {아니조, 땅:이 종일 베지요, 베면 이제 배:서 저렇게 아까 저 모양으로 이리::케 하는 걸 또 화진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한 거.}

# 또 콩언 요러케 행 걸 벤다 그래구 그 쪽:: 해서 노:든 어지가니 말르자나요. {또 콩은 요렇게 한 걸 벤다 그러고 그 쪽:: 해서 놓으면 어지간히 마르잖아요.}

10318 @ 그 보통 그 배 베고 나서도 요러케 요러케 다 화지자나요. {그 보통 그 벼 베고 나서도 요렇게 요렇게 다 화지잖아요.}

10318 # 예 고걸 화진다 그래 여그서는, 그건 화제 노코 콩두 요러케 쪽:: 세우녕 걸 벤다 그래구. {예 그걸 화진다 그래 여기서는, 그건 화져 놓고 콩도 요렇게 쪽:: 세우는 걸 벤다 그러고.}

10318 @ 콩두, 아 콩은 이게 이거까지? {콩다, 아 콩으 이게 이거까지?}

10318 # 예 무꺼서 이리케 서루 이리케 마따케 해:서 쪽:: 세워요. {예 묶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게 해:서 쪽:: 세워요.}

10318 @ 그거또 화진다 그래요? {그것도 화진다 그래요?}

10318 # 아이 그건 벤다 그래요, 콩언 다 그래구 {아니 그건 벤다 그래요, 콩은 다 그러고.}

10318 @ 뽕:니까 배? {배입니까 배?}

10318 # 뽕:다구, 벤다 그래구 조이는 화진다 그래구. {뽕:다고, 벤다 그리고 조는 화진다 그러고.}

10318 @ 아 콩하고 다르네, 똑까지 화지는 비스탕 건데 배는 화지능 거고 콩은? {아 콩하고 다르네, 똑같이 화지는 비슷한 건데 벼는 화지는 거고 콩은?}

10318 # 벤다 그래구. {벤다 그러고.}

10318 @ 배? {배?}

10318 # 벤다 구래요 뽕:다구. {벤다 그래요 뽕:다고.}

10318 @ 예 뽕:다구요? {예 뽕:다고요?}

10318 # 응. {응.}

10318 # 뽕:다구 허구 그래가주 어지가::니. {뽕: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어지간::히.}

10318 @ 이거 이리케 배능 건 아니조? {이거 이렇게 배는 건 아니조?}

10318 # 예. {예.}

10318 @ 이르게 배능 거. {이렇게 배는 거.}

10318 # 예. {예.}

10318 @ 아 콩은 배고. {아 콩은 배고.}

10318 @ 그다메 깨는 어뜨케 합니까 깨도 배능 겹니까, 아니면? {그담:에 깨는 어떻게 합니까 깨도 배는 겹니까, 아니면?}

10318 # 깨는 아까 쥐포리라 그래짜나요. {깨는 아까 쥐포리라 그랬잖아요.}

10318 @ 아 깨는 쥐포리한다. {아 깨는 쥐포리한다.}

10318 # 어, 쥐포리. {어, 쥐포리.}

10318 # 어 틀레요 다. {어 틀려요.}

10318 @ 아 그럼 그게 다 다르네, 그러며는 조이는 어뜨케 한다고 합니까? {아 그럼 그게 다 다르네, 그러면 조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0318 # 조이는 글썽 벤다 그래요. {조는 글썽 벤다 그래요.}

10318 # 조이는 뻔다 그래고. {조는 뻔다 그러고.}

10318 @ 조이도 배, 배:고, 콩도 배:고. {조도 배, 배:고, 콩도 배:고.}

10318 # 아, 콩은 뻔다, 아 콩은 뻔다 그래구 조이는 화진다 그래지. {아, 콩은 뻔다, 아 콩은 뻔다 그러고 조는 화진다 그러지.}

10318 @ 아, 조이는 화진다고 하네요. {아, 조는 화진다고 하네요.}

10318 # 응, 조이는 화제. {응, 조는 화져.}

10318 @ 옥썴수는 요리케 하능 걸 머라고 합니까? {옥썴수는 요리케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10318 # 어트게요? {어떻게요?}

10318 @ 옥썴수도 요리케 세우능, 안 세웁니까 옥썴수는? {옥썴수도 요리케 세우는, 안 세웁니까 옥썴수는?}

10318 # 옥썴수는 안 세우는데요. {옥썴수는 안 세우는데요.}

10318 @ 아 그래, 고령 거는. {아 그래, 그런 거는.}

10318 @ 조이, 콩, 그다:메 베, 그다:메 버리는뇨, 버리는 요리케 세우능 거는? {조, 콩, 그다음에 벼, 그다음에 보리는요, 보리는 요리케 세우는 거는?}

10318 # 버린 기낭 세운다 그래요. {보리는 그냥 세운다 그래요.}

10318 @ 아 버리는 화진단 말 안 씀니까? {아 보리는 화진단 말 안 씀니까?}

10318 # 안 써요. {안 써요.}

10318 @ 뻔: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뻔: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10318 # 예. {예.}

10318 @ 버리도 그냥? {보리도 그냥?}

10318 # 예 버린 세운다 그래요. {예 보리는 세운다 그래요.}

10318 # 그래 가준 고계 어느 정도 말르구 그래든 인제 땅 거는 무겁짜나요, 어느 정도 말르든 그다멘. {그래 가지고 그계 어느 정도 마르고 그러면 이제 댄 거는 무겁잖아요, 어느 정도 마르면 그담엔.}

10318 @ 한 어느 정도 말릅니까? {한 어느 정도 말릅니까?}

10318 # 아 그건 봐:서 인제 어느 정도 저 마르든 저 오기가 조케따 할 썬에는. {아 그건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저 마르면 저 오기가 좋겠다 할 적에는.}

10318 @ 저오기가? {저 오기가?}

10318 # 응, 이거 지능 걸 저 온다 그래지 저우. {응, 이거 지는 걸 저 온다 그러지 저 오.}

10318 @ 어트케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10318 # 지게다 지구 오녕 걸. {지게에다 지고 오는 걸.}

10318 @ 아 저 오능 게. {아 저 오는 게.}

10318 # 아. {아.}

10318 # 그계 어지가니 되든 현저 못 썬 오자나요, 그래든 울:려기라능 걸 부체요, 울:력, 울려기라능 건 풍깁뚜 안 받꾸 동네사람 일귀서 가치가요, 여라시 지구 오능 걸 울:려기라 하구, 그뎌 그때 울:력 썬서 밥뚜 해 미기는 사라 미꾸, 머 떡뚜 해다 주구, 술두 해서 막꺼리 주구 이르게 해 오지요, 그건. {그계 어지간히 되면 혼자 못 저 오잖아요, 그러면 울:력이라는 거 붙여요, 울:력, 울력이라는 건 품값도 안 받고 동네사람 일으켜서 같이 가요, 여럿이 지고 오는 걸 울:력이라 하고, 그러면 그뎌 울:력 썬서 밥도 해 먹이는 사람 있고, 뭐 떡도 해다 주고, 술도 해서 막걸리 주고 이렇게 해 오지요, 그건.}

10318 # 현자 저 울 썬가 업쓰이까, 그건 주로 달 리썬 썬겐 달 바:메 저 오구 또 아침 새벽 세:시 가서 날 썬 썬게 지구 내려 오구 그래요. {혼자 저 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주로 달 있을 적엔 달 밤:에 저 오고 또 아침 새벽 세:시 가서 날 썬 썬게 지고 내려 오고 그래요.}

10318 # 그건 바:메 일허능 거지 머, 나:제는 기양 해요, 나:제 올려건 암 부체요. {그건 밤:에 일하는 거지 뭐, 낮:에는 그냥 해요, 낮:에 올력은 안 붙여요.}

10318 @ 아 항상 바메? {아 항상 밤에?}

10318 # 예 바:메 저 오거나. {예 밤:에 저 오거나.}

10318 @ 새벽기나. {새벽이나.}

10318 # 예 초지나기나, 다 리쓸 찌게. {예 초저녁이나, 달 있을 적에.}

10318 @ 초저녁기나. {초저녁이나.}

10318 # 예, 그르케 해. {예, 그렇게 해.}

10318 @ 왜 그르케 하조? {왜 그렇게 하죠?}

10318 # 일쏘니 모자르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10318 @ 아 그거는 인제 올력 까툼 거 하며는 이게 푸마시가 안 되능 경우는? {아 그거는 이제 올력 같은 거 하면 이게 품앗이가 안 되는 경우는?}

10318 # 푸마시가 아니에요 그건. {품앗이가 아니에요 그건.}

10318 # 그냥 동:네서 올:려기라 그러지요. {그냥 동:네서 올:력이라 그러지요.}

10318 @ 그걸 다가치 해 주능 거예요? {그걸 다같이 해 주는 거예요?}

10318 # 예. {예.}

10318 # 몰 깔 싸라몬 몰 까구, 바쁜 사람, 몰 깔 싸람 몰 까구, 갈 싸라몬 지비서 인는 사라몬 다: 가지요. {못 갈 사람은 못 가고, 바쁜 사람, 못 갈 사람 못 가고, 갈 사람은 집에서 있는 사람은 다: 가지요.}

10318 @ 음 그르케 해 와서 그다메는뇨? {음 그렇게 해 와서 그담에는요?}

10318 # 그다메 글썤 멀:, 해: 다가 지비다 가리기두 허구 머 눌러 터:는 사람두 이꾸 그러치요. {그담에 글썤 뭇:, 해: 다가 집에다 가리기도 하고 뭐 바로 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10318 @ 화지거나 세웁 거는 언제쫘 지베 와서 가릅니까? {화지거나 세운 거는 언제쫘 집에 와서 가릅니까?} # 지베 와서 시간 이썤머 가리지요, 눌러 눌러 가리는 사람두 이꾸 화지기두 허구. {집에 와서 시간 있으면 가리지요, 바로 바로 가리는 사람도 있고 화지기도 하고.}

10318 @ 아 거기서 화징 거슬, 가리는, 화제가 논 사람도 이꼬 마르며는 그 자리서 가릅니까? {아 거기서 화진 것을, 가리는, 화져 가지고 놓은 사람도 있고 마르면 그 자리서 가릅니까?}

10318 # 그자리선 몰 까리지요, 화저네서는. {그 자리선 못 가리지요, 화전에서는.}

10318 # 근데 저 팔까툼 거는 거기다가 무꺼 놔:따가 그자리서 털: 쭈 이썤요, 파천, 근데 콩가툼 거는 몰 터러요. {그런데 저 팔 같은 거는 거기다가 묶어 났:다가 그 자리서 털: 수 있어요, 팔은, 그런데 콩 같은 거는 못 털어요.}

10318 @ 콩도 화집니까? {콩도 화집니까?}

10318 # 콩은 글썤 화진다 그래짜나요. {콩은 글썤 화진다 그랫잖아요.}

10318 @ 팔또 화지나요? {팔도 화지나요?}

10318 # 파천 화진다 소리 안 해요. {팔은 화진다 소리 안 해요.}

10318 @ 그러면 머라고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0318 # 파천 화진다구 양 그래 기낭 봐 노라 그러지, 뽀논느다구 파천. {팔은 화진다고 안 그래 그냥 모아 뽀라 그러지, 모아 놓는다고 팔은.}

10318 @ 그거는 화질, 세울 일:도 업꼬 그냥 가만 놔 두능 거예요, 파춘? {그거는 화질, 세울 일:도 없고 그냥 가만 놔 두는 거예요, 팔은?}

10318 # 예. {예.}

10318 @ 그르케 해서 지브로 가지고 오능 거네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네요.}

10318 @ 그래 인제 하루하루 하루 인제 베 가지고 인제 올려글 해서 지베 가따 논네요 머든지?

{네그래 이제 하루하루 하루 이제 배 가지고 이제 울력을 해서 집에 갖다 놓네요 뭐든지.}

1031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8 @ 마당이 널버야 되는데요? {마당이 넓어야 되는데요?}

10318 # 아 마당 안 널부머 이 가:레는 곡써기 읍짜나요, 바테구 막 아:무 데구 내려 놔따가 저 눌러 털:꺼른 털:구 그러자느른 가:레애지요. {아 마당 안 넓으면 이 가을에는 곡식이 없잖아요, 밭에고 막 아:무 데고 내려 났다가 저 바로 털: 거면 털:고 그렇잖으면 가려야지요.}

10318 @ 아 털:꺼면 미리 먼저 털:고? {아 털: 거면 미리 먼저 털:고?}

10318 # 예. {예.}

10318 @ 음 가릴 꺼는? {음 가릴 거는?}

10318 # 예 가릴 꺼는 전부라 가:레애조, 사네 가서 나무 찌거다 이려::게 세우구 가:레이 돼요. {예 가릴 거는 전부 다 가려야조,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 이렇::게 세우고 가려야 돼요.}

10318 # 거뚜 잘 문 까리른 마르질 아나요, 이 밋에다 구녕얼 이만::침 내 노쿠 바라미 통허게. {그것도 잘 못 가리면 마르지를 앓아요, 이 밋에다 구멍을 이만::큼 내 놓고 바람이 통하게.}

10318 @ 아 그거 가리기 저네 나무를? {아 그거 가리기 전에 나무를?}

10318 # 나무 벼:다가 이려케 세우구 요다 돌레. {나무 벼:다가 이려케 세우고 요기다 돌려.}

10318 @ 어트게 세웁니까 이게?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10318 # 이려케 이르케. {이려케 이려케.}

10318 @ 일케 세모지게 요려케 세우나요? {이려케 세모지게 요려케 세우나요?}

10318 # 아이, 똥구라케 세우지요. {아니, 동그랗게 세우지요.}

10318 @ 어트게 세우조? {어떻게 세우조?}

10318 # 요기다 세: 개를 이르케 먼저 세워 노쿠. {요기다가 세: 개를 이려케 먼저 세워 놓고.}

10318 @ 나무를 하나 둘 섰, 요려케 세워노코. {나무를 하나 둘 섰, 요려케 세워놓고.}

10318 # 예 그르케 세워 노쿠 요길 돌레, 칠그루 인제 돌려 얼거요. {예 그르케 세워 놓고 요기를 돌려, 줍으로 이제 돌려 엮어요.}

10318 @ 돌려 노코 또 멀 이르케? {돌려 놓고 또 뭘 이려케?}

10318 # 칠그루 인제 얼거 노쿠 그다메 조이 따늘 자꾸 가따 언지른 그거 얼거 놔:기 때메 저리 빠:지질 안치요, 거기 걸리케 이찌. {줍으로 이제 엮어 놓고 그담에 조 단을 자꾸 갖다 엮으면 그거 엮어 났:기 때문에 저리 빠:지지를 앓지요, 거기 걸려 있지.}

10318 @ 아 예, 그르케 해서 이제 다:늘 이르케 도라 가면서. {아 예, 그르케 해서 이제 단:을 이려케 돌아 가면서.}

10318 # 도라가미 쪽:: 싸으른 조 이사근 전부라 소게 드러가 이꾸 이 거테, 대만 나오지요. {돌아가며 쪽:: 쌓으면 조 이삭은 전부 다 속에 들어가 있고 이 곁에, 대만 나오지요.}

10318 # 그래른 새:두 몰 파 먹짜나요, 머터루 대: 소글 지가 쭈시구 드러갈 쭈가 업짜나요, 드러가 멍녕 건 쥐빠께 읍써요. {그러면 새:도 못 파 먹잖아요, 뭇하러, 대: 속을 자기가 쭈시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 먹는 건 쥐밖에 없어요.}

10318 @ 음, 고르케 인제 돌려 노코. {음, 그르케 이제 돌려 놓고.}

10318 # 예. {예.}

10318 # 그래 가주 마지막에 이 또 마지막에는 조 이삭이 빠죽하게 올라오다 보른 조이가 또 남을 꺼 아니에요, 요려케, 건 또 새:가 멍녕다구 이 주저리라고, 주저릴 맨드러서 폭 썬우지요, 그럼 새:가 몸 먹찌, 비, 비두 암 막꾸.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 또 마지막에는 조 이삭이 빠죽하게 올라오다 보면 조가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요려케, 그건 또 새:가 먹는다고, 이 주저리라고, 주저리를 만들어서 폭 썬우지요, 그럼 새:가 못 먹지, 비, 비도 안 맞고.}

10318 @ 처:메는 요기 이르케 하나만 하고 올려서? {참:에는 요기 이려케 하나만 하고 올려서?}

10318 # 응, 자꾸 올라가며 이르게 빼:죽해지자나요, 그래 빼죽한데 맨 꼬트매는 주저릴 씨워요.  
 {응, 자꾸 올라가며 이렇게 빼:죽해지잖아요.}

10318 @ 아 그게 주저링가요? {아 그게 주저리인가요?}

10318 # 네 그걸 주저리라 그래요. {네 그걸 주저리라 그래요.}

10318 @ 아 그걸 씨우며는 이제 아무것도 몸 먹꼬요. {아 그걸 씨우면 이제 아무것도 못 먹꼬요.}

10318 # 예. {예.}

10318 @ 아. {아.}

10318 # 비가 와두 또 비두 암 만꾸. {비가 와도 또 비도 안 맞고.}

10318 @ 음 그러케 되네요. {음 그렇게 되네요.}

10318 @ 그러면 인제 하루는 주저리 세우자나요, 그거또 아:리네요 하루마네 앙 끝나젠네요? {그러면 이제 하루는 주저리 씨우잖아요, 그것도 일:이네요 하룻만에 안 끝나겠네요?}

10318 # 아이 하루마네는 끝나지요. {아니 하룻만에 끝나지요.}

10318 @ 음, 세우능 거는뇨? {음, 세우는 거는요?}

10318 # 예. {예.}

10318 # 세우능 거또 혼자 꼭대기 올라 가, 혼자 안 돼요, 사다리 타구 올라가서 하나 올라가, 그걸 가린다 그러는데 한 사라미 또 조이 따를 올리뜨레 조:야 거그서 바더서 자꾸 싸치. {세우는 것도 혼자 꼭대기 올라가, 혼자 안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 올라가, 그걸 가린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또 조 단을 올려 줘:야 거기서 받아서 자꾸 쌓지.}

10318 @ 이르게 위로 던져 주나요? {이렇게 위로 던져 주나요?}

10318 # 예 던져 주지요. {예 던져 주지요}

10318 @ 음 던져 주고 그래서. {음 던져 주고 그래서.}

10318 # 바다서 자꾸 돌레 노쿠, 마지막, 노쿠선 주저리 씨우른 끝나능 거지. {받아서 자꾸 돌려 놓고, 마지막, 놓고선 주저리 씨우면 끝나는 거지.}

10318 @ 그 주저리 씨웅 거는 당장 머글 꺼는 아니조? {그 주저리 씨운 거는 당장 먹을 거는 아니쥬?}

1031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8 # 말라서 인제 터러야 먹찌. {말라서 이제 털어야 먹지.}

10318 @ 그머 인제 먼저 머글 꺼는 미리 그러며는 이제. {그럼 이제 먼저 먹을 거는 미리 그러면 이제.}

10318 # 미리 가따. {미리 갖다.}

10318 @ 가리지는 양코 그냥. {가리지는 앓고 그냥.}

10318 # 예. {예.}

10318 @ 가리지는 양코. {가리지는 앓고.}

10318 # 가리지 양쿠 미리 터러찌요, 털:지요. {가리지 앓고 미리 털었지요, 털:지요.}

10318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8 # 예. {예.}

10318 @ 아 미리 터러 놀, 이게 가릴 꺼 가리고 털: 거 털:고. {아 미리 털어 놓, 이게 가릴 거 가리고 털: 거 털:고.}

10318 # 예. {예.}

10318 @ 그다메 털:꺼만 먼저 이제 멍능 거네요. {그담에 털: 거만 먼저 이제 먹는 거네요.}

10318 # 그걸 먼저 멍녕 건 바씨미헌다 그러지요. {그걸 먼저 먹는 건 바씨미헌다 그러지요.}

10318 @ 먼저 멍능 거를료? {먼저 먹는 거를료?}

10318 # 예. {예.}

10318 @ 아 바씨미를 하고. {아 바씨미 하고.}

10318 # 예. {예.}

10318 @ 가레 놓 거는 나중에 머글라고? {가려 놓은 거는 나중에 먹으려고?}

10318 # 예. {예.}

10318 @ 그조? {그쵸?}

10318 @ 그러면 인제 가으레도, 가으레는 인제 일찍 이러나서 주로 그거 머야 타작하는데 또 바쁘겐네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도, 가을에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주로 그거 뭐야 타작하는데 또 바쁘겠네요?}

10318 # 그러치요, 갈:게 이 벼나 타적할라든 나리 새자마자 눌러 가야 돼요, 날 새자마자. {그렇지요, 가을에 이 벼나 타작하려면 날이 새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날 새자마자.}

10318 @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10318 # 예. {예.}

10318 @ 어덜? {어덜?}

10318 # 가서, 응, 타:적허는 지브루 가야지요. {가서, 응, 타:작하는 집으로 가야지요.}

10318 @ 예예 방아까니나 이런 데요? {예예 방앗간이나 이런 데요?}

10318 # 아니요, 그집 마당으루 가지, 마당아서 터르니까. {아니요, 그집 마당으로 가지, 마당에서 터니까.}

10318 @ 아 도라가면서. {아 돌아가면서.}

10318 # 예. {예.}

10318 # 그거. {그거.}

10318 @ 도라가면서 하는 니:를 머라고 합니까, 타작, 도라가면서 하능 거, 마당? {돌아가면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타작,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마당?}

10318 # 마당에서 타적허능 거요? {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요?}

10318 @ 예. {예.}

10318 # 푸마시헌다 그러지요. {품앗이한다 그러지요.}

10318 @ 그거도 푸마시, 푸마시를. {그거도 품앗이, 품앗이를.}

10318 # 예, 또 팔레 가는 사람두 이꾸, 쌀 단 뵈에, 그르케 허능 거지요. {예, 또 팔려 가는 사람도 있고, 쌀 닷 뵈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318 # 그래 엔:나렌 이게 태두 치구 그랜는데 고다:멘 발루 딛능 기계 그거 여러시 해:요, 한. {그래 옛:날엔 이게 태도 치고 그랬는데 그담:엔 발로 딛는 기계 그거 여럿이 해:요, 한.}

10318 @ 태치기 저네는 예:저네 이거 그걸로. {태치기 전에는 예:전에 이거 그걸로.}

10318 # 응, 그거뚜 해:찌만 고다:메 우리. {응, 그것도 했:지만 그담:에 우리.}

10318 @ 어르시는 봐씨요, 그거? {어르신은 봤어요, 그거?}

10318 # 아, 쯔:끄마서 보구 그건 몬 뵈:찌요. {아, 조그만해서 보고 그건 못 봤:지요.}

10318 @ 어르시는 안 해씨요 이거 확? {어르신은 안 했어요 이거 확?}

10318 # 안 해찌요 우리 그렇 거. {안 했지요 우리 그런 거.}

10318 @ 어르시는 그냥 이거. {어르신은 그냥 이거.}

10318 # 그건 그거뚜 쯔끔 해 봐:찌요. {그건 그것도 조금 해 봤:지요.}

10318 @ 멀:료 그게? {뭘:요 그게?}

10318 # 태치능 거. {태치는 거.}

10318 @ 태치능 거, 어떠케 어디에다가 어뜨케 해썬니까? {태치는 거,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0318 # 돌: 이러케, 돌: 가따 노쿠 그러자느른 절구통 노치요. {돌: 이렇게, 돌: 갖다 놓고 그러잖

으면 절구통 놓지요.}

10318 @ 아 그래요, 도:를 가따 노키도 하고, 그 도:른 무슨 도:리라고요? {아 그래요, 돌: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돌:은 무슨 돌:이라고요?}

10318 # 태또:리라 그러지요. {탯돌:이라 그러지요.}

10318 @ 예 그거를료? {예 그거를요?}

10318 # 응. {응.}

10318 # 근데 절구통얼 마:니 가따 놔요, 도:른 쿵: 걸 가져오른 히미 부치니까 절구통은 좀 곱:짜 나요. {그런데 절구통을 많:이 갖다 놔요, 돌:을 큰: 걸 가져오면 힘이 부치니까 절구통은 좀 곱:잖 아요.}

10318 # 개, 절구통언 굴러가지 양케 양짜게다 돌:루 가따 바치구선 절구통에다 마이 치지요. {그 래, 절구통은 굴러가지 양케 양쪽에다 돌:로 갖다 바치고선 절구통에다 많이 치지요.}

10318 @ 그, 그냥 무조건 치면 안 되자나요, 멀 까라 놔야 되자나요? {그 그냥 무조건 치면 안 되 잤아요, 뭘 깔아 놔야 되잖아요?}

10318 # 아이, 인:나레 깔 게 어디썬요, 기양 치지요. {아니, 옛:날에 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치 지요.}

10318 @ 마당에, 그냥 멀 돌려 치진 안나요? {마당에, 그냥 뭘 돌려 치진 않나요?}

10318 # 아, 멀:리 나갈 땐 거긴 멍서그루 돌레 치지요, 근데 머 가까운 텐 다: 글썤 이맘 때면 그 마당 매 방는다구 흐걸 등지므루 저다가 이르게 쪽:: 퍼노쿠 무털 부쿠 이르게 해쳐서 그걸 말려 서 뛰디려 가주 이래 거기다 기낭 해:요. {아, 멀:리 나갈 때 거긴 멍석으로 돌려 치지요, 근데 뭘 가까운 데는 다: 글썤 이맘 때면 그 마당 매 박는다고 흙을 등짐으로 저다가 이렇게 쪽:: 퍼 놓고, 물을 붓고 이렇게 해쳐서 그걸 말려서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그냥 해:요.}

10318 # 그잉까 엔:나레 줍싸레 돌:두 망:쿠, 입싸레 돌: 망쿠 맨, 그 마당에서 씨레 디레씨게네 돌: 망쿠 그러치요 머. {그러니까 옛:날에 줍쌀에 돌:도 많:고, 입쌀에 돌: 많고 맨, 그 마당에서 쓸 어 들였으니 돌: 많고 그렇지요 뭘.}

10318 @ 아까 이르게 치능 거는 인제? {아까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10318 # 태친다 그러구. {태친다 그러고.}

10318 @ 예 그르케 하고 난 고 후에 나옴 게? {예 그렇게 하고 난 그 후에 나온 게?}

10318 # 고 후에는 발기게, 발기게라 그래썬요. {그 후에는 발기게, 발기게라 그랬어요.}

10318 # 그 기계루 그 기계루 한참 묻 해요. {그 기계로 그 기계로 한참 못 해요.}

10318 # 쪼꿈 하다 땀 사라미 드러 씨구, 그다음 인제 하루에 베를 한 칠십 까마나 팔십 까마 터 를라른 세: 교대 네: 교대 가져이 돼요. {조금 하다가 땀 사람이 들어 쓰고, 그다음 이제 하루에 베를 한 칠십 가마나 팔십 가마 털려면 세: 교대 네: 교대 가져야 돼요.}

10318 # 교대루, 그잉깐 기계는 썰썰 읍씨, 이 사라미 따미 나구 그래른 또 땀 사라미 드러와 또 허구 기낭 또 이따, 그새 쉬:어따 또 드러가구 그르케 해요. {교대로, 그러니까 기계는 썰 적이 없 이, 이 사람이 땀이 나고 그러면 또 땀 사람이 들어와 또 하고 그냥 또 있다, 그사이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10318 # 그램 고 아페서 또 비질허는 사라미 이꾸 가따 베탄 가따 주는 사라미 이꾸 그 여라시여 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 앞에서 또 비질하는 사람이 있고 갖다 베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여럿이여야 돼요 그게.}

10318 @ 그 여자 남자 다 총동원 되젠네요? {그 여자 남자 다 총동원 되겠네요?}

10318 # 아 여자더런 묻 터지요, 여자드른 베탄 가따 주능 거나 어트케 혈런지 몰라두 여자드른 뭘: 또 하나른 치질 이 베르 까불러야이자나, 그거 허는 사람 또 이썬요. {아 여자들은 못 하지요, 여자들은 베탄 갖다 주는 거나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여자들은 뭘: 또 하나하면 키질 이 베탄 까



불어야 하잖아, 그거 하는 사람 또 있어요.}

10318 # 거꾸 댄, 여자드리 품값허구, 그건 또 품값씨 마:너요, 그거꾸 여자들 품값허군 젤: 마:능 게 치지리예요. {그것도 댄, 여자들이 품값하고, 그건 또 품값이 많:아요, 그것도 여자들 품값하고는 제일 많:은 게 키질이에요.}

10318 # 그, 쟁일 치질허구 나쁜 파리 여간 아파유 그거꾸? {그, 쟁일 키질하고 나면 팔이 여간 아파요 그것도?}

10318 @ 남자드른 여페서 그 머야 태치거나 아니면 발기계로 타저글 하고 나서 여자드른 이제 고 나옴 거를 꼬려 모으능 거조, 모아서? {남자들은 옆에서 그 뭐야 태치거나 아니면 발기계로 타작을 하고 나서 여자들은 이제 그 나온 거를 끌어 모으는 거조, 모아서?}

10318 # 그러 모:능 거 남자드리 그러 모:구, 비질하는 사라미 그러봐: 가지구 여자드른 주루 이르게, 그걸 까부린다 그러지요, 까부리지요. {끌어 모으는 거 남자들이 끌어 모으고, 비질하는 사람이 끌어모아 가지고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그걸 까분다 그러지요, 까불지요.}

10318 @ 그리고 여자들 까불고 나서는 멀: 하조? }그리고 여자들 까불고 나서는 뭘: 하조?}

10318 # 쟁일 그 까부리든 머. {쟁일 그 까불면 뭘.}

10318 @ 까부르면 남능 게 머조? {까불면 남는 게 뭘조?}

10318 # 남:능 게 읍:찌요 머. {남:는 게 읍:지요 뭘.}

10318 @ 남능 게 인제 아리 남:짜나, 나다리. {남는 게 이제 알이 남:잖아, 난알이.}

10318 # 나다리 나뭇 거 주인찌비 다: 드러가구 {난알이 남은 거 주인집에 다: 들어가고.}

10318 @ 아, 인제 주인찌비 다 가져가고 그르케 하능 거조, 그때는 인제 온: 마으리 점부 다: 동워니 돼야 되네요, 어째든? {아, 이제 주인집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조, 그때는 이제 온: 마을이 전부 다: 동원이 돼야 되네요, 어째든?}

10318 # 그러치요, 그르िका 사:라미 여라시 여라시 하니까 주인 찌비 혼자서 밥뚜 묻 허구 그래니까 이우짜라미 가 밥뚜 허구 머 서르 그르케 하능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여럿이 하니까 주인 집이 혼자서 밥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웃사람이 가 밥도 하고 뭘 서로 그렇게 하는 거지.}

10318 @ 도라 가면서 해, 오느른 이집. {돌아가면서 해, 오늘은 이집.}

10318 # 내:른 누구네, 내:른, 모렌 누구네 머 이르게 허능 거지요. {내일은 누구네, 내일은, 모레는 누구네 뭘 이렇게 하는 거지요.}

10318 @ 그머 하루마네 모 타자나요, 그거꾸? {그럼 하룻만에 못 하잖아요, 그것도?}

10318 # 그럼뇨, 하루 한 집빠께 묻 해요. {그럼요, 하루 한 집밖에 못 해요.}

10318 # 한 집씩 여라시 메칠 걸리능 거지요 머. {한 집씩 여럿이 며칠 걸리는 거지요 뭘.}

10318 @ 한 집 다: 묻 타면 그다메 어트케 해야 돼요? {한 집 다: 못 하면 그답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318 # 아. {아.}

10318 @ 우리지비 너무 마:나 가지고 다: 묻 타면? {우리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 하면?}

10318 # 아이 묻: 혈 쟁도는 아니예요, 다 하지. {아니 못: 할 정도는 아니예요, 다 하지.}

10318 # 그 대신 아주 일찍 부치구 묻 혈 찌게는 아이 그 대신 날 새기 전버텀 허구 아주 어두울 때꺼정 다: 꼬칠 내요, 그건, 사라미 마:나 가주구. {그 대신 아주 일찍 부치고 못 할 적에는 아니 그 대신 날 새기 전부터 하고 아주 어두울 때까지 다: 끝을 내요, 그건, 사람이 많:아 가지고.}

10318 # 그래요, 그때는 인자 아침 저누리 먹꾸 저녁 찌누리 먹꾸 다: 머거요, 아침 메기구 저낭 먹꾸 머 다: 허지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침 제누리 먹고 저녁 제누리 먹고 다: 먹어요, 아침 먹이고 저녁 먹고 뭘 다: 하지요.}

10318 # 여느 때 머 짐: 매구 머 저누리 이렇 게 역:꾸 또 저 지:땔 매두 쥘:찌비 거 짐:슴 항 끼

지 이, 거, 타적할 찌게는 머 아치메 가면 깡까때서 가자나요, 벌써 막걸리럴 가따 노꾸 술꾸기라 구 술꾸걸 끄레서 막걸리 한 사발씨근 먹꾸, 조:반 먹기 저네 그거 먹꾸선 시자걸 해서 털:다 조:반 먹꾸 그다메 또 저누를 먹꾸 머 이르게 해요 그제. {여느 때 뭐 김: 매고 뭐 제누리 이런 게 없:고 또 저 김:을 매도 주인집이 그거 점:심 한 끼지 이, 거, 타작할 적에는 뭐 아침에 가면 잠잠 해서 가잖아요, 벌써 막걸리를 갖다 놓고 술국이라고 술국을 끓여서 막걸리 한 사발씩을 먹고, 조:반 먹기 전에 그거 먹고선 시작을 해서 털:다 조:반 먹고 그담에 또 제누리를 먹고 뭐 이렇게 해요 그제.}

10318 @ 점심 또 먹고. {점심 또 먹고.}

10318 # 점심 먹꾸 저녁 저누리 먹꾸. {점심 먹고 저녁 제누리 먹고.}

10318 @ 땡뻘첸 아주 해가 쨍쨍 날 땡 땡 타지 안나요, 그래도 암만 가르리지마는? {땡뻘첸 아주 해가 쨍쨍 날 땡 땡 못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무리 가을이지만?}

10318 # 아이, 해이 돼:요, 그거느. {아니, 해야 돼:요 그거는.}

10318 @ 그래도 해야 되능 거예요? {그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10318 # 예. {예.}

10318 # 그랭까 글썤 교대루 세 교대루 허니까 고 두: 사람 할 때꺼정 나가 안자짜나요, 그 사람 더런, 그 더는 사라문, 그르케 해요. {그러니까 글썤 교대로 세 교대로 하니까 그 두: 사람 할 때 까지 나가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더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10318 # 비밀하는 사라문 게:속 비밀해이 되고, 그니까 인제 엘: 드러서 우리가튼 나이 마는 사라 문 쥬일 비밀하구 절문 사라문 그거 더꾸 타:능 거예요. {비밀하는 사람은 게:속 비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쥬일 비밀하고 젊은 사람은 그거 더고 타:는 거예요.}

10318 # 그래 자딸른 지비는 두 교대구 마:는 지비는 머 세 교대 네 교대 막 이르게 아주 기계가 놀 쥬 읍씨 머, 기계 스질 문 해요, 이르게 게:속 톨레애지. {그래 자딸른[조금 있음] 집은 두 교대 고 많:은 집은 뭐 세 교대 네 교대 막 이렇게 아주 기계가 놀 적 없이 뭐, 기계 서지를 못 해요, 이렇게 게:속 돌려야지.}

10318 @ 자딸른 지비라는 게 머예요? {자딸은 집이라는 게 뭐예요?}

10318 # 쫘:끄망 걸 자딸리라 그러지요. {조그만 걸 자딸이라 그러지요.}

10318 @ 아 그래요, 쫘끄만 지비요. {아 그래요, 조그만 집요.}

10318 # 예. {예.}

10318 # 엘 드러서 저 지비는 엘: 마지긴데 나는 함 마지김 거 그걸 자딸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은 엘: 마지기인데 나는 한 마지기이면 그걸 자딸르다 그래요.}

10318 @ 그르케 이제 가르레는 그르케 타작하느라고 정시넙씨 인제 바쁘고 도라가면서 타자글 하자나요, 지베 오머는 머 그냥? {그렇게 이제 가을에는 그렇게 타작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바쁘고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잖아요, 집에 오면 뭐 그냥?}

10318 # 그래두 인제 씨꾸 그제 엘:나레 지금 모양으루 머 인능가요, \*\* 세:수나 하구 먼지나 털:구 그래구선 다 허문 저나게 또 안자 또 신 삼:능 게 이리예요. {그래도 이제 씻고 그제 옛:날에 지금 모양으로 뭐 있는가요, \*\* 세:수나 하고 먼지나 털:고 그러고선 다 하면 저녁에 또 앉아 또 신 삼:는 게 일이에요.}

10318 # 가:리먼 또 새꼬리 꼬고 머, 또 우리 클 쥬 땡날 그느므 가마니, 가마니 짜야지요. {가을 이면 또 새끼 꼬고 뭐, 또 우리 클 적엔 땡날 그놈의 가마니, 가마니 짜야지요.}

10318 @ 새꼬랑이가 머예요, 새꼬랑, 아 새꿀? {새꼬랑이가 뭐예요, 새꼬랑, 아 새꿀?}

10318 # 이 새꼬래기. {이 새끼.}

10318 @ 아 새꼬래기 찐다고요? {아 새끼 찐다고요?}

10318 # 응, 가마니 칠라든 새끼르 짜:야 그 나:리 되자나요. {응, 가마니 치려면 새끼를 짜:야 그 날:이 되잖아요.}

10318 @ 네네. {네네.}

10318 @ 가을 돼:야 이제 하겠네요, 왜냐하든 그게 벼 베고 나서. {가을 돼:야 이제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벼 베고 나서.}

10318 # 예. {예.}

10318 # 아 그거 머 겨우내내 그거 해이 돼요, 신 상:꾸 그걸 또 왜 그래냐 하든 일본놈드리 한 지베 메 깨 공:추를 해이 돼요 그거. {아 그거 뭐 겨울 내내 그거 해야 돼요, 신 삼:고 그걸 또 왜 그래냐 하든 일본놈들이 한 집에 몇 개 공:출을 해야 돼요 그거.}

10318 @ 멀료? {필요?}

10318 # 가마니를. {가마니를.}

10318 @ 아. {아.}

10318 # 그게 일본놈드리 전장 할 찌거, 지그든 머 마:대니 머 이렇 게 만:치만 그걸 자주 가서 호글 너:서 싸꾸 이리느라구 집찜마두 가마니 농사진는 지븐 너는 메 짱, 그 논 부치능 거 봐:서 한 지비 머 스무 장 머 서른 장 막 이르게 겨우내내 그 쳐서 바치게 돼요. {그게 일본놈들이 전쟁 할 적에, 지금은 뭐 마:대니 뭐 이런 게 많: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흙을 넣어서 쌓고 이리느라고 집집마다 가마니 농사 짓는 집은 너는 몇 장, 그 논 부치는 거 봐:서 한 집에 뭐 스무 장 뭐 서른 장 막 이렇게 겨울 내내 그 쳐서 바치게 돼요.}

10318 # 돈:두 안 주구 거 안 트든 가 시큰 뚜들겨 마꾸 머. {돈:도 안 주고 그거 안 하면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뭐.}

10318 # 그리구 즈금 마란든는 사람 어디 뿌뜨러 가구 그러자나요, 일본놈드리.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붙들어 가고 그러잖아요, 일본놈들이.}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붙들어 가고 그러잖아요, 일본놈들이.}

10318 @ 그 말 안 드르면뇨? {그 말 안 들으면요?}

10318 # 예. {예.}

10318 @ 징용이나 머 이런 데 뿌뜨러 가요? {징용이나 뭐 이런 데 붙들어 가요?}

10318 # 예 그럼뇨, 부뜨러 가지요. {예 그럼요, 붙들어 가지요.}

10318 # 일본 탕광에 보내고 막. {일본 탄광에 보내고 막.}

10318 @ 아, 그머 말 잘 드려야 되겐네요? {아, 그럼 말 잘 들어야 되겠네요?}

10318 # 예. {예.}

10323 @ 그르케 해서 그때 이제 가마니 치고, 가마니는 치다가 나제는 가마니 치다가 이제 피고 나면 인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가마니 치고, 가마니는 치다가 낮에는 가마니 치다가 이제 피곤하면 이제.}

10323 # 나무해 오구 머 가마니 치구 이르게 나:제 날 조은 나렌 나무해 와애지, 겨울게 누:노든 가마니 쳐애지 머 신 사머애지, 맨날 허능 거. {나무해 오고 뭐 가마니 치고 이렇게 낮:에 날 좋은 날엔 나무해 와야지, 겨울에 눈: 오면 가마니 쳐야지 뭐 신 삼아야지, 매일 하는 거.}

10323 # 야튼 새끼를 마니 짜야 돼요. {야튼 새끼를 많이 짜야 돼요.}

10323 @ 그머 인제 가으레도 가을부터는 인제 봉격찌그로 새끼를 꼬:네요. {그럼 이제 가을에도 가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끼를 꼬:네요.}

10323 # 예, 새끼 꼬:구선 나무해 오구 머 가마니, 집찜 사머이 되구 아주 게:송 놀 찌리 읍찌요 머. {예, 새끼를 꼬:고선 나무해 오고 뭐 가마니, 쫓신 삼아야 되고 아주 게:속 놀 적이 없지요 뭐.}

10318 @ 그러머는 이제 가으리 이제 젤: 바뿌조, 일런 중에서 젤: 바쁜 때가? {그러면 이제 가을

이 이제 제일 바쁘죠, 일년 중에서 제일 바쁜 때가?

10318 # 젤: 바쁜 때가 타적할 때가 제일 바쁘지. {제일 바쁜 때가 타작할 때가 제일 바쁘지.}

10318 @ 가르리조? {가을이죠?}

10318 # 예. {예.}

10319 @ 젤: 바쁘고 이제 가을 지나고 이 타:작 다: 끝나자나요, 끝나고 나서 그다메 방아찼는 거는? {제일 바쁘고 이제 가을 지나고 이 타:작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다메 방아 찹는 거는?}

10319 # 방애 찼는. {방아 찹는.}

10319 @ 찼는 나레는 어떠케, 누가 하나요? {찹는 날에는 어떻게, 누가 하나요?}

10319 # 방애는 물방애 물방애: 가서 찼는데 오느른 누구네 꺼 찼쿠, 누구네 꺼 찼쿠, 찼으른 그날 지나게 잠 못 짜요, 방애 찼는 나른. {방아는 물방아 물방아 가서 찹는데 오늘은 누구네 것 찹고, 누구네 것 찹고, 찹으면 그날 저녁에 잠 못 자요, 방아 찹는 날은.}

10319 @ 아 그래 자기 집 방애 찼은 나른? {아 그래 자기 집 방아 찹은 날은?}

10319 # 예 잠 못 짜요. {예 잠 못 자요.}

10319 @ 왜요? {왜요?}

10319 # 지그른 머 이렇 게 이찌만 엔나렌 이 자루 다머서 걸 지구 와이자나요. {지금은 뭐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엔 이 자루 담아서 그걸 지고 와야 하잖아요.}

10319 # 지그른 방아까네 머 기리 이씨요, 머 요런 사람 거러 땡기능 거. {지금은 방앗간에 뭐 길 이 있어요, 뭐 요런 사람 걸어 다니는 거.}

10319 # 거그다 다머서, 인제 자루 다머서 저오구 또 베투 지구 나가이 되구, 또 저디리능 게지요 머, 저 내:구 저 디리구. {거기다 담아서, 이제 자루 담아서 저오고 또 베투 지고 나가야 되고, 또 저 들이는 거지요, 뭐, 저 내:고 저 들이고.}

10319 @ 근데 이 그거를 하는데 이제 방애 찼끼 저네 먼저 하능 게 이제 나다리 이르케 마니 모 예 이짜나요, 모여서 어디에다가 그걸 다마 둥니까? {근데 이 그거를 하는데 이제 방아 찹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이제 난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어디에다가 그걸 담아 둥니까?}

10319 # 섬, 가마니. {섬, 가마니.}

10319 @ 가마니, 예. {가마니, 예.}

10319 # 가마이다 마이 담:찌요. {가마니에다 많이 담:지요.}

10319 # 가마이다 다머서 이르케 싸: 놔:따가 항 가마씩 지게다 질머 지구 가지. {가마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쌓아 놔:다가 한 가마씩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지.}

10319 @ 물방아까네 가능 거예요? {물레방앗간에 가는 거예요?}

10319 # 예. {예.}

10319 @ 여기 그 물방아까니 하나바께 업씀니까, 동네에? {여기 그 물방앗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네에?}

10319 # 동:네 두: 개두 이꾸 머 대:개 두 개 마:너, 두 개가 되지, 여기두 요:기 하나 이꾸 조 근네 하나 이꾸 두: 개 이씨씨요. {동:네 두: 개도 있고 뭐 대:개 두 개 많:아, 두 개가 되지, 여기도 요:기 하나 있고 저 건너 하나 있고 두: 개 있었어요.}

10319 @ 그러면 인제 하루에 인제 한 섬씩 가주 가나요, 보통 몇 섬?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제 한 섬씩 가지고 가나요, 보통 몇 섬?}

10319 # 한 대: 까마 켜:요. {한 땡: 가마 찹어요.}

10319 @ 하루예요? {하루예요?}

10319 # 예. {예.}

10319 @ 그러면 인제 지배서 인제 가주 가자나요, 아침 일찍 이러나서 가져 가젠네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져 가겠네요?}

10319 # 예. {예.}

10319 @ 일찍 이러나서. {일찍 일어나서.}

10319 # 여, 그 고 인제 방애 또 거 해: 논 사라미썬, 오느른 누: 꺼 오느른 누: 꺼 이래튼 그 한 집 꺼 하루에 못 쥘: 꺼 아니야, 그래 인제 저 지븐 머글 께 이썬니까 저 지븐 누구 운:제 썬:라 그래튼, 운:제 썬:라튼 그날 또 저 내애지, 저다가 노:튼 그 지비가 썬어 노:튼 또 저 디레애지. {여기, 그 이제 방아 또 그거 해: 놓은 사람 있어요, 오늘은 누구 것 오늘은 누구 것 이러면 그 한 집 것 하루에 못 쥘: 것 아니야, 그래 이제 저 집은 먹을 게 있으니까 저 집은 누구 언:제 쥘:라 그러면, 언:제 쥘:라하면 그날 또 저내야지, 저다가 놓으면 그 집이 쥘: 놓으면 또 저들여야지.}

10319 @ 네 그러케 해서 인제 그러케 하려는 물방아를 하고 발방아는 안 해썬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물레방아를 하고 발방아는 안 했어요?}

10319 # 발방아는 마이 못 썬치요, 썬곰 임시 머글 께 업썬, 발방아다 아썬머이드리 나가 썬치요. {발방아는 많이 못 쥘:치요, 조금 임시 먹을 게 없으면, 발방아에다 아썬마들이 나가 쥘:치요.}

10319 @ 지베서 지베도 이썬나요 그며는? {집에서 집에도 있었나요 그럼?}

10319 # 아이 그건 동네에 하낙썬. {아니 그건 동네에 하나썬.}

10319 @ 하낙썬 이썬서. {하나썬 있어서.}

10319 # 예 요기 요기 뒤:꼬리튼 뒤꼐 하나 뒤꼬레두 하나가 아니예요, 메 깨썬 돼:썬. {예 요기 요기 뒤:꼐이면 뒤꼐 하나 뒤꼐에도 하나가 아니예요, 몇 개썬 됐지.}

10319 # 대:썬망썬 하낙썬 이썬요. {대:집만썬 하나썬 있어요.}

10319 # 인제 여기두 발방아까니 요 뒤:꼬레두 세: 갱가 이썬썬, 지금 하나만 나마 이썬만. {이제 여기두 발방앗간이 요 뒤:꼐에도 세: 개인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만 남아 있지만.}

10319 @ 이썬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10319 # 하나 이썬요, 안주 나마썬, 근데 썬질 아느이까느 벼: 이썬. {하나 있어요, 아직 남았어, 근데 썬질 앓으니까 비어 있지.}

10319 @ 아 그러며는 인제 그 아주 그팔 때만 그걸 썬네요? {아 그럼 이제 그 아주 급할 때만 그걸 썬네요?}

1031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9 @ 발방아를. {발방아를.}

10319 # 아이 그저넌 그팔 때마이 아니구 가으레 메주 썬자나요, 메주, 메주를 다: 그걸루 해:썬요, 그랜데 지그튼 메주 거기 우리거태두 메주 썬능 거 거기 함번두 앙 가요, 벌썬 메 태썬. {아니 그전엔 급할 때만 아니고 가을에 메주 썬잖아요, 메주, 메주를 다: 그걸로 했:지요, 그랬는데 지금은 메주 거기 우리 같아도 메주 썬는 거 거기 한번도 안 가요, 벌썬 몇 해썬.}

10319 @ 아 곡썬근 발방아도 그팔 때만 썬나요? {아 곡식은 발방아도 급할 때만 쥘:나요?}

10319 # 예. {예.}

10319 # 엔:나렌 또 떡 해먹꾸 그랴라튼 가루 빨:라튼 발방애다 썬:썬 전부라. {옛:날엔 또 떡 해먹고 그랴려면 가루 빵으려면 발방아에다 쥘:었지 전부 다.}

10319 # 그랴 게 지그튼 머 발방애 가능 거 이썬요, 전부라 떡썬비 가머 다 빠: 주구 다 해니까, 또 지비서 떡두 엔:나렌 떠걸 해서 이르게 치는데 그랴 거 다: 읍:썬요, 허허. {그런 게 지금은 뭐 발방아 가는 거 있어요, 전부 다 떡집에 가면 다 빵아 주고 다 하니까, 또 집에서 떡도 옛:날엔 떡을 해서 이렇게 치는데 그런 거 다: 앓:어요, 허허.}

10319 # 인자 떡빵애 가 허니까. {이제 떡방아집에 가서 하니까.}

10319 @ 물방애는 사라미 잘, 물방애는 사라미 잘 이게 사라미 히미, 그냥 물마느로 하니까. {물

레방아는 사람이 잘, 물레방아는 사람이 잘 이게 사람이 힘, 그냥 물만으로 하나까.}

10319 # 기낭 지:가 올라가따 내려가따 찌:니까. {그냥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찹으니까.}

10319 @ 그 잘못타면 손 찌:겐는데, 조심해야 되게쎄요. {그 잘못하면 손 찹겠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10319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319 @ 보니니 보니니 인제 가서 자기 꺼는 자기가 가지러? {본인이 본인이 이제 가서 자기 꺼는 자기가 가지러?}

10319 # 아니예요, 거 쥐:니 인제 해: 주조. {아니예요, 그거 주인이 이제 해: 주조.}

10319 # 쥐:니 못 헐 찌게는 가치 해 주조, 그렇까. {주인이 못 할 적에는 같이 해 주조, 그러니까.}

10319 @ 아 물방아도 주이니 이쎄요? {아 물레방아도 주인이 있어요?}

10319 # 그럼 쥐:니쎄요. {그럼 주인 있지요.}

10319 @ 그며는 찌어 주는 대시네 딸: 주고 그래야 되자나요? {그럼 찹어 주는 대신에 딸: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10319 # 그럼, 사걸 주지요. {그럼, 샅을 주지요.}

10319 @ 얼마나 줘니까? {얼마나 줘니까?}

10319 # 건 잘 모르겐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10319 # 뎌 마레 뎌 띄 이르케 조:요 기낭. [몇 말에 몇 되 이렇게 쥐:요 그냥.}

10319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9 @ 아 그렇 게, 주이니 그걸 만드능 거예요? {아 그런 게, 주인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10319 # 예? {예?}

10319 @ 주이니 그 물방아를 만드능 거예요, 만드려 놓: 거조? {주인이 그 물레방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조?}

10319 # 그러치, 그거 주이니 맨드려 놓: 거지, 하는 사라미 맨드롱 게 아니구. {그렇지, 그거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10319 # 그 동:네서 맨드롱 게 아니구 인제 그 방애 주이니 맨드려 놓 거구, 망거저두 그 사라미 곤치구 집뚜 방애 지비 엔:나레 이영으루 해:짜나요, 이영두 쥐:니 해 이꾸. {그 동:네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 방아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고, 망가져도 그 사람이 고치고 집도 방아 집이 옛:날에 이영으로 했:잖아요, 이영도 주인이 해 이고.}

10319 @ 인제 방애를 인제, 방애까네 가서 인제 제:서 우린 싸를 가지고 오네요? {이제 방아를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제 찹어서 우린 쌀을 가지고 오네요?}

10319 # 예. {예.}

10319 @ 근데 인제 함 번 찹짜나요, 거기다 함범만 찼나요 두: 번 찼나요? {근데 이제 한번 찹잖아요, 거기다 한번만 찹나요 두: 번 찹나요?}

10319# 아이 메 번 찹치요. {아니 몇 번 찹지요.}

10319 # 인제 처:메 찹:은 왕:게가 만차나요, 거, 풍채라구 이쎄요, 거기다 너:서 이르케 전부라 까불러 내구 싸리 어느 정도 되든 그걸루 가 또 찹코, 한 서너 번 그르케 해이 돼요. {이제 찹:으면 왕:겨가 많잖아요, 거, 풍채라고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전부 다 까불러 내고 쌀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로 가지고 또 찹고, 한 서너 번 그렇게 해야 돼요.}

10319 # 그 쥐:는 그건 쥐:니 허능 거예요. {그 주인은 그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10319 @ 음 대신 가주고 가면 주이니 해 주고 그다메 다 되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네요? {음 대신 가지고 가면 주인이 해 주고 그답에 다 되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네요?}

10319 # 예. {예.}

10319 @ 하루에 한 다설, 다설 까마? {하루에 한 다섯, 다섯 가마?}

10319 # 다설 까마 더 켜:요, 더 찌키는, 하루에. {다섯 가마 더 켜:요, 더 켜:키는, 하루에.}

10319 # 그건 켜:만 그르치 방애는 무리 흘러 내려 가니까 상시 도려 가니까 그를 때 인제 주이니 바뿌면 이 방애 가주간 사라미 혼저 허구 그를 켜 이꾸, 사라미 어떠케 자 만 자고 혈 쏜 읍 짜나요, 켜:니 혼잘 켜 그르케 허지요. {그건 주인만 그렇지 방아는 물이 흘러 내려 가니까 상시 돌아 가니까 그럴 때 이제 주인이 바뿌면 이 방아를 가지고 간 사람이 혼자 하고 그럴 때 있고, 사람이 어떻게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혼자일 땐 그렇게 하지요.}

10319 # 켜:는 자, 방애 켜:는 자구, 우리 곡썩 까주간 사라미 찌꾸 그러치요. {주인은 자, 방애 주인은 자고, 우리 곡식 가지고 간 사람이 켜고 그렇지요.}

10319 @ 음 그다:메 그르케 인제 그러면 이제 짜리 돼:서 우리 인제 먹짜나요, 근데 인제 가으리 지나고 나며는 이제 어느 정도 짜리 켜:꿈, 짜리 그래도 마:니, 만차나요 그조. {음 그다: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쌀이 돼:서 우리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쌀이 켜:금, 쌀이 그래도 많:이, 많:잖아요 그조.}

10324 @ 그다:메 짜리 망코 그다:메 인제 지나고 나며는 겨울 되며는 이제 무슨 날: 합니까, 겨우렌 아침 한 메 켜에 이러나요? {그다:메 쌀이 많고 그다:메 이제 지나고 나면 겨울 되면 이제 무슨 일: 합니까, 겨울엔 아침 한 몇 시에 일어나요?}

10324 # 아 겨우레두 그 사람 나르미에요, 아주 겨우레두 일찌 기러나요, 겨우레 증:작 농사꾸는 더 일찌 기러나이 돼요. {아 겨울에도 그 사람 나름이에요, 아주 겨울에도 일직 일어나요, 겨울에 정:작 농사꾸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10324 # 왜 그러냐면 방이 추우니까 일찌 기러나서 여물, 소 여물 해 끄린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방이 추우니까 일찍 일어나서 여물, 소 여물 해 끓인다고요.}

10324 # 끄리구 나서 퍼 주른 어떤 땐 감감헌데 퍼 조요. {끓이고 나서 퍼 주면 어떤 땐 감감헌데 퍼 줘요.}

10324 # 퍼 주구 나른 방이 따뜻하든 또 거그서 한잠 자구 그르치요. {퍼 주고 나면 방이 따듯하면 또 거기서 한잠 자고 그렇지요.}

10324 @ 아 부를 때:야 되젠네요. {아, 불을 때:야 되겠네요.}

10324 # 예 부를 때:니가 방이 \*때까지 따듯허구 참 조:치요. {예 불을 때:니가 방이 \*때까지 따듯하고 참 좋:지요.}

10324 # 지그든 머 보이랄 봐:서 향:시 따듯허지만 옛:나렌 불 저녁에 때:구 나른 새벽역썩 추워요. {지금은 뭐 보일러를 봐:서 향:시 따듯하지만 옛:날엔 불 저녁에 때:고 나면 새벽녁썩 추워요.}

10324 # 그머 또 불 때구 나른 따듯헿 게 조:치, 한잠씩 자지요. {그럼 또 불 때고 나면 따듯한 게 좋:지, 한잠씩 자지요.}

10324 @ 먼저 소 여물 끄려 줄려고 부를 때:능 거네요. {먼저 소 여물 끓여 주려고 불을 때:는 거네요.}

10324 # 예. {예.}

10324 @ 그래 이 소 여물 끄려 주면 따듯태지며는. {그래 이 소 여물 끓여 주면 따듯해지면.}

10324 # 예, 그래서 또 한잠씩 자구 머. {예, 그래서 또 한잠씩 자고 뭐.}

10324 # 또 안 자는 사라든 또 새꼬리 꼬:는 사람두 이꾸 머, 신 삼:는, 삼:는 사람두 이꾸 머. {또 안 자는 사람은 또 새끼 꼬:는 사람도 있고 뭐, 신 삼:는, 사람도 있고 뭐.}

10324 @ 새꼬래이 삼:꺼나 신 삼:꼬 그다:메 아치메는 무슨 날 해요, 겨울 겨울 아치메? {새끼 삼:거나 신 삼:고 그다:메 아침에는 무슨 일 해요, 겨울 겨울 아침에?}

10324 # 아치메 머 혈 리리썩요 허허? {아침에 뭐 할 일 있어요 허허?}

10324 @ 업쫂? {업쫂?}

10324 # 예. {예.}

10324 @ 금, 노랏요 그냥? {그럼, 놀아요 그냥?}

10324 # 아 저 새끼 꼬:고 머 이렇 거 만날 그거라고요, 밤:복해서 새끼 꼬:고 신 삼:꾸. {아 저 새끼 꼬:고 뭐 이런 거 매일 그거라고요, 반:복해서 새끼 꼬:고 신 삼:고.}

10324 @ 가마니 해야 되젠데요. [가마니 해야 되겠네요.]

10324 # 가마니 짜구 머. {가마니 짜고 뭐.}

10324 @ 공출 할라머는. {공출 하려면.}

10324 # 예. {예.}

10324 # 밤, 밤날 밤:복해 그거예요. {밤, 밤낮 반:복해 그거예요.}

10324 @ 겨우레는 항상 그거만 하능 거예요, 가마니 짜고요? {겨울에는 항상 그거만 하는 거예요, 가마니 짜고요?}

10324 # 예, 땀:라무 해 오구. {예 땀:나무 해 오고.}

10324 @ 아. {아.}

10324 # 그 땀:라무가 우리 지 비러케 뜨시게 할라른 하루 한 짐 가지군 묻: 뜨시게 해요. {그 땀:나무가 우리 집 이렇게 뜨시게 하려면 하루 한 짐 가지고는 못: 뜨시게 해요.}

10324 # 나무 한 짐 가지구, 하나 이빠이 지구 와두 하루 때:능 게 안 돼요. {나무 한 짐 가지고, 하나 가득 지고 와두 하루 때:는 게 안 돼요.}

10324 @ 아 지게다가요? {아 지게에다가요?}

10324 # 예. {예.}

10324 # 그래잉까 만날 밤복해서 나무허구 허허. {그러니가 매일 반복해서 나무하고 허허.}

10324 # \*\*\* 가마니 짜구 새끼 꼬:구 그거지요 머. {\*\*\* 가마니 짜고 새끼 꼬:고 그거지요 뭐.}

10324 @ 바메는뇨? {밤에는요?}

10324 # 글썸 바:멘 자애지요, 저녁꺼정언 해. {글썸 밤:엔 자야지요, 저녁까지는 해.}

10324 @ 계속 이제 땀라무 해 오고, 아, 그러케 하고, 그르케 해:서 이제 저녁케 자고. {계속 이제 땀나무 해 오고, 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자고.}

10324 # 지나게 글썸 어느 정도 신 삼:꾸 새끼 꼬구 머 가마니 치구 이래구 자능 거예요. {저녁에 글썸 어느 정도 신 삼:고 새끼 꼬고 뭐 가마니 치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10324 @ 아. {아.}

10324 # 만날 그제 밤:보기예요. {매일 그제 반:복이예요.}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67 @ 그 이제는 여기 소를 먼 마리 정도, 며 빠리 키웁니까, 소? {그 이제는 여기 소를 몇 마리 정도, 몇 마리 키웁니까, 소?}

10327 # 생전 양이 마나서 마이 키올라 그러다가 함 마리빠게 앙, 앙 키워요. {생전 양이 많아서 많이 키우려다가 한 마리밖에 안, 안 키워요.}

10327 @ 암노뎁니까, 수? {암놈입니까, 수?}

10327 # 암누미여. {암놈이요.}

10327 @ 머 지금도 소를 잘 기르고 계시지만 예저네도 소를 길러쉴텐데 지금 소 기르능 거랑 옛날 소 기를 때랑 어뜨케 다릅가요? {뭐 지금도 소를 잘 기르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소를 길렀을텐데 지금 소 기르는 거랑 옛날 소 기를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10327 # 머 마이 편허지요 머. {뭐 많이 편하지요 뭐.}

10327 # 왜 편하냐른 엔:나레는 소루 키올라른 혼자 묻 키워요, 누가 푸마실 해 대든지 여자가,



가치 소메기 쏘를라든, 근데 지그른 기계루 다 쏘자나요. {왜 편하나 하면 옛:날에는 소를 키우려면 혼자 못 키워요, 누가 품앗이를 해 대든지 여자가, 같이 소먹이 썰려면, 근데 지금은 기계로 다 썰잖아요.}

10327 # 가 스위치만 눌른 가따 메기 드리대든 질러빠리는데 엔:나렌 소를 마이 키올래두 그 쏘:능 게 힘드러서, 키우기가 힘드러쥬요, 지그른 편허지.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갖다 먹이 들이 대면 잘라 버리는데 옛:날엔 소를 많이 키우려 해도 그 썬는 게 힘들어서, 키우기가 힘들었지요, 지금은 편하지.}

10327 #1 작뚜루 쓰러이 돼. {작두로 썰어야 돼.}

10327 @ 마니 할 때는 먼 마리 정도? {많이 할 때는 몇 마리 정도?}

10327 # 머이 나는 마이 앙 키워쥬요, 한 너더 마리빠끼. {뒤 나는 많이 안 키워어요, 한 너댓 마리밖에.}

10327 @ 예저네는 그거 키워서 소 파라서 다 머, 시집짱:가 보내고 그다:메 교육씨키고 그러케 해쥬니까, 여기선 좀 더 힘드쥬게쥬요, 여러 인제 형제, 그 자제분들 키우실려머는, 그조? {예전에는 그거 키워서 소 팔아서 다 뒤, 시집장:가 보내고 그담:에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쥬니까, 여기선 좀더 힘드쥬겠어요, 여러 이제 형제, 그 자제분들 키우시려면, 그조?}

10328 @ 여기 인제 소를, 짐:도 저기 이찌만 예저네는 이제 소를 기를려머는 어떤 시서리 이쥬야 되나요, 소를 키올려머는? {여기 이제 소를, 지금도 저기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소를 기르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나요, 소를 키우려면?}

10328 # 엔:나렌은 여르미든 머 저러케 지금 모냐~으~루 풀 배:다 막 쥬지만 엔나렌 이 가매소테다 여메길 가따노쿠 부를 때:서 끄레서 조:쥬요. {옛:날에는 여름이면 뒤 저렇게 지금 모양으로 풀 배:다 막 쥬지만 옛날엔 이 가마솔에다 여물을 갖다 놓고 불을 때:서 끓여서 쥬:지요.}

10328 # 지그른 그렇 과정이 읍:짜나요, 기냥 머 막, 기냥 마른 메기나 가따주구 물 쥬쥬 주든 기양 먹꾸 사르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읍:잖아요, 그냥 뒤 막, 그냥 마른 먹이나 갖다 주고 물 조금 주면 그냥 먹고 사니까.}

10328 @ 소를 어따가 길러쥬니까, 어디다 너:서? {소를 어디다가 길렀쥬니까, 어디다 넣어서?}

10328 # 소요? {소요?}

10328 @ 네네. {네네.}

10328 # 으, 저그서 나서 저 저그에 저그서 나서 저그서 쿵 거예요. {응, 거기서 나서 저 저기에 저기서 나서 지기서 큰 거예요.}

10328 @ 아이 조기를 머라고 합니까? {아니 저기를 뒤라고 합니까?}

10328 # 마:구라 그러지요. {마:구라 그러지요.}

10328 @ 거기 인제 마:구, 마:구에 보머는 그 소를 머기는 그 이게, 이게 소가 이르케 머글 쥬 이 또록? {거기 이제 마:구, 마:구에 보면 그 소를 먹이는 그 이게, 이게 소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10328 # 꿩:, 꿩:이, 소 꿩:이라 그래요. {구웁, 구웁, 소 구웁이라 그래요.}

10328 # 꿩: {구웁.}

10328 @ 꿩: {구웁.}

10328 # 예. {예.}

10328 @ 아 꿩:이라고 한다고요? {아 구웁이라고 한다고요?}

10328 # 예예. {예예.}

10328 @ 그머 거기다가 뒤 너어 주나요? {그럼 거기다가 뒤 너어 주나요?}

10328 # 머 지금 풀하과 물 주능 거지요 머. {뒤 지금 풀하고 물 주는 거지요 뒤.}

10328 @ 아까 그 소 여메기라고. {아까 그 소 여물이라고.}

10328 # 예예 소 여메기 그 풀 쏘라서. {예예 소 여물 그 풀 썰어서.}

10328 @ 그거는 사라이, 그거는 이제 말링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살아서, 그거는 이제 말린 겁니까, 아니면?}

10328 # 아 요즈른 기낭 생 걸 비여다가 그걸 주지요. {아 요즘 그냥 생 거를 베다가 그걸 주지요.}

10328 # 겨우렌 글썸 그걸 말룻 걸, 옥썴시 껍떠기 이렇 걸 벼:다 쏘라서 가매다 엔:나렌 끄레 존는데 지그른 앙 끄레 조요. {겨울엔 글썸 그걸 마른 걸, 옥수수 껍데기 이런 걸 벼:다 썰어서 가매다 옛:날엔 끓여 줬는데 지금은 안 끓여 줘요.}

10328 @ 그러면 끄링 거는 머라고 합니까, 끄링 거를? {그러면 끓인 거는 뭐라고 합니까, 끓인 거를?}

10328 # 끄링 거 소 여무리라 그러지요. {끓인 거 소 여물이라 그러지요.}

10328 @ 그머 소 여메기는 끄링 건 아니네요? {그럼 소 여물은 끓인 건 아니네요?}

10328 # 예. {예.}

10328 @ 여메기능 끄링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말린 거. {여물은 끓인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말린 거.}

10328 # 예예, 지그른 말링 거 기낭 줄 꺼예요. {예예, 지금은 말린 거 그냥 줄 꺼예요.}

10328 @ 그다메 여무른? {그답에 여물은?}

10328 # 여무른 글썸 끄링 걸 여물 준다 그러지요. {여물은 글썸 끓인 걸 여물 준다 그러지요.}

10328 @ 아 끄링 거를 아, 그머 겨울게 겨울 되며는 끄린 거를 꺽:에다 가따 해 주네요. {아 끓인 거를 아, 그럼 겨울에 겨울 되면 끓인 거를 구웁:에다 갖다 해 주네요.}

10328 # 예. {예.}

10328 # 지그른 여느 사람드른 다 찬물 주는데 난 물만 뜨뜻하게 기낭 부: 조요. {지금은 여느 사람들은 다 찬물 주는데 난 물만 뜻뜻하게 그냥 뷔 줘요.}

10329 @ 예저네는 자기 소도 길런는데 나메 소도 길러쥬? {예전에는 자기 소도 길렀는데 남의 소도 길렀쥬?}

10329 # 그럼뇨, 나메 소 마:니 길러쥬요, 엔나레. {그럼요, 남의 소 많이 길렀지요, 옛날에.}

10329 @ 그머 나메 소를 머기는 방식기 머 방식기 이썸니까, 나메 소를 머길 때? {그럼 남의 소를 먹이는 방식기 뭐 방식기 있습니까, 남의 소를 먹일 때?}

10329 # 나메 소를 메길 때는 이르케 저 바까는 소는 내가 가따 메기자나요, 메게서 일련내내 농살 지:꾸나서 갈:게 싸를 멘 말 또 가따 줘이 돼요, 내가 메기 주구두. {남의 소를 먹일 때는 이렇게 저 밭가는 소는 내가 갖다 먹이잖아요, 먹여서 일련 내내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싸를 몇 말 또 갖다 줘야 돼요, 내가 먹여 주고도.}

10329 #1 삭쏘라 그러지. {샷소라 그러지.}

10329 # 응, 삭쏘라구 그걸. {응, 샷소라고 그걸.}

10329 @ 삭쏘? {샷소?}

10329 # 예. {예.}

10329 # 삭쏘라능 걸 그이까. {샷소라는 걸 그러니까.}

10329 @ 내가 메긴다능 거조, 한 마리를 나메 지베서? {내가 먹인다는 거조, 한 마리를 남의 집에서?}

10329 # 그 집 부자쥬 소를 가따가 메기굽서 부레 먹꾸 싸를 도루 가따 조이 돼요, 그 지비. {그 집 부자쥬 소를 갖다가 먹이면서 부려 먹고 쌀을 도로 갖다 줘야 돼요, 그 집에.}

10329 # 그래 그 송아지 또 맘매끼래능 건 또 이썸요, 그거느 부자쥬 소, 그 소가 마이 나니까, 키울 쭈가 업짜나요, 그래른 송아지를 일러니구 이:녀니구 인제 키워요, 키우른 걸 키워주른 송아

질 또 함 마리 줘:요, 키워 준 대:시느로. {그래 그 송아지 또 맘매끼라는 건 또 있어요, 그거는 부  
짓집 소, 그 소가 많이 나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를 일 년이고 이: 년이고 이제  
키워요, 키우면 그걸 키워주면 송아지를 또 한 마리 줘:요, 키워 준 대:신으로.}

10329 @ 아 일러나 이:년 키우고 나면는 이제, 그 송아지는 다 크잖습니까? {아 일 년이나 이:  
년 키우고 나면 이제, 그 송아지는 다 크잖습니까?}

10329 # 그 송아지 이제 줘:니 가주가고 그 대:신 송아지 쪼::꼬망 걸 하나 금방 낭 걸 가따 주지  
요. {그 송아지 이제 주인이 가지고 가고 그 대:신 송아지 조그만 걸 하나 금방 낭은 걸 갖다 주  
지요.}

10329 @ 아 보닌 한테요? {아 본인한테요?}

1032 # 예예 그거 메깅 갑쓰루. {예예 그거 먹인 값으로.}

10329 @ 아 그건 무슨, 아까는 삭쏘라고 하고 이거는 무슨? {아 그건 무슨, 아까는 샷소라고 하고  
이거는 무슨?}

10329 #1 그 삭쏘는 왜냐하믄뇨, 그 큰 소를 이제 우리내가 데려 와가주구 이를 시큰 시게 머거  
짜나요. {그 샷소는 왜냐하면요, 그 큰 소를 이제 우리내가 데려 와 가지고 일을 실컷 시켜 먹었  
잖아요.}

10329 @ 그래서 고걸 이제 삭쏘라고 하는데, 어링 거 데려 와서 키워서 하능 거 건 머라고 합니  
까? {그래서 그걸 이제샷소라고 하는데, 어링 거 데려 와서 키워서 하는 거 그건 뭐라고 합니까?}

10329 # 고거또 이름 이러머건네 금방, 이르미 머라 그러더라? {그것도 이름 잊어먹었네 금방, 이  
름이 뭘 그러더라?}

10329 #1 머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10329 # 맘매끼라 그랜나 머. {맘매끼라 그랬나 뭘.}

10329 @ 아 맘매끼 아까 맘매끼라고. {아 맘매끼 아까 맘매끼라고.}

10329 # 아 맘매끼. {아 맘매끼.}

10329 @ 맘매끼요? {맘매끼요?}

10329 # 예. {예.}

10329 @ 맘매끼 아, 마자 아까 맘매끼라고 얼핀 하시는 거 가따 시퍼씀니다. {맘매끼 아, 맞아 아  
가 맘매끼라고 얼핏 하시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10329 @ 아 고걸 이제 맘매끼데, 두 가지 종류가 인네요. {아 그걸 이제 맘매끼인데, 두 가지 종  
류가 있네요.}

10329 # 예. {예.}

10330 @ 그이까 큰 소를 키워다가 하는 이제, 삭쏘를 부려 머거서 이제 싸를 보통 먼 마를 줘니  
까, 싸를 줄 때? {그러니까 큰 소를 키워다가 하는 이제, 샷소를 부려 먹어서 이제 쌀을 보통 몇  
말을 줘니까, 쌀을 줄 때?}

10330 # 고거 이제 소에 달레써요. {그거 이제 소에 달렸어요.}

10330 # 소이 일 잘: 하구 그랜 소는 싸리 좀 쪼끔 비싸고 또 잘 못 하는 소는 싸구 좀 그래, 소  
에 달레써요. {소가 일 잘: 하고 그랬던 소는 쌀이 좀 조금 비싸고 또 잘 못 하는 소는 싸고 좀  
그래, 소에 달렸어요.}

10330 @ 어르시는 어떤 방시그루 마니 해씀니까, 삭쏘를 해씀니까, 맘매끼를? {어르신은 어떤 방  
식으로 많이 했습니까, 샷소를 했습니까, 맘매끼를?}

10330 # 아유, 우린 그릉 건 안 해써요, 내 소만 길러 보구 그 남, 쇠 함번 삭쏘 함번 맨 저근 이  
써져요. {아이, 우린 그런 건 안 했어요, 내 소만 길러 보고 그 남, 소 한번 샷소 한번 먹인 적은  
있었지요.}

10330 # 그애, 유기오때 날:리에 소를 다: 이명 걸 다 빼끼고 나서 그때 소가 읍써가주고. {그래,

육이오 때 난:리에 소를 다: 있던 걸 다 뺏기고 나서 그때 소가 없어 가지고.}

10330 @ 누구한테 다 빼끼서썩요? {누구한테 다 뺏기셨어요?}

10330 # 아 임민군한테 빼끼지요 머 누구한테 빼끼요. {아 인민군한테 뺏겼지요, 뭐 누구한테 뺏겨요.}

10331 @ 그 소를 이 길드리는 방버뜨리 이짜나요, 소가 처:메는 말 잘 안 듣쑤? {그 소를 이 길길 들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소가 침:에는 말 잘 안 듣쑤?}

10331 # 안 듣썩요. {안 듣지요.}

10331 # 고령 거는 가따 질드렌 소는 나메 소를 가따 \*:문 건 소 임자가 받썩 묻 해요, 갈케 조썩 니까. {그런 거는 갖다 길들인 소는 남의 소를 갖다 \*하면 그건 소 임자가 받지를 못 해요, 가르쳐 썩으니까.}

10331 @ 그러면 소를 질디릴라몬 어뜨게 보통 질드림니까? {그러면 소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보통 길들입니까?}

10331 # 질드릴라몬 소가 여페 소가 하나 바까리 잘 하는 소가 이썩이 돼요, 그래가주 사라미 매치리구 또 썩:러이 돼요, 걸. {길들이려면 소가 옆에 소가 하나 발같이 잘 하는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며칠이고 또 끌:어야 돼요, 그걸.}

10331 @ 아 어떻 걸 끔:니까? {아 어떤 걸 끔:니까?}

10331 # 거기 저 새루 배우는 소를. {거기 저 새로 배우는 소를.}

10331 @ 아 새로 배우는 소를. {아 새로 배우는 소를.}

10331 # 예 소를 끌:구 땡기민. {예 소를 끌:고 당기면서.}

10331 @ 아 그 잘 하는 소 여페 놔 두면서. {아 그 잘 하는 소 옆에 놔 두면서.}

10331 # 예 가치 이르게 멩엘 매자나요, 가치 나가는데 여페서 이게 말:꾸를 모 다라 듣꾸 자꾸 맘:대루 지랄하니까 썩:러요. {예 같이 이렇게 멩엘 매잖아요, 같이 나가는데 옆에서 이게 말:꾸를 못 알아 듣고 자꾸 맘:대로 지랄하니까 끌:어요.}

10331 # 근데 머 소 어떻 건 아주, 한 일주일 썩:러서 듣는 소가 이꾸, 아이 거 어떤 소는 아주 여름 내내 썩:는 소가 이꾸 그래요. {그러면 뭐 소 어떤 건 아주, 한 일주일 끌:어서 듣는 소가 있고, 아니 그 어떤 소는 아주 여름 내내 썩:는 소가 있고 그래요.}

10331 @ 그 소 질드릴려면 썩 먼저 인제 그 송아지가 이짜나요, 송아지가 이썩며는 처메는 이걸 안 뜰짜나요, 이거 뜰롱 거를? {그 소 길들이려면 제일 먼저 인제 그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있으면 침:에는 이걸 안 뜰잖아요, 이거 뜰는 거를?}

10331 # 예 뜰롱 거지요 그건, 이 바까리 하는 소는 다 큼 거요, 받 까, 받 까:는 소는. {예 뜰는 거지요 그건, 이 발같이 하는 소는 다 큰 거요, 발 갈, 발 가:는 소는.}

10331 #1 코똥레. {코뚜레.}

10331 @ 아. {아.}

10331 #1 코똥레. {코뚜레.}

10331 # 응, 코똥레두 다: 썩 가지구 다: 큰 소지요. {응, 코뚜레도 다: 썩 가지고 다: 큰 소지요.}

10331 @ 거 그걸 하는 니유가 이제 질드릴라고 하능 거쑤? {그 그걸 하는 이유가 이제 길들이려고 하는 거쑤?}

10331 # 예. {예.}

10331 @ 그머 코똥레하고 머 이제 그담, 어뜨게 코똥, 어뜨게 합니까, 그걸, 직접 하썩썩요, 코똥레를? {그럼 코뚜레하고 뭐 이제 그다음, 어떻게 코똥,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직접 하썩썩어요, 코뚜레를?}

10331 # 그러지요, 직접 허지요. {그러지요, 직접 하지요.}

10331 @ 어떤, 머 어뜨게 합니까? {어떤, 뭐 어떻게 합니까?}

10331 # 코뿔렐 이르케 똥구러케 맨들자나요, 맨드러노쿠 그다:메. {코뿔렐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담에.}

10331 @ 머로 만듭니까 보통? {뿔로 만듭니까 보통?}

10331 # 지그른 저 쇠루 돼: 이찌만 엔나렌 낭그, 나무를 가따 이르케 달궤서 후궤:서 이르케 맨들지요, 맨드러 가지고. {지금은 저 소로 돼: 있지만 옛날엔 나무, 나무를 갖다 이렇게 달궤서 휘어서 이렇게 만들지요, 만들어 가지고.}

10331 @ 그다메 인제 멀로 이르케 여기, 코? {그담에 이제 뿔로 이렇게 여기, 코?}

10331 # 그건 코 뿔르는 작때길 또 꼬재이를 맨드러이 돼, 그래 뿔러 가주구 빼: 가주. {그건 코 뿔는 막대길 또 꼬쟁이를 만들어야 도, 그래 뿔어 가지고 빼: 가지고.}

10331 @ 부레 달궤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불에 달궤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10331 # 아 달구지 아나요. {아 달구지 않아요.}

10331 @ 그냥 생? {그냥 생?}

10331 # 예. {예.}

10331 @ 코를 그냥 확 뿔러 버리능가요? {코를 그냥 확 뿔어 버리는 가요?}

10331 # 예. {예.}

10331 # 요리케 맨지른 요기 알분 데가 이썬요. {요렇게 만지면 요기 얇은 데가 있어요.}

10331 @ 그머 막 움지기가자나요. {그럼 막 움직이잖아요.}

10331 # 그 움지기지 아프다고 지라를 하지요, 그걸 아주 꼼짜글 몬해게 하구선 뿔루지요. {그 움직이기 아프다고 지랄을 하지요, 그걸 아주 꼼짜글 못 하게 하고선 뿔루지요.}

10331 # 뿔루구서는 그다메 그저 코뿔렐을 느쿠 굴렐 짜가주구 이르케 매능 거지요. {뿔고서는 그담에 그저 코뿔렐을 넣고 굴레를 짜 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지요.}

10331 @ 그래서 인제 요리케 싹싹 자바 땡기며는 이제, 아프며는 이제 말 듣꼬.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싹싹 잡아 당기면 이제, 아프면 이제 말 듣고.}

10331 # 예. {예.}

10332 @ 그 예저네 이제 소를 부릴 때 일할 때마다 소를 몰: 때 소리를 이르케 내자나요, 소리 낼: 때 어뜨 냅:니까, 먼저 소가 이르::게? {그 예전에 이제 소를 부릴 때 일할 때마다 소를 몰: 때 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소리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먼저 소가 이렇::게?}

10332 # 이게 인제 소가 안쏘가 이꾸 마라쏘가 이썬요. {이게 이제 소가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어요.}

10332 # 이짜게 꺼는 왼쪽 꺼는 안쏘라 그러고 이짜게 오른쪽 꺼는 마라쏘라 그러거든. {이쪽에 것은 왼쪽 것은 안쏘라 그러고 이쪽에 오른쪽 것은 마라쏘라 그러거든.}

10332 # 그래 인제 아니여, 마라 이르케 소릴 지르지요. {그래 이제 안이야, 마라 이렇게 소릴 지르지요.}

10332 @ 그머 인제 보통 바틀 갈:, 바치나 노를 갈: 때 그 안쏘하고 마라쏘 이게 두: 개가 인는데 보통 이제 두 마리로 하지요? {그럼 이제 보통 밭을 갈:, 밭이나 논을 갈: 때 그 안쏘하고 마라쏘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두 마리로 하지요?}

10332 # 예. {예.}

10332 @ 어떻 게 더 잘 말: 듣꼬 일 잘하는 솜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말: 듣고 일 잘하는 솜니까, 이 둘 중에서?}

10332 # 월래 안쏘가 더 히미 들구 더 잘한다능 거지요. {원래 안소가 더 힘이 들고 더 잘 한다는 거지요.}

10332 @ 아 그래요, 인제 고런 소를 이게 해 놔이 되젠네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소를 이게 해 놔야 되겠네요.}

10332 # 예. {예.}

10332 # 근데 그 암팍하는 소가 마라두 허구 안쫘두 하는 소가 이꼬, 그런 소는 이 상짜그루 나가능 거지요. {근데 그 안팍으로 하는 소가, 마라소도 하고 안소도 하는 소가 있고, 그런 소는 이 상팍으로 나가는 거지요.}

10332 @ 아 상짜그루 나간다는 거는? {아 사상팍으로 나간다는 것은?}

10332 # 그이까 일꾸느루는 켈: 일 잘한다는 그 상:푸므루 나가는 소지요. {그러니까 일꾼으로는 제일 일 잘한다는 그 상:팍으로 나가는 소지요.}

10332 @ 그럼 인제 소를 이러케 몰:고 갈 때 아푸로 가라고 할 때는 머라고? {그럼 이제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 앞으로 가라고 할 때는 뭐라고?}

10332 # 이러, 이러 허지요. {이러, 이러 하지요.}

10332 # 이게 멩예를 메워 노코, 이 받까래를 가서 연장을 주고 이러 하른 가요. {이게 멩예를 메게 해 놓고, 이 받 가래를 가서 쟁기를 주고 이러 하면 가요.}

10332 @ 아 그럼 그거 어디로 감니, 압? {아 그럼 그거 어디로 감니, 앞?}

10332 # 아푸루 나가지요. {앞으로 나가지요.}

10332 # 아푸루 나가, 고, 일대 인제 아니여 그럴 쯤게는 안쫘가 이 말: 안 드를 쯤겐 이게 올라가따 내려가따 하자나요, 그래머 아니여, 또 마라가 하른 마라 하이, 올라 시니 내리 시니 이르게 허능 거지요. {앞으로 나가, 그, 이럴 때 이제 아니여 그럴 적에는 안소가 이 말: 안 들을 적엔 이게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여, 또 마라가 하면 마라 하니, 올라 서니 내려 서니 이렇게 하는 거지요.}

10332 @ 그러머는 이케 이러 하며는 안쫘하고 마라쫘하고 다 가치 감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러 하면 안소하고 마라소하고 다 같이 감니까?}

10332 # 예 다 가치 가요. {예 다 같이 가요.}

10332 @ 아 그러다가 이케 서야 되능 경우가 이짜나요? {아 그러다가 이렇게 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332 # 그거느 위:. {그거는 위:}

10332 # 그거 \*\*\*\* 위: 하른 다 두리 또까치 서요. {그거 \*\*\*\* 위: 하면 다 둘이 똑같이 서요.}

10332 @ 그다메 보통 이제 왼쫘그로 돌: 때는 머라고 얘기합니까? {그답에 보통 이제 왼쪽으로 돌: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332 # 어후: 허지요, 어후: 해요. {어후: 하지요, 어후: 해요.}

10332 # 왼쫘그루나 아무쫘그루나 이 고삐를 쥐구 어후 허른 이르게 도라 가요, 다. {왼쪽으로도나 아무쫘으로도나 이 고삐를 쥐고 어후 하면 이렇게 돌아 가요, 다.}

10332 @ 어후:. {어후:}

10332 # 예. {예.}

10332 @ 그러머는 왼쫘그로 돌 때는 머라고 합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돌 때는 뭐라고 합니까?}

10332 # 아 그거뚜 어후 해요. {아 그것도 어후 해요.}

10332 @ 오른쫘그로 돌 때는뇨? {오른쪽으로 돌 때는요?}

10332 # 오른쫘게두 어후: 해요. {오른쪽에도 어후: 해요.}

10332 # 그릉까 고삐를 하나 쥐:요, 이르게 쯤 \*\*\* 땡게요, 그래믄 그짜그루 도라 가요. {그러니까 고삐를 하나 쥐어요, 이렇게 쯤 \*\*\* 당겨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 가요.}

10332 @ 아 고삐 당기는 쫘그로 하며는, 어후: 하면서 고삐를 당기. {아 고삐 당기는 쪽으로 하면, 어후: 하면서 고삐를 당기.}

10332 # 이제 마, 마라를 \*\*하른 마라쫘를 쫘꿈 땡기믄 어후:하른 기낭 도라 가구, 또 오른쫘그루 도라 갈라믄 오른쫘 고삐를 쥐구 \*\*\* 어후 하른 그짜그루 도라 가구. {이제 마라소를 \*\*하면 마라

소를 조금 당기면 어후: 하면 그냥 돌아 가고, 또 오른쪽으로 돌아 가려면 오른쪽 고삐를 쥐고  
\*\*\* 어후 하면 그쪽으로 돌아 가고.}

10332 @ 그다메 그 물러 서, 이러케 하능 경우도 이썸니까, 물러 서 이러케 하능 경우? {그답에  
그 물러 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러 서 이렇게 하는 경우?}

1033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2 @ 그때는 머라고 합니까?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10332 # 그건 저 짐 말파나 물러 서 그래른 물러 서요. {그건 저 지금 말처럼 물러 서 그러면 물  
러 서요.}

10332 # 나가다 머 걸리든 인제 물러서 그래른 그놈두 힘드니깐 또 알: 꺼 아니에요, 그래~이~까  
물러 서 그래른 물러 서요. {나가다 뭐 걸리면 이제 물러 서 그러면 그놈도 힘드니까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러 서 그러면 물러 서요.}

10332 @ 그머 아까 아녀:: 머 하능 거능 거 무슴 마렁가요? {그럼 아까 아녀:: 뭐 하는 거는 거 무  
슴 말인가요?}

10332 # 아, 아녀::는 안쏘가 이게 가다가 제 골쭉러 쫘 몰 까자나요, 니러가던지 올라가던지 이래  
하든 그 아녀: 이르게 하구 마라가 이러든 마라:. {아, 아녀::는 안소가 이게 가다가 제 골로 쫘 못  
가잖아요, 내려 가든지 올라 가든지 이러면 그 아녀: 이렇게 하고 마라가 이러면 마라:.}

10332 @ 아녀 하며는 이제 이 안쏘가 제대로 몰 까:니까 아녀 하면 바로 이르게 가능 거네요, 그  
다메? {아녀 하면 이제 이 안소가 제대로 못 가:니까 아녀 하면 바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답  
에?}

10332 # 마라하든 또 마라쏘가. {마라 하면 또 마라소가.}

10332 @ 마라쏘가 땀 데 가다가 마라 하며는 제대로 가고. {마라소가 땀 데 가다가 마라 하면 제  
대로 가고.}

10332 @ 그머 올라서: 그거는 명가요, 올라서 내려서? {그럼 올라 서: 그거는 뭔가요, 올라 서 내  
려 서?}

10332 # 그이, 마라가 인제 니러 오든지 이러커든 마라가 내려와선 마라 올라서, 안쏘가 또 내려  
와편지 이러든 안쏘 올라서 머, 내려 서 그러지요, 거 똑빠루 앙 가니까. {그것은, 마라가 이제내  
려 오든지 이렇게 하면 마라가 내려 와서는 마라 올라 서, 안소가 또 내려 왔든지 이러면 안소  
올라 서 뭐, 내려 서 그러지요, 그 똑바로 안 가니까.}

10332 @ 그머 다: 아라 든나요? {그럼 다: 알아 든나요?}

10332 # 아라 듣찌요. {알아 듣지요.}

10332 @ 어르신 인제 이게 소도 종류가 상, 상:푸미 이꼬 안 조은 소도 이꼬 막 그러자나요, 소를  
소에 색까리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어르신 이제 이게 소도 종류가 상, 상:품이 있고 안 좋은  
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소를 소의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10333 @ 게 쫘 다롱가요? {그게 쫘 다른가요?}

10333 # 아이 그건 다르지 아나요. {아아 그건 다르지 않아요.}

10333 @ 엔나레는 그 머야, 누렁, 울긋불긋, 그? {옛날에는 그 뭐야, 누런, 울긋불긋, 그?}

10333 # 건 지비서 인제 사:라미 그 이르믈 지여서 그렇 거지, 그렇 건 읍썌요. {그건 집에서 이  
제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여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없어요.}

10333 @ 그 무슨, 아주 꺼머케 생긴 껌정소 머. {그 무슨, 아주 꺼떻게 생긴 껌정소 뭐.}

10333 # 예, 껌정소 머 저, 칙쏘 머 이릉 게 이썌요. {예, 껌정소 뭐 저, 칙소 뭐 이런 게 있지요.}

10333 @ 얼룩쏘도 이썌니까? {얼룩소도 있습니까?}

10333 # 얼룩썌 읍썌, 얼룩쏘는 지금 저쏘가 나옹 게루 얼루거룩 해지 엔:나렌 칙쏘라능 게 이  
저, 시꺼머니 누런 털두 배기고, 얼룩, 그게 이썌요, 주리 쪽쪽 깡 게, 어, 까만 소가 이꾸. {얼룩소

는 없어, 얼룩소는 지금 젖소가 나오니까 얼룩얼룩 하지 옛:날엔 칙소라는 게 이, 저, 시커멓게 누런 털도 박히고, 얼룩 그게 있어요, 줄이 쪽쪽 간 게, 어, 까만 소가 있고.}

10333 @ 아, 그 두:가지 종류네요. {아, 그 두: 가지 종류네요.}

10333 # 세:가지 종류지. {세: 가지 종류지.}

10333 @ 어떻 게? {어떤 게?}

10333 # 그이간 누런 소 칙쏘 꺼먼 소. {그러니까 누런 소 칙소 꺼먼 소.}

10333 @ 어떤 소가 제일 조은 숨니까? {어떤 소가 제일 좋은 소입니까?}

10333 # 주로 머 누런 소가 제일 중 거지요, 누런 소가 만치요. {주로 뭐 누런 소가 제일 좋은 거지요, 누런 소가 많지요.}

10333 @ 이를 제일 잘 하나요? {일을 제일 잘 하나요?}

10333 # 예. {예.}

10333 @ 칙쏘나 꺼정, 까만 소는? {칙소나 꺼정, 까만 소는?}

10333 # 그런 소드른 안 해봐서 모르게쎄요, 그게 더 이:를 잘 하는지 못 터는지, 그건 드무르니까요, 이게 소가. {그런 소들은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더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건 드무니까요, 이게 소가.}

10333 # 전부라 빨경 게 만:치요. {전부 다 빨건 게 많:지요.}

10334 @ 소 보며는 소 빨 모양이 이러케 다 다르자나요, 그 소 빨 모양 보며는 이게 아주 꼬꼬타게 딱 선 고걸 머라고 합니까? {소 보면 소 빨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소 빨 모양 보며는 이게 아주 깨끗하게 딱 선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34 # 그걸 머 부루능 게 엄는데요. {그걸 뭐 부르는 게 없는데요.}

10334 # 저저 뿌리 이르케 하나는 이르케 나가구 이르케 이르케 똥 게 이쎄요, 그건 머 천지가기 라구두 허구 머. {저 저 빨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게있어요, 그건 뭐 천지가기라고도 하고 뭐.}

10334 @ 아 하늘로 솟꼬 하나는 땅으로 가는 그게. {아 하늘로 솟고 하나는 땅으로 가는 그게.}

10334 # 예예, 그건 천지가기라구두 허구 머, 기낭 이러, 이러케 잘: 낭 거 또 우걱뿌리라구두, 우걱빨. {예예, 그건 천지가기라고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잘: 난 것 또 우걱빨이라고도, 우걱빨.}

10334 @ 고거는 이제 이케 반드타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10334 # 어, 요러케 요러케 해 가주 요러::케 찌거 어페찌. {응,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령::게 찍어 얹어졌지.}

10334 @ 아 요러케 요러케 생겨꾼뇨, 아. {아 요렇게 요렇게 생겼군요, 아.}

10334 # 예 그거 우걱뿌리라 하지. {예 그거 우걱빨이라 하지.}

10334 @ 아 그럼 요러케 반뜨탕 거는, 거또 이쨌? {아 그럼 요렇게 반듯한 거는, 것또 있쨌?}

10334 # 예. {예.}

10334 @ 싸움하는 소 가통 경우 보니까 그 싸움하는 소 가통 경우 보니까 이, 뿌리 요르게 반뜨 타드라고요, 그래서. {싸움하는 소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싸움하는 소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빨이 요렇게 반듯하더라고요, 그래서.}

10334 # 건, 화소드리 다 그러치요, 화소드런 대:개 다 뽕뜰해요. {그건, 황소들이 다 그렇지요, 황소들은 대:개 다 반듯해요.}

10334 # 여 암소는 이, 이르케 이르케 나:구 머 이러 이르케두 나구 그러치만 화소드런 대:개 이르케 나쎄요. {여기 암소는, 이렇게 이렇게 나:고 뭐 이렇게도 나고 그렇지만 황소들은 대:개 이렇게 났어요.}

10334 @ 근데 인제 빨 중에서 인제 요러쿵 나고 이르케 빈너처럼 이르케 딱 거의 부튼 그건 무슨? {그런데 이제 빨 중에서 이제 요렇게 나고 이렇게 비너처럼 이렇게 딱 거의 붙은 그건 무슨?}



10334 # 고걸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데.}

10334 # 이르케 또 뿌리 나가주, 꾸부러서 제 사를 파구 드러가능 거뚜 이꾸 머 뿌리, 소가. {이렇게 또 뿌리 나 가지고, 굽어서 제 살을 파고 들어 가는 것도 있고 뭐 뿌리, 소가.}

10334 @ 어떤 사라는 그런 거 비네뿌리라는 말 쓰는데 혹시 그런 거 모르시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비너뿌리라는 말 쓰던데 혹시 그런 거 모르시지요?}

10334 # 예. {예.}

10334 @ 아 천지각카고 우걱빨 그게 인제 빨, 고령 게 조용 경가요? {아 천지각카고 우걱빨 그게 이제 빨, 그런 게 좋은 건가요?}

10334 # 중: 거지요. {좋은 거지요.}

10334 # 우걱뿌리 조용 거지요. {우걱빨이 좋은 거지요.}

10335 @ 소도 보며는 그 나이에 따라서 이르를 쯔 달르게 부르자나요? {소도 보면 그 나이에 따라서 이름을 쯔 다르게 부르잖아요?}

10335 # 아니예요. {아니예요.}

10335 @ 소가 처음 태어나면 한 살 머궁 걸 머라고 하나요? {소가 처음 태어나면 한 살 먹은 걸 뭐라고 하나요?}

10335 # 한살 머궁 거요? {한 살 먹은 거요?}

10335 # 거 또 이름 금방 이러명네. {그거 또 이름 금방 잊어 먹네.}

10335 # 숨보지기, 재보지기. {소보지기, 재보지기.}

10335 # 이, 이 숨보지기라는 건 이가 하나 빠징 거, 거, 재:보지기는 이 둘: 빠지구 머 이르케 이 빠징 걸 보구 아라요. {아, 이 손보지기라는 건 이가 하나 빠진 거, 거, 재:보지기는 이 둘: 빠지고 뭐 이렇게 이 빠진 걸 보고 알아요.}

10335 @ 이빠징 거는 그 나이를 알: 쯔 인능 거예요? {이 빠진 거는 그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0335 # 예예. {예예.}

10335 @ 하나 빠징 건, 손보지기는 나이가 메 살? {하나 빠진 건, 손보지기는 나이가 몇 살?}

10335 # 숨보지긴 하나 빠징 거 이제 두살쯔 \*\* 이르케 똥 거 이꾸 그리구 고저네 암 빠징 거는 머 송아지니까 암 빠저. {손보지기는 하나 빠진 거 이제 두 살쯔 \*\* 이렇게 된 거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안 빠진 거는 뭐 송아지니까 안 빠저.}

10335 @ 아 고건 인제 암 빠징 거는 한 두사른 송아지 다:메 이가 하나 빠징 거는? {아 그건 이제 안 빠진 거는 한 두 살은 송아지 다음에 이가 하나 빠진 거는?}

10335 # 예 숨보지기. {예 손보지기.}

10335 @ 숨보지기. {손보지기.}

10335 @ 그다메 둘: 빠징 거는? {그답에 둘: 빠진 거는?}

10335 # 재보지기 머 이르케 나와요. {재보지기 뭐 이렇게 나와요.}

10335 @ 또 두 개 빠지면 한 메 쌀 정도 됩니까? {또 두 개 빠지면 한 몇 살 정도 됩니까?}

10335 # 한, 네: 살 쯔 되지요. {한, 네: 살쯔 되지요.}

10335 @ 아 그다메 이제 다 크며는? {아 그답에 이제 다 크면?}

10335 # 자꾸 빠져서 이제 이래 가지구 머 이가 음:능 거지, 새로 나온 거 뿌이지. {자꾸 빠져서 이제 이래 가지고 뭐 이가 없:는 거지, 새로 나온 거 뿐이지.}

10335 @ 나이가 마:니 든 소를 또 머라고 합니까, 늑? {나이가 많:이 든 소를 또 뭐라고 합니까, 늑?}

10335 # 그건 늑근 소라 그러지요 머. {그건 늑은 소라 그러지요, 뭐.}

10335 @ 아 그래요, 늑근 소는 보통 메 쌀부터 늑근 소 추게 드러가나요? {아 그래요, 늑은 소는

보통 몇 살부터 늙은 소 축에 들어 가나요?

10335 # 머 색, 늙은 소는 머 지금 머라 한, 다섯 여섯 살만 되면 다 늙은 소라 그래요, 지끄른.  
{머 색, 늙은 소는 머 지금 머라 한, 다섯 여섯 살만 되면 다 늙은 소라 그래요, 지금은.}

10335 @ 그때는, 그때부터 일: 거이 모 타겐네요? {그때는, 그때부터 일: 거의 못 하겠네요?}

10335 # 아 지금 머 소가 일 해요 머, 지금, 엔나레 일 해찌. {아 지금 머 소가 일 해요, 뭐, 지금, 옛날에 일 했지.}

10335 # 엔:나렌 증:작 다섯여섯 살 된 게 이를 더 잘 해찌요, 근데 지그른 소 가주 일하는 사람  
읍짜나요, 이젠. {옛:날엔 정:작 다섯 여섯 살 된 게 일을 더 잘 했지요, 근데 지금은 소 가지고 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젠.}

10336 @ 어르신 인제 지금 인제 어르신 소를 키워는데 예저네 인제 소를 사와, 처:메 업쓸 땐 사  
와써야 되자나요, 그머 소를 사 올 때 조은 소를 골라야 되자나요, 조은 소는 어떻 게 조은 소지  
요 머, 엉덩이라 머리 뿔 이런 거 다: 본다고 그러던데? {어르신 이제 지금 이제 어르신 소를 키  
웠는데 예전에 이제 소를 사와, 침:에 없을 땐 사왔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를 사올 때 좋은 소를  
골라야 되잖아요, 좋은 소는 어떤 게 좋은 소지요, 뭐, 엉덩이랑 머리 뿔 이런 거 다: 본다고 그러  
던데?}

10336 # 머 송아지 찌게 기낭 반:뜯허구 조우먼 그 조:타 그러능 거지요 머. {머 송아지 적에 그  
냥 반듯하고 좋으면 그 좋다 그러는 거지요 뭐.}

10336 @ 머가 반드태? {뭐가 반드해?}

10336 # 아이, 송아지가 이 다리가 딱 서씨른 이르게 저기 꾸부러져면지 등이 휘:편지, 등이 이러  
케 처저튼지 이라든 그건 몰 뵈 쇠라 그러구 다 이리케 딱 빠러지지. {아이, 송아지가 이 다리가  
딱 섰으면 이렇게 저기 구부러졌던지 등이 휘었든지, 등이 이렇게 처졌든지 이러면 그건 못 된  
소라 그러고 다 이렇게 딱 벌어지지.}

10336 @ 아 그이가 다리도 반뜨타고 그다메 등도 반뜨터구요. {아 그러니까 다리도 반듯하고 그  
답에 등도 반듯하고요.}

10336 @ 그다메 머 머리 이쪼그루 머 보능 거? {그답에 뭐 머리 이쪽으로 뭐 보는 거?}

10336 # 으, 머리두 다: 보지요. {응, 머리도 다: 보지요.}

10336 # 머리두 다 잘 생기구 그래야, 송아지 찌건 뿌런 안 나씨이까. {머리도 다 잘 생기고 그래  
야, 송아지 적엔 뿔은 안 났으니까.}

10337 @ 그 예저네는 그 나메 지베서 이를 해 주능 걸 머라고 합니까, 나메 지베? {그 예전에는  
그 남의 집에서 일을 해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남의 집에?}

10337 # 삭쏘라 그래찌요. {샷소라 그랬지요.}

10337 @ 그 사라미 내가 만냐게 그 나메 지베 가서 일 해주는 그런 거 이짜나요, 남, 다른 사람  
우리 지베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해서 일 련 똥안 막 이를 시키고 하능 걸 머라고 합니까 그  
걸?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남의 집에 가서 일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다른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 달라고 해서 일 년 동안 막 일을 시키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10337# 엔:날 사라미요? {옛:날 사람이요?}

10337 @ 예. {예.}

10337 # 거 머슴 산:다 그러지요 엔:날. {그 머슴 산:다 그러지요 옛:날.}

10338 @ 머스른 보통 맨년 다니로 삼:니까? {머슴은 보통 몇 년 단위로 삼:니까?}

10338 # 건, 게:약해기에 달랭거지요. {그건, 계약하기에 달린 거지요.}

10338 # 머 이 일 러닐 해이 되니까, 그지비 농살 지: 주러 와쓰머 일 러닐 해이 되는데 이: 년  
사:는 사람두 이꾸 머 삼년 사는 사람두 이꾸. {머 이 일 년을 해야 되니까, 그집에 농사를 지어  
주러 왔으면 일 년을 해야 되는데 이: 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삼 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338 @ 그럼, 그러케 일 런 다니, 보통 일 런 이: 년 사는 사람 머슴산:다라고 얘길 하자나요, 근데 하루하루 이르게 일하는 사를 머라고 합니까, 일하고 삭쥬고 하는? {그럼, 그렇게 일 년 단 위, 보통 일 년 이: 년 사는 사람 머슴산:다라고 얘길 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는 사를 머라고 합니까, 일하고 삭쥬고 하는?}

10338 # 거이 하루 일땅 주능 거지요 머. {그거 하루 일당 주는 거지요 뭐.}

10338 @ 그걸 머 날품? {그걸 뭐 날품?}

10338 # 예 날품 파리, 날푸미라고. {예 날품 팔이, 날품이라고.}

10338 @ 아 그런 말:도 해썩나요? {아 그런 말:도 했었나요?}

10338 # 예. {예.}

10338 @ 그럼 인제 머슴 살: 때는 그 푸른 어트케 치릅니까 푸른? {그럼 이제 머슴 살: 때는 그 품은 어떻게 치릅니까 품은?}

10338 # 건 푸물 따지지 양쿠 일 러네 싸리 머 메 까마, 그머 그걸루 정:허구 드러가서 사능 거에 요. {그건 품을 따지지 앓고 일 년에 쌀이 뭐 몇 가마, 그럼 그걸로 정: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에 요.}

10338 @ 아 고 인제 게:야글 하고. {아 그 이제 게:약을 하고.}

10338 # 예. {예.}

10338 @ 그러머는 어떤 니를 주로 하능 겁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10338 # 머 농사일 하지요 머. {뭐 농삿일 하지요 뭐.}

10338 # 그리구 그 지비 머슴살:러 가른 그 집 이:를 머 다 해이 되니까 머이던지. {그리고 그 집 에 머슴살:러 가면 그 집 일:을 뭐 다 해야 되니까 뵈이던지.}

10338 # 지그른, 머슴살:러 가른 인:나렌 여 보리나 싱꾸 그랴 저겐, \*\*\*\*\* 마우틀 한 짐씩 저이 돼 요. {지금은, 머슴살:러 가면 옛:날엔 여기 보리나 심고 그랴 적엔, \*\*\*\*\* 마을을 한 짐씩 저야 돼 요.}

10338 # 지금 지그른 저 똥을 누두 이 수셰시그루 다: 씨서 나가썩만, 엔:나렌 이르게 통을 바다 게다 노쿠, 보리 시물 썩겐 그 보리바테다 한 짐 가따가 거 보리꼬레다 뿌리구 엔:나렌 다 그랴 썩 요. {지금 지금은 저 똥을 뵈도 이 수셰식으로 다: 썩어 나갔지만, 옛:날엔 이렇게 통을 바닥에다 놓고, 보리 심을 적엔 그 보리밭에다 한 짐 갖다가 거 보리골에다 뿌리고 옛:날엔 다 그랴어요.}

10340 @ 예저네 이 아까, 푸마시 한다 그랴썩나요, 나메집 푸마시를 할 때는, 여기서 푸마시 해썩 나요? {예전에 이 아까, 품앗이 한다 그랴잖아요, 남의 집 품앗이를 할 때는, 여기서 품앗이 했었 나요?}

10340 # 푸마시 마니 해썩요, 푸마시 안 허구 농살 질 쥬가 읍썩요. {품앗이 많이 했지요, 품앗이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10340 @ 푸마시 하면서 인제 이를 할 때 하루 식썩를, 식썩도 하기도 하고 막 간식또 막 내:주고 막 그랴자나요, 할머니드리, 그 멍는 간시게는 어떻 게 이썩썩요? {품앗이 하면서 이제 일을 할 때 하루 식사를, 식사도 하기도 하고 막 간식도 막 내: 주고 막 그랴잖아요, 할머니들이, 그 멍는 간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10340 # 엔:나레 간시기 머 주로 머 저 바비지에 머. {옛:날에 간식이 뭐 주로 뭐 저 밥이지요 뭐.}

10340 # 밥허구 그지 아늑 국썩, 주로 칼국썩 마니 해:썩요. {밥하고 그랴지 앓으면 국수, 주로 칼 국수 많이 했:지요.}

10340 # 응, 칼국썩르 해야 도:니 썩: 안 드러가자나요. {응, 칼국수를 해야 돈:이 썩: 안 들어가잖 아요.}

10603 @ 어르신 흑썩 그, 집또 예저네 지언, 지어 보썩썩요, 지블 지으썩썩요, 이 지블 어르신?

{어르신 혹시, 그, 집도 예전에 지었, 지어 보셨어요, 집을 지으셨어요, 이 집을 어르신?}

10603 # 이거 내가 징: 건데 내가 지었는데두 내 소느루 몰허구 목쭈드리 해서 사서, 나:무 이렇  
거만 내가 해 웅 거지. {이거 내가 지은 건데 내가 지었는데도 내 손으로 못 하고 목수들이 해서  
사서, 나:무 이런 것만 내가 해 온 거지.}

10603 @ 아 그럼 가치 하셔겐네요. {아 그럼 같이 하셨겠네요.}

1060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3 @ 지블 지을 때 목쭈드리 머 쿵 걸 하지만 벽, 이러케 하능 거나 이게 다: 어르신니 그냥  
하셔썬요?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이 뭐 큰 걸 하지만 벽,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다: 어르신이 그  
냥 하셨어요?}

10603 # 예. {예.}

10603 @ 아이구 마니 힘드셔겐네요, 그거 하시는데 예.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거 하시  
는데 예.}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그럼 그럴 때, 병 가튼 거도 마니 나고 그러자나요, 그럼 지배서 막, 머 대충 처리하고 그래쥬, 근데 인제 그렇 건 쯤에서 엔나레 피부병 마니 나썬짜나요? {그럼 그럴 때, 병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서 막, 뭐 대충 처리하고 그랬쥬,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옛날에 피부병 많이 났었잖아요?}

10701 # 현:디라 그러지, 현:디 난다구, 현:디 난다구. {부스럼이라 그러지, 부스럼 난다고, 부스럼 난다고.}

10701 @ 현:디도 나고, 또 머:도 남니까, 버짐? {부스럼도 나고, 또 뭐:도 남니까, 버짐?}

10701 # 버짐도 나구. {버짐도 나고.}

10701 @ 어떻 게 나쥬, 버짐도, 버지메는 어떻 게 이썬따 그랜나요? {어떤 게 나쥬, 버짐도, 버짐에도 어떤 게 있었다 그랬나요?}

10701 # 인:나레 머 마른 버짐 머, 진 버짐두, 마른 버짐, 진 버짐. {옛:날에 뭐 마른 버짐 뭐, 진 버짐도, 마른 버짐, 진 버짐.}

10701 @ 그다메 똥그란? {그담에 똥그란?}

10701 # 돈: 뺨짐. {돈: 버짐.}

10701 @ 예 그머 그게 나며는 증상이 어때썬요? {예 그럼 그게 나면 증상이 어땠어요?}

10701 # 아프지요 머, 괴롭꾸 아프구. {아프지요 뭐, 괴롭고 아프고.}

10701 @ 버짐, 어디가 주로 나쥬, 버지문? {버짐, 어디가 주로 나쥬, 버짐은?}

10701 # 버지미야 얼굴레 마이 나지요, 얼굴리가 주루 만트라구. {버짐이야 얼굴에 많이 나지요, 얼굴이 주로 많더라고.}

10702 # 그 엔:나렌 그걸 여설, 여설 때:따 부처따 이르게 허드라구요. {그 옛:날엔 그걸 옛을, 옛을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 어떤 여슬료? {어떤 옛을요?}

10702 # 그냥 머 아:무 여시구 그걸 꺼먼 여시라 그러지, 꺼먼 여설 부처따 떼:따 허능 게 그게, 나을 때가 땀:는지 그거 나트라구 나키는 또. {그냥 뭐 아:무 옛이고 그걸 꺼먼 옛이라 그러지, 꺼먼 옛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그게, 나을 때가 땀:는지 그거 낫더라고 낫기는 또.}

10702 @ 아 여슬, 연말고 땅 거는 처리를 안 해요? {아 옛을, 옛말고 땀 거는 처리를 안 해요?}

10702 # 땅 건 머 엔나레 머 야기 이썬요, 하하? {땀 건 뭐 옛날에 뭐 약이 있어요, 하하?}

10702 # 그거 그:렇 거 허구, 현:딘 머 대:개. {그거 그:건 거 하고, 부스럼은 뭐 대:개.}

10701 @ 현:디가 나른 어땀, 증상이 어때요? {부스럼 나면 어땀, 증상이 어때요?}

10701 # 현:디는 아프구 머, 핑자이 아프구 그러치요 머. {부스럼은 아프고 뭐, 굉장히 아프고 그렇지요 뭐.}

10701 @ 현:디는 주로 어디 난나요? {부스럼은 주로 어디 났나요?}

10701 # 현:덴 머 아:무데구 머 다: 나니까 그건 모르게썬요, 등어리 나른 등채이라 그래구 머 허허. {부스럼은 뭐 아:무 데고 뭐 다: 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등에 나면 등창이라 그러고 뭐 허허.}

10701 @ 그래 현:디가 처옴에 인제 날 때는 어떤, 약간 빨그스름? {그래 부스럼은 처음에 이제 날 때는 어떤, 약간 불그스름?}

10701 # 응, 빨그스름형 게 그게 차츰차츰 커지민 아:푸지요. {응, 불그스름한 게 그게 차츰차츰 커지면 아:프지요.}

10701 @ 커지민? {커지면?}

10701 # 커지민서 아프지요. {커지면서 아프지요.}

10701 @ 아프조, 누르면? {아프조, 누르면?}

10701 # 거 누르든 핑자이 아프조 인제. {그 누르면 핑장히 아프조 이제.}

10702 @ 예 그러면 인제 고르케 차며는 인제 더 커지면 그다메 어트게 처리를 해야 되조, 고거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차면 이제 더 커지면 그담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조, 그거는?}

10702 # 그 약 한다능 게 지금, 옴:나레는. {그 약 한다는 게 지금, 옴:날에는?}

10701 @ 처메는 빨거타가, 쯔 지나며는? {침에는 별정다가, 쯔 지나면?}

10701 # 점점 또 꺼매지다가, 그다메 또 이르게 골물라든 꼬치 하얘지지요 머. {점점 또 꺼매지다가, 그담에 또 이렇게 굵으려면 끝이 하얘지지요 뭐.}

107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701 # 예. {예.}

10701 @ 머 어트게 되면뇨? {뭐 어떻게 되면요?}

10701 # 별:거타가 쯔 꺼무침해지다가 또 꼬치 하야케 되자나요, 그 지대로 놔:, 골마찌, 거기거. {별:정다가 쯔 꺼매지다가 또 끝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 저대로 놔:, 굵았지, 거기거.}

10702 @ 예, 그르케 되면 인제 어뜨케 해야 되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조?}

10702 # 머 짜지요 머, 짜구 대:개 인제 야기라능 게, 대:왕 입싸구라능 게 이썬요, 대:왕얼 가따 부치른 쯔 나:꾸 그래요. {뭐 짜지요, 뭐, 짜고 대:개 이제 약이라는 게, 대:왕 앞사귀라는 게 이썬요, 대:왕을 갖다 붙이면 쯔 낫:고 그래요.}

10702 @ 처메 인제 짜며는 머가 나오조? {처음에 이제 짜면 뭐가 나오조?}

10702 # 고르미 나오지요. {고름이 나오지요.}

10702 @ 그머 그 고름만 나오면 다: 끈나능 거요? {그럼 그 고름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거요?}

10702 # 아이, 다부지게 뺑 건 소:게 저:기 멩어리가 이따구요, 그걸 그니라 그래요, 그니가 그 이썬요. {아니, 다부지게 박힌 건 속:에 저:기 덩어리가 있다고요, 그걸 근이라 그래요, 근이 그 있지요.}

10702 @ 금 그걸 빼야 되자나요? {그럼 그걸 빼야 되잖아요?}

10702 # 그르지, 빼애지. {그러지, 빼야지.}

10702 # 그런데 옴:나레 그 머 빨: 쯔두 읍꾸 그잉까 대:왕 입싸구 머, 이렇 걸 해: 부치구 또 그르지요. {그런데 옴:날에 그 뭐 빨: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왕 앞사귀, 뭐, 이런 걸 해: 붙이고 또 그러지요.}

10702 @ 아 그래요, 부치면 어때썬요? {아 그래요, 부치면 어땀어요?}

10702 # 머 진:물두 나오구 그러치요 머. {뭐 진: 물도 나오고 그렇지요 뭐.}

10702 @ 그머, 그게 빠지나요? {그럼, 그게 빠지나요?}

10702 # 물:라요 그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대:왕 입싸굴 마니 부쳐요. {물:라요 그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대:왕 앞사귀를 많이 붙여요.}

10701 @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나꼬, 그다:메 여르메 쯔쌀 가튼 거뜰 마니 나자나요, 더우며는, 땀?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낫고, 그담:에 여름에 쯔쌀 같은 것들 많이 나잖아요, 더우면, 땀?}

10701 # 땀때라 그래지요 땀때. {땀띠라 그러지요 땀띠.}

10701 @ 그거또 마니 나쯔? {그것도 많이 났조?}

10701 # 아 땀때 마이 나지요. {아 땀띠 많이 나지요.}

10702 @ 그건 어떡케 치료를 해쯔? {그건 어떻게 치료를 했조?}

10702 # 그 머 치료하능 건 모르젠데 때끔때끔항 거 그거 아프게, 놔두구 기낭 썬꾸 이걸 그냥 그리구 말:기 때무네. {그 뭐 치료하는 건 모르겠는데 따끔따끔한 거 그거 아프게, 놔 두고 그냥

씻고 이걸 그냥 그러고 말:기 때문에.}

10701 @ 음 그러면 다래끼도 나자나요? {음 그러면 다래끼도 나잖아요?}

10701 # 예. {예.}

10701 @ 다래끼는 처멘 증상이 어떠쵸, 날 때? {다래끼는 처음엔 증상이 어떻쵸, 날 때?}

10701 @ 다래끼는 어떠케? {다래끼는 어떻게?}

10701 # 아프게쵸요 머. {아프겠지요 뭐.}

10702 @ 치료를 어뜨케 해요, 여기 치료하능 거 인나요? {치료를 어떻게 해요, 여기 치료하는 거 있나요?}

10702 # 치료하능 거 난 모르겠는데요, 그건 머 저 고길 먹찌 마러라 이 소리만 아라요, 고기 머 그먼 더 난다구. {치료하는 거 난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저 고기를 먹지 마라 이 소리만 알아요, 고기 먹으면 더 난다고.}

10702 # 비링 거 먹찌 마라라이 꼭 그러드라고요. {비린 거 먹지 마라라 꼭 그러더라고요.}

10702 @ 음. {음.}

10701 @ 그러머는 고거 말:고 이제 어른, 무쵸마니 생겨쵸?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어른, 무쵸 많이 생겼쵸?}

10701 # 예. {예.}

10702 @ 무쵸 생기면 어뜨케 어뜨케 해야 나쵸? {무쵸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낫쵸?}

10702 # 무조른 엔:나레 모과 이짜나요, 모과, 모과 꼬설 비베서 자꾸 비베서 문대드라고요. {무쵸 은 옛:날에 목화 있잖아요, 목화, 목화 꽃을 비벼서 자꾸 비벼서 문대더라고요.}

10702 @ 이러, 소개요? {이렇게, 속예요?}

10702 # 예. {예.}

10702 # 모과꼬수루. {목화꽃으로.}

10702 @ 음. {음.}

10702 # 그기 야기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래두 그르케 해쵸요, 모과꼬설. {그게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어요, 목화꽃을.}

10702 @ 예. {예.}

10201 @ 자 어르신 다시 한번만, 어르시니 그, 여기 주:소, 어르시니 그 주, 연, 그 연세가 그, 멘 년? {자 어르신 다시 한번만, 어르신이 그, 여기 주:소, 어르신이 그 주, 연, 그 연세가 그 몇년?}

10201 # 이사년 생. {이사년 생.}

10201 @ 이사년 생이시구요, 실쵸 나이는? {이사년 생이시고요, 실쵸 나이는?}

10201 @ 팔쵸? {팔쵸?}

10201 # 둘:. {둘:.}

10201 @ 팔쵸 둘, 이: 세, 이: 세시고, 그다:메 인제 주:소는 여기 인제 알:고 이쵸요? {팔쵸 둘, 이: 세, 이: 세이시고, 그다:메 이제 주:소는 여기 이제 알:고 있고요?}

10201 # 응. {응.}

10201 @ 예:. {예.}

## 1.8. 세시 풍속과 놀이

### 1.8.1. 세시 풍속

10802 @ 음, 그러며는 어르신 그, 노:는 때는 업씀니까? {음, 그러면 어르신 그, 노:는 때는 없습니까?}

10802 # 노:는 때는 윤:제 노느냐 하믄 정월 초하루서버텀 그 정월 보름께까지 마이 놀:지요. {노:는 때는 언:제 노느냐 하믄 정월 초하루부터 그 정월 보름께까지 많이 놀:지요.}

10802 # 그 정월따리 돼 쯤 노라고요. {그 정월달이 돼 쯤 놀아요.}

10802 @ 아 정월 언제쯤부터요? {아 정월 언제쯤부터요?}

10802 # 정월 초하루서버터믄 정월 대:보름까지언 마이 놀:지요.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많이 놀:지요.}

10801 @ 근데 그믐나래도 멀 자근, 새배한다면서요, 무슨 자근? {근데 그믐날에도 뭘 작은, 세배한다면서요, 무슨 작은 세배?}

10801 # 아이 여긴 그렇 거 안 해썩요. {아니 여기는 그런 거 안 했어요.}

108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801 # 예. {예.}

10801 # 무근 세:배라구 여는 덴 해:따구 그러데요, 그건 무근 세:배라구 근데 우리더런 걸 몰:라요. {묵은 세:배라고 여느 데는 했:다고 그러데요, 그건 묵은 세:배라고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10801 @ 아 그래요, 그러면 인제 정월 음력?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월 음력?}

10801 # 어, 음력. {어, 음력.}

10802 @ 정월 초하루 되면 그때부터? {정월 초하루 되면 그때부터?}

10802 # 예 놀:기 시작허능 거지요. {예 놀:기 시작하는 거지요.}

10802 @ 예 멀 하면서 노라고 놀: 때는? {예 뭘 하면서 놀아요 놀: 때는?}

10802 # 아 우리야 머 놀: 때 쪼끄매서 머 돈:치기 마이 해:썩요. {아 우리야 뭘 놀: 때 조그마해서 뭘 돈:치기 많이 했:어요.}

10802 @ 예? {예?}

10802 # 돈:치기. {돈:치기.}

10802 @ 돈:치기가 머예요? {돈:치기가 뭐예요?}

10802 # 돈:치기라구 \*\*\*\*\* 동저니썩 요리케, 그믐 요기다 엘: 드러서 요기 그짜나요, 요기 그꼬. {돈:치기라고 \*\*\*\*\* 동전 있어 요렇게, 금을 요기다 예를 들어서 요기 굿잖아요, 요기 굿고.}

10802 @ 그믐 서로 그꼬요? {금을 서로 굿고요?}

10802 # 예 그:썩요, 메 빨짜구기 거 멀: 리 뎌 메:다 이르케 그꾸, 요 금 너메다가 구녕 이러케 하나, 음무기 파 놔:요. {예 굿:지요, 몇 발자국이 그 멀:리 몇 미:터다 이렇게 굿고, 이 금 너머에다가 구멍 이렇게 하나, 오목하게 파 놔:요.}

10802 @ 금, 금 위에다가? {금, 금 위에다가?}

10802 # 그게 요 인제 요게 내가 디덜 떼구 이썩 던질 떼가 요기 이썩나요 요기다 또 그믐 거:요, 요기다가 구녕얼 하나 파 놔. {그게 요 이제 요기 내가 디덜 테이고 이썩 던질 떼가 요기 있잖아요, 요기다 또 금을 그어요, 요기에다 구멍을 하나 파 놔.}

10802 # 그래 도:널 확 떼저서 구녕에 드러가면 머거요. {그래서 돈:을 확 던저서 구멍에 들어가면 먹어요.}

10802 # 그래구 또 젤: 가까운 데 게 또 먹꾸, 멍능 게 아이라 그 구녕에 드러강 건 먹꾸 그다멘



도:를 던져 가주구 그 도:니 마지른 내 꺼예요. {그리고 또 제일 가까운 데 것이 또 먹고, 먹는 게 아니라 그 구멍에 들어간 건 먹고 그담엔 돈:을 던져 가지고 그 돈:이 맞으면 내 거예요.}

10802 # 몸 마지른 판 사لامي 또 도러가미 판 사لامي 치구, 그게 돈:치기라구 그르케 해:써요. {못 맞히면 판 사람이 또 돌아가며 판 사람이 치고, 그게 돈:치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10802 @ 돈:치기요? {돈:치기요?}

10802 # 예. {예.}

10802 @ 그거는 진짜 도:느로 하능 거예요? {그거는 진짜 돈:으로 하는 거예요?}

10802 # 진짜 도:니지요. {진짜 돈:이지요.}

10802 @ 그머 완전 돈내기네요. {그럼 완전 돈내기네요.}

10802 # 예 허허, 돈내기. {예 허허, 돈내기.}

10802 # 일 켜짜리. {일 켜짜리.}

10802 @ 일 켜짜리. {일 켜짜리.}

10802 # 예. {예.}

10804 # 그리지 아느른 비사치기래능 거 허구. {그렇지 않으면 비사치기라는 거 하고.}

10804 @ 예? {예?}

10804 # 비사치기. {비사치기.}

10804 @ 네네. {네네.}

10804 # 비사치기. {비사치기.}

10804 @ 그건 머예요? {그건 뭐예요?}

10804 # 비사치기라 그래요, 이 머 저 둘: 이르케 이구 와서, 그거뚜 그물 이르케 그어 노쿠 요기 다 돌: 하나씩 노쿠 고 가서 닝게 띠리능 거, 그건 그릉 걸 마니 해:짜요 머. {비사치기라 그래요, 이 머 저 둘: 이렇게 이고 와서, 그것도 금을 이렇게 그어 놓고 요기에다 돌: 하나씩 놓고 그 가서 넘겨뜨리는 거, 그건 그런 걸 많이 했:지요 뭐.}

10804 # 그래 그거 허구 또 자:치깡가, 애덜 저기 자:치기, 으른드리 자:치기 하지 말라구 우염허 다구, 근데 그걸 마니 해요. {그래 그거 하고 또 자:치기인가, 애들 저기 자:치기, 어른들이 자:치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그걸 많이 해요.}

10804 @ 아 어떠케, 그건 만드려써요? {아 어떻게, 그건 만들었어요?}

10804 # 만들지요, 자:치기 가통 거. {만들지요, 자:치기 같은 거.}

10804 @ 어트케 해:서, 어떻 걸로 어떤 나무로 만드려요? {어떻게 해:서, 어떤 걸로 어떤 나무로 만들어요?}

10804 # 아:무 나무나 맨들면 돼:. {아:무 나무나 만들면 돼:.}

10804 # 근데 대:개 인제 이 치능 거는 단단한 낭그루 허구 여기 \*\*\*\* 이르케 뛰능 건, 메뚜기라 그러지요, 고건 솔라무루 마니 해요. {근데 대:개 이제 이 치는 거는 단단한 나무로 하고 여기 \*\*\*\* 이렇게 뛰는 건, 메뚜기라 그러지요, 그건 소나무로 많이 해요.}

10804 @ 아 치능 거는뇨? {아 친는 거는요?}

10804 # 치능 건 글썤 단다낭 거 짜리깨이나 머 저 참나무루 이렇 거 맨들구, 고걸 치능 걸 자때라 그러지요, 그런 노리 마이 해짜요. {치는 건 글썤 단단한 거 짜리나무나 뭐 저 참나무로 이런 거 만들고, 그걸 치는 걸 잣대라 그러지요, 그런 놀이 많이 했:지요.}

10804 @ 그르케 해서 그건 노리를 어트케 해썬니까, 자치기는? {그렇게 해서 그건 놀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기는?}

10804 # 자:치기는 누가 메 뺨 마네 메 짜, 멀:리 가는 사لامي 그걸 자:루 재자나, 메 짜 내기지요, 메 짜 누가 먼저 나나. {자:치기는 누가 몇 번 만에 몇 자, 멀:리 가는 사람이 그걸 자:로 재잖아, 몇 자 내기지요, 몇 자 누가 먼저 나나.}

10804 # 이버네 내가 허다가 그 메 짜 몰 허든 그제, 열: 짜든 열: 짜 내기거든, 요기 다 세워 노 쿠션, 그러다 그제 안 되든 그 사람 낙방이야, 또 판 사라미 허지요. {이번에 내가 하다가 그 몇 자 못 하면 그제, 열: 자면 열: 자 내기거든, 요기 다 세워 놓고선, 그러다 그제 안 되면 그 사람 낙방이야, 또 판 사람이 하지요.}

10804 # 그 사라미 그제 제 자 수가 다 나든 그 사람 낭 거지, 이깁 거지. {그 사람은 그제 제 자 수가 다 나면 그 사람 난 거지, 이깁 거지.}

10804 @ 이기며는 머 상이 이썬요? {이기면 뭐 상이 있어요?}

10804 # 아이 상이 무슨 상이 이썬, 그, 지금마로 머 도:니 이썬요 머 그냥 내:기지 그냥. {아니 상이 무슨 상이 있어, 그, 지금처럼 뭐 돈:이 있어요 뭐 그냥 내:기지 그냥.}

10804 # 나:가 이겨따 내가 저따 머 그른 내기만 해:썬요.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뭐 그런 내기 만 했:어요.}

10804 @ 음, 또 다른, 그렁 거또 이썬꼬? {음, 또 다른, 그런 것도 있었꼬?}

10804 # 머 땅빼끼래능 거 허구. {뭐 땅뺏기라는 거 하고.}

10804 @ 그거는 어뜨게 해썬? {그거는 어떻게 했썬?}

10804 # 땅빼끼래능 건 똥구러케 이케 그레 놔:썬. {땅뺏기라는 건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 놔:어.}

10804 @ 그를 똥그라케 그림니까 아니면 네모나케 안 해요? {금을 둥그랴게 그림니까 아니면 네 모나케 안 해요?}

10804 # 똥그라케 그레요. {둥그랴게 그려요.}

10804 @ 아 그레요? {아 그레요?}

10804 # 똥그라케 그레 자주 똥그라메다 \*\* 이런 뺏으루 요러:케 해서 요걸 땅얼 내:라 그레요. {둥그랴게 그려 가지고 둥그라미에다 \*\* 이런 뺏으로 요랑:게 해서 요걸 땅을 내:라 그레요.}

10804 @ 큰 둥그라미 아페 자기 똥그라미, 뺏:을 거:서 자기 영역글 표시하는? {큰 둥그라미 앞에 자기 둥그라미, 뺏:을 그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10804 # 예 영역기 저짜게두 이꾸 그레가주 이케 이러케 튀게서. {예 영역이 저쪽에도 있고 그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튕겨서.}

10804 @ 땔:로 튕깁니까? {땔:로 튕깁니까?}

10804 # 새금파리라고 인제 이르게 다드면서 똥구라케 맨들지요. {사금파리라고 이제 이렇게 다 들어서 둥그랴게 만들지요.}

10804 # 이 튀게서 저쪽 그 사람 거기에 드러가면 이깁 거야, 이기게 되든 내가 땅얼 이러케 돌 레 재:구 {이 튕겨서 저쪽 그 사람 거기에 들어가면 이깁 거야, 이기게 되면 내가 땅을 이렇게 돌 려 재:고.}

10804 @ 아 요러케 해서 자기 퍼네, 아니, 상대 퍼네 고 영역게 드러가면 이기능 거예요, \*\* 그 다: 멍능 거예요? {아 요렇게 해서 자기 편에, 아니, 상대 편에 그 영역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 그 다: 먹는 거예요?}

10804 # 아 멍능 게 아니구 고저슨 내가 이계썬까 이만:춤 땅얼 해서 이르게 여기 내 땅이다 이 르케 되는데, 이 땅이 널버지능 거지 자꾸. {아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이겼으니 이만:큼 땅 을 해서 이렇게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이 넓어지는 거지 자꾸.}

10804 @ 아 자꾸 이계 해서 땅을 이르게 널게 만드능 거예요? {아 자꾸 이계 해서 땅을 이렇게 넓게 만드능 거예요?}

10804 # 예 널게 맨들지. {예 넓게 만들지.}

10804 @ 고계 상대 편 고기 드러가며는 그담:부터는 이제 자기가 뺏을 재:서 자기 땅을 멍능 거 예요? {그게 상대편 거기 들어가면 그담:부터는 이제 자기가 뺏을 재:서 자기 땅을 먹는 거예요?}

10804 # 예. {예.}

10804 @ 아. {아.}

10804 # 그르케 해썬요. {그렇게 했어요.}

10804 @ 예. {예.}

10804 @ 고령 게 고계 머라고요? {그런 게 그계 뭐라고요?}

10804 # 땅뻘끼라 그래요. {땅뻘끼라 그래요.}

10804 @ 아 땅뻘끼 하고, 또 판 노리 가통 거는? {아 땅뻘끼 하고, 또 판 놀이 같은 거는?}

10804 # 또 판 노린 머 모:르지요. {또 판 놀이는 뭐 모:르지요.}

10804 @ 아 정위례 그런 노리 주로 마니 해썬네요. {아 정월에 그런 놀이 주로 많이 했었네요.}

10804 # 예. {예.}

10804 # 비사치길 마:니 허구, 비사치기가 좀 마니 허구. {비사치기를 많:이 하고, 비사치기가 좀 많이 하고.}

10804 @ 젤 마니 하구요? {제일 많이 하고요?}

10804 # 응. {응.}

10804 # 겨우렌 머 어:름 얼:머 어:름 타는, 그건 씨게토 탄다 그러지요, 그렁 거. {겨울엔 뭐 얼:음 얼:면 얼:음 타는, 그건 스케이트 탄다 그러지요, 그런 거.}

10804 @ 엔:나레도 그걸 씨게토 탄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걸 스케이트 탄다 그랬어요?}

10804 # 예 씨게토 탄다구. {예 스케이트 탄다고.}

10804 @ 여기는 씨게또보다는 땅 거도 안 타나요, 눈 오며는 이케 그렁 거 안 타나요? {여기는 스케이트보다는 판 것도 안 타나요, 눈 오면 이렇게 그런 거 안 탔나요?}

10804 # 그건 안 타썬요, 씨게톨 마이 타썬. {그건 안 탔어요, 스케이트 많이 탔지.}

10804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804 @ 그거또 만들지 아나썬요? {그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10804 # 씨게토 맨들지요. {스케이트 만들지요.}

10804 @ 어트게 만드러썬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804 # 그건 지그른 만들기가 쉽:지만 엔:나레 참 그거 맨들기두 힘드려요, 어디 널:뻘지 귀허기가 힘듭니까, 그래가주 그거 맨드느라구. {그건 지금은 만들기가 쉽:지만 옛:날엔 참 그거 만들기도 힘들어요, 어디 널:판지 구하기가 힘듭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 만드느라고.}

10804 @ 딸:로 널:뻘지를 구해썬요? {딸:로 널:판지를 구했어요?}

10804 # 어트게 어트게 머 구하든 미테 그 이르게 대능 걸 구비라 그러지요, 구벌 또 그 나무다 까겨. {어떻게 어떻게 뭐 구하면 밑에 그 이렇게 대는 걸 구비라 그러지요, 굽이라 그러지요, 굽을 또 그 나무다 깎아.}

10804 # 까겨 가주 그걸 맨드러 가주 인제. {깎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804 @ 그다메 구불 만들고 나서 굽 미테 머 또? {그담에 굽을 만들고 나서 굽 밑에 뭐 또?}

10804 # 그다멘 철쌀 또 꾸부레 조애지, 근데 지그른 철싸 \*\* 철싸두 구허기가 그르케 힘들구 아주 마니 힘드러썬요. {그담엔 철사를 또 구부려 쥘야지, 근데 지금은 철사 \*\* 철사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아주 많이 힘들었지요.}

10804 @ 근데 지그른 철싸가 인는데 엔나레 철싸가 이썬썬요? {근데 지금은 철사가 있는데 옛날에 철사가 있었어요?}

10804 # 아 이썬썬, 엔나레두, 아주 글썬 그거 구허기가 그르케 힘드러썬요. {아 있어요, 옛날에도, 아주 글썬 그거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10804 @ 음 그러초 철싸가 이썬야 되니까, 철싸를 구하고. {음 그렇쥬 철사가 있어야 되니까, 철사를 구하고.}

10804 @ 그르케 해서 인제 고정시키자나요, 그다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시키잖아요, 그담에?}

10804 # 꼬챙이 또 맨드러이 되구. [꼬챙이 또 만들어야 되고.]

10804 @ 꼬챙이는 어트게 만드러써요? {꼬챙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804 # 꼬챙이는 머 어:서 머 큰 모시래두 하나 으:드면 그걸 대가릴 또 가라요. {꼬챙이는 뭐 어디서 뭐 큰 못이라든 하나 얻:으면 그걸 대가리를 또 갈아요.}

10804 # 그 기낭언 안 드러가니까, 그걸 가라 자주구 어트게 바가 자주 이르케 맨드러찌. {그 기낭은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갈아 가지고 어떻게 박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10804 @ 대가리를 그럼 인제 대가리를 갈고 대가리를 그 나무에 끼운다고요? {대가리를 그럼 이제 대가리를 갈고 대가리를 그 나무에 끼운다고요?}

10804 # 나무, 그르치, 나무에 드러가조, 빼죽형 건 어르플 꼭게 허구. {나무, 그렇지, 나무에 들어가조, 빼죽한 건 어름을 꼭게 하고.}

10804 @ 근데 빼죽항 걸 만나게 그 대가리를 나무에 바그면 빼죽항 고순 무데지자나요? {그런데 빼죽한 걸 만약에 그 대가리를 나무에 박으면 빼죽한 곳은 무더지잖아요?}

10804 # 예, 거뚜 또 가라이 돼요. {예, 그것도 또 갈아야 돼요.}

10804 @ 아 그걸 또 가능 거예요, 아. {아 그걸 또 가는 거예요, 아.}

10804 @ 여기는 머 개우리 조기바께 업짜나요? {여기는 뭐 개울이 저기밖에 없잖아요?}

10804 # 아 여기 지금 저, 큰 다리 노은 미테, 거길 마이 가짜요. {아 여기 지금 저, 큰 다리 놓은 밑에, 거길 많이 갔지요.}

10804 @ 아 거기는 쫌 깊? {아 거기는 쫌 깊?}

10804 # 응, 여기도 기저넌 왜 엔:나렌 그래 어름 \*\*\*, 여기가 이르케 얼:면 저: 미테꺼정 큼 개울 꺼정 나가요. {응, 여기도 그전엔 왜 옛:날엔 그래 얼음 \*\*\*, 여기가 이렇게 얼:면 저: 밑에까지 큰 개울까지 나가요.}

10804 # 무리 이르케 어러서 자꾸 거케가주구 거케가주구. {물이 이렇게 얼어서 자꾸 거켜[얼음이 덧붙어 두꺼워짐.] 가지고 거켜 가지고.}

10804 @ 거케가지능 건 머예요? {거케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10804 # 거케지능 건 무리 이르케 어러따가 또 거기 이 위에서 뜨신 무리 또 거기 \*\*\* 그르믄 그 꼭띠기 자꾸 어르미 자꾸 마:나지지요. {거케지는 건 물이 이렇게 얼었다가 또 거기 이 위에서 뜨신 물이 또 거기 \*\*\* 그러면 그 꼭대기 자꾸 얼음이 자꾸 많:아지지요.}

10804 @ 아 그러믄는 어르미 어러따가 노가따가 다시 그 위에 어름어:능 게 그게 거케진다고 하나요? {아 그러면 얼음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다시 그 위에 얼음 어:는 게 그게 거케진다고 하나요?}

10804 # 예 그게 그게 밤:복허머 엄:청나게 널버저요 여기가. {예 그게 그게 반:복하면 엄:청나게 넓어저요 여기가.}

10804 @ 아. {아.}

10804 # 지난해두 우리 애덜 저기 와따가 거기서버터 여기두 타구 그래요. {지나해도 우리 애들 저기 왔다가 거기서부터 여기도 타고 그래요.}

10804 # 지그른 저 무리 음:능 가짜만 지그른 장마 때, 지금 무리 나지, 가물러, 가물믄 물 하나두 안 내려가요, 그런대두 겨우리믄 그르케 물, 어르믄 마나요. {지금은 저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장마 때, 지금 물이 나지, 가물어, 가물면 물 하나도 안 내려가요, 그런데도 겨울이면 그렇게 물, 얼음은 많아요.}

10804 @ 음, 아 여기가요? {음, 아 여기가요?}

10804 # 예. {예.}

10804 @ 겨우레 왜 무리 만초, 여르메 무리? {겨울에 왜 물이 많쥬, 여름에 물이?}

10804 # 아 글썸 거케가 저서 그, 거케가 저 자주구 어르미 일케 만타구요, 무리 마능 게 아니라.

{아 글썄 거케가 저서 그, 거케가 저 가지고 어름이 이렇게 많다고요, 물이 많은 게 아니라.}

10804 @ 아 그게 거케가 진다라고 합니까? {아 그게 거케가 진다고 합니까?}

10804 # 거케 진다 그래지요. {거케 진다 그러지요.}

10804 # 거케 진다 그러구 어떤 때는 그 던무리라 그러기두 허구, 던물. {거케 진다 그러고 어떤 때는 그 덧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덧물.}

10804 @ 그이까 자꾸 어려서 다시 어:능 게? {그러니까 자꾸 얼어서 다시 어:는 게?}

10804 # 예 다시 어려, 꼭따기 와 이르게 무리 내려 와서 또 얼:구 얼:구 그 던무리라구두 허구, 거케 저따 그러구. {예 다시 얼어, 꼭대기 와 이렇게 물이 내려 와서 또 얼:고 얼:고 그 덧물이라 고도 하고, 거케 졌다 그러고.}

10804 @ 거케 저따, 던무리 언:다라고 합니까, 던무리 생겨따 합니까? {거케 졌다, 덧물이 언:다라고 합니까, 덧물이 생겼다 합니까?}

10804 # 던무리 어려따 그러지요, 던무리 생. {덧물이 얼었다 그러지요, 덧물이 생.}

10804 # 던무리 이르게 나쁜 던무리 나따 그래구, 던무리 나따. {덧물이 이렇게 나면 덧물이 났다 그러고, 덧물이 났다.}

10804 @ 던무리 나따. {덧물이 났다.}

10804 # 예 던무리 나따 이래지요. {예 덧물이 났다 이러지요.}

10804 @ 아, 그러케 해:서 인제 씨게도 타고 마니 노란데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이트 타고 만이 놀았네요.}

10804 # 예. {예.}

10804 @ 썰매는 안 타썬요? {썰매는 안 탔어요?}

10804 # 썰매는 별루 읍썬썬요. {썰매는 별로 없었어요.}

10804 # 썰매두 또 \*\*\*\* 썰매는 머 머 이썬야 맨들지 못 허구. {썰매도 또 \*\*\*\* 썰매는 뭐 뭐 있어 야 만들지 못 하고.}

10804 @ 음, 썰매는 옛날에 썰매를 만들기도 해썬요? {음, 썰매는 옛날에 썰매를 만들기도 했어요?}

10804 # 썰매 머 여기서는 만들지두 못 허지, 게:우 썰매래능 게 뭘: 하나쁜 사네 가서 나무까지 꺼꺼 가주구 이르게 타구 내려 오능 게 그게 썰매지. {썰매 뭐 여기서는 만들지도 못 하지, 게:우 썰매라는 게 뭘: 하나 하면 산에 가서 나뭇가지 꺾어 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그게 썰매 지.}

10804 # 나무까지 꺼꺼 가주구 타구 내려 오능 게 썰매예요, 땅 건 읍썬, 맨들지를 못 해썬요. {나뭇가지 꺾어 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게 썰매예요, 땅 건 읍썬, 맨들지를 못 했지요.}

10804 @ 그러면 인제 누:니, 여기는 누:니 마니 오조? {그러면 이제 눈:이, 여기는 눈:이 많이 오 조?}

10804 # 아 눈: 마이 안 와요. {아 눈: 많이 안 와요.}

10804 @ 그 누:니 마니는 안 와썬요? {그 눈: 이 많이는 안 왔어요?}

10804 # 예. {예.}

10802 @ 누:니 오며는 그래도 폭 빠지자나요, 그러며는 뭘: 신, 그냥 산 가튼데 그냥 뭉: 가니까 그 머 상:꼬 가능 거 이짜나요, 요르게? {눈:이 오면 그래도 폭 빠지잖아요, 그러면 뭘: 신, 그냥 산 같은 데 그냥 뭉: 가니까 그 뭉: 신:고 가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10802 # 아, 그 설피라 그러는데 여긴 설피르 말:만 득꾸 우리두 맨드른 바 이찌만 상:꾸 땡길 때 가 업썬요. {아, 그 설피라 그러는데 여기는 설피를 말:만 듣고 우리도 만든 바 있지만 신:고 다닐 데가 없어요.}

10802 @ 아 그래요, 만드러는 보썬썬요? {아 그래요, 만들어는 보썬썬요?}

10802 # 예 만들지요. {예 만들지요.}

10802 @ 어뜨게 만드러요? {어떻게 만들어요?}

10802 # 만드능 거는 다래나무를 찌거다가. {만드는 거는 다래나무를 찌어다가.}

10802 @ 어떤 나무요? {어떤 나무요?}

10802 # 다래나무, 다래나무래능 게 이씨요. {다래나무, 다래나무라는 게 있어요.}

10802 @ 다래나무요? {다래나무요?}

10802 # 예. {예.}

10802 @ 다래 여:는 나무요? {다래 여:는 나무요?}

10802 # 예예. {예예.}

10802 # 그 나무가 부레다 이러:케 대:른 잘 휘:저요. {그 나무가 불에다 이렇게 대:면 잘 휘어져요.}

10802 # 이르게 휘여서 요그다 가따 똥구라케 이케 맨드러요. {이렇게 휘어서 요기다 갖다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요.}

10802 @ 다리에다가 요러케? {다리에다가 요렇게?}

10802 # 아이, 크게 이르게 똥그러케 질쫘허게 이르게 맨들지. {아니, 크게 이렇게 둥그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만들지.}

10802 @ 자기 바레 마께요? {자기 발에 맞게요?}

10802 # 아이 건 바레 말, 커요, 바레 만능 게 아니야, 크:게 맨드러이 돼:요. {아니 그건 발에 맞, 커요, 발에 맞는 게 아니야, 크:게 만들어야 돼:요.}

10802 @ 아 예, 크게. {아 예, 크게.}

10802 # 크게 맨드러 가주구 거그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0802 @ 근데 이러케 휘어지며는 고 끄테는 무꺼? [그런데 이렇게 휘어지면 그 끝에는 묶어?]

10802 # 무꺼애지요. {묶어야지요.}

10802 @ 멀:로 묶습니까? {뭇:로 묶습니까?}

10802 # 머 끄늘 파:서 목편지 모시 이씨른 모슬 탁 치던지 그래 가주구. {뭇 끈을 파:서 목편지 못이 있으면 못을 탁 치든지 그래 가지고.}

10802 @ 팡: 무꺼 놔:서요, 네 그다:메? {팡: 묶어 놔:어요, 네 그다음에?}

10802 # 그래 가주선 새길 파:요, 새끼 인제 내긴 이씨른 내끄느루 요러케 요러케 다: 똥그란 데다가 고르케 맨들지. {그래 가지고선 새끼를 파:요, 새끼 이제 내끈[노끈] 있으면 내끈으로 요렇게 요렇게 다: 둥그란 데다가 그렇게 만들지.}

10802 # 상이 이래 이게 이게 그거라든 요러케 두: 주를 늘리구 석:쭈리나 녀: 쭈를 이르게 느레요. {상이 이렇게 이게 이게 그거라면 요렇게 두: 줄을 늘이고 석: 줄이나 녀: 줄을 이렇게 늘여요.}

10802 # 이 이르게 떠요. {이 이렇게 떠요.}

10802 @ 아 그러며는 이 상이 만냐게 그 다래나무라며는 주를 며꾼데 지버너요? {아 그러면 이상이 만약 그 다래나무라면 줄을 몇군데 집어 넣어요?}

10802 # 며꾼데 여러군데 지버 여치. {몇군데 여러군데 집어 넣지.}

10802 @ 여러군데 와따가따 와따가따 여러군데 그냥 치능 거예요? {여러군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여러군데 그냥 치는 거예요?}

10802 # 예. {예.}

10802 # 치구선 고기 또 요그다 대:구선 이 바레 만뚜룩 고기다 멀: 끄늘 맨드러서 여기 부뜨러 매게, 이래 해지요. {치고선 거기 또 요기다 대:고선 이 발에 맞도록 거기다가 뭇: 끈을 만들어서 여기 붙들어 매게, 이렇게 하지요.}

10802 @ 아 근데 끈만 이르게 해서 그러면 그 다래나무에 구멍을 뚜려야 되나요? {아 근데 끈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다래나무에 구멍을 뚫어야 되나요?}

10802 # 안 뚫어요, 기낭 뿌투러 매지요. {안 뚫어요, 그냥 붙들어 매지요.}

10802 @ 그냥 부투러 매능 거요? {그냥 붙들어 매는 거요?}

10802 # 예. {예.}

10802 @ 그럼 부투러 매고 그다메 그냥 바를 언지면 바리 이게 안? {그럼 붙들어 매고 그담에 그냥 발을 얹으면 발이 이게 안?}

10802 # 아 글썄 고기다 나무때기 하나 대:구선 그 바레 만뚜룩 고기다 또 꼬늘 부투러 매:요. {아 글썄 거기다 나무때기 하나 대:고선 그 발에 맞도록 거기다가 또 끈을 붙들어 매:요.}

10802 @ 아, 나무끈, 바레 말또룩 나무끈, 나무때기를? {아, 나무끈, 발에 맞도록 나무끈, 나무때기를?}

10802 # 요기다 요러케 대:애지요. {요기다 요렇게 대:야지요.}

10802 @ 나무를 대능군뇨? {나무를 대는군요?}

10802 # 예. {예.}

10802 @ 나무를 대:서 그다메 인제 뿌투러 매. {나무를 대:서 그담에 이제 붙들어 매.}

10802 # 그애 꼬늘 서르 이르게 이르게 해니까 이게 서로 열거씨이까 이게 똥구러니까 이게 일루 드러가씨몬 이게 서루 이르게 곱치게 짜: 이르게 너머가서 이게 모예 들지가 아나요. {그래 끈을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얹었으니까 이게 둥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들어갔으면 이게 서로 이렇게 겹쳐지게 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모여 들지 않아요.}

10802 @ 예, 곱치게 짜:서 모여들지 양케 한다고요, 아. {예, 겹쳐지게 짜:서 모여들지 양케 한다고요, 아.}

10802 # 그르케 맨드러써, 신:찌요. {그렇게 만들었어, 신:지요.}

10802 @ 예. {예.}

10802 @ 내끼라능 게 머여씨요, 내끼, 내끼. {내끼라는 게 뒹였어요, 내끼, 내끼.}

10802 # 내끈, 끈, 그 새끼로 \*\*\* 새끼로 이 꼬늘 가주 내끼, 꼬니라 그러지 내꼬니라구. {내끈, 끈, 그 새끼로 \*\*\* 새끼로 이 끈을 가지고 내끼, 끈이라 그러지 내끈이라고.}

10802 @ 내끈뇨? {내끈요?}

10802 # 예. {예.}

10802 @ 그 새꼬래기 꼬늘 내꼬니라고 하기도 해요? {그 새끼 끈을 내끈이라고 하기도 해요?}

10802 # 예. {예.}

10802 # 노 노끈, 노꼬느루 마니 해지요, 예, 노끈. {노 노끈, 노끈으로 많이 하지요, 예, 노끈.}

10802 @ 노꼬니라는 말: 씨요, 내끼? {노끈이라는 말: 씨요, 내끼?}

10802 # 새끼로는 노꼬느루 마니 해요, 노꼬니야 단단허니까. {새끼로는 노끈으로 많이 해요, 노끈이야 단단하니까.}

10802 @ 아 새끼로 만든 꼬늘 내꼬니라 하능 거예요? {아 새끼로 만든 끈을 내끈이라 하는 거예요?}

10802 # 응, 예. {응, 예.}

10802 @ 내이꼬닝가요, 내꼬닝가요? {내이끈인가요, 내끈인가요?}

10802 # 내끈. {내끈.}

10802 @ 내끈뇨? {내끈요?}

10802 # 예. {예.}

10802 @ 아 내꼬느루 하기도, 아 노꼬느루 마니 한다능 거조, 내끈보다는? {아 내끈으로 하기도, 아 노끈으로 많이 한다는 거조, 내끈보다는?}

10802 # 예 노끄느루 마니. {예 노끈으로 많이.}

10802 # 새끼는 해야 그 금방 다려서 꼬너지자나요, 노끄는 자 랑 꼬너지요. {새끼는 해야 그 금방 닳아서 끊어지잖아요, 노끈은 잘 안 끊어져요.}

10802 # 새끼는 머 지피 머 매걸 취:요? {새끼는 뭐 짚이 뭐 맥을 취:요?}

10802 # 노끄는. {노끈은.}

10802 @ 그러머는 그르케 인제 설피를, 만드러 두고 쓸 리:른 별로 업따능 거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설피를, 만들어 두고 쓸 일:은 별로 없다는 거조?}

10802 # 예. {예.}

10802 @ 그다:메 그 또 노:능 거 중에 이 이게 보르메 그. {그담:에 그 또 노:는 거 중에 이 이게 보름에 그.}

10802 # 해빨로리. {햇불놀이.}

10802 @ 예 그건 어트케 어트케 노라썸니까, 멀:로 어트케 만드런나요? {예 그건 어떻게 어떻게 놀았습니까, 뭘: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10802 # 옴:나레요? {옴:날에요?}

10802 @ 예. {예.}

10802 # 인제 삼삼:는 속:때 그 저르피라 그러지요, 사네 이르케 베 쌀, 삼베 만드능 거, 원 대궁 얼 그 저르필 소게다 이르케, 나물 세: 가다를 찌개요 이 참나무 만:항 걸, 팔뚝 만항 걸 해가주 구. {이제 삼 삼:는 속:대 그 겨릅이라 그러지요, 산에 이렇게 벼 쌀, 삼베 만드는 거, 원 대궁을 그 겨릅을 속에다 이렇게, 나무를 세: 가다를 쪼개요 이 참나무만한 걸, 팔뚝 만한 걸 해 가지고.}

10802 @ 나무를 세 가달로 쪼갰다고요? {나무를 세 가닥으로 쪼갰다고요?}

10802 # 응, 세: 가달, 네: 가달루 찌개요. {응, 세: 가닥, 네: 가닥으로 쪼개요.}

10802 # 요게 요만:침 찌개서 부레다 딱 빠러지게 이르케 만드러. {요게 요만:큼 쪼개서 불에다 딱 벌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10802 @ 아 네: 가달로 해서 버러지게 하고요. {아 네: 가닥으로 해서 벌어지게 하고요.}

10802 # 응, 버러지게 해:서 고고 저르플 요기다 나:요. {응, 벌어지게 해:서 그그 겨릅을 요기다 넣어요.}

10802 @ 아 저르플 넌는다고요? {아 겨릅을 넣는다고요?}

10802 # 응 너쿠, 고다메 뭇하냐른 짜리나무, 짜리나무를 벼:다 반:씩 쪽:쪽 찌개요, 바:널 찌개 가 주구 칠그루 요기 저르플 인는데 고기 도라가미 요르케 해선 창:창 돌레 감:찌. {응 넣고, 그담에 뭇하냐 하면 짜리나무, 짜리나무 벼:다 반:씩 쪽:쪽 쪼개요, 반:을 쪼개 가지고 칩으로 요기 겨릅을 있는데 거기 돌아가며 요렇게 해서는 창:창 돌려 감:지.}

10802 @ 아 이 전체를 돌려 가면서. {아 이 전체를 돌려 가면서.}

10802 # 예, 이 미테 칠, 칠그루. {예, 이 밑에 칩, 칩으로.}

10802 @ 칠그루요, 고 거테 먼저 짜리? {칩으로요, 그 곁에 먼저 짜리나무?}

10802 # 그럼 그걸, 젤: 츠:메 저르플 느쿠, 고다메 짜리나무를 요르케 저 디저버서 하야케 되게. {그럼 그걸, 젤: 처음에 겨릅을 넣고, 그담에 짜리나무를 요렇게 저 뒤집어서 하얗게 되게.}

10802 @ 하야케 되게 뒤집, 뒤지버서 노코. {하얗게 되게 뒤집, 뒤집어서 놓고.}

10802 # 응, 뒤지버 노:민선 골: 창:창 가마요, 빠저 나오지 못 하게. {응, 뒤집어 놓으면서 그걸 창:창 감아요, 빠저 나오지 못 하게.}

10802 @ 뭇로요? {뭇로요?}

10802 # 치그로. {칩으로.}

10802 @ 치그로 감:꼬. {칩으로 감:고.}

10802 # 응, 가마서 꼭 뿌뚜러 매구선 이게 인제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해져짜나요, 그래른 올리 오



민 증가늘 미뻔 때:. {응, 감아서 꼭 붙들어 매고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면 올라 오면서 중간을 몇 번 때:}

10802 @ 증가늘 또 며 뻔 매고요? {중간을 또 몇 번 매고요?}

10802 # 응 메 뻔 매구, 그, 고기다 맨: 꼬테다 밑 하나 하른 사네 관솔, 여기선 소개이라 그래요, 그 소개이를 잘게 패서 고다 메 깨 꼬자노른 그제 소개서 부리 부트민 눌러 저르피 잘 부짜나요, 잘 타자나요, 그래든 거테 싸리깨이가 타민 이르게 맨들지요. {응 몇 번 매고, 그, 거기에다 맨: 끝 에다 밑 하나 하면 산에 관솔, 여기선 소갱이라 그래요, 그 소갱이를 잘게 패서 고기다가 몇 개 쪼아 넣으면 그제 속에서 불이 붙으면 바로 겨릅이 잘 붙잖아요, 잘 타잖아요, 그러면 곁에 싸리 깨이가 타면 이렇게 만들지요.}

10802 # 그래서 그. {그래서 그.}

10802 @ 긴: 주른 머로 하나요? {긴: 줄은 뭘로 하나요?}

10802 # 그건 뭇뻥얼 이르게 해:서 미:구 올라 가지, 사느루. {그건 뭇뻥을 이렇게 해:서 메:고 올라 가지, 산으로.}

10802 @ 사느로 왜 올라가요? {산으로 왜 올라가요?}

10802 # 달마지라구 달마지헐라든 사느로 올라 가요. {달맞이라고 달맞이 하려면 산으로 올라 가요.}

10802 # 여기 달마지뽕이라능 게 이썬요. {여기 달맞이뽕이라능 게 있어요.}

10802 @ 달마지? {달맞이?}

10802 # 달마지뽕. {달맞이뽕.}

10802 @ 예. {예.}

10802 # 그애, 동네마당 달마지뽕이 다: 이썬요. {그래, 동네마다 달맞이뽕이 다: 있지요.}

10802 @ 예 그 달마지뽕으로 가능 거예요? {예 그 달맞이뽕으로 가는 가예요?}

10802 # 예. {예.}

10802 # 거게 가서 인제 달마지뽕에 가든 뭇: 하나 하든 이 떠걸 이르게 한 시리 해: 가주 와요. {거기에 가서 이제 달맞이뽕에 가면 뭇: 하나 하면 이 떡을 이렇게 한 시루 해: 가지고 와요.}

10802 # 그래 가주 거 가서 인제 뽕:미 뽕: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뽕:미 뽕:지요.}

10802 # 거 비:는 사لامي 와서 뽕:구 머 또 소:지도 올리구 그리구선. {그거 비:는 사람이 와서 뽕:고 뭇 또 소:지도 올리고 그러고선.}

10802 @ 머를? {뭇를?}

10802 # 소지리라능 걸 올레요. {소지라는 걸 올레요.}

10802 @ 소지리 머예요? {소지리 뭇예요?}

10802 # 소:지가 무:당들 머 허든 머 중이 태워서 이르게 올리자나요, 그걸 소:지라 그래요. {소:지가 무:당들 뭇 하면 뭇 중이 태워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걸 소:지라 그래요.}

10802 @ 소:지. {소:지.}

10802 # 예, 소:지 올린다구. {예, 소:지 올린다고.}

10802 # 그래구선 달 보든 달 봐:따구 또 이르게 부럴 땡게 가주구 저를 허구 그래지요 머. {그러고선 달 보면 달 봤:다고 또 이렇게 불을 당겨 가지고 절을 하고 그러지요 뭇.}

10802 @ 아 고걸 뭇 한다고요? {아 그걸 뭇 한다고요?}

10802 # 달마지헌다 그래요 달마지. {달맞이헌다 그래요 달맞이.}

10802 @ 아 그르케 달마지를 하능 거예요? {아 그렇게 달맞이를 하는 거예요?}

10802 # 예, 그래가주 머 거그서 땡 농가 먹꾸 또 내려 올 찌기든 화뽕 땡게 가주 휘, 휘둘루구 그랜는데 지그든 그거 뭇: 허자나요 인젠. {예, 그래 가지고 뭇 거기서 떡 나눠 먹고 또 내려올 적 이면 햇불 당겨 가지고 휘, 휘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뭇: 하잖아요, 인젠.}

10802 @ 그래도 불라니까. {그래도 불라니까.}

10802 # 예 불라서. {예 불라서.}

10802 @ 거기 이제 아 들고 올라 가따가 거기서 인제 부를 부치네요. {거기 이제 아 들고 올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불을 붙이네요.}

10802 # 예 부를 부쳐 가주 휘둘루구 망 내려 오구 그래썬는데 지그른 사네 올라 가지도 아나요 인젠. {예 불을 붙여 가지고 휘두르고 막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젠.}

10802 @ 그거 장:과니젠는데요, 여러 사لامي 가치 올라가쓰니까. {그거 장:관이겠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10802 # 아::유, 만:치요. {아::유, 많:지요.}

10802 # 엔:나레 우리 조그마해선 이, 동네 이 으:른드리 대:방이래능 게 이썬요, 대:방. {옛:날에 우리 조그마해서는 이, 동네 이 어:른들이 대:방이라는 게 있어요, 대:방.}

10802 @ 대:방은 머예요? {대:방은 뭐예요?}

10802 # 이 그거 동네서 대:방이라는 사람 이썬, 나두 그 몰:라요, 조그마해, 대:방이래능 거 드러 썬, 대:방하든 대:방이 이 누구 화가 더 크구 잘 맨나, 그걸 봐:요. {이 그거 동네서 대:방이라는 사람 있어, 나두 그 몰:라요, 조그마해, 대:방이라는 거 들었지, 대:방하면 대:방이 이 누구 화가 더 크고 잘 맨나, 그걸 봐:요.}

10802 @ 대:방은 그 동네 젤: 어르닝가요? {대:방은 그 동네 제일 어른인가요?}

10802 # 아이 그 대:방이라구 따루 또 뒤:요 아주 으:른 아니구. {아니 그 대:방이라고 따로 또 뒤:요 아주 어:른 아니고.}

10802 # 으:르는 동네 으:르는 머야 지그므루는 엔:나렌 그걸 구장이라 그래썬요, 지그른 이:장이 라 그러지만, 그게 으:르니지요 머. {어:른은 동네 어:른은 머야 지금으로는 옛:날엔 그걸 구장이라 그랬지요, 지금은 이:장이라 그러지만, 그게 어:른이지요 뭐.}

10802 @ 대:방은 대:방은 어떤 니:를 해요? {대:방은 대:방은 어떤 일:을 해요?}

10802 # 대:방언 동:네서 머 질문한 이:른, 질문 사람 가치 행 걸 대:방 거 이래. {대:방은 동:네서 뭐 잘못 한 일:은, 젊은 사람 같이 한 걸 대:방 그 이렇게.}

10802 @ 아 대:방이 지켜보능 거예요, 인제 이케 잘못 항 거 이썬면 인제 꾸지꺼나? {아 대:방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못 한 거 있으면 이제 꾸짖거나?}

10802 # 그럼노. {그럼요.}

10802 @ 아 그 사لامي 인제 다 이게 니:가 멀: 잘못 해:쓰니 머 벌 바다라 머 이렇 거 하능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제 다 이게 네:가 멀: 잘못 했:으니 뭐 벌 받아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08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802 @ 그르케 해서 인제 머가 크나 앙 크나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크나 안 크나 본다고요?}

10802 # 예, 화 화를 누가 누: 게 잘 매따 누가 적:따 인제 그룽 건 너무 저:그른 적따구 다시 매: 오라구 막 끄르지. {예, 화 화를 누가 누구 것이 잘 맨다 누가 적:다 이제 그런 건 너무 적:으면 적다고 다시 매: 오라고 막 그러지.}

10802 # 그 화 반능 건 하루 전날 바다요. {그 화 받는 건 하루 전날 받아요.}

10802 # 그래야 다시 맬 시가니 이짜나요. {그래야 다시 맬 시간이 있잖아요.}

10802 @ 아 그러머는 고거를 들고 올라 가기 저네 다 검:사를 바다요? {아 그러면 그거를 들고 올라 가기 전에 다 검:사를 받아요?}

10802 # 그러치. {그렇지.}

10802 @ 대:방 어:른한테? {대:방 어:른한테?}

10802 # 예. {예.}

10802 @ 왜 그걸 점:사를 바다, 그냥 아무러케나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점:사를 받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10802 # 나두 모르지요, 머 아주 어:려서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지요, 뭐 아주 어:려서 그걸 보니까.}

10802 # 그래 그 \*\* 나가선 그다멘 우리 쪼:꾸매서 보든 사네 올라 가서, 아주 아침버텀 올라 가요, 올라 가서 머 술 먹꾸, 이래구선 저 절문 사람더른, 거기 우리 다 쪼끄매서 보든, 화토허능 게요, 화토, 사네서 그 춘:데두. {그래 그 \*\* 나가서는 그담엔 우리 조:그마해서 보면, 화투하는 거요, 화투, 산에서 그 추운데도.}

10802 # 돈:내기 허느라구, 그렁 거배께 몰 뽁:씨요, 어:려선. {돈: 내기 하느라고, 그런 거밖에 못 봤:어요, 어:려선.}

10802 # 왜 우리 큰 다:른 그런 저기 읍씨요. {왜 우리 큰 다음은 그런 적이 없어요.}

10802 @ 큰 달료? {큰 달요?}

10802 # 우리 큰 다:멘 대:방두 읍꾸, 머 그렁 거 읍꾸 인젠 벌써 한 십 멘 년제는 사네 올라 가지두 아나요, 한 시보 년 돼씨 께예요. {우리 큰 다음엔 대:방도 없고, 뭐 그런 거 없고 이젠 벌써 한 십 몇 년제는 산에 올라 가지도 않아요, 한 십오 년 됐을 거예요.}

10802 # 올라 가지두 양꾸 이 미테서 바다가서, 화래능 거뚜 읍:꾸, 애:더리 그 멍 머글라구 그저넌 아주 엄청 오르는데 지그른 애더리 하나 오지두 아나요, 떡 해두 오지두 아나. {올라 가지도 않고 이 밑에서 받아가서, 화라는 것도 없:고, 애:들이 그 떡 먹으려고 그전엔 아주 엄청 오르는데 지금은 애들이 하나 오지도 않아요, 떡 해도 오지도 않아.}

10802 @ 달마지하러 떡또 가지고 올라 가요, 동네 어른드리? {달맞이하러 떡도 가지고 올라 가요, 동네 어른들이?}

10802 # 그럼뇨. {그럼요.}

10802 @ 그머 동네에서 다: 올라가네요? {그럼 동네에서 다: 올라 가네요?}

10802 # 다: 올라 가지 아나요. {다: 올라 가지 않아요.}

10802 @ 이 떡 해 가지고 올라 가고. {이 떡 해 가지고 올라 가고.}

10802 # 예 그저넌 그래씨요, 다: 올라 가구 애:드른 다: 올라 가구 그랜는데 지그른 애:들 하나두 안 와요. {예 그전엔 그랬지요, 다: 올라 가고 애:들은 다: 올라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 하나도 안 와요.}

10802 # 달마질 요기서 허는데 한 우리 현:서기가 한 삼년 나오더니 벌써 인젠 안 나와요. {달맞이를 요기서 하는데 한 우리 현:석이가 한 삼년 나오더니 벌써 이젠 안 나와요.}

10802 @ 요즈믄 머 컴퓨터하능 게 더 재미찌 거기 올라 가게씨요? {요즘은 뭐 컴퓨터하는 게 더 재밋지 거기 올라 가겠어요?}

10802 # 그땐 나와서 절허능 거 보구 으:른드리 어:편 땐 그 비수안하는 사람 보구. {그땐 나와서 절하는 거 보고 어:른들이 어:편 땐 그 비수안[손으로 비는 사람]하는 사람 보고.}

10802 @ 비수가 머예요? {비수가 뭐예요?}

10802 # 비:는 사람, 그걸 비수아니라 그래요. {비:는 사람, 그걸 비수안이라 그래요.}

10802 @ 비수? {비수?}

10802 # 응, 비수안. {응, 비수안.}

10802 @ 비수? {비수?}

10802 # 비수안. {비수안.}

10802 @ 비수안. {비수안.}

10802 # 응. {응.}

10802 # 그애 그 사라멀 하능 거 보구 절허구 그래능 걸 보구 절허구, 여느 사라미서 도:늘 돈, 돈 마닐씨기나 논능 거야, 하라버지 나두 돈: 좀 줘, 왜 그렇게 나두 절허구 돈:내구 하하. {그래 그 사람을 하는 거 보고 절하고 그러는 걸 보고 절하고, 여느 사람이 돈:을 돈, 돈 만 원씩이나 놓는 거야, 할아버지 나도 돈: 좀 줘, 왜 그러냐니까 나도 절하고 돈:내고 하하.}

10802 @ 음, 절할 때 인제 돈: 내:능 거예요? {음, 절할 때 이제 돈: 내:는 거예요?}

10802 # 예. {예.}

10802 # 한 삼년 도:늘 자주 나와서 그래더니 안 나와요 인제. {한 삼 년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더니 안 나와요 이제.}

10802 @ 아 그르케 인제 달마지도 가고 그다메 또 하능 게 또 머가 이썸니까, 또 정위레 노:능 게, 윗? {아 그렇게 이제 달맞이도 가고 그담에 또 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정월에 노:는 게, 윗?}

10802 # 윗뚜 이제 안 노라요 전부라. {윗도 이제 안 놀아요 전부 다.}

10802 @ 엔나레는 노라쪼? {옛날에는 놀았쪼?}

10802 # 예, 엔:나레는 주루 유치지요 머. {예, 옛:날에는 주로 윗이지요 뭐.}

10802 @ 머하고 어떠케 노라썌요, 유출? {뭐하고 어떻게 놀았어요, 윗을?}

10802 # 유치요? {윗이요?}

10802 @ 어떠케 만든, 어떤 유침니까, 여기는? {어떻게 만든, 어떤 윗입니까, 여기는?}

10802 # 여긴 머 싸리나무루 이르케 각썌요, 싸리나무 썌개 자주구. {여기는 뭐 싸리나무로 이렇게 꺾지요, 싸리나무 썌개 가지고.}

108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802 # 예 싸리나무 썌개 자주구 이제 머 물리미라 이렇 게 이썌나요? {예 싸리나무 썌개 가지고 이제 뭐 물림이라 이런 게 있잖아요?}

10802 @ 물림? {물림?}

10802 # 물림. {물림.}

10802 # 물림 썌니 머 이르케 해서 마리 가다가 물림 썌가 나오른 가다가 이르케 아푸루 가다가 도루 미끄러져 내레 오자나, 한, 한 발씩. {물림 썌니 뭐 이렇게 해서 말이 가다가 물림 도가 나오면 가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도로 미끄러져 내려 오잖아, 한, 한 발씩.}

10802 @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인제 그걸 싸리나무로 요즘, 어느 정도 기리로 만드려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싸리나무로 요즘,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요?}

10802 # 요정도로 맨들지요. {요정도로 만들지요.}

10802 @ 음, 한 시보 센치 고르케 이제 고걸로 이제 얼마나 메 깨 쪼갠니까? {음, 한 십오 센티 그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얼마나 몇 개 쪼갠니까?}

10802 # 네, 나무, 두: 개만 썌개면 네: 개가 나오자나요, 고르케 맨들지요. {네, 나무, 두: 개만 썌개면 네: 개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지요.}

10802 @ 맨들고. {만들고.}

10802 # 어, 맨드러서 인제 녁 똥 무리 파닐 맨드러 가지구. {어, 만들어서 이제 녁 동 판을 만들어 가지고.}

10802 # 파는 어트게 만드러, 파는? {판은 어떻게 만들어, 판은?}

10802 # 저 종이다가 이르케 그:리지요 머. {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지요 뭐.}

10802 @ 아 종이에다가 그러 자주, 근데 그, 고, 받 명칭을 다 아세요? {아 종이에다가 그러 가지고, 근데 그, 고, 받 명칭을 다 아세요?}

10802 # 알:지요. {알:지요.}

10802 @ 아 그러며는 고 명칭이 어트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요걸 머라고? {아 그러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요걸 뭐라고?

10802 # 단다 그러지 여길, 단다구, 여기에 단다구. [단다 그러지 여길, 단다고, 여기에 단다고.]

10802 @ 단다, 멀: 답니까? {단다, 멀: 답니까?}

10802 # 이래 되면, 되에다 노쿠 되면 요기다 노쿠 개면 여기다 노쿠 거리믄 이르게 허구 유:치믄 여그 오구 모른 여그 오구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면, 도에다 놓고 도면 요기다 놓고 개면 여기다 놓고 걸이면 이렇게 하고 옷:이면 여기 오고 모면 여기 오고 그런데 이걸.}

10802 @ 명칭을 여기는? {명칭을 여기는?}

10802 # 되, 개, 걸, 옷:, 모. {도, 개, 걸, 옷:, 모.}

10802 @ 아 그래요, 그다메 이쪼그로는 머예요? {아 그래요, 그답에 이쪽으로는 뭐예요?}

10802 # 건 팔방 돈:다 그래요, 돈:다. {그건 팔방 돈:다 그래요, 돈:다.}

10802 @ 예 그머 요기는? {예 그럼 요기는?}

10802 # 그건 기낭, 기낭 돈:다 그러는데요, 기낭 돈:다 그래요. {그건 그냥, 그냥 돈:다 그러는데요, 그냥 돈:다 그래요.}

10802 # 그래구 여기 가믄 팔방 돈:다 그래구. {그리고 여기 가면 팔방 돈:다 그러고.}

10802 @ 여기는 그냥 돈:다 그러구, 이 함번 왕:창 돌머는? {여기는 그냥 돈:다 그러고, 이 한번 왕:창 돌면?}

10802 # 응, 팔방 돈:다. {응, 팔방 돈:다.}

10802 @ 팔방 돈:다고 하고. {팔방 돈:다고 하고.}

10802 # 요기 오면 요기선 \*\* 이리 내려 오믄 가깝짜나요, 이진 뒤꼬자따 그래구. {요기 오면 요기서는 \*\* 이리 내려 오면 가깝잖아요, 이진 뒤꼳았다 그러고.}

10802 @ 예? {예?}

10802 # 뒤꼬자따. {뒤꼳았다.}

10802 @ 뒤꼬자따. {뒤꼳았다.}

10802 # 응, 뒤꼬자따. {응, 뒤꼳았다.}

10802 @ 증가네서 이러케 쫓: 내려 오머는 뒤꼬자따. {중간에서 이렇게 쫓: 내려 오면 뒤꼳았다.}

10802 @ 예 그다음 여기는 이르미 머니까 가장 중간? {예 그다음 여기는 이름이 뭇니까 가장 중간?}

10802 # 연: 복파네 당귀:따, 복파네다 당귀:따. {여기는 복판에 담갔:다, 복판에다 담갔:다.}

10802 @ 요게 이르믄 머:니까? {요게 이름은 뭇:니까?}

10802 # 이르믄 나 그거 모르겐는데 이르믄, 그냥 복파으루 당귀따 그래요. {이름은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냥 복판으로 담갔:다 그래요.}

10802 @ 그다:메 이르게 하능 거는뇨? {그답:에 이렇게 하는 거는요?}

10802 # 난다구. {난다고.}

10802 @ 예. {예.}

10802 # 그 일루 행: 거뚜 난다 그래구. {그 이리로 한: 것도 난다 그러고.}

10802 @ 그럼 이런 노리를 할 때는 보통 퍼니 어트게 뭇니까? {그럼 이런 놀이를 할 때는 보통 편이 어떻게 뭇니까?}

10802 # 퍼닐 그 사라미 다, 여러시믄 한 짜게 머, 열 머이믄 다서씨키 농꾸 머 이르게 장개뽀이 해 가주구 눈:찌요. {편을 그 사람이 다, 여럿이면 한 쪽에 뭇, 열 명이면 다섯씩 나누고 뭇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나누지요.}

10802 # 서르 머 니짜기니 내짜기니 그르켄 묻 해요. {서로 뭇 네편이니 내편이니 그렇게는 못 해요.}

10802 # 장개이뽀얼 해 가주구 지는 사람 편 이꾸, 둘:씩 둘:씩 해 가주 이르게 눈:찌요. {가위바

워보 해 가지고 지는 사람 편 있고, 둘:씩 둘:씩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요.}

108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802 # 예, 어떤 댄 머 작:다 그러든 넌 내편허구 내편허구 이렇 걸 이르게 너이 때든 그러케 허구두 말:구. {예, 어떤 데는 뭐 작:다 그러면 넌 내편하고 내편하고 이런 걸 이렇게 넷일 때면 그렇게 하고도 말:고.}

10802 # 여라시 이썰 찌젠 장개이뽕얼 해이 돼요. {여럿이 있을 적엔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10802 @ 우리말로는 머:지요, 이걸? {우리말로는 뭐:지요, 이걸?}

10802 # 장개이뽕허지요, 장개이뽕 허허. {가위바위보하지요, 가위바위보 허허.}

10802 @ 아 그래요, 그러케 그럼 이제 그러케 하면 무슨 내기 가통 거도 하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무슨 내기 같은 거도 하나요?}

10802 # 내기두 허지요. {내기도 하지요.}

10802 @ 내기는 주로 어떻 걸? {내기는 주로 어떤 걸?}

10802 # 아 내기 해야 그거 머 서르 머 아무것두 안 해요 서르 지구 이기구 그러치. {아 내기 해야 그거 뭐 서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서로 지고 이기고 그렇지.}

10802 # 근데 지그든 내길 하든, 사기 내:기덜 허드라구 진짜 전부라, 머 사는 내기를 해요, 지그든, 허면. {그런데 지금은 내기를 하면, 사기 내:기들 하더라고 진짜 전부 다, 뭐 사는 내기를 해요, 지금은, 하면.}

10802 # 이, 지그든 우리두 메칠 저네두 \*\*해찌만 상푸멀 거러 놔:요. {이, 지금은 우리도 며칠 전에도 \*\*했지만 상품을 걸어 놔:요.}

10802 # 상푸멀 걸:구 일뽕은 얼:마 짜리 주구 이등 얼:마 짜리 주구 이제 그르케 해, 허지요. {상품을 걸:고 일뽕은 얼:마 짜리 주고 이등 얼:마 짜리 주고 이제 그렇게 해, 하지요.}

10802 @ 윤노리를 인제 마니 해:꾼노. {웃놀이를 이제 많이 했:군요.}

10802 # 예. {예.}

10802 @ 윤노리 하고 또 머 다른 노리 하능 거, 노:능 거는 업써씀니까? {웃놀이 하고 또 뭐 다른 놀이 하는 거, 노:는 거는 없었습니까?}

10802 # 아 주루 머 지그미야 머 화토가 고:스도비 그게 이:리지요 머. {아 주로 뭐 지금이야 뭐 화투가 고:스툼이 그게 일:이지요 뭐.}

10802 # 지금 \*\*\*\* 이렇 거또 안 해요, 주로 화토지 이젠. {지금 \*\*\* 이런 것도 안 해요, 주로 화투지 이젠.}

10802 @ 그 정위레 하능 거 쯡에서 널뛰기도 하능 거도 이썬나요? {그 정월에 하는 거 중에서 널뛰기도 하는 것도 있었나요?}

10802 # 예 널뛰기 아주머니드리 해지요. {예 널뛰기 아주머니들이 하지요.}

10802 @ 어르신도 해써요? {어르신도 했어요?}

10802 # 아 남자드른 잘 안 해요. {아 남자들은 잘 안 해요.}

10802 # 남자드른 잘 못: 뽕:요, 대개. {남자들은 잘 못: 뛰어요, 대개.}

10802 @ 아 그래요, 금 누가 주로?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주로?}

10802 # 여자드리 잘 뛰조. {여자들이 잘 뛰조.}

10802 @ 그건 누가 만드러 조요, 만드러 주능 거는? {그건 누가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는 거는?}

10802 # 그거 만드러 주능 거 머 동:네 그 저 그 느:리 조와야 아:무나 그걸 만드러 주는데 느:리 업써요 느:리, 느:리두 문제구, 그래 늘: 인는 지비가 참: 드무리요 그게. {그거 만들어 주는 거 뭐 동:네 그 저 그 널:이 좋아야 아:무나 그걸 만들어 주는데 널:이 없어요 널:이, 널:도 문제고, 그래 널: 있는 집이 참: 드물어요 그게.}

10802 # 느:리 지금두 늘:까미 드무려요. {널:이 지금도 널:감이 드물어요.}

10802 # 느:른 이르케 질:파랑 게 이르케 뚜꾸와야지 그게 암 뿌러지지, 뿌러지자나요. {널:은 이렇게 가:다란 게 이렇게 두꺼워야지 그게 안 부러지지, 부러지잖아요.}

10802 @ 그 사네서 해 오면 되자나요, 소나무 이르케 해:서. {그 산에서 해 오면 되잖아요, 소나무 이렇게 해:서.}

10802 # 해 오는데 그게 옐:나레, 지그른 나무가 만치만 옐:나렌 나무가 드물자나요. {해 오는데 그게 옐:날에, 지금은 나무가 많지만 옐:날엔 나무가 드물잖아요.}

10802 # 그 부:자찌비나 참 느:리 하나씩 이찌, 읍:는 지비는 읍:썌요 그거뚜. {그 부:жат집이나 참 널:이 하나씩 있지, 가난한 집은 없:어요 그것도.}

10802 @ 그럼 이제 부자찌베 가서 다 늘:뛰기, 느:를 뛰어나요? {그럼 이제 부жат집에 가서 다 널:뛰기, 널:을 뛰었나요?}

10802 # 아 그건, 부자찌비서 내 놔: 주지요 머, 늘: 뛰라구. {아 그건, 부жат집에서 내 놔: 주지요 뛰, 널: 뛰라고.}

10802 @ 근데 늘: 뭘 때 늘:도 이썌야 되고 또 머가 이썌야, 어트게 만드나요, 고 만드능 거? {그런데 널: 뭘 때 널: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어떻게 만드나요, 그 만드능 거?}

10802 # 머요? {뭐요?}

10802 @ 보셔썌요, 늘: 만드능 거? {보셨어요, 널: 만드능 거?}

10802 @ 늘: 만드려야 되자나요, 만드는데 팜만 이썌면 안 되자나요, 줄도 이썌야 되고, 도꾸 머? {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줄도 있어야 되고, 도꾸 머?}

10802 # 머 주른 읍썌요, 느:른 주른 읍썌요. {뭐 줄은 없지요, 널:은 줄은 없어요.}

10802 @ 아 아 늘:. {아 아 널:.}

10802 # 어, 구네가 주리찌. {응, 그네가 줄 있지.}

10802 @ 아 예, 제:가 그네하고 쫘 차까글 핸:네요. {아 예, 제:가 그네하고 쫘 착각을 했:네요.}

10802 # 느:른 모기라구, 이, 큰: 나무토마 기렁 걸 가따가 노키두 허구 대:개 장자걸 무꺼서 노치요. {널:은 목이라고, 이, 큰: 나무토막 이런 걸 갖다가 놓기도 하고 대:개 장작을 묶어서 놓지요.}

10802 # 장자글 꼬:퐁 무꺼노쿠 이 장자기, 뛰기 때무네 거기다 가마니나 멍서걸 까라요, 그러믄 이 늘: 들 딱딱해지게 잘 똬:진다구요, 그러케 해요 그냥. {장작을 꼭:꼭 묶어놓고 이 장작이, 뛰기 때문에 거기다 가마니나 멍석을 깔아요, 그러면 이 널: 덜 딱딱해지게 잘 뛰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요 그냥.}

10802 @ 고 고 중가네? {그 그 중간에?}

10802 # 예 복파네다가. {예 복판에다가.}

10802 # 그래 가주 이 양짜게 올라가서 늘: 뛰능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 양쪽에 올라가서 널: 뛰는 거지요.}

10802 @ 그다메 늘: 말고 머? {그답에 널: 말고 뭐?}

10802 # 그 그:네, 그:네는 머 대:개 동네 절문싸람드리 디리 해 가주구 지필 거더 디레가주구, 그 지피 머 엄청 드러가요, 그 지필 그래 가주 사라미 여서시아, 일구비야 그걸 디레요, 일곱 안 가 짐 몬 떠레요. {그 그:네, 그:네는 뭐 대:개 동네 젊은 사람들이 들입다 해 가지고 쥘을 건어 들어 가지고, 그 쥘이 뭐 엄청 들어가요, 그 쥘을 그래 가지고 사람이 여섯이어야, 일곱이어야 그걸 들 여요, 일곱 안 되면 못 들여요.}

10802 @ 아주 굶:젠네요, 그러머는? {아주 굶:졌네요, 그러면?}

10802 # 예 국:찌 이르케. {예 굶:지 이렇게.}

10802 # 처:메는 아주 하노کم 잘 되지요. {처음에는 아주 한 움큼 잘 되지요.}

10802 # 그래 인제 자꾸 느러나면 이게 쫘 가느러지지만. {그래 이제 자꾸 늘어 나면 이게 쫘 가

늘어지지만.}

10802 # 처:메 하노쿰 되게 디레요. {처음에 한 움큼 많이 들어요.}

10802 @ 안 떠러저요? {안 떨어저요?}

10802 # 안 떠러지지요. {안 떨어지지요.}

10802 @ 그럼 그러케 해서 그다:메 파는뇨, 어트게 맨드러요, 그거를? {그럼 그렇게 해서 그담:에 판은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10802 # 그건 찌개라 그러지, 찌개. {그건 찹개라 그러지, 찹개.}

10802 # 찹개래능 거는 나무 두: 개를 이르게 해 노쿠션 이 지푸루 이르게 열기설기 이래 해 가 주 맨드러요. {찹개라는 거는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해 놓고선 이 쥔으로 이렇게 열기설기 이래 해 가지고 만들어요.}

10802 @ 갈:게 긴: 나무? {갈: 게 긴: 나무?}

10802 # 예 두: 개를 가지구 이르게 두: 개를 노쿠 이작 이르게 여꺼요, 여꺼서. {예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쪽 이렇게 엮어요, 엮어서.}

10802 @ 그러니까 나무, 만나게 나무가 지금 이르게 이썬머 요러케 합니까 아니면 요러케 합니까? {그러니까 나무, 만약에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합니까 아니면 요렇게 합니까?}

10802 # 아이 이리케 양쫘그루.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10802 @ 아 두: 개 나무가 이썬머는? {아 두: 개 나무가 있으면?}

10802 # 예 이르게 해서 요그 새가늘 여꺼서 요만침 냉기지 이럼, 이 구네쭈리 드러가게. {예 이렇게 해서 요기 사이를 엮어서 요만큼 남기지 이러면, 이 그네 줄이 들어 가게.}

10802 # 그래야, 이 오그라들지 앙쿠 이게 요기 사람 바르 놀: 쭈가 이짜나요. {그래야, 이 오그라들지 앓고 이게 요기 사람 발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10802 @ 어뜨케 한다고요, 구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멍을?}

10802 # 구녕을 찹개래능 건 요르게 노쿠션 요기에 바리 여 양짜게 요기 \*\* 요만큼씩 냉게나요, 요기 그렇게, 복판만 여꺼요. {구멍을 찹개라는 건 요렇게 놓고선 요기에 발이 여기 양쪽에 요기 \*\* 요만큼씩 남겨 놔요, 요기 그렇게, 복판만 엮어요.}

10802 @ 아 복판만 여꺼서? {아 복판만 엮어서?}

10802 # 예 양:짜게 요 그 쪽: 귀가 나가게 이 구네쭈리 이르게 이르게 드러가게. {예 양:쪽에 요 그 쪽: 귀가 나가게 이 그네 줄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10802 @ 아 예. {아 예.}

10802 # 응 쭈리 드러가게, 그래이 이게 안 떠러지지요. {응 줄이 들어가게, 그래야 이게 안 떨어지지요.}

10802 @ 음, 그르케 해서 인제 그네를 만드러, 예저네는 그냥 다: 만드러썬네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네를 만들어, 예전에는 그냥 다: 만들어 썬네요?}

10802 # 예 다 만드러 썬지요. {예 다 만들어 썬지요.}

10802 # 그잉께 지그른 여기 나무드리 음는데 엔:나레 여기 아주 저:기 나가든 그 지금 하꼬 터에 큰:: 미류나무 드레 이썬썬요, 그래 그 미류나게 올라가서 인제 절문 사람드리 나웨 잘: 오르는 사람미 거그 올라가 그 가달썰 매:구.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나무들이 없는데 옛:날에 여기 아주 저:기 나가면 그 지금 학교 터에 큰:: 미류나무 들에 있었어요, 그래 그 미류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무에 잘: 오르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 그 가달을 매:고.}

10802 @ 가다를 맨다고요? {가달을 맨다고요?}

10802 # 가, 나무까달, 나무까다레다 뿌뜨리 매:구, 그러치요. {가, 나무가달, 나무가달에다 붙들어 매:고, 그렇지요.}

10802 # 그래가주 어느 정도 뛰다가 인제 쭈리 \*\*\*\* 꼬너질 썬도가 되든 몰 뛰게 허구, 꼬너뿌리



지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뛰다가 이제 줄이 \*\*\*\* 끊어질 정도가 되면 못 뛰게 하고, 끊어 버리지요.}

10802 # 어 며칠씩 뛰:요 그건 또. {어 며칠씩 뛰어요 그건 또.}

10802 # 우리두 지금 저 벌:통 인는데 거기 아주 감: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두: 개가 이썩썩요. {우리도 지금 저 벌:통 있는데 거기 아주 감: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10802 @ 벌:통에요? {벌:통에요?}

10802 # 예 벌:통 저기 인는데. {예 벌:통 저기 있는데.}

10802 # 근데 거기다 큰:: 낭글 양:짜게 또까치 가니까 거기다 가따 언저요, 미구, 미테서 올레조 가주 바쭈를 내려, 올레서 고그다 그네노쿠 고그다 오푸간 데다 그넬 매짜나요. {근데 거기다 큰:: 나무를 양:쪽에 똑같이 가니까 거기다 갖다 얹어요, 메고, 밑에서 올려줘 가지고 밧줄을 내려, 올려서 거기다 그네 놓고 거기다 움푹한 데다 그네를 땃잖아요.}

10802 # 나무가 양:짜게 이래 서썩은 여기다 낭글, 큰:: 낭글 근네노쿠 거기다 매:서 뛰구 그래썩요. {나무가 양:쪽에 이래 서 있으면 여기에다 나무를, 큰:: 나무를 건너 놓고 거기다 매:서 뛰고 그랬어요.}

10802 @ 아 남자들도 헨나요? {아 남자들도 헨나요?}

10802 # 구네는 남자들도 해, 뛰지요. {그네는 남자들도 해, 뛰지요.}

10802 @ 예? {예?}

10802 # 그 남자들도 똬:썩요, 그래 이 주로 그래도 여자드리 마이 똬:요, 여자드리 잘 똬:요. {그 남자들도 뛰었어요, 그래 이 주로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뛰어요, 여자들이 잘 뛰어요.}

10802 @ 그 언제썩게 마니 헨나요, 주로, 보르메 마니 하나요, 초하루에? {그 언제 적에 많이 헨나요, 주로, 보름에 많이 하나요, 초하루에?}

10802 # 아 오:월 다노에. {아 오: 월 단오에.}

10802 @ 아 다노에만? {아 단오에만?}

10802 # 응, 오: 월 다노에 마이 해 그건. {응, 오: 월 단오에 많이 해 그건.}

10802 @ 음. {음.}

10802 @ 여기는 그 옌나레 머 보메 노능 거 중에서, 아이, 항가위에 강강술래 가툼 거도 헨나요? {여기는 그 옛날에 똬 봄에 노는 거 중에서, 아니, 한가위에 강강술래 같은 것도 헨나요?}

10802 # 아 강강술래 몰라요. {아 강강술래 몰라요.}

10802 @ 아 그래요, 그럼 머가, 무슨, 어, 어떤 노리 그, 그 이썩썩? {아 그래요, 그럼 똬가, 무슨, 어떤 놀이 그 있었쥬?}

10802 # 추서게는 머 노리허능 걸 모르겐는데요. {추석에는 똬 놀이하는 걸 모르겐는데요.}

10802 @ 차전노리라능 건 여기도 헨나요? {차전놀이라는 건 여기도 헨나요?}

10802 # 안 해썩요. {안 했어요.}

10802 @ 그렁 거 업썩꾸요, 예. {그런 거 없었고요, 예.}

10802 @ 그 무슨, 영동할머니 오는 노리 그렁 거? {그 무슨, 영동할머니 오는 놀이 그런 거?}

10802 # 예? {예?}

10802 @ 영동할머니 오는 거, 영동하라버지? {영동할머니 오는 거, 영동할아버지?}

10802 # 아 그렁 거하과 몰라요. {아 그런 거하고 몰라요.}

10802 @ 그렁 거도 업꾸요. {그런 것도 없고요.}

10802 # 예. {예.}

10802 # 여긴, 추석되든 증작 추석나른 놀:지두 몰허구 산수예, 산수예 가느라구 머, 멀, 멀:믄 하루 거기 가따 오믄 끈날께요, 머, 지그믄 차가 이썩이까 썩:썩만, 거러 나가따 오믄 해지구 마라요, 하하. {여긴, 추석되든 정작 추석날은 날:지도 못 하고 산소예, 산소예 가느라고 똬, 멀:면 하루

거기 갔다 오면 끝날 거요, 뭐,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쉽:지만 걸어 나갔다 오면 해가 지고 말아요, 하하.}

10802 @ 음 어르신 여기 엔나레 그 엔나렌 약또 업써짜나요, 약꼭또 업꼬? {음 어르신 여기 옛날에 그 옛날엔 약도 없었잖아요, 약국도 없고?}

10802 # 업써찌요. {없었지요.}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벼가 다이거가네. {벼가 다 익어가네.}
20101	벼	벼요
20102	이삭	벼 이삭교.
20103	볍씨	벼씨
20103	볍씨	벼 종자라고하지요.
20104	못자리	모자리
20104	못자리	모 모자리
20105	모판	모 파니라그러지요.
20106	쟁기	호리 호리연장
20106	쟁기	보가래
20107	보습	버섯
20107	보습	버서픈 이끄치 {보습은 이 끝이}
20108	벼	버시랑게 이썰요.
20108	벼	벼
20108-0-1	-이	버시 읍:쪼요
20109	극쟁이	근데 흑쪼라 (+벳이 없으면 "흑지", 벳 이 있으면 "보가래")
20109	극쟁이	이건 흑쪼래
20110	썰레	쓰:레
20110	썰레	쓰:레다 번지
20111	번지	번지대썰요. {번지 대었어요.}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흑땡어리가
20114	고무래	고물개라 그래요.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예예 고물개고
20114-2	고무래(재 용도)	거:도 고물개고
20114-3	고무래(흙 용도)	이거 고물개라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이곳에서는 당기는데 초점을 둬.)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쇠시랑이라고
20116	곡괭이	곡괭이라고
20116	곡괭이	곡괭이
20117	괭이	아, 괭이
20118	삽	사푸루 파능거조.
20119	호미	등지허무 등지(+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호미)
20119	호미	호미라 그래지요.(+일반적으로 "호미"라 고 함.)
20119	호미	외기 호미(+쇠가 가늘고 길게 생김)
20120	농기구	거 농쟁기라 그래지요.
20120	농기구	농기구 이러케
20121	짐	짐: 마~이 나따
20122	짐매다	짐:매기라고

20122	김매다	짐:매기
20123	애벌 매다	아이맨다고
20123-1	두벌 매다	두번째는 두:벌
20123-1	두벌 매다	두 두벌맨다구
20123-1	두벌 매다	두벌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맨다구
20124	논두둑	논뚝
20124-1	논두렁	논뚜러기 너머 크다(+ "논둑"과 "논두렁"의 차이가 없음.)
20124-1	논두렁	야 논뚜럭 쫘 크다이러케 하고
20125	밭둑	그 바뜨러기라 그래지요.
20125	밭둑	바튼 바뜨러기라고
20126	밭두둑	밭뚜둑
20126	밭두둑	두둑
20126	밭두둑	두두기 마자요.
20127	밭고랑	여기 고:랑이
20127	밭고랑	받 고:리 빠저따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고:를 켜다고
20128-2	이랑밟기	버리바키(+ "어"가 저절화됨.)
20128-2	이랑밟기	보리 바끼
20129	보리	보리말고 이기 수수나?
20129	보리	보통 머 보리가 그래지
20129-1	가을보리	갈:보리
20129-2	봄보리	봄보리
20130	보리쌀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갈:카리
20132	감부기	감베기는
20132	감부기	버리감베기
20132	감부기	감베기라고 이썬요.
20133	두엄	뒤엎뎨미가
20133	두엄	뒤엎뎨미라 그래요.
20133	두엄	뒤엎뎨미
20134	거름	거르미라고(+사람의 똥 등)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바시미한다+이른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그래지요.
20201	추수하다	갈:거지라구
20201	추수하다	바시미(+이른 추수를 해서 거둬들이는 곡식)
20202	벼단	벼단
20202-1	벼단(한 줌정도)	벼따니라고(+작게 묶은 것.)
20202-1	벼단(한 줌정도)	여기는 그냥 벼따니라고 하지요.(+작은 단)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태치능거 태따는(+태를 치기 위한 단)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태판(+중간 정도의 단)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무따니랑게 이썬요.(+크게 묶은 것.)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무판(+아주 큰 단)

20203	가리(積)	고건 나까리
20203	가리(積)	나까리
20204	가리다(積)	싸을제는 가린다고그래요.
20204	가리다(積)	벼나까리 가레라.
20205	벗가리	벼나까리 가레라.
20206	난가리	나까리고
20206	난가리	벼까리가 나까리
20207	타작	타:적
20207	타작	타:적현다그래지요.
20208	벼훑이	찌깨
20208-1	그네	홀태구
20209	개상	태또리라고
20209-1	자리개	태쫄
20209-2	자리개 질	태쫄
20209-2	자리개 질	태친다그래요.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깨장치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아들
20210-3	도리깨꼭지	*
20211	벗짚	벼짚 만:타
20211-0-1	-을	벼찌피 마:늬 {벗짚이 많으면}
20211-0-2	-에	벼찌페 불 라따.
20212	새 패기	꼬:개~이 지꼬개~이라고
20213	쭈정어	쭈제~이
20214	티	북떼기
20214	티	티라고 그래지요
20215	까끄라기	벼갈:치
20215	까끄라기	버리먼 버리갈:치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애비
20219	흥년	송녀니라 그래지요 송년
20220	머슴	머슴
20221	놉	날품
20221	놉	날품파리라 그래지요
20221-0-1	-을	날품파리꾸니 만:타
20222	품앗이	긴 푸마시
20223	품삯	풍깁
20223-0-1	-으로	풍깁쓸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애 찧는다
20301	방아	그거또 방아게 찧요.
20302	디딜방아	발방아
20303	방앗공이	방애 꼬~이
20304	방아확	방애 확
20305	물레방아	이긴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이긴 연자방안테
20307	절구	절구두 이꾸
20307	절구	절구
20308	절구통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6 껍질  
20316 껍질

절구째~이  
절구질  
그냥 제지요 머  
버리째  
왕:게  
고건 덩게  
참나무 검부리라그래고  
검부리라그래지요 머  
술 검부리라그래요  
꺾:껍떠기라  
밤껍떠기라그래요

####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8 좁쌀  
20409 잘다  
20409 잘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 옥수수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곡씨기랑건  
곡씨  
찹쌀  
멥쌀  
쌀보리라능게 인는데  
조이  
차조  
메조  
좁싸리라하고  
좁쌀  
젤지요  
좁싸른 젤지요.  
조이삭  
보리말고 이기 수수나?  
이게 수수가튼데  
수수라고 허는데요.  
장목쭈수  
찰수수가 이꼬  
찰수수  
메수수  
메수수가 이꼬  
수수때면 수수때고  
가 강내~이  
옥쭈수  
옥씨기두  
차록쭈수  
메옥쭈수  
귀:리  
메물  
콩이  
콩깍찌  
메주쭈다 메주  
거 매:단사람도 이꾸  
메주 매:단다구  
메줄 띄워요.  
곰:패~이라그래지요.  
강낭콩  
콩기름

20424	깨	깨라고 하지요.
20424	깨	보통 깨
20424-1	참깨	창깨들: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소허다
20425	고소하다	고소허니까 마니머거따
20425	고소하다	고소형거 창깨기르미예요.
20425	고소하다	꼬소허다그래조.
20425	고소하다	꼬소허다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수
20502	나물	나무른 나무린대
20502	나물	기냥 나무리지요.
20502-1	"나물(밭 재료)"	*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재:배헨 나무리라고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나물 반차니라고그러조.
20503	푸성귀	푸성구
20504	다듬다	다듬는다
20504	다듬다	다드머라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가 마시따
20507	썰다	썰:다고그래조.
20507	썰다	채 썰:라라그래조.
20507	썰다	소메기 썰:라라
20507	썰다	채 썰:다그래요
20507	썰다	채 썰:다구
20508	무청	무: 청이라고도허구그래요
20508	무청	요거 생겨는 월래 무:청이라고래지요.
20509	시래기	무: 씨래기라고
20509	시래기	무: 씨래기라고 여기선 그래요
20509	시래기	씨래기(+말린 것)
20510	무말랭이	무:말리기
20510	무말랭이	무:말리기(+할머니)
20511	장다리무	무:장다리
20512	배추	여기는 배:차라그래요.
20512	배추	배:차두
20513	고깡이	소:꼬게~이
20514	오이	무래
20515	오이지	오이김치라래지요.
20516	오이소박이	오이소:배기(+할머니)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바긴데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0	감자	감잔데
20521	우엉	*
20522	파	파:가 만타

20523	고추	꼬추
20523	고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5	미나리	메나리(+할머니)
20526	부추	부:추
20527	상추	생추
20527	상추	생추
20528	마늘	건 마누린데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새~이
20530	냉이	나새~이라그래요
20531	달래	달래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기요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이건 쌀바비라그래고
20602	찬밥	찬밥
20602-1	더운밥	건 더운바비라그래지요.
20603	조밥	조 조밥
20604	누룽지	건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룬바비 되는데
20605	눌은밥	누룬바블 해명능거
20606	송늡	송님무리라그래요.
20607	뜨물	쌀뜨무리라그래요.
20608	김(蒸氣)	여기 김:나온다
20608	김(蒸氣)	기:미 나온다
20609	갱죽(羹粥)	국쭈기라그래지요 국쭈
20610	싱겁다	싱거워서
20610	싱겁다	소구만너먼 싱겁따 그래지요.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쭈를 마:니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	칼국수	칼국쭈라그래요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허면국쭈라그래요
20613	건더기	건: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고기조차에다
20614	고명	조차라 그래요
20614	고명	조:차
20615	꾸미	찌미라그래요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기:물
20618	수제비	뜨덕꾸기라그래요
20619	끼니	끄니라구두허구
20620	미움	미우물
20620	미움	미움미우미라그래요



20620-1	(미움)을 끓이다/쭈다/삶다	미우물 궁까 썩:야조.
20620-1	(미움)을 끓이다/쭈다/삶다	여기선 미움 쏘다
20621	엿기름	질금
20622	식혜(食醴)	단술
20623	식혜(食?)	*
20624	달다(甘)	더 달고
20624	달다(甘)	게 너머 다려서 몸머께따
20625	가루	가루가
20625	가루	가루
20625	가루	그 가루가 만:타
20625-0-1	-에	가루에
20625-0-1	-에	가루에다
20625-0-2	-을	가루를 맨진다
20625-0-3	-도	가루지요.
20626	밀가루	그밀가루즘 가주와라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7	밀기울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미스까루라그래
20628	미숫가루	미스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1	간장	간자~이라그래요
20702	된장	된:장여기는
20703	고춧가루	고치까루 머
20703	고춧가루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고치장에 고치장
20705	소금	소구메다 저리지.
20706	김치	김치 당귀따구
20707	김장	김장한다구러구
20708	깍두기	깍뛰기라고허고
20708	깍두기	깍뛰기
20709	나박김치	물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김치 당군다구
20710-0-1	-고	당군다구
20710-0-2	-어라	김치 당귀따구
20711	양념	양녀마고 가치 {양념하고 같이}
20711	양념	양여를 해자느니까 버무린다그래요 그
20711	양념	겉
20711	양념	양염
20712	버무리다	김칠 버무레가주구
20713	버섯	표고버섯 가주와라
20713-0-1	-이	버서피라그래지요
20713-0-1	-이	버서페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반차니라
20714-2	숙주(나물)	그건 녹뚜나물
20715	두부	두부가 마시따
20716	비지	건 비지
20716-1	비지떡	근 비지떠기라그래지요

20717	달걀	겨란가튼데요(+신)
20717	달걀	달기아리라그래지요(+구)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빋다	송편 빨리 비즈라구
20721	빋다	송편늘 빨리 비저라
20721	빋다	송:편 빈는다
20722	흰떡	찰떡
20723	고물	거무리라그래지요.
20724	팔죽	파죽
20725	새알심	옹시미
20725	새알심	옹시미는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강제~이 튀긴다그래지요
20727	튀밥	쌀강제~이먼 쌀강제~이
20728	술	수리조.
20729	막걸리	마걸리
20730	소주	소주
20731	부침개	부치개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1	부뚜막	부뚜마기라
20802	가마솥	가매소뚜
20802	가마솥	가매
20802	가마솥	가매솥
20802-0-1	-을	가매소치 무겁따
20802-0-1	-을	소치라그래요
20802-0-2	-에	큰 가매소테다
20803	아궁이	부강지
20803-0-1	-이	부강지가 크다
20804	그을음	끄으림 끄:름
20804	그을음	끄으리미라그래요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영기 나오지요 영기
20806-1	내(煙氣)	*
20807	그을리다	마~:이 끄실러따허기도 허구머
20807	그을리다	끄실러저찌
20808	부지깻이	비지깨~이
20809	부삽	비:대~이
20810	넙다	시굽따
20810	넙다	영기 마시먼 시구꾸
20811	넙비	넙비요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반찬끄름
20812-0-1	-을	그름 그르시 만타
20813	뚜껑	밥뚜꺼~이라그래지요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복찌개
20815	사발 뚜껑	사기복찌개라 그래지요

20816	솔뚜껑	쇠당
20817	밥주걱	긴 주거긴데요
20817	밥주걱	밥쭈걱
20818	순가락	수갈
20819	젓가락	절갈
20820	종지	간장종지두 이꾸
20820	종지	간장 종지
20821	보시기	탕:끼
20822	뚝배기	뚝배기
20823	접시	사라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남박
20826	바가지	바긴데요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군다구
20828	행구다	빨래를 빨리 행귀라
20829	설거지	빨리 설거지 해:라
20830	개숫물	그 설거지물
20830	개숫물	자신무리 즉:따
20831	찌꺼기	찌꺼레기
20831	찌꺼기	찌꺼지
20831	찌꺼기	찌꺼지기무를
20832	화로	화:루
20833	화롯불	화:루뿔
20834	부젓가락	불찌깨
20834-0-1	-이	불찌깨가 이따
20834-1	불순가락	불까래
20835	다리쇠	구멍쇠
20835	다리쇠	구멍쇠가
20836	석쇠	설쇠
20837	도시락	변:또(+구)
20837	도시락	지그른 도시라기라고(+신)
20838	바구니	바구미
20839	뒤주	두지 쌀 두지
20840	찬합	차나븐(+할머니)
20841	강판	간판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상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뻥
20902	벽	벼기 다다나다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벽짱두 이꾸
20905	감추다	감췌다
20905	감추다	감췌다
20905	감추다	감췌라
20905	감추다	감췌다그래지요

20905	감추다	감춰따
20906	흙	흙:짐나따
20906	흙	흔지비 나서
20907	돌찌귀	돌:쪼구요
20907	돌찌귀	돌:쪼구
20907-1	암썩	돌:쪼구라그래요
20907-2	수썩	돌:쪼구라그래요
20908	미달이	미:능건 미다지라그래요 여기선
20909	여달이	무니라그려고
20910	덧문	덧문
20910	덧문	덧무는 여러놔라
20911	열다	여러야 드러가지요
20911	열다	무늘 열:고 드러와따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자물쇠 장군다구
20914	간히다	가두키능거조 머.
20915	열쇠	으—르:썩
20915	열쇠	열:썩
20916	잠그다	장군다구
20916	잠그다	장귀따구
20917	구멍	구녀~이쥬요
20917	구멍	문꾸녕 똥룬다
20917	구멍	구녀~이 똥러저따
20917-1	취구멍	취구멍이지
20917-1	취구멍	취구멍으로 취가
20918	찢다	찌찌마러라
20918	찢다	찌즈문
20918	찢다	찌저버려야
20918	찢다	종일 찢저서
20919	구들	구들짱
20920	흙받기	흑빠끼
20921	흙손	*
20922	흙칼	이게 흐카리에요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그거또 흐카리라그래는데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흐카리라그래요
20923	바르다	바른다그래지요
20923	바르다	잘 바르다
20923	바르다	빨리즘 발러라
20924	장판	지그문 장파는
20925	종이	종이지요
20925	종이	종이루
20926	도배	되배 되배
20927	구석	구석 지꾸석
20928	굽도리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깨끄태저따
20929	깨끗하다	깨끄터니까
20930	문지방	문찌방
20930-0-1	-에	문찌바~이 너머 뉘따
20931	툼	트미지
20931	툼	트미 너므
20932	가장자리	가장자리(+다)
20932	가장자리	가:새~이(+소)
20933	가운데	가운데라고도허고 북파니라고도 허고

20933	가운데	(+"복판"을 많이 사용함.)
20933	가운데	복판
20934	시렁	복판나라그래는데요(+다)
20934	시렁	언저두능건 시렁이라구
20934	시렁	시렁이라그래요(+집안에 있는 것)
20934	시렁	언능건 다 시렁이라그래요(+바깥에 있 는 것)
20935	살강	부어게는 시렁을 맨다그래지
20936	선반	선바니라구두허구
20936	선반	널빤지로 놓:거는 시렁을 매능거지.
20937	서랍	서라비라그래요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
20940	걸다	걸:지요
20940	걸다	거러라
20941	호룽	등장이라고도허구
20941	호룽	호룽뿌리구만
20941	호룽	호룽뿌리라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이 너무 높다
21001-0-1	-에	지붕에 올라가지마라
21002	기와	기와구만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기낭 기와짜~이라고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보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층에
21009	처마	처마 서까래는
21010	오두막	막싸리지비라고
21010	오두막	막싸리라그래요
21011	초가집	거 초가지비라그래지요
21012	이영	이:영
21012-0-1	-에서	이영을 여꺼야
21013	용마름	용마루는
21014	기스락	지붕초시레미
21014	기스락	초시레미
21015	낙숫물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지시랑무리라고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곶새만 언즈문
21017	용마루	기와 용마루아니예요
21017	용마루	곶새라그래고
21018	토방	*
21019	댓돌	대뜰
21019-1	섬돌	*
21020	마루	마:루
21020-0-1	-에	마루에
21021	뒷마루	뒷:마루
21022	기둥	기둥 세워요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주춧돌  
주춧돌을 가주와라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21101 뜰  
21101 뜰  
21102 마당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3-0-1 -어서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 담  
21115-0-1 -에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 바깥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오랏뜨리라고그래요  
오랏뜰  
가까운데꺼 오랏뜨리라고그래지요  
안마당에서  
마당  
넌따, 널꾸  
넌버서 조:타  
넌부른 넌따  
마당이 넌부니까 우리  
넌퍼야조.  
넌핀다  
꼭씩넌는거 꼭깁  
마:구깁  
소마구깁  
마:구까니요  
광:  
허까네다  
이러케 허먼 쓰레기버리능거빠께  
장뚝때  
소래기가 마자요(+구)  
장뚝 뚜껑아냐(+신)  
두깁  
마우통  
똥짱구니라허고  
울타리  
담장  
담친다  
다미게찌요  
담장이 놓따  
  
싸리문  
웬:  
웬: 돼:니라그래요  
바께  
바깥  
바깥마당  
바까테가 노라라  
바까치 쾡장~이 추웅가부다  
짐모테~이  
모사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으를 이루조.

21202	윗마을	운말
21202	윗마을	운말 아랜말
21203	이웃	이운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지 조:타이래지요
21203-0-2	-에	우리 이우제 가치 친저라게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그래지요
21205	우물	드레물(+다)
21205	우물	움물 드렘물
21205	우물	움물(+소)
21206	두레박	드래박
21207	샘(泉)	새:미라그래요
21208	가(邊)	받 가:새~이 얼루 가라
21208	가(邊)	바까새~이
21208-0-1	-을	가:세루 가라
21208-0-2	-에	가:새~이가서 봐:두 알구
21209	물지게	물찌게라구래요
21210	가게	가:개빵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
21214	중매인(거간꾼)	홍정꾼
21215	잔돈	잔전
21216	에누리	에누릴 너무 마:~이
21216	에누리	에누릴 너머 쥘네요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돈
21218	거스르다	거실러 다:과
21219	꾸다(借)	꾼다구요
21219-0-1	-어야	꿔:달라구
21219-0-1	-어야	꿔:와따
21220	구두쇠	구더배기
21221	맡기다	매끼능거지
21221	맡기다	매깁니다구
21222	나머지	나머지지
21223	덤	더웁
21224	몫	몫
21224	몫	내 모거치 내가 챙게따
21224-0-1	-을	내 모거치는 즘 만:타
21225	빚	빚찌따그래지요
21225-0-1	-을	비즐 마:~이 저따
21225-0-2	-에	비지 만:타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심:부러미라그래지
21227	심부름	담:배 심:부럼
21228	두름	한 두럼
21228	두름	두럼
21228-1	축	한 축
21228-2	꽤	부거는 한 꽤
21228-3	접	과이른 저비지
21228-3	접	한 접
21228-4	쌈	쌈미요.
21228-4	쌈	열개 인제 한 쌈
21228-5	두름	그느루 한 근

21228-5	두름	한뭉테기가
21228-5	두름	한뭉치를 한뭉테기
21228-6	단/못(작은 묶음)	장자근 평으루 나가조.(+가로 세로 외 자)
21228-7	단/못(서너 개 묶음)	한다바리지요 한다발
21228-7	단/못(서너 개 묶음)	한다발(+무)
21228-8	툇	한 추기믄(+제?)
21228-9	모숨	한 모숨 빠져따
21229	컬레	한 커리
21230	마지기	한마지기(+100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백평짜리믄(+밭은 "평"이 단위임.)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러케 함배미서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함배미라그래요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바춘 평썬로 하지요
21231	꾸러미	항꾸레미(+구)
21231	꾸러미	한줄(+신)
21232	그루	한그루 두:구루
21233	포기	한 포기
21234	저울	저우료
21235	자루(布袋)	자루
21235-0-1	-을	자를 맨드러찌요.
21235-0-2	-에	자루에다 싸를
21236	하나	하나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한개
21236-2	한-되	되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한말
21237	둘	둘: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센:
21238	셋	스:이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스:데
21238-3	세-말	스:말
21239	넷	느:이
21239	넷	넨: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느:데
21239-3	네-말	느:말
21240	다섯	다섯
21240	다섯	다:썰
21240-1	다섯-개	다서깨
21240-2	다섯-되	다:떼
21240-2	다섯-되	달:뵤
21240-3	다섯-말	단말
21241	여섯	여섯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개	여서깨
21241-2	여섯-되	열:떼



21241-2	여섯-되	여:떼
21241-3	여섯-말	연말
21242	일곱	일곱
21242	일곱	일구
21242-1	일곱-개	일구개
21242-2	일곱-되	일곱떼
21242-2	일곱-되	일곱떼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개	여덜개
21243-2	여덟-되	여덜떼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아홉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떼
21244-3	아홉-말	여덜말
21245	열	열:
21245	열	열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되먼 한마리
21245-2	열-되	열되
21245-3	열-말	열마리먼
21245-3	열-말	열말
21245-3	열-말	아홉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되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개
21247-1	서른-개	서릉개
21247-2	서른-되	서른데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흥개
21248-2	마흔-되	마흔데
21248-3	마흔-말	마흔말
21249	쉰	췌:
21249-1	췌-개	싱:개
21249-2	췌-되	췌:되
21249-3	췌-말	췌: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육:씨개
21250-2	예순-되	육췌되
21250-3	예순-말	육췌말
21251	일흔	일흔
21251-1	일흔-개	칠씨개
21251-2	일흔-되	칠췌되
21251-3	일흔-말	칠췌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개	팔씨개
21252-2	여든-되	팔씩되
21252-3	여든-말	팔씩말
21253	아흔	구시비라
21253	아흔	아흔이라고도 하고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개	구시개
21253-2	아흔-되	구십되
21253-3	아흔-말	구십말
21254	백	그다음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그다음 백되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데
21256-3	한두-말	한두마린지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두어개 가주와라
21257-1	두세-개	뒤:개
21257-2	두세-되	두어데
21257-3	두세-말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
21258-2	두서너-되	뒤:서너데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마린데
21259	서넛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1	서너-개	세네개
21259-2	서너-되	서너너더떼
21259-3	서너-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너더개
21260-2	네댓-되	너더대:떼
21260-3	네댓-말	너더마린지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서개
21261-1	대여섯-개	대: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서떼
21261-2	대여섯-되	여닐곱떼
21261-3	대여섯-말	너더댄:말
21261-3	대여섯-말	대:연마리라고래
21261-3	대여섯-말	너더댄:마린지
21262	여닐곱	
21262-1	여닐곱-개	일구여덜개
21262-1	여닐곱-개	여닐구개
21262-2	여닐곱-되	
21262-3	여닐곱-말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여더라호깨  
 일구여덟때  
 칠팔말  
 일고여덟말

여더라홉때  
 여라옴말(+아홉말인지 열말인지 모를 때)

여라문개  
 여라문 되  
 여라문되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령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홑옷  
 21316 홑옷  
 21317 겹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결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24 끼입다  
 21324 끼입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치마  
 치마 기리가 질:다  
 저고리  
 색똥조고리  
 무늬가  
 고재~이랜거뚜 이꾸  
 바지  
 두루마기  
 들매기 {두루마기}  
 으:보기라그래구(+점잖게 말을 할 때)  
 온 꾸게진다구  
 오꾸름  
 단추  
 동정  
 겹  
 거치조 머  
 거테  
 외 외접  
 호겹때기(+할머니)  
 저보시  
 갈:게 임능거는 저보시고  
 반:중우적삼  
 중이(+ "잠방이"를 이름)  
 누더고시라그래지요 누더곤  
 거:지털  
 구결한다구  
 죄끼  
 송:내이  
 끼이부라구  
 끼이버라  
 소매 소매라그래요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속:쭈머니
21328	허리띠	허르띠
21328	허리띠	흥:집허르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갓:
21331	삿갓	사갓
21331-0-1	-에	사까시 크다
21332	고깔	무당드른 대:개 꼬깔써따구
21333	사모	사:모풍대
21334	유건	거니라그래요
21335	대님	대님
21336	감발	감:발
21337	짚신	집써또
21337	짚신	집씨늘
21337	짚신	집씨기
21338	미투리	여서빠른 미트리라 그래요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곁다	집써삼는다구
21339	나막신	나막써
21340	설피	설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21401-1	명주실	명주실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모캐다래
21403	무명	미영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4	씨아	쌔:
21405	자새	자:새자:새라그래요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벼짖다 벼
21408	길쌈	질쌈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고리	반지끄르시라그래요
21411	가위	가이가주 와서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가새 빨리 가주와
21411-0-2	-에	가새가
21412	마르다(裁)	마른다그래지요
21412-0-1	-고	마르문
21412-0-2	-어라	쳐늘 말러가주
21413	형짚	형집
21413	형짚	형:집쫓가리
21413-0-1	-을	형:거플대고 지어라
21413-0-2	-에	형:거피 읊:따
21414	바늘	바날 바늘(+다)
21415	꿰다	잘꿰다
21415	꿰다	꿰다그래지요
21415-0-1	-고	바늘귀 꿰다구
21415-0-2	-어라	꿰:다과 시:를

21415-0-2	-어라	꾸:다과
21416	바느질	바누질
21417	재봉틀	재방트리라 그래
21418	끈	끄니지요.
21418	끈	끄느루 무끄라구
21419	노끈	노끈
21420	참바	바쭈
21421	매듭	매드블 진:는다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묶다	매듭째:서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묶다	매드블 진:는다그래지
21422	보자기	보재기다 싸서
21422	보자기	기냥 보재긴데
21423	이불	저부루 땡겨 기냥 이부리라 그래요
21424	솜	소:미요 솜:
21425	포근하다	포근허다는 사람도 이꾸
21425	포근하다	포근:허다
21425	포근하다	포그나다(+할머니)
21425	포근하다	따시다구두 허구
21426	홀이불	호디불
21427	겹이불	저부루 땡겨 기냥 이부리라 그래요
21427-1	솜이불	아 솜:이부리 뜨시다
21427-1	솜이불	겨울게 임는건 솜:니부리요.
21428	누비이불	누비이불(+할머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이끼
21430-0-1	-에	베:개이까라구
21431	목침	모치미래고
21432	퇴침	퇴:치문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자부동(+신)
21433	방석	방서기라고(+구)
21434	담요	요깔개
21434	담요	담:노가 이따구(+할머니)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그래지요
21435	빨래하다	빨래해라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방매~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쭈를 매야지요
21439	다리미	대리미
21439-1	다림질	다림질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디미 방매~이
21442	다듬잇돌	다디미뿔
21443	다듬이질	다듬지리라그래지요
21443	다듬이질	다듬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근 설:라리라그래요 설:랄
-------	----	----------------

21502	설	설:쇠러간다
21502	설	서:리지요
21503	섄달 그믐날	그믐
21503	섄달 그믐날	스:딸그믐날
21503	섄달 그믐날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무근 세:배한다구
21505	올해	금년
21505	올해	올 오리라고도허구
21505-0-1	-는	오:리니까
21505-0-1	-는	오래도 풍년드러쓰면
21505-1	작년	장년 지내간
21505-1	작년	장녀니라그래요
21505-2	재작년	장년그::그러끼라그러지요 그::그러께
21505-2	재작년	그::그러끼라그래요
21505-3	내년	내년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어퍼지면 모
21505-5	내후년	그 후: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윤
21507-0-1	-을	유출
21507-0-2	-에	유시라그래요
21507-1	웃놀이	유뛰기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7-1	웃놀이	윤:노리하다 유티 마자따
21508	웃가락	윤: 네:가락
21508	웃가락	한가락
21508-1	도	되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3	걸	거리라그래구
21508-4	웃	올
21508-4	웃	유치 나와따
21508-5	모	모
21509	단동	흔
21509-1	외동무니	흔나와따
21509-2	두동무니	어버따그래요
21509-2	두동무니	둘째라그래고
21509-3	석동무니	곤 어버따그래지요
21509-4	넉동무니	건 어꾸간다그래지요
21509-5	막동	망말
21509-5	막동	망마리라그래지요
21509-6	단동무니	단동저따그래지 단동저따구
21509-6	단동무니	단동저따
21509-6	단동무니	단동이게따
21510	보름	기낭 보름
21510	보름	시보이를 보르미라그래요
21510	보름	대: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추석
21511	추석	항가위
21511	추석	항가위(+ "위"는 이중모음)

21512	망월	망:월
21513	쥐불놀이	해뿔로리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자:근 매:뛰기
21514-2	긴막대	작때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호미씨세라고 그거
21516	호미씻이	호미씨세라구
21517	팽과리	팽가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저누리 멍는다
21519	결두리	저누리
21519	결두리	저녁찌누리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박쭈
21521	고수레	뱅애
21521	고수레	고시네 이러케(+ "뱅애"와 "고시네"를 모 두 사용함.)
21521-1	고수레!	음:서글 던지지요
21521-1	고수레!	고시네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상에
21524	굴건	굴:건
21524	굴건	굴거니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여기는 모끼그르시라그래지요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고삐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지르매 소 지르매
21605	부리망	소 멍
21606	구유	소 껑: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주죽꿀
21608	꿀	소꿀 비어와라
21608	꿀	꼬리 어디가먼
21609	여물	소 매기(+끓이기 전 상태)
21610	쇠죽	여물끄린다구
21610	쇠죽	소 여무를 끄린다(+다)
21610	쇠죽	소 죽(+소)
21610	쇠죽	드레주기라그래요(+1년에 한두 번 쌀 등을 넣고 끓인 죽)
21610	쇠죽	소여물(+끓인 것)
21610	쇠죽	끄링거는 소죽쏜다그래고 머(+소)
21611	쇠죽바가지	여물 구바기라그래요(+뜨거우니까 길게 자루가 있는 것.)

21611	쇠죽바가지	역물 구박
21611	쇠죽바가지	역물빠가지
21612	수레	마:차라 그래구
21612	수레	달구지라 그래고(+앞에 조그만 바퀴가 있음)
21612	수레	옴:나렌 이거 우차라 그래요
21612	수레	달구지
21613	끌다	끌:지요
21613-0-1	-고	끈:다구
21613-0-1	-고	끌:구가요
21614	바퀴	바퀴 바퀴
21615	새끼(繩)	새끼 꼬능거지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동물)
21616	망태기	홀치기
21617	떡등구미	등구미라그래는데
21617	떡등구미	등구미
21618	거적	거저긴테 거적
21619	가마니	가마
21619-1	가마니틀	가마틀
21620	돛자리	도짜리
21621	자리틀	매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자리 맨다그래지요
21622	왕골	왕골
21622	왕골	왕골로 마:~이 맨들지요
21623	삼태기	삼티기
21623-1	짚 삼태기	집쌈티기
21623-2	짜리 삼태기	짜:리삼티기
21624	명석	명서기나
21624	명석	명서깅가분데
21625	어레미	얼게미 말:고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채	기낭 채(+제일 가는 것)
21625-1	고운채	다 체라그래지요
21625-1	고운채	고운채
21625-2	굵은채	도디미(+중간 정도)
21626	대장장이	승:냥(+유)
21626	대장장이	대장재~이라하지요(+유)
21626	대장장이	승:냐~이라그래요(+노)
21627	대장간	대:장간(+유)
21627	대장간	승냥까네(+노)
21628	풀무	풍구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갈키
21632	집게	찌꺼
21633	장도리	모빠기망치
21633-1	노루발	모빠기라그래요 모빠기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비 크다
21634-0-1	-에	토부로 자른다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루가 길:다
21636	자루(柄)	자루



21636	자루(柄)	도:끼자루가 질:다
21636-0-1	-을	자루를 단다니 자바라
21636-0-2	-에	
21637	갈고리	고리
21637	갈고리	고리라 그래요
21638	썰기	썰:기
21639	송곳	송:곧
21639-0-1	-에	송:고시 질:다
21640	뽕죽하다	끄시 베:주가다
21640	뽕죽하다	빼:주개야
21640	뽕죽하다	빼:주가지요
21640	뽕죽하다	빼:죽허먼
21641	숯돌	쉬톨
21641-0-1	-에	쉬또레
21641-0-1	-에	쉬또리라그래요 쉬톨
21642	맷돌	매톨
21642-1	수쇠	그 순:늪
21642-1	수쇠	쑤늪
21642-2	암쇠	암늪
21642-2	암쇠	암느미구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그건 소쿠리
21644	발채	지게에다 소쿠릴 언징거지요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작띠기
21646	막대기	기낭 막때기루
21647	몽둥이	몽댕이는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
21701	빗자루	비짜루라그래요
21702	광주리	광지리
21703	소쿠리	바구니
21704	함지	함지
21704	함지	함지예요
21705	풀비	술:
21705	풀비	소:리에요
21705-1	귀얄	*
21706	독	큰독
21706	독	독
21706-0-1	-에	큰도기 크다
21707	물독	물다마두는 물또기라그래구
21708	항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뚱이	물뚱이
21711	파리	파:리
21712	웅기	웅:기그르뚜 이꾸
21712	웅기	웅:기그타과 사기그를하과 {웅기그릇하 고 사기그릇하고}
21713	표주박	쪽빠기라그래 쪽빠
21714	키(箕)	치루 까분다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식판	다식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가주 와라
21717-0-1	-을	시루가 크다
21717-0-2	-에	시루에다
21718	시룻밑	시루밑까주와라
21718-0-1	-에	시루미치랑게
21719	시룻번	시루민 빨른다구
21720	부싯돌	부수또리라구러지요
21720-0-1	-을	부수또를 부술가주 와라
21721	부시	부수
21722	부싯깃	부시끼시라구
21722	부싯깃	부시낄 이꾸
21723	담배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4	담뱃대	담:부때
21725	담배설대	대고
21726	담배통	담:배 꼬가리
21727	물부리	담:배 빨뿌리
21727	물부리	빨뿌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니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예요 토시
21731	벼루	머까는 벼루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네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들:다 참비까튼데
21734-0-1	-을	참비시 곱:따
21734-0-2	-에	참비스루
21735	얼레빗	얼개비슨
21735	얼레빗	쳐:멘 얼개루 비꾸
21736	세숫대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두투마리라고 마:~이 쓰던데요(+구, +다)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라구두 쓰구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그게 잉애편예요
21741	부티	부:테(+최광운)
21742	도롱이	집싸리(+비가 올 때 쓰는 도구)
21742	도롱이	이건 도랭이루 맨드롱건데 도랭이라구

## 2.6. 인 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둥자라그래지요
21803	눈자위	눈뚱자

21803	눈자위	눈짜우
21804	검은자위	거문자라그래지요
21804	검은자위	꺼문자구
21804	검은자위	꺼먼자구는
21805	흰자위	흰자구
21805	흰자위	흰자구
21806	눈꺼풀	눔꺼풀
21807	거적눈	거정눈
21808	눈썹	눈썹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여긴 눈썹비라
21808-0-1	-이	눈썹피 질:다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피라그래지요
21810	눈두덩	눈 뚜덩
21811	안경	양:경
21811	안경	양:경이 크다
21812	안경집	양:경썹
21813	돋보기	도빠기
21814	주름살	주름사리
21814	주름살	주름사리 마:~이 저따
21814-0-1	-이	
21815	앳되다	앳때보인다
21815	앳되다	앳뵈보이능거
21815	앳되다	앳뵈다
21816	수염	쉬:미 질:다
21816	수염	썹:
21817	구레나룻	구레나
21817	구레나룻	구레나라그래지요
21817-0-1	-을	구레나가 참 마:~이 나따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코썹:
21819	콧수염	코썹:미라그래지요
21819	콧수염	코썹: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코꾸녕
21821-0-1	-을	코꾸녕 판다그래지
21821-0-2	-에	코꾸녀~이 크다
21822	콧물	콤물라온다그래지요
21822	콧물	강:기 걸림 콤무리
21823	입술	입썹리
21823	입술	입썹
21823-0-1	-에	입썹레 바풀 무더따
21824	다물다	다무레라
21824	다물다	입따무리지 말:라구
21824	다물다	입따무레라
21824	다물다	다무리지 말:구
21824	다물다	입따무리고 이썹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회빠라미리그래요
21827	휘파람	회빠람

21828	침	치물 꿀떡 생킨다그래지요
21829	삼키다	꿀떡 생킨다구
21829	삼키다	꿀떡 생키라구
21830	가래(痰)	가래 가래라
21830	가래(痰)	가래 배:터라
21831	뱉다	배:터라
21831	뱉다	방에다 아무데나 배:트문
21831	뱉다	가래 배:찌 마라
21832	혀	세가 질:다
21832	혀	세라 그래지 세
21833	헛바늘	세빠누리라그래요
21834	긱불	귀뿔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거뚜 귀거리라구 귀거리
21836	귀지	귀청
21836	귀지	귀쳐~이라그래요 귀청
21837	귀이개	귀:개
21838	소리	소리 질른다그래지요
21839	엿듣다	으~:뜯는다구
21839	엿듣다	그걸 으~:뜯는다그래요
21839	엿듣다	으~:뜨찌 마르라구
21840	귀청	귀청 떠러저다
21841	귀밑	귀미치라그래지요 귀밑
21841-0-1	-을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두 찌어따
21844	주근깨	주근깨가 만:타구
21845	턱	턱
21845	턱	터기라그래요
21846	턱수염	턱췌:
21846	턱수염	턱췌:미 질:다
21847	뺨	뺨미라그래지요
21847	뺨	이런땡 뺨:미라고 하는데
21847	뺨	뺨마자따구
21847-1	볼	보리라그래요
21848	가름하다	개름허다
21849	보조개	*(제보자가 모름.)
21850	머리카락	머리강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비름
21852	기계충	기계충
21853	정수리	정배기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배가
21856	가르마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뚝빠로 타는 사람도 이꾸
21857	가마	가매라그래요
21857-1	가마(鼎)	근 가마지 가마
21857-2	가마(轎)	가:매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도자기 가마가 또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니
21857-4	가마(가마니)	항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먹살  
21861 먹살

뒤통세  
덜미 자버따  
모기 질:다  
멕싸리  
멕싸리 자버따

##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6 결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09 쓸개  
  
21909 쓸개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톱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0-1 -아서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어깨  
그러치요 밀치지 말:라고  
저드랑  
등  
가슴 가스미 답따바다  
등이 절리다  
절리다  
갈비뼈  
허파라그래는데(+?제)  
으ㅡ:리라그래요(+물고기는 "으ㅡ르:을  
많이 씹.)  
으ㅡ:리지 으ㅡ르:(+쓸개)  
썰개라고(+약으로 쓸 때는 "쓸개"를 많  
이 사용함.)  
으ㅡ:리라고도 허고  
콩팥  
콩파시 크다그래게찌요  
콩파슬 멍는다  
팔 파리 질:다  
팔꿈치  
팔짱찐다  
손톱  
손토비 질:다  
오른손  
왼:손  
달르다  
틀리고  
틀리다그래지요  
달르다그래지요  
틀리다구  
달르니까  
다르다 쏘리두 허구  
틀리니까  
달라요  
달문사람도 틀레따그래지요  
  
왼:손재비  
엄지송꼬락  
엄:지송꼬락(+최광운)  
\*  
둘:째송꼬라기라(+최광운)  
장지라구  
세:째송꼬락 장:송꼬락(+최광운)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꼬락
21924	생인손	생안송꼬라기 알른다구
21924	생인손	생안송꼬락
21925	사마귀	사:마귀라그래요
21925	사마귀	사:마귀
21926	손아귀	소나구가 사:다구래요
21927	손목	손목
21927	손목	손모기 국따 크다
21928	뺨	손뺨미 크게 나간다그래지요
21928	뺨	손뺨
21928	뺨	한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패이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그래지요
21932	간지럽다	간지러:서 혼나따그래지요
21933	간지럼	간지럼 마:~이 탄다구
21934	잔허리	가는허리
21935	근육	*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어리 썬는다그래지요
21937	목물	등썬는다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쌍뼈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당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냄:새 만는다
22006	고린내	발냄새 마~이 난다
22006	고린내	발냄새라 그래요
22007	굳은살	뚝살 뚝싸리라그래요
22008	정강이	장개~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장딴지 참
22011	회초리	회초리라그래요
22012	무릎	무릅
22012	무릎	내 무릎페 와라
22012-0-1	-을	무릎폴 구펴라
22012-0-2	-에	무릎피 아픔 무릎피 아프다
22012-0-2	-에	무릎피 제리다
22013	오금	오금 오금
22014	엉덩이	웅:데~이
22015	궁둥이	궁:데~이라고도하구(+ "엉덩이"와 "궁둥이"의 구별을 못함.)
22016	볼기	트으름
22016	볼기	볼:기 마자따그래고
22016	볼기	볼기짜기를 만는다이래구
22017	멍	멍들지요 멍이라그래요

22017	멍	멍이 드러따
22018	멍울	멍어리가 생게따
22019	가랑이	가달 찌저진다
22019	가랑이	가다리 찌저진다
22020	사이	이사이가
22020	사이	이싸이가 너머 널따
22020	사이	사이라구
22021	살	사차구리 찌저진다
22021	살	사차구리
22021-0-1	-이	사차구리가 뵈:따그래구
22021-0-2	-을	사차구리라 그래요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툇	가래투시 서따
22023-0-1	-을	가래투시가 생게따
22023-0-1	-을	가래투시라그래요
22024	허벅다리	여기는 허벅따리라 그래고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가 머 어디가
22025	넓적다리	넙적따리라구두 쓰구(+ "허벅다리"와 구 별하지 않음.)
22026	가부좌(跏趺坐)	올방지 처따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 꼬다/하다	올방지치구 안저따그래지요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 강:기걸레따
22102	기침	기침나고 콧물라고
22103	채채기	채치기
22104	사레	사:리 들려따그래요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리 들레따
22105	딸꾹질	갈뚝질헌다구
22105	딸꾹질	갈뚜기
22105	딸꾹질	딸꾹찌
22106	트림	트:르미라그래요
22107	곰보	너머 얼거서 곰:보래이래지요
22108	천연두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09	여드름	여드름두 이꾸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10	학질	학찌리라 그래요 학찔
22110-1	하루거리	학찌리라그래요
22110-2	이틀거리	학찌리라그래요
22110-3	매일 앓는 학질	메느리고금
22111	홍역	호녁 호녀기라그래요
22112	볼거리	볼거리
22113	땀띠	땀띠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도다따구
22115	버짐	버짐
22115	버짐	버지미라그래요
22115-1	마른버짐	마름버짐 머
22115-2	진버짐	짐:물라능건 짐:버짐

22115-3	도장 버짐	돈:빠지미라그래고
22115-3	도장 버짐	돈:버짐
22116	문둥이	문:데~이라그래요
22116	문둥이	문:데~이
22116-1	문둥병	문:데~이뻥
22116-1	문둥병	문:데~이빠~이 걸러따
22117	부스럼	부시럼 깨문다구
22117	부스럼	부시름 깨물자능
22117	부스럼	부시름
22117-1	종기	현:디
22118	고름	고름나오지요
22119	곰기다	잘공게따
22119	곰기다	공게씨니까
22119	곰기다	다 곰기든 줌 드:라푸구 {다 곰기면 줌 덜 아프고}
22119	곰기다	끄치 공기구
22120	난쟁이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염눈배기
22121	사팔뜨기	사팔뛰기(+유)
22122	언청이	혜체~이
22123	소경	지그른 봉:사라고(+신)
22123	소경	쇠:경(+구)
22123-1	당달봉사	챙명관
22124	애꾸	외통배기
22124	애꾸	하품
22125	눈곱	농겁
22125	눈곱	농꺼비라구
22126	다래끼	눈다래키나따구
22126-1	다래끼(눈 위쪽)	으쫌게 낭건 다래키라그러고(+위쪽에 남.)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바지랑이(+아래쪽에 남.)
22127	절름발이	절름배~이
22127	절름발이	절름뱅이
22128	곱사등이	곱쌔
22129	귀머거리	귀먹제~이라그래
22130	말더듬이	말:더드미
22131	병어리	병어리라그래요
22132	잠꾸러기	장꾸러기
22133	줄리다	조:려워따
22133	줄리다	조:렵따구래지요
22133	줄리다	조:랍따
22133	줄리다	자꾸 조:렵따구
22133	줄리다	조오렵따
22133	줄리다	조:려우니까
22133	줄리다	조:려우든 하푸미 절루 난다
22134	하품	
22135	줄음	조오리미 오니까
22135-0-1	-을	조오리미 온다구
22135-0-1	-을	조오리틀 차마라
22135-0-2	-에	
22136	잠꼬대	장꼬대도 이꼬



## 2.7. 육아

22201	입땀	입땀 입떠시라구해요
22201-0-1	-을	입떠시 시머다
22202	갓난아이	간나내기
22202	갓난아이	해대기
22203	어린아이	언나라고그래쥬요 언내
22203	어린아이	언내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한다
22205	눅히다	늑키능건
22205	눅히다	늑퍼서 재워라
22205	눅히다	늑페 재워라
22206	계집아이	여시개
22206	계집아이	지배배라고두 허구
22206	계집아이	지배배
22207	예쁘다	예:뻘서
22207	예쁘다	예:뿌다구
22208	사내아이	머시매
22209	아우 타다	아스판다구(+최광운)
22209-1	아우보다	동상을 본다구두 그래구 아올본다구두
		그래구(+최광운)
22210	야위다	패레서 보기실타
22210	야위다	패리구
22211	쌍둥이	쌍두~이
22211	쌍둥이	쌍둥이 나따구
22212	오줌	오줌 싹다
22213	똥	똥을 마~이 싹다
22214	기저귀	지저구
22215	뉘다(排便)	오주물 누키라그래지요
22215	뉘다(排便)	오줌 누키자
22215	뉘다(排便)	뉘케라
22216	방귀	방:귀
22216-1	뀌다	방:귀 께:서 냄새난다
22216-1	뀌다	방:귀 께다구래지요
22217	구린내	똥내난다
22217	구린내	쿠룬내
22217	구린내	쿠룬내라그래지요
22218	구리다	쿠룬내나따
22218	구리다	쿠룬내난다그래지요
22219	포대기	퍼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개쏜다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퍼다	지지개쏜다구
22221	거짓말	거:지뿌리
22221	거짓말	거:진마른
22222	남부끄럽다	남 부꾸루워
22223	겁쟁이	겁쟁이라그래요
22223	겁쟁이	겁쟁이라구
22224	불쌍하다	불쌍해
22224	불쌍하다	불쌍허다그래요
22225	죄암죄암	좨:좨:헌다구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아 용타용타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시라구(+할머니)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라구
22229	짹짹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거르마 탄다구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걷는다
22233	넘어지다	너머질라
22234	곤두박질	강두배기해:따구
22235	안기다	앵긴다구
22236	바람개비	팔랭개비라구래지요
22237	호드기	호돌기 호돌기라그래요
22238	숨바꼭질	숨:끼내기
22239	소꿉놀이	송:구파리
22239	소꿉놀이	송구파리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
22241	연	여늘 날린다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여니 걸레따
22242	걸리다	걸린대로
22242	걸리다	걸리구
22243	고누	넉뚱머리
22244	땅뺨기	땅뺨끼
22245	팽이	팽이 팽이치기
22246	딱지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다마치기라구
22248	그네	구네 뛰능거 구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구네똥다
22249	밀신개	구네미찌개
22250	굴렁쇠	굴렁쇠
22251	굴리다	굴:린다그래지요
22251-0-1	-고	굴:리구
22251-0-2	-어야	빨리 굴:레라그래지요
22252	자전거	자장거라구래
22253	몽말	몽말태우기
22253	몽말	몽말
22254	말타기	몽말타기라구
22255	달음박질	다름질
22256	썰매	시께또라그래요(+얼음에서 타는 것)
22256	썰매	썰매(+눈에서 타는 것)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시께또탄다구래지요
22256-2	송곳	꼬:재~이라그래지
22256-2	송곳	시께토꼬재~이라구래요
22257	엄살	엄살쓴다구래지요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줌 그만썰라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쓴다구
22258	부아	부애두 도다따그래구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22302	어머니	엄마
22302-1	어머니(호칭)	어무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무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하라부지
22304	할머니	할무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니
22305	남편	남편
22305-1	남편(호칭)	여보(+젊을 때)
22305-1	남편(호칭)	**이 하라버~이
22306	아내	우리 안싸람
22306-1	아내(호칭)	어머~이가 이쓰면 철쭉 어머~이
22307	형	우리 형님
22307	형	나 위에 성이 이쓰른 크나부지
22307	형	우리형니미꾸
22307	형	그땐 성
22307-1	형(호칭)	형님
22308	아우	동생이다
22308	아우	동새~이먼 자그나부지 불러요
22308	아우	동생
22308	아우	동생이다
22308-1	아우(호칭)	철쭉먼 철쭉(+동생의 경우는 이름을 직 접 부름)
22309	누나	누님
22309	누나	누니미다
22309	누나	우리누:니미꼬
22309	누나	누나라 그래쪼요
22309-1	누나(호칭)	누님 누님
22309-1	누나(호칭)	누나
22309-1	누나(호칭)	누나 누나
22310	누이	여동생
22310	누이	누이동생이라구두 쓰구
22310-1	누이(호칭)	영수가 영수가(+여동생은 이름을 직접 부름)
22311	자식	내 자식드리라고
22312	맏아들	마다들
22313	맏딸	마딸
22314	막내	망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라구
22315-1	오빠(호칭)	점잔케 하먼 오라번님
22316	언니	성이라그래쪼요 옴:나레는(+구)
22316	언니	옴:나레 성이라그래고 지그른 언니라그 래자나요.
22316	언니	지금더른 언니(+신)
22316-1	언니(호칭)	성 성하고
22317	아비	애비
22317	아비	아가라 불러(+자식이 없을 때)
22317	아비	애비라구
22317-1	아비(호칭)	아무개애비
22317-1	아비(호칭)	철쭉야(+자식이 있을 때)
22318	어미	
22318-1	어미(호칭)	에미야

22318-1	어미(호칭)	아무개에미야
22319	손자	손주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김서방 이서방(+장모가 씬.)
22321-1	사위(호칭)	아무개 아범 오라구
22321-1	사위(호칭)	아무개 아범(+장인이 씬.)
22322	외손자	외:손주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짖다	꾸지러를 든는다
22324	꾸짖다	꾸지러를 마:니 하능거지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나무른다구두 허구
22324-1	나무라다	나무르진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22327-1	혼인식	혼인식
22327-1	혼인식	겨론식(+다)
22327-1	혼인식	홀:레식
22328	혼인 잔치	잔치
22328	혼인 잔치	잔치 잔치
22328	혼인 잔치	아무개 잔치한다
22329	장가가다	장:가가고
22329	장가가다	장가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지깁다
22329-1	시집가다	시지까고
22330	혼숫감	혼수품
22330	혼숫감	혼수까:미라구두 허구 혼수푸미라고두
22331	함	허구 그래요
22332	겹사돈	함:
22333	새색시	겹싸두니라그래지요
22333-1	새색시(호칭)	새애기
22333-1	새색시(호칭)	칠쭉야 이래몬(+남편 이름을 부름.)
22334	시아버지	새댁 가치가(+여자들이 부를 때)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부지라그래지요
22335	시아머니	아번님 아번님그래요
22335-1	시아머니(호칭)	시아머니면 시어떤님
22336	비위	어떤니미라그래요
22337	아주머니	비우
22337-1	아주머니(호칭)	시아주번님
22337-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그냥 불러요
22337-1	아주머니(호칭)	시아주머니
22338	서방님	시아주번님
22338-1	서방님(호칭)	시:동상아주번님(+조?)
22339	도련님	아주머니라 다 불러요
22339-1	도련님(호칭)	시도령
22340	형님	시도령님 시도령님(+조?)
22340-1	형님(호칭)	형니미라그래요
22341	시누이	형님 형님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시누 시누그래요
		시눈니미라그래고(+나이가 많을 때)

22341-2	아가씨	우리 시누라구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올케
22343	매형	우리 매형이라고
22343-1	매형(호칭)	매형이라 불려요
22344	매제	매:부
22344	매제	매:부 매부
22344-1	매제(호칭)	
22345	큰아버지	크나버~이
22345	큰아버지	말 크나부지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라 불려요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구
22345	큰아버지	나 위에 성이 이쓰른 크나부지
22345	큰아버지	말크나부지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라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둘:째는 둘:째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는 세:째크나부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무니
22346	큰어머니	크너무니
22346	큰어머니	말 크나머님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크너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크너머니
22347	큰집	큰지비루 가지요
22347	큰집	큰지비
22347	큰집	큰대게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너무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니 자그너머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삼촌부르지요
22351	아저씨	아저씨지
22351	아저씨	장:가도 양가고그랭건 아재라고 불르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22351-1	아저씨(호칭)	아재 아재
22351-1	아저씨(호칭)	아저씨 아저씨(+결혼 했을 때)
22352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52	아주머니	아줌마예요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줌마 아줌마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고모부
22357	고종	고모사춘
22357	고종	고모사춘
22357	고종	고모에 사춘 고종사초니구

22358	이모	그뚜 이모지요
22358-1	이모(호칭)	이몬님 이몬님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이모부
22360	이종	이모사춘
22360	이종	이종사추니구
22361	외삼촌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촌
22362	외숙모	외승무라그래요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무님
22363	외종	외사춘
22363	외종	웨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번님
22365	외할머니	외할무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님 외할머님
22366	장인	자인
22366	장인	자~이니라
22366	장인	자인장모를
22366-1	장인(호칭)	자인님 자인님(+조?)
22367	장모	장:무님
22367-1	장모(호칭)	장무님장무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처남
22369	처남댁	처나메댁 아줌마라고
22369	처남댁	아줌마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뻘 처남뻘
22370	홀아비	호래비라그래요
22371	홀어미	과:부
22371	홀어미	과:부라그래고
22372	계모	서:모
22372	계모	서모라그래요
22372-1	계부	이:부
22373	아저씨	이운 아저씨
22373	아저씨	아저씨라그래요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줌마라그래요
22374-1	아주머니(호칭)	기낭 아줌마 아줌마
22375	사나이	절문 사나를 으더씨.
22375	사나이	절문사내
22376	영감	늘거선 머 영:가미라 그래구
22376	영감	으—○:가미라그래요 영:감
22376-1	할망구	할멈(+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를 때)
22377	나이	나이 멍는다
22377-0-1	-를	나이가 만타
22378	환갑	항:갑
22378	환갑	항:가비라그래여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라그래지요
22402	민물고기	뭍물꼬기
22403	피라미	게:리(+다른 곳에서는 "피래미"라고 함.)
22404	지느러미	지래미
22405	아가미	아굼지
22405	아가미	아구미(+다)
22406	창자	창자도 이짜나요
22407	송사리	쇠:리라그래요
22408	헤엄	히엄치지요
22408	헤엄	히엄
22409	매기	메:기
22410	자라	자래기
22411	거북	근 거부기 아니요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처럼 생깁게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깨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뚜깨비라그래요
22416	거머리	그:마리
22417	다슬기	여긴 골:배~이라그래요
22418	우렁이	울뱅이 키워서 머
22418	우렁이	울:뱅이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탈: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징:게미라그래는데 징:게미(+민물에서 사는 큰 새우)
22421-2	새우(민물 소)	새우라그래고(+민물에서 사는 작은 새우)
22421-3	새우(바다 대)	쿵거 새우라그래자나요(+바다에 사는 큰 새우)
22421-4	새우(바다 소)	새우(+바다에 사는 작은 새우)
22422	새우젓	새우젓
22422-0-1	-이	새우저지라그래지요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동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라
22428	멸치	머르치
22428	멸치	메르치
22429	명태	동태라두 허구
22429-1	동태	생거는 동태
22429-1	동태	동태라그래요(+얼린 것)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

22429-4	북어	말링건 부거
22429-5	생태	생태는(+금방 잡은 것)
22430	조기	조기 조기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장아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미끼
22435	낙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자새
22437	조개	조개두 이꾸
22438	소라	소:라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리지라구래
22502	날벌레	날빨리지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파리
22504	쉬슬다	쉬 씨러따
22504	쉬슬다	쉬파리가 쉬씨러따
22505	가시	장까시
22505	가시	가시 나따구
22506	진딧물	진데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진덴무리 마~이 안저따그래지요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진덴무리 끼어따
22507	잠자리	고추잠자리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여기선 걸 방:개라그래요
22508-1	암컷	암노른 방:개고
22508-2	수컷	순노른 까두테기라그래요
22509	매뚜기	매:뛰기
22510	여치	벼짚개
22511	사마귀	호랑아제비
22512	벌	뵤:리 만:타
22512	벌	뵤: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뵤: 키운다구
22513	땅벌	땡:뻘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라그래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라 그래요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피림베~이
22517	모기	머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라그래지요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부리 만:타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개똥불
22521	반딧불	개:똥불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벥이	굼:뽕이



22524	구더기	구데기
22525	노래기	노네기
22526	그리마	동:꾸루마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구미
22530	진드기	찢디기라구
22531	벼룩	베리기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써캐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채~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레미
22535	누에	뉘에
22535	누에	뉘에라그래요
22536	고치	고추
22537	번데기	뉘에 번:디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거시라구
22540	소금쟁이	물꺼미
22541	방개	물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추기라그래요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암송아지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5	황소	황소라그래지요
22605	황소	수쑈
22606	길들이다	지를 잘드레야된다
22606	길들이다	지디린다는거지요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러 이러(+앞으로 가라고 할 때)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워워(+그 자리에 서라고 할 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어후"라구(+오른쪽으로 갈 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어후(+오른쪽으로 갈 때, 고삐를 잡아 당기면서)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어후"예요(+왼쪽으로 갈 때, 고삐를 잡아 당기면서)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워워(+물러나라고 할 때)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뒤루 물러서(+물러나라고 할 때)
22607	쇠고기	소고기 산다그래지
22608	고기(肉)	고기 귀 먹짜
22609	둘치	둘소
22609	둘치	개:는 둘개
22610	꼬리	꽁지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기라그래지요
22613	갈기	말갈기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돼:진 멧돼지라그래요
22615	주둥이	주둥아리라 그래지
22615	주둥이	그냥 주둥아리
22615	주둥이	돼:지 아가리라그래지요
22616	돼지 머리	돼:진 대가리라그래요
22616	돼지 머리	돼:지머리라(+치성을 드릴 때)
22616	돼지 머리	보통 돼:지대가리라고
22617	돼지우리	돼: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하면 나와요
22618	개(犬)	개
22618	개(犬)	개:가 만타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라그래요
22620	염소	염소새끼라구래지요
22621	고양이	고:내~이
22621-1	수고양이	수코내~이
22621-2	암고양이	앙코내~이
22622	토끼	기냥 토끼
22622	토끼	집토끼
22623	거위(鵞)	게:우
22624	암탉	암탉
22624	암탉	암타기 만:타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모아야지요
22626	모으다	씨러서 몬:다구
22627	수탉	수탉
22627-0-1	-이	거 수타기네
22628	벼슬(鷄冠)	
22629	부리	부리 닥뿌리
22629	부리	닥 주둥아리라그래요 주둥아리
22629	부리	주둥아리
22630	모이	당 메 쥐라
22630	모이	당 메 {닭 모이}
22630	모이	며:준다그래지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모인다구
22630-1	모이다	한쫓그로 모이자나요
22631	닭털	닥털
22632	닭똥	달게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달게장
22635	둥우리	둥우리
22635	둥우리	달게둥지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꽁지
22637-0-1	-을	꽁지라구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래~이래능건(+소)
22701	호랑이	호랑이
22701	호랑이	호랑이라그래요(+다)
22702	살쾅이	살게~이
22703	여우	머이 여우나 꿩지 보니깐 여운데 여우
22703	여우	라고그래요
22704	원숭이	여우라그래요 여우
22705	사슴	원:숭이아네요
22706	노루	사슴
22706-0-1	-이	요건 노루라그래요 노루
22706-0-2	-를	노루가 만:타
22707	고슴도치	노루 자바라
22707	고슴도치	고든두치
22708	두더지	고둔도치
22709	족제비	두더지라구
22710	뱀	족제피라그래요 족제피
22710	뱀	뱀:
22711	도마뱀	사네 배:미 만타
22712	구렁이	구:래~이 담념는다
22712	구렁이	구:래~이
22713	살모사	살무사
22714	생쥐	골방쥐
22715	박쥐	박:쥐라그래요 박:쥐
22716	거꾸로	꺼꾸루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7	다람쥐	날따람쥐
22718	새(鳥)	새:가 날라간다
22719	꿩지	새꿩지
22719	꿩지	새:꿩지라구
22720	솔개	새:매:라구
22720	솔개	솔:개라고 부르는 사람도 이꾸 그래요
22720	솔개	새:매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황:새
22724	소쩍새	소쭙새
22725	평	평이라그래요
22726	장끼	쟁끼
22727	까투리	까투리라그래요
22727-1	꺼병이	평병아리
22728	종달새	종잘새
22729	빼꾸기	빼꾸기
22729	빼꾸기	빼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부기
22732	올빼미	부영인 구구새보다 커요
22732	올빼미	구구새라구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라그래요
22735	뎛	더치 크다

22735	덧	더치라그래지요
22735-0-1	-을	더출 놔:따
22736	올가미	웅네기
22736	올가미	찌기(+짐승의 발이 닿았을 때 조이는 사냥 도구)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라그래요
22801	진달래꽃	창꼬시라그래찌요(+구, +소)
22801	진달래꽃	진달래꼴
22801	진달래꽃	진달래꼬시 피어따(+신, +다)
22801	진달래꽃	창꼬시라그래요
22802	철쭉꽃	철쭉꼬순 몸먹찌요.
22802	철쭉꽃	철쭉꼴
22802	철쭉꽃	철쭉꼬시 피어따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맨드래미
22805	봉선화	봉:사 봉:사꼬시라그래요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래기
22808	꽃봉오리	꼰머리 터진다
22808	꽃봉오리	꼰멍어리
22809	시들다	시:드러따
22809	시들다	시:드러 마르지요
22810	질경이	질째~이
22810	질경이	질째~이라그래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질째~이나물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질째~이(+반찬)
22811	빨기	시그미라그래 시금
22811	빨기	시금 머거요
22812	비름	비르미요
22813	쇠비름	*
22814	썸바귀	썸바구두 머꾸
22814	썸바귀	썸바구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라그래지요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꼬들빼기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 김치두 이꾸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꼬들빼기반찬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까막싸리
22819	도꼬마리	주꿈바리
22820	억새	억새
22821	갈대	갈꼬리라그래요 갈꼴
22822	이끼	바우오시라그래요
22823	아주까리	피마자
22824	담쟁이	담:세~이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 덩불  
22828 잔디  
22828 잔디  
22828 잔디

\*  
덤부른 건  
절:레덤불  
면:도  
뛰  
뛰를 이피능거지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러모으다  
22905 그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8 도토리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 옷  
22911-0-1 -으로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하다  
22917 짙레  
22917 짙레  
22918 칙  
22918 칙  
22918-0-1 -에  
22919 가지(枝)  
22919 가지(枝)  
22920 끝  
22920-0-1 -이  
22920-0-1 -이  
22920-0-1 -이  
22920-0-1 -이  
22920-0-2 -을

솔라무  
솔뽕울  
소께~이라구래요(+구)  
관:소리라구두허구 소께~이라구두 허구  
("관솔"은 최근에 사용함.)  
솔검불  
글거봐 지능거지요 {그러모아 지는 것  
이지요.}  
모:지요 {모으지요}  
뽕나무에  
오디  
도토리  
구도토리니(+반들반들함)  
재:량도토리니(+아주 작은 크기)  
떠갈라무(+도토리 크기가 큼.)  
참나무에나능거 참나무도토리  
온  
오돌라따  
오시라구래요  
버드나무  
느테나무  
그림자  
그늘  
수피 크다  
수피 조:타  
수피 드러가지마라  
시언허다구  
수피 시어 너다  
시어 너다  
짙:레나무  
짙:레라그래지요  
칙  
칙  
치기라구래요 칙  
나무 가지  
가지  
끝  
끄시지요 머  
끄치라구  
끄시 배:주가다  
끄치 공기구  
끄출 짤라따

22920-0-3	-에	끄테 나가지말라구
22921	삭정이	삭제~이라그래요
22921	삭정이	삭제~이를 판다그래지요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가 만:타
22922-0-1	-을	나무로 진는다
22922-0-2	-에	나무에 걸레썸 나무에 걸레따
22923	나무하다	나무해온다
22924	그루터기	그루
22924	그루터기	나무구루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그르테기
22925	등걸	등거지 해와따
22926	장작	장자기라그래 장작
22926	장작	장자글 빼깰다고 장작 찌깰다구
22927	패다	팬다구 나무팬다구
22927	패다	패:라
22928	부스러기	썰게비
22929	숯	여기다 수출 지버너쿠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치라그래요
22929-0-2	-을	수출 군는다
22929-0-3	-에	수테 부리 부터다
22930	불잉걸	수뿌리 조:타
22931	썩	버리썩기 벌써
22931	썩	버리썩
22931	썩	버리썩 도다오고
22932	잎	이피 피어따
22932-0-1	-을	이플
22932-0-1	-을	나무이플 따와라
22932-1	잎사귀	입싸구
22933	가랑잎	가랑니피른 가랑니피라그래고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그믐
23001	능금	능그미라고 이썩요
23002	돌배	돌빼
23003	복숭아	복썰아
23004	곶감	꼬깸 꼬까미라그래지요 그건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빔:
23007	살구	살구이썩요
23008	앵두	앵두두 이썩요
23009	자두	자도
23009	자두	고야
23010	오얏	매:주
23010	오얏	고야
23010-0-1	-을	매:주는(+사과나무처럼 생긴 나무에서
23011	석류	나옴.)
		*

23012	모과	모:가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찌라그래지요
23015	밤	바:미 마시따
23015-1	밤송이	밤:송아리
23015-2	풋밤	푸뽕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둥밤	쌍데~이밤
23015-4	쌍둥밤	쌍덩이밤
23016	보늬	속:겹쫄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楸子)	가래
23019	개암	개금
23020	머루	멀구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웨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딸:기라(+들에 나는 것.)
23025-4	"딸기(들 야생)"	딸:기라그래요 산딸기라구(+들에 나는 것.)
23025-5	"딸기(산 재배)"	딸:기라그래지요(+재배한 산딸기)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중에딸기라그래요
23026	뱀딸기	중에딸기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맨꼭때기는
23101	산꼭대기	봉두라지
23102	기슭	지실가리라고 쓰는데
23102-0-1	-에	산지실가리라고그래는데
23103	골짜기	골짜구니가
23104	메아리	사니 울레서
23105	고함	고암도 질른다구허구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팜:도 질른다고
23106	묘	묘:라고도허구 묘:지라고허고
23106	묘	묘:지
23107	뗏자리	산짜리
23107	뗏자리	산짜리보러 땡긴다
23107-1	광중	내우충광
23107-1	광중	청:과~이라그래 청:광
23108	구덩이	구데~이를 파야지
23109	비탈	산 비알
23109	비탈	산빼알

23110	가파르다	까파르다
23110	가파르다	까팔라서
23111	언덕	언덕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기
23112	낭떠러지	사태뺨(+산이 갑자기 가파르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
23113	들(野)	그냥 드:리 널따
23113-0-1	-에	어느 들:루 가문
23113-0-1	-에	드:레두
23114	별	시어::년 별판
23115	갈림길	쌍가달배기
23115	갈림길	쌍가달 질
23116	헤어지다	헤:진다구
23117	바위	바위라그래요
23117	바위	바우 바위라그래요
23117-0-1	-을	바위가 크다
23117-0-2	-에	바우에 걸쳐안자따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도:리 만타
23118-0-2	-에	도:레 마자따
23119	자갈	자가리라그래지요
23119	자갈	자갈 망:쿠
23120	모래	모새 망:쿠
23120-0-1	-를	모새가 만:치요
23121	진흙	지:늑
23121	진흙	지:느기 만:타
23121-1	찰흙	차지리꾸
23121-1	찰흙	차지리라그래 차질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마시지요
23201	물	무리 만:타
23202	거품	거품미 생기지요
23203	개운하다	개운하다쪼리나 그거나 가튼 소린데
23203	개운하다	거뜨터다
23204	도랑	또랑물
23204-1	봇도랑	그뚜 도랑이라고
23204-1	봇도랑	보뜨랑
23205	둑	뚜기 터저따
23206	잠기다	무레 쟁기기두허구
23207	개울	기낭 개우리라그래요
23207	개울	개우리고
23208	내(川)	개우리라그래지요(+ "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음.)
23209	미역 감다	모곡헌다그래요
23209	미역 감다	미역잠는다구
23210	발가숭이	벌거둥이라
23211	목욕하다	모곡씨긴다구 허구
23211	목욕하다	모곡헌다구
23212	수채	꾸정무리라구



23212	수채	수채라그래요
23213	개굴창	개굴창
23214	시궁창	시궁창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수렁에도 한번 빠져 봐:씨요
23216	수렁	수렁
23217	늪	늪은 이찌요
23217-0-1	-에	늪피라능게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배 터
23220	돛	돛
23220-0-1	-에	배가 도시 놓따
23221	돛대	돛대
23222	돛배	돛배
23223	돛 줄	*
23224	돛 줄	단
23224	돛 줄	다쭈리라그래지요
23225	거루	쭈빠
23226	상앗대	노:를 존는다고
23226	상앗대	놀: 롤
23226	상앗대	노:리 질:다
23227	개(필)	개빠리라고
23227	개(필)	개빠레 드러가서
23228	물	*
23228-0-1	-으로	
23229	밀물	*
23230	썰물	썰무리라구허구
23231	가라앉다	가란찌요
23231	가라앉다	가란는다그래지
23232	그물	그물 그무리라그래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 후

23301	새벽	새벽
23302	새벽밥	새벽밥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점:슴
23306	저녁	지냐키래구두허구 저녁빠비라구두
23306	저녁	지낙빠비라구
23306	저녁	저녁
23306	저녁	저낙빠
23307	설빔하다	*
23308	노을	놀:
23308-0-1	-을	노:를 바라
23309	불그레하다	불구무레해요
23310	해거름	*
23311	땅거미	땅꺼미랑건
23312	봄	봄
23312	봄	보미지요
23312	봄	보미 도라와따

23313	여름	여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 더위가
23314	더위	더위가 올거라
23315	추위	추위가 올거라
23316	가을	가을
23316	가을	가으리 도라온다
23316-0-1	-에	가으레 추수한다
23317	겨울	겨울
23317	겨울	겨울
23317	겨울	겨우리 되든
23317-0-1	-에	겨우레
23317-0-1	-에	겨우레 내린다
23317-0-1	-에	겨울게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0	내일	낼:
23320	내일	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피
23323	그글피	그글피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후:예
23328	하룻날	하룻날
23329	이튿날	이튿날
23330	사흘날	사흘날
23330	사흘날	사흘날
23331	나흘날	나흘날
23332	닷새날	다썬날
23333	엿새날	여썬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여드렌날
23335	여드렛날	파릴랄
23336	아흐렛날	구일
23336	아흐렛날	아:렌날
23337	열흘날	열흘랄
23337	열흘날	시빌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썬
23343	엿새	여썬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래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한나절행건 한나저리라고래구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름	그뭍날
23349	그름	그무미다
23349-1	그름께	그뭍께
23350	지금	지금 놀러 일해라
23350	지금	지금 일해라
23351	아직	아직 장가 모까써.
23351	아직	밤머글때가 아주 안돼따
23351	아직	아징 모까써.
23352	이제	애:드라 이제 밤먹짜
23353	이미	이미 벌써 때가 느저따
23354	요즈음	요:즘 자린나?
23355	금방	우정 거 놀케가주구 {금방 밥을 놀려 서}
23355	금방	금시 머꾸와따
23355	금방	금시 머거따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별
23401	별	해뻘시 조:와서
23401-0-1	-이	벼치 조:타
23401-0-2	-을	벼출 썩:라
23402	따스하다	따뜨터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23404	응달	응달
23405	양달	양지
23406	비(雨)	비가 와따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실비 다으멘 머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우네가 마:이 께:따
23410	눈개	우네가
23411	무지개	무지개 바가따그래요
23412	소나기	쏘나기라그래고
23412	소나기	소낙뻘가 오고이따
23413	갑자기	갑짜기 쏘다저따
23414	홍수	홍수 나따그래고
23414	홍수	포라기 나가따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벼락친다구
23418	무섭다	미습따
23418	무섭다	미습따
23419	함박눈	함방눈두 이꾸
23420	싸락눈	싸랑눈두 이꾸
23421	발자국	발짝
23421	발자국	발짜기 만:타
23422	진눈깨비	진:눈
23423	우박	우:박
23423	우박	우:박 온다그래요
23424	고드름	고두레미가 마:니 달레따
23425	햇무리	햄물 에워따

23425	햇무리	햄무를 봐:따
23426	달무리	달물 에워따
23426	달무리	달무를 봐:라
23427	둥글다	똥그러치요
23427	둥글다	둥굴다구두 허구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빨
23430	가뭇	가뭇미 온다
23431	마르다	송녀니 진다
23431	마르다	빨리 마르지요
23431-0-1	-어서	말라서 조:타
23432	위	상 위에 놔따(+위"는 이중모음)
23433	아래	알:루
23433	아래	아:리라고래요
23433	아래	알:쫓으로 흘른다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내 저트루 와라
23436-0-1	-에	내 저테루 와라
23437	회오리바람	둘개바라미라고래요
23438	북풍	새빠람(+북에서 오는 바람)
23439	남풍	말빠라미라고래요
23440	동풍	기낭 동풍이라고래고
23441	서풍	서풍이라고래고

=2	수제
=2	꽤때라구(+웃을 걸 수만 있음.)
=2	찢리문
=2	우정 거 놀케가주구 {금방 밥을 눌러 서}
=2	귀 귀투매~이 {귀통이}
=2	떼(+잔디)
=2	가시에 찢리케따
=2	수꺼머~이
=2	패래~이
=2	시끼럽따
=2	부어기 낸다구
=2	양자리(+독"보다 작음.)
=2	깨물리킨다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라구래는데
31001-0-1	테(輪)-이/가	테가 둥그러타
31001-0-2	테(輪)-보다	테만
31002-0-1	태(胎)-이/가	태가 질:다
31002-0-2	태(胎)-보다	태를 자르라구
31003-0-1	떼(群)-이/가	떼가 지내간다
31003-0-2	떼(群)-보다	떼를 제:서도 간다
31004-0-1	때(時)-이/가	때가 돼:따
31004-0-2	때(時)-보다	뎌데
31005-0-1	틀(機)-이/가	그냥 트리지요
31005-0-1	틀(機)-이/가	트리 단다나다
31005-0-2	틀(機)-보다	이 틀
31005-0-2	틀(機)-보다	틀
31006-0-1	털(毛)-이/가	털두 만:타
31006-0-1	털(毛)-이/가	터리라그래요
31006-0-1	털(毛)-이/가	터리 만:타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글 쓴다
31007-0-2	글(文)-보다	글
31007-0-2	글(文)-보다	거리지요
31008-0-1	걸(옷)-이/가	걸두 나와따
31008-0-2	걸(옷)-보다	걸
31008-0-2	걸(옷)-보다	기라그래조 기
31009-0-1	기(旗)-이/가	기가 크다
31009-0-1	기(旗)-이/가	기도 크다
31009-0-2	기(旗)-보다	귀가 크다
31010-0-1	귀(耳)-이/가	귀
31010-0-2	귀(耳)-보다	귀두 크다
31010-0-2	귀(耳)-보다	시를 분다그래지요 시를
31011-0-1	시(生時)-이/가	시를 보지 시간
31011-0-2	시(生時)-보다	쉬가 만:타
31012-0-1	쉬(蠅卵)-이/가	쉬라고 쉬
31012-0-2	쉬(蠅卵)-보다	쉬두 만타
31012-0-2	쉬(蠅卵)-보다	쇠가 무겁따
31013-0-1	쇠(鐵)-이/가	쇠
31013-0-2	쇠(鐵)-보다	쇠두 무겁따
31013-0-2	쇠(鐵)-보다	외:구구로 가라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궁나간다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간다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왜늠드리 만타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늠
31015-0-2	왜국(倭國)-보다	췌:라
31016	쉬:다(休)-더라	췌:다구
31016	쉬:다(休)-더라	서를 쇠:고 오거라
31017	쇠:다(설을~)-더라	췌:라
31017	쇠:다(설을~)-더라	서:를 췌다
31017	쇠:다(설을~)-더라	

31018-0-1	배(布)-이/가	벼라그러는데
31018-0-1	배(布)-이/가	배가 널따
31018-0-1	배(布)-이/가	벨 거주와라
31018-0-2	배(布)-보다	배 널따
31018-0-2	배(布)-보다	벼
31019-0-1	배(船)-이/가	배가 만타
31019-0-2	배(船)-보다	배두 만타
31020-0-1	배(腹)-이/가	배가 아프다
31020-0-2	배(腹)-보다	배두 아프다
31021-0-1	(떡)메-이/가	메가 크다
31021-0-2	(떡)메-보다	메
31022-0-1	매(鞭)-이/가	매가 아프니까
31022-0-2	매(鞭)-보다	매를 드르니
31023-0-1	매:다(擔)-더라	매:기도허구
31023-0-1	매:다(擔)-더라	덴:다
31023-0-1	매:다(擔)-더라	멜빵 미:구들 간다
31023-0-1	매:다(擔)-더라	매:구간다
31023-0-2	매:다(擔)-어서	며:라
31023-0-2	매:다(擔)-어서	며:따
31024-0-1	매:다(繫)-더라	끄느루 매:구
31024-0-1	매:다(繫)-더라	동고맨다
31024-0-2	매:다(繫)-어서	매:라
31025-0-1	떼:다(分離)-더라	덴:다그래지
31025-0-1	떼:다(分離)-더라	떼:지마라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떼:라
31026-0-1	때:다(炊)-더라	덴:다고도 허구
31026-0-1	때:다(炊)-더라	덴:다
31026-0-2	때:다(炊)-어서	부를 때:라
31027-0-1	베:다(切斷)-더라	빈:다
31027-0-1	베:다(切斷)-더라	오른손도 비:구
31027-0-2	베:다(切斷)-어서	벼:따구래
31027-0-2	베:다(切斷)-어서	칼로 비어서 아프다
31028-0-1	배:다(孕胎)-더라	이여자도 애길 배:구
31028-0-1	배:다(孕胎)-더라	애기 배:구
31028-0-2	배:다(孕胎)-어서	저여자도 애길 배:따
31029-0-1	세:다(算)-더라	수를 잘 신:다
31029-0-2	세:다(算)-어서	시어라
31029-0-2	세:다(算)-어서	수를 빨리 셔:라
31030-0-1	새:다(漏泄)-더라	지붕이 샌다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샌다
31030-0-2	새:다(漏泄)-어서	지붕이 새:서
31031-0-1	뒤(後)-이/가	뒤에
31031-0-1	뒤(後)-이/가	뒤:루 가라
31031-0-2	뒤(後)-보다	뒤:두 잘 암보인다
31032-0-1	되(升)-이/가	되가 크지요
31032-0-2	되(升)-보다	되 되라그래요
31033-0-1	게:(蟹)-이/가	게:가 만타
31033-0-1	게:(蟹)-이/가	게:를 자바라
31033-0-2	게:(蟹)-보다	게:라그래지요
31033-0-2	게:(蟹)-보다	게:는
31034-0-1	개:(犬)-이/가	개:가 만타
31034-0-2	개:(犬)-보다	개:두 만타
31034-0-2	개:(犬)-보다	개:하관 틀리자나요

31034-0-2      개:(犬)-보다

개:라구래지요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軚)(櫃)-이/가  
31044-0-2      궤:(軚)(櫃)-보다  
31044-0-2      궤:(軚)(櫃)-보다  
31044-0-3      궤:(軚)(櫃)-을/를  
31044-0-3      궤:(軚)(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여러시 이쓰른  
여러사라를 텔고 와라  
  
물꺼리 눅따  
물결두 눅따  
물꺼를 봐라  
예:이가 바르다  
예:이두 발르다  
예:이  
계요기 만타  
계요글 세워라  
계육뚜  
규치기 만타  
규칙뚜  
규칙  
규치글 잘 지켜라  
휴가가 만타  
휴가보다 조웅건 읍따  
휴가를 바다따  
교토~이 복짜바다  
휴가  
교통  
교통을 잘 지케야  
효:자가 만타  
효:자두 만타  
효:자보다  
효:자라  
효:자  
웬:닐로 여그완나  
웬일루두 여기를 완느나  
  
궤:가 크다  
궤:  
궤:두 크다  
궤:가주와라  
궤:라 궤  
왜늚드리라그래지요  
왜늚들  
왜누미라고  
  
훼가 눅따  
훼  
훼라그래요  
원:마~이라그래  
원:망두 만:타  
원:망을 하지마라  
꼰:투가 재미따

31048-0-2	권:투(拳鬪)-보다	꼰:투
31048-0-2	권:투(拳鬪)-보다	꼰:투두 재미꾸
31048-0-3	권:투(拳鬪)-을/를	꼰:투라그래지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느니라그래
31049-0-2	의논(議論)-보다	으는
31049-0-2	의논(議論)-보다	으는하자
31049-0-2	의논(議論)-보다	으:는두 중요하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무니가 곱:따
31050-0-2	무늬(紋)-보다	무니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무니를 잘
31051-0-1	왕(王)-이/가	왕이
31051-0-1	왕(王)-이/가	왕:이조.
31051-0-2	왕(王)-보다	왕 보다 노푼 사라멈따
31051-0-3	왕(王)-을/를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지리 마시따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질두 이써요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질보다 마시능건 엽따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지를 먹짜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돼:따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이가 크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 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두 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하과 {일하고}
31055-0-1	매(鞭)-이/가	매가 싣타
31055-0-2	매(鞭)-보다	매두 싣타
31056-0-1	매:(驚)-이/가	매:가 만타
31056-0-2	매:(驚)-보다	매:두 만타
31057-0-1	밤(夜)-이/가	바미 질다
31057-0-2	밤(夜)-보다	밤두 질다
31058-0-1	밤:(栗)-이/가	바:미 마시따
31058-0-2	밤:(栗)-보다	밤:두 만타
31059-0-1	눈(眼)-이/가	누니 크다
31059-0-2	눈(眼)-보다	손두 크구 눈두 크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내린다
31060-0-2	눈:(雪)-보다	눈:두 만타
31061-0-1	말(馬)-이/가	마리 똬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만타
31061-0-2	말(馬)-보다	말두 만타
31062-0-1	말(斗)-이/가	마리 크다
31062-0-2	말(斗)-보다	말두 크다
31063-0-1	말:(言)-이/가	말:두 만타
31063-0-2	말:(言)-보다	마:리 만타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 와따
31064-0-2	손(客)-보다	손니와따그래지요
31064-0-2	손(客)-보다	손님
31065-0-1	손(手)-이/가	소니 크다
31065-0-2	손(手)-보다	손두 크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귀하다



31066-0-2	손:(孫)-보다	손:두 귀하다
31067-0-1	배(梨)-이/가	배가 마시따
31067-0-2	배(梨)-보다	배두 마시따
31068-0-1	배:(倍)-이/가	배:가 길다
31068-0-2	배:(倍)-보다	배:이상 길다
31069-0-1	벌(罰)-이/가	버리 시마다
31069-0-2	벌(罰)-보다	벌두 시:다
31069-0-2	벌(罰)-보다	벌신다
31070-0-1	벌:(蜂)-이/가	뵈:리 만타
31070-0-1	벌:(蜂)-이/가	뵈:리라고래요
31070-0-2	벌:(蜂)-보다	꿀두 망쿠 뵈:두 만타
31071-0-1	솔(松)-이/가	소리 푸루다
31071-0-2	솔(松)-보다	솔두 푸루구
31072-0-1	솔:(刷)-이/가	소:리라고래지요
31072-0-2	솔:(刷)-보다	솔: 만타
31072-0-2	솔:(刷)-보다	솔:두 만타
31073-0-1	줄(鉉)-이/가	주리 길다
31073-0-2	줄(鉉)-보다	줄두 길다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 크다
31074-0-2	줄:(연장)-보다	줄:두 이따
31075-0-1	돌:(石)-이/가	도:를 던진다
31075-0-1	돌:(石)-이/가	도:리 만타
31075-0-2	돌:(石)-보다	돌:두 만타
31076-0-1	담(牆)-이/가	다미 넘따
31076-0-2	담(牆)-보다	담두 넘따
31077-0-1	담:(膽)-이/가	다:미 부터따(+병)
31077-0-2	담:(膽)-보다	담:두 아프구
31078-0-1	들:(野)-이/가	드:리 널부니
31078-0-2	들:(野)-보다	들:루 가자
31079-0-1	달-(懸)-고	단다그래조
31079-0-1	달-(懸)-더라	달기두 하구
31079-0-1	달-(懸)-고	달기두 하구
31079-0-1	달-(懸)-더라	다라
31079-0-1	달-(懸)-고	다라
31079-0-1	달-(懸)-더라	단다그래조
31080-0-1	달-(甘)-고	너머 달다
31080-0-1	달-(甘)-더라	너머 달다
31081-0-1	달:-(熱)-더라	달치요
31081-0-1	달:-(熱)-더라	이쪽소뚜 달쿠
31081-0-1	달:-(熱)-고	달치요
31081-0-1	달:-(熱)-고	이쪽소뚜 달쿠
31082-0-1	갈-(換)-고	갈고
31082-0-1	갈-(換)-더라	갈고
31083-0-1	갈-(磨)-고	갈지요
31083-0-1	갈-(磨)-고	간다그래요
31083-0-1	갈-(磨)-더라	갈지요
31083-0-1	갈-(磨)-더라	간다그래요
31084-0-1	갈:-(耕)-고	간:다그래지요
31084-0-1	갈:-(耕)-고	이쪽빠뚜 갈:구
31084-0-1	갈:-(耕)-더라	간:다그래지요
31084-0-1	갈:-(耕)-더라	이쪽빠뚜 갈:구
31085-0-1	걷-(收)-고	거짜
31085-0-1	걷-(收)-더라	거짜

31086-0-1	걸:-(步)-더라	빨리 거:짜
31086-0-1	걸:-(步)-더라	거:꾸
31086-0-1	걸:-(步)-고	빨리 거:짜
31086-0-1	걸:-(步)-고	거:꾸
31087-0-1	적:-(書)-고	잘 저꾸
31087-0-1	적:-(書)-더라	잘 저꾸
31088-0-1	적:-(小)-고	적:따(+ "어"가 약간 상승화함.)
31088-0-1	적:-(小)-더라	적:따(+ "어"가 약간 상승화함.)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망는다그래지요
32001-0-2	막-(防)[ㄱ]-고	마꾸이따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거서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그니까
32002-0-1	흐르:-(流)[ㅡ]-지	무리 흐른다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구이따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여푸루 흘르문 안된다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흘러간다
32003-0-1	오:-(來)[ㅓ]-지	온다고도 허구
32003-0-2	오:-(來)[ㅓ]-고	오고이따
32003-0-3	오:-(來)[ㅓ]-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오니까 잘보인다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오거라 그러치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가까이 와라
32004-0-1	듣:-(聞)[ㄷ 변]-지	듣는다하기도 하구
32004-0-2	듣:-(聞)[ㄷ 변]-고	드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그냥 드짜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빨리 드러라
32005-0-1	많:-(多)[ㄴᄃ]-지	만:치안타
32005-0-2	많:-(多)[ㄴᄃ]-고	만:코
32005-0-3	많:-(多)[ㄴᄃ]-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ᄃ]-으니까	마:느니까 시끄럽따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마:나서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마:너서 시끄럽따
32006-0-1	말:-(任)[ㅌ]-지	마찌마라
32006-0-2	말:-(任)[ㅌ]-고	저사람도 맡꼬
32006-0-3	말:-(任)[ㅌ]-더라	잘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나 마튼니를 다해떠라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타따
32007-0-1	알:-(知)[ㄹ]-지	안:다그래지요
32007-0-1	알:-(知)[ㄹ]-지	알지모태따
32007-0-2	알:-(知)[ㄹ]-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그러케도
32007-0-4	알:-(知)[ㄹ]-으니까	구구다늘 잘 아르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라야 된다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마라

32008-0-2	감:- (閉眼)[口]-고	감:꾸
32008-0-3	감:- (閉眼)[口]-더라	감:떠라
32008-0-4	감:- (閉眼)[口]-으니까	가무니까
32008-0-4	감:- (閉眼)[口]-으니까	가무면 암보이조
32008-0-5	감:- (閉眼)[口]-아/어(왔/었다)	가머따
32008-0-5	감:- (閉眼)[口]-아/어(왔/었다)	가머라
32009-0-1	벗:- (脫)[ㅅ]-지	버찌마라
32009-0-2	벗:- (脫)[ㅅ]-고	번는다그래지요
32009-0-2	벗:- (脫)[ㅅ]-고	번는다
32009-0-3	벗:- (脫)[ㅅ]-더라	오슬 버떠라
32009-0-4	벗:- (脫)[ㅅ]-으니까	오슬 버시니까 चु따
32009-0-5	벗:- (脫)[ㅅ]-아/어(왔/었다)	버서따
32010-0-1	옴:- (可)[ㄹᄇ]-지	올치
32010-0-2	옴:- (可)[ㄹᄇ]-고	올코
32010-0-3	옴:- (可)[ㄹᄇ]-더라	올터라
32010-0-3	옴:- (可)[ㄹᄇ]-더라	올타
32010-0-4	옴:- (可)[ㄹᄇ]-으니까	오루니까
32010-0-5	옴:- (可)[ㄹᄇ]-아/어(왔/었다)	오라요
32011-0-1	입:- (着衣)[ㅂ]-지	입찌마라그래지요
32011-0-1	입:- (着衣)[ㅂ]-지	임는다
32011-0-2	입:- (着衣)[ㅂ]-고	이꾸이따
32011-0-3	입:- (着衣)[ㅂ]-더라	입뜨라
32011-0-4	입:- (着衣)[ㅂ]-으니까	마:니 이부니까 오슬
32011-0-5	입:- (着衣)[ㅂ]-아/어(왔/었다)	마:니 이버따
32012-0-1	바꾸:- (換)[ㅌ]-지	바꾸지 마라
32012-0-2	바꾸:- (換)[ㅌ]-고	바꾼다
32012-0-2	바꾸:- (換)[ㅌ]-고	바꾸구 이따
32012-0-3	바꾸:- (換)[ㅌ]-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 (換)[ㅌ]-으니까	바꾸니까 조:타
32012-0-5	바꾸:- (換)[ㅌ]-아/어(왔/었다)	바뀌야
32013-0-1	덮:- (覆)[ㅍ]-지	가치 덮짜
32013-0-2	덮:- (覆)[ㅍ]-고	더꾸
32013-0-3	덮:- (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 (覆)[ㅍ]-으니까	이부를 더꾸니까
32013-0-5	덮:- (覆)[ㅍ]-아/어(왔/었다)	더퍼서 따뜨타다
32013-0-5	덮:- (覆)[ㅍ]-아/어(왔/었다)	이부를 더퍼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무:짜
32014-0-1	묻:- (問)[ㄷ 변]-지	문:는거뚜
32014-0-2	묻:- (問)[ㄷ 변]-고	무:꾸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무:뜨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저사라만테 무루니까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무루니까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러꾸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러라
32015-0-1	낫:- (癒)[ㅅ 변]-지	병:이 잘 난는다
32015-0-1	낫:- (癒)[ㅅ 변]-지	나:찌 안는다
32015-0-2	낫:- (癒)[ㅅ 변]-고	잘라꾸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꾸 나도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병:이 나:면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나:따
32016-0-1	닫:- (閉)[ㄷ]-지	무늘 다찌 마라
32016-0-2	닫:- (閉)[ㄷ]-고	무늘 다꾸 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다뜨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더라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무늘 다더서
32017-0-1	쫓-(追)[ㅈ]-지	쫓찌마라
32017-0-2	쫓-(追)[ㅈ]-고	쫓꾸이따
32017-0-3	쫓-(追)[ㅈ]-더라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바쫓 쫓치니까 다라난다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간다
32018-0-1	베:-(枕)[ㅂ]-지	비:꺄 비:자
32018-0-1	베:-(枕)[ㅂ]-지	벤:다
32018-0-2	베:-(枕)[ㅂ]-고	베개를 베:구 이따
32018-0-3	베:-(枕)[ㅂ]-더라	비:꺄 비:더라
32018-0-4	베:-(枕)[ㅂ]-으니까	베꺄 비:니까
32018-0-5	베:-(枕)[ㅂ]-아/어(왔/었다)	베개를 베:라
32018-0-5	베:-(枕)[ㅂ]-아/어(왔/었다)	베:꺄 비어라
32019-0-1	깨:-(破)[ㅂ]-지	꺄:다
32019-0-1	깨:-(破)[ㅂ]-지	깨:지마라
32019-0-2	깨:-(破)[ㅂ]-고	깨:구이따
32019-0-3	깨:-(破)[ㅂ]-더라	
32019-0-4	깨:-(破)[ㅂ]-으니까	깨더라
32019-0-4	깨:-(破)[ㅂ]-으니까	도:를 깨:니까
32019-0-5	깨:-(破)[ㅂ]-아/어(왔/었다)	깨:지니까
32019-0-5	깨:-(破)[ㅂ]-아/어(왔/었다)	도를 깨:따
32019-0-5	깨:-(破)[ㅂ]-아/어(왔/었다)	깨:라
32020-0-1	펴-(伸)[ㅍ]-지	소늘 펴자
32020-0-1	펴-(伸)[ㅍ]-지	펼지마
32020-0-2	펴-(伸)[ㅍ]-고	소늘 펴구이따
32020-0-3	펴-(伸)[ㅍ]-더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소늘 펴니까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폐:라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펼:서
32021-0-1	밖-(明)[?]-지	망는다
32021-0-1	밖-(明)[?]-지	박찌안타
32021-0-2	밖-(明)[?]-고	바꾸
32021-0-3	밖-(明)[?]-더라	박떠라
32021-0-4	밖-(明)[?]-으니까	나리 발그니까
32021-0-5	밖-(明)[?]-아/어(왔/었다)	발거서 조타
32022-0-1	쌈:-(烹)[?]-지	쌈:는다
32022-0-1	쌈:-(烹)[?]-지	쌈:찌마라
32022-0-1	쌈:-(烹)[?]-지	쌈:능거는
32022-0-2	쌈:-(烹)[?]-고	쌈:꾸
32022-0-3	쌈:-(烹)[?]-더라	
32022-0-4	쌈:-(烹)[?]-으니까	푹 쌀무니까
32022-0-5	쌈:-(烹)[?]-아/어(왔/었다)	쌀머라
32023-0-1	을:-(吟)[ㄹ]-지	을푸지 마라
32023-0-1	을:-(吟)[ㄹ]-지	잘 을푼다
32023-0-2	을:-(吟)[ㄹ]-고	시를 잘 을푸구 이따
32023-0-3	을:-(吟)[ㄹ]-더라	시를 을푸더라
32023-0-4	을:-(吟)[ㄹ]-으니까	잘 을푸니까
32023-0-5	을:-(吟)[ㄹ]-아/어(왔/었다)	을퍼라
32024-0-1	밟:-(踏)[?]-지	밟:는다이래지요
32024-0-1	밟:-(踏)[?]-지	밟:찌마라

32024-0-2	밟:-(踏)[?]-고	지령이를 밟:꾸이따
32024-0-3	밟:-(踏)[?]-더라	밟:떠라
32024-0-4	밟:-(踏)[?]-으니까	밟부니까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밟버라
32025-0-1	하-(爲)[卜 변]-지	허자
32025-0-2	하-(爲)[卜 변]-고	허구 이따구두 허구
32025-0-2	하-(爲)[卜 변]-고	이:를 허구
32025-0-3	하-(爲)[卜 변]-더라	이:를 허더라
32025-0-4	하-(爲)[卜 변]-으니까	이:를 마니 허니까
32025-0-4	하-(爲)[卜 변]-으니까	허니까
32025-0-5	하-(爲)[卜 변]-아/어(왔/었다)	열씨미 해:따
32026-0-1	맺-(結)[ㄷ]-지	으형제를 매짜
32026-0-2	맺-(結)[ㄷ]-고	매꼬
32026-0-3	맺-(結)[ㄷ]-더라	매뜨라
32026-0-4	맺-(結)[ㄷ]-으니까	매즈니까 조:타
32026-0-5	맺-(結)[ㄷ]-아/어(왔/었다)	매저라
32027-0-1	없:-(無)[?]-지	도:니 업:찌안타
32027-0-2	없:-(無)[?]-고	읍:꾸
32027-0-2	없:-(無)[?]-고	도:니 으:꾸
32027-0-3	없:-(無)[?]-더라	업:따
32027-0-3	없:-(無)[?]-더라	도:니 업따
32027-0-4	없:-(無)[?]-으니까	도:니 업:씨니까
32027-0-4	없:-(無)[?]-으니까	읍:씨니까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업:씨
32028-0-1	앉-(坐)[ㄴ]-지	안는다
32028-0-1	앉-(坐)[ㄴ]-지	안짜
32028-0-2	앉-(坐)[ㄴ]-고	안꾸
32028-0-3	앉-(坐)[ㄴ]-더라	안뜨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안지니까 퍼나다
32028-0-5	앉-(坐)[ㄴ]-아/어(왔/었다)	자리에 안저라
32029-0-1	비비-(刮)[ ㅂ ]-지	비빈다구
32029-0-1	비비-(刮)[ ㅂ ]-지	비비자
32029-0-2	비비-(刮)[ ㅂ ]-고	비비고
32029-0-3	비비-(刮)[ ㅂ ]-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 ㅂ ]-으니까	비비니까
32029-0-5	비비-(刮)[ ㅂ ]-아/어(왔/었다)	비베라
32030-0-1	끄-(消)[ ㅍ ]-지	끈다
32030-0-1	끄-(消)[ ㅍ ]-지	끄자
32030-0-2	끄-(消)[ ㅍ ]-고	끄구 이따
32030-0-3	끄-(消)[ ㅍ ]-더라	끄다라
32030-0-4	끄-(消)[ ㅍ ]-으니까	끄니까
32030-0-5	끄-(消)[ ㅍ ]-아/어(왔/었다)	꺼야 애깁다
32031-0-1	꺾-(折)[ ㅈ ]-지	꺾찌마라
32031-0-1	꺾-(折)[ ㅈ ]-지	꺾는다
32031-0-2	꺾-(折)[ ㅈ ]-고	꺾꾸이따
32031-0-3	꺾-(折)[ ㅈ ]-더라	꺾떠라
32031-0-4	꺾-(折)[ ㅈ ]-으니까	꺾끄니까 부러지더라
32031-0-5	꺾-(折)[ ㅈ ]-아/어(왔/었다)	꺾꺼라
32032-0-1	신:-(履)[ ㅅ ]-지	심바를 신:는다
32032-0-1	신:-(履)[ ㅅ ]-지	가치 신:짜
32032-0-2	신:-(履)[ ㅅ ]-고	신:꾸이따
32032-0-3	신:-(履)[ ㅅ ]-더라	신:떠라
32032-0-4	신:-(履)[ ㅅ ]-으니까	시들 시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라
32033-0-1	보-(視)[ㅂ]-지	본다
32033-0-1	보-(視)[ㅂ]-지	보지마라
32033-0-2	보-(視)[ㅂ]-고	보구이따
32033-0-3	보-(視)[ㅂ]-더라	텔레비저를 보더라
32033-0-4	보-(視)[ㅂ]-으니까	보니까 잘보이더라
32033-0-5	보-(視)[ㅂ]-아/어(왔/었다)	봐:라 텔레비저를 봐:라
32033-0-5	보-(視)[ㅂ]-아/어(왔/었다)	봐:라그래지요
32034-0-1	추-(舞)[ㅈ]-지	추물 춘다
32034-0-1	추-(舞)[ㅈ]-지	추물 추지 마라
32034-0-2	추-(舞)[ㅈ]-고	추물 추구 이따
32034-0-3	추-(舞)[ㅈ]-더라	추물 잘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추물 추어라두 이꾸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우지 마라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운다
32035-0-2	피우-(吸煙)[ㅍ]-고	담:배 피우구이따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담:배 피우믄 모메 해:롭따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워라
32036-0-1	서-(立)[ㅅ]-지	스자
32036-0-2	서-(立)[ㅅ]-고	스구
32036-0-3	서-(立)[ㅅ]-더라	서씨니
32036-0-3	서-(立)[ㅅ]-더라	스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스니까 잘보인다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여기서서 바:라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스거라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여기 서서
32037-0-1	가-(匍腹)[ㄱ]-지	긴다구래지
32037-0-1	가-(匍腹)[ㄱ]-지	기지마라
32037-0-2	가-(匍腹)[ㄱ]-고	기구
32037-0-3	가-(匍腹)[ㄱ]-더라	기더라
32037-0-4	가-(匍腹)[ㄱ]-으니까	기니까
32037-0-5	가-(匍腹)[ㄱ]-아/어(왔/었다)	겨:서
32037-0-5	가-(匍腹)[ㄱ]-아/어(왔/었다)	겨:라
32038-0-1	아-(戴)[ㅇ]-지	인다구래요
32038-0-1	아-(戴)[ㅇ]-지	물똥 이자
32038-0-2	아-(戴)[ㅇ]-고	물똥을 이구이따
32038-0-3	아-(戴)[ㅇ]-더라	이라구
32038-0-4	아-(戴)[ㅇ]-으니까	이니까
32038-0-5	아-(戴)[ㅇ]-아/어(왔/었다)	여라
32039-0-1	아니-(否)[ㅇ]-지	채기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ㅇ]-고	채기 아니구 연피리다
32039-0-3	아니-(否)[ㅇ]-더라	채기 아니다
32039-0-3	아니-(否)[ㅇ]-더라	채기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ㅇ]-으니까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ㅇ]-아/어(왔/었다)	
32040-0-1	되-(升)[ㄷ]-지	된다
32040-0-1	되-(升)[ㄷ]-지	되지마라
32040-0-2	되-(升)[ㄷ]-고	되고 이따
32040-0-3	되-(升)[ㄷ]-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ㄷ]-으니까	되니까
32040-0-5	되-(升)[ㄷ]-아/어(왔/었다)	되루 돼:따

32041-0-1	있-(有)[쓰]-지	마:니 이찌
32041-0-2	있-(有)[쓰]-고	이꾸 이꾸
32041-0-3	있-(有)[쓰]-더라	이떠라
32041-0-3	있-(有)[쓰]-더라	이따
32041-0-4	있-(有)[쓰]-으니까	이씨머 이떠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도:니 이씨니까
32041-0-5	있-(有)[쓰]-아/어(왔/였다)	도:니 이씨도
32042-0-1	놓-(放)[ㅎ]-지	노치마라
32042-0-1	놓-(放)[ㅎ]-지	논는다
32042-0-2	놓-(放)[ㅎ]-고	살무시 노쿠 이따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였다)	살무시 놔:라
32042-0-5	놓-(放)[ㅎ]-아/어(왔/였다)	놔:라
32043-0-1	훑-(扱)[ㅍ]-지	홀찌마라
32043-0-2	훑-(扱)[ㅍ]-고	홀투구이따
32043-0-2	훑-(扱)[ㅍ]-고	홀꾸이따
32043-0-3	훑-(扱)[ㅍ]-더라	
32043-0-4	훑-(扱)[ㅍ]-으니까	
32043-0-5	훑-(扱)[ㅍ]-아/어(왔/였다)	홀터따
32044-0-1	곶:-(麗)[ㅂ 변]-지	곶:찌안타
32044-0-2	곶:-(麗)[ㅂ 변]-고	
32044-0-3	곶:-(麗)[ㅂ 변]-더라	곶:따구두허구
32044-0-3	곶:-(麗)[ㅂ 변]-더라	곶:떠라
32044-0-4	곶:-(麗)[ㅂ 변]-으니까	고:우니까
32044-0-5	곶:-(麗)[ㅂ 변]-아/어(왔/였다)	고:와서
32045-0-1	쥐:-(握)[ㄱ]-지	주먹 쥐지마라
32045-0-1	쥐:-(握)[ㄱ]-지	쥐지마라
32045-0-2	쥐:-(握)[ㄱ]-고	주먹 쥐구이따
32045-0-2	쥐:-(握)[ㄱ]-고	쥐:구이따
32045-0-3	쥐:-(握)[ㄱ]-더라	꽤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꽤 쥐:니까
32045-0-5	쥐:-(握)[ㄱ]-아/어(왔/였다)	쥔:따
32045-0-5	쥐:-(握)[ㄱ]-아/어(왔/였다)	주머글 쥔:따
32045-0-5	쥐:-(握)[ㄱ]-아/어(왔/였다)	쥔:떠라
32046-0-1	가-(去)[ㄱ]-지	간다
32046-0-1	가-(去)[ㄱ]-지	가지마라
32046-0-2	가-(去)[ㄱ]-고	가구이따
32046-0-3	가-(去)[ㄱ]-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바테 가니까
32046-0-5	가-(去)[ㄱ]-아/어(왔/였다)	가거라
32046-0-5	가-(去)[ㄱ]-아/어(왔/였다)	가:라하기도 허구 가거라하기도 허구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짐 먹짜 {지금 먹짜}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뜨짜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빨리 뜨더라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따 건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가태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나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따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	나즈니까 쉽
	었다"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	무리 나자서
	었다"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	무리 야타
	었다"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헤치구 이따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	헤쳐라
	었다"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난다그래지요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이쩍또 날:구 저쩍뚜 난다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	날라간다
	었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운: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구 이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더라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	너머 우리 눈이 다 뵈:따
	었다"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돌:일런다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싸를 인다그래지요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싸를 일쿠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	도:리씨니까 이러라
	었다"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구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	어러따
	었다"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녕:꾸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	너머라
	었다"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	너머따
	었다"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는다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	수머떠라
	었다"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	수머라
	었다"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떠라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	문제가 쉬:워서
	었다"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누:쿠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	누워떠라
	었다"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	방에 누워라
	었다"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	누워따그래지요
	었다"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제:이버따 {지어 입었다}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진:는다쏘리하과 {짓는다 소리하고}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	제:임는다



	었다"			
32060-0-2	"김:-(縫)-아/어도	-아/어서	-왔/	지어이버라
	었다"			
32060-0-2	"김:-(縫)-아/어도	-아/어서	-왔/	지어라
	었다"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따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	미:위서
	었다"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높따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	노파서 히미 들다
	었다"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새로 지블 진는다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	빨리 지어라
	었다"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	질:라문
	었다"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	제:야지
	었다"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꾸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	뵈:따그래지요
	었다"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	부어오른다
	었다"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	부어서
	었다"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는다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	우시니까
	었다"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	우서따
	었다"			
32066-0-1	"짓:-(咲)-지 -고 -더라"			진는다
32066-0-2	"짓:-(咲)-아/어도	-아/어서	-왔/	지저서 시끼럽따
	었다"			
32066-0-2	"짓:-(咲)-아/어도	-아/어서	-왔/	지지니까
	었다"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찌마라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	꼬자라
	었다"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쿠나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케 되고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	나:서
	었다"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	순:조로께 나:서 조타
	었다"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쿠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있	따:서
	다"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있	따:따구
	다"			

32069-0-2	"땅:-(?)-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따:라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끈치마라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끄너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너머저도 괜찬타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차는 사람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너머저도 괜차나요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그를 읽는다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짜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꾸이따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일그라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일거라
32073-0-1	"떨-(澁)-지 -고 -더라"	가:미 뜰:꾸
32073-0-1	"떨-(澁)-지 -고 -더라"	뽕:찌 머
32073-0-1	"떨-(澁)-지 -고 -더라"	떨:따구
32073-0-2	"떨-(澁)-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뜰븐 가미
32073-0-2	"떨-(澁)-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털: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따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올마따그래요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뚜룬다그래지요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송:고스로 구녕을 뚜루구이따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뚫러라
32076-0-1	"끓-(?) -지 -고 -더라"	꾸리고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무루폴 꾸레따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무루폴 꾸레라
32077-0-1	"닿-(?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쿠
32077-0-2	"닿-(? 연필 심이)-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다라꾸나
32077-0-2	"닿-(? 연필 심이)-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다러씨니 까까라
32078-0-1	"닿:-(? 煎 술에서 장이)-지 -고 - 더라"	달쿠
32078-0-2	"닿:-(? 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굽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지요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짜서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	짜구워서

	었다"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똥똥 말구이따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똥똥 마라라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쓴다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써라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루고 이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룬다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올라가따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올라라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바빠서두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다그래지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배가 고푸다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고파서 잠도 아논다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쏜다그래지 쏜다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총을 쏘고이따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쏘:라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구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나도 꾸물 꾸구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웨: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무르기두허구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머무러따구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잘 다듬꾸이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꾸이따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 다드머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이사람도 추위를 잘 견디구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추위를 잘 견딘다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전테라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구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오까를 빨리 말러라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구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앙개가 껴:따구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끼어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무를 마시구이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신다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	마세라그래지요

	/었다"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세:다 그래요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시미 시:더라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미 셔:그리지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핑자~이 셔: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지 마라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라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포개따구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드리능거지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뛰디린다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뛰디리구이따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디레라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부를 케구이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케구이따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를 케야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켜라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지마라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구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라믈 썰:라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구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또 쇠:서 몸명는다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구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비 췌: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다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혀: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복찌마라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봉는다그래지요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꾸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라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땅에 묻는다구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찌마라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에 무더라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분:다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구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바라미 세:게 부러따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러꾸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다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구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비베서 빨다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리 빠러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중는다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꾸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사라문 주거서 이르플 냉기구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꾸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찌마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리 거러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거러라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문다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무러서 안 된다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존:다그래요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존:다쪼릴 마:~이 썬요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조라선 안된다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마당을 쓸구이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구이꾸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씨러라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쓴:다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마당을 씨러라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는다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꾸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머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는다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더드머라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고기를 구찌마라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굳:는다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고리를 구:꾸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귀:라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따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거워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꾸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어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빈는다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찌마라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비서라
32117-0-1	"까망-(黑)-지 -고 -더라"	꺼머타
32117-0-2	"까망-(黑)-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꺼매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느쿠이따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느어라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늘:대요 {넣을 때요}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여슬 곤:다그래나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여슬 고고이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 고아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여슬 잘 과:라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언찌마라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언꾸이따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언저라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섬바네 언지니까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타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창케 군다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귀차너서 자바다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 라"	발린다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생선뼈를 발레라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굉자~이 막따구두허구, 마꾸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리 말거서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들 골몽거 찌든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국: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구:꾸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파리 굴: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얇:찌여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얇: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얇:버서

32127-0-1	"쉴-(?)-지 -고 -더라"	쉴:른다
32127-0-1	"쉴-(?)-지 -고 -더라"	쉴:구이따
32127-0-2	"쉴-(?)-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씨러라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쿠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러머거따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러따
32129-0-1	"할-(?)-지 -고 -더라"	할찌마라
32129-0-1	"할-(?)-지 -고 -더라"	할떠라
32129-0-1	"할-(?)-지 -고 -더라"	할른다
32129-0-1	"할-(?)-지 -고 -더라"	물겨늘 혈꾸이따
32129-0-2	"할-(?)-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마:니 혈트니까
32129-0-2	"할-(?)-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혈터따구두허구
32129-0-2	"할-(?)-아/어도 -아/어서 -왔/있 다"	마:니 혈터서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짧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짧꾸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짧버 모씨게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지마라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션 안된다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놀:래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구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턴다그래지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터구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모:태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룬다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른다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따가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개루꾸 아프구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지요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키가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구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꼰다꼬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짜:라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주굴 쭈구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주굴 쏜다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주굴 잘 쭈:라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친다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잘 마체라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데운다
32140-0-2	"데우-(?)-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데워라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인:는다구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빨리 이:꾸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이어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린다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갈레라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누니 빠지게 기다리구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난 누니 빠지게 기다레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센:다그래지요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수짤 세: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잘 셔: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구이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뺨다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빼:라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켄다구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케구이따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케:라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다그래지요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돼:서 몸머께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쉴:다구두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쉬어라 쉼:라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호빈다구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호베서 아푸다
32150-0-1	"눌:-(?)-지 -고 -더라"	눌:찌 아나따
32150-0-1	"눌:-(?)-지 -고 -더라"	눌:쿠
32150-0-1	"눌:-(?)-지 -고 -더라"	눌:구
32150-0-2	"눌:-(?)-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누러따
32150-0-2	"눌:-(?)-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누러서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깨달쿠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였다"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오주미 너무 매롭따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주미 때루워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롭따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꾸루워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찌요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워서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우니까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깊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기꾸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그물 그꾸이따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그찌마라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어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꾸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씨치마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씬는다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늘 빨리 씨어라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기낭은 씨꾸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찢는다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라
32159-0-1	"값-(擻)-지 -고 -더라"	쥐가 나무를 강는다
32159-0-1	"값-(擻)-지 -고 -더라"	가꾸
32159-0-2	"값-(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서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꾸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머따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쫄쫄 굴머서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당:꾸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머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타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63-0-1	"끓-(?) -지 -고 -더라"	끓꾸
32163-0-1	"끓-(?) -지 -고 -더라"	끓꾸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분:는다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분:는다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어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뵤:라 뵤:라그래요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빠스 타고 와라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빠스 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른다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말라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지요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다구두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씨굽따구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씨서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씨구워요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다구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뿌다구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기뻐서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쏸:다그래요
32170-0-2	"쏘:-(? 별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뵤:리 쏶: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선:무를 준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선:무를 주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줘:라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소를 키운다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소를 키워라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뒤구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뵤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지블 부신다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세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쪼가서 농가머거라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지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설마 소게씨까?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깁다그리지요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끼:문 안된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문트메 찌어서 아프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찌어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79-0-1	"괴:-(滯)-지 -고 -더라"	
32179-0-2	"괴:-(滯)-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82-0-1	"뀌:-(?)-지 -고 -더라"	방:귀 편다구래지요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였 다"	방:귀 께:서 냄새난다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 /였다"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는거야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짐싯는다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86-0-1	"뽡-(粉碎)-지 -고 -더라"	
32186-0-2	"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 /였다"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러타구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 /였다"	파:래서 보기 조타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다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 /였다"	달라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무를 푼다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구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퍼라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오주물 누쿠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눈는다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오주물 뉘:라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무리 더:럽떠라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따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리 더:러워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꾸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뒤디린다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라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는다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쿠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펄펄 끄러서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구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신다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니 부세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구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쿤다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리 일꿔라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댕긴다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겨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그거두 버리구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레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친다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선 안따된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진다구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원:다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구다늘 소구로 왜:라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잘 새기구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새기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새겨라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폭폭 썩는다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씩꾸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씩겨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다구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지요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었다"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분다그래요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불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까부러라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게 심능건 드물게 심는다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드무러야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건 준:다구래요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리 주:러서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심:는다그래요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머라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다듬꾸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듬는다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쓰다드머준다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씨다드머준다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납따구두허구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개:가 사납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사:나워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볍따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부워서
32213-0-1	"젓:-(?) -지 -고 -더라"	즌:는다구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젓:는다
32213-0-1	"젓:-(?) -지 -고 -더라"	저:꾸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였 다"	저:라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뚜껍따구두허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뚜꺼우니까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뚜꾸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루다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물:러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불긴다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불게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마:니 배우고 오거라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배워라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다런다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대리구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리 대러라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후빈다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베라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애리다구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애레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린다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그레라
32222-0-1	"저리-(麻)-지 -고 -더라"	제리다
32222-0-2	"저리-(麻)-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제레서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빨기구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게서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뜨세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린다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끄레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잘 뉘빈다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뉘벼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꿍치구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꿍체따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꿍체선 안된다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구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벼:꾸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벼어꾸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벼: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킨다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시켜라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지:플 맨다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구이따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리 매:라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구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매:라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구이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다구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뛰:서 다라나따

	었다"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꾸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머따구두 허구
32234-0-1	"가림-(?) -지 -고 -더라"	개루꾸 아푸구
32234-0-1	"가림-(?) -지 -고 -더라"	개롭따구
32234-0-2	"가림-(?)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개루워서
32234-0-2	"가림-(?)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꾸 개루워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린다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때레서 아푸다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지요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어두워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는다구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짜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버라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르지요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르구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잘라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룬다구 허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불러라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룬다구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구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 따뤄라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쫓는다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쫓꾸
32242-0-2	"쫓:-(啄)-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쫓:멍는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둔다구두 허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뒤:라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강:제로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강:제로 시켜따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켜써여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오주물 제린다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오주물 제리구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제레서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레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지마라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제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기두 허구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인다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예라
32248-0-1	"만지-(?) -지 -고 -더라"	맨지지마라
32248-0-2	"만지-(?)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맨저서
32249-0-1	"찌:-(?) -지 -고 -더라"	찼:다
32249-0-1	"찌:-(?) -지 -고 -더라"	찌:고
32249-0-2	"찌:-(?)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라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튼다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러션 안된다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도:꾸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줘:라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주구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는다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찌마라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버라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끼릅찌요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끼러워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꾸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루구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루지 마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션 안된다
32256-0-1	"주무르-(?) -지 -고 -더라"	주무루구
32256-0-2	"주무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라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운다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라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꾸



	/었다"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수허다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	고수해:서 마시따
	왔/었다"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린다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	내레라
	/었다"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루구이따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	굴:러간다
	/었다"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	굴:러간다
	/었다"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맨든다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	잘 맨드러라
	/었다"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능는다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느꾸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	늘거서 보기가
	었다"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끔끔 알른다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끔끔 알쿠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	아라서
	었다"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른다구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잘 따르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	잘 따라라
	/었다"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구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	사따
	었다"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	치위라
	/었다"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부러지구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부러저따
	-왔/었다"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	다체따
	/었다"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	느레서
	/었다"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친다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	무체서 멍는다
	서 -왔/었다"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인다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	조예라
	었다"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	잘 팔러라

	었다"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찌마라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진다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뒤제선 안된다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다 마치구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마체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꾼다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 절케라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흰:다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 휘:진다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휘:서 모씨게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주:꾸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준:는다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주서라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꾸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빼:사선 안된다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빼:사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구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우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이 아깝따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아이 아까워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따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방가워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찜다구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찌서 멍는다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치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노:래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루다구두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푸러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빨리 서두루구 가거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서둘러서 가라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루다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툴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길:르다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길: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터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뜨태 조:타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뜨대서 조:타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따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춡워서 실타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찌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따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그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 허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 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따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구워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따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워서
32295-0-1	"알뭇-(憎)-지 -고 -더라"	알:미럽따구
32295-0-2	"알뭇-(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러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시더다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슬허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로꾸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따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워요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따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다롭따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워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따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따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아수워요

	왔/었다"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다나다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허다구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	단단해서
	왔/었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	단다내서
	왔/었다"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찌마라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꾸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	느저따
	었다"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꾸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	마:니 나머따
	었다"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지 말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	냉계선 안된다
	왔/었다"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냉게뜨리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	냉게뜨레따
	서 -왔/었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우구레떠리지요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구르티리지 마:라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우구레떠린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우구리지마라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그리떠리지 마: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	쭈구르티레라
	어서 -왔/었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저눈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저누구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	저눠
	/었다"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	저눠보자
	/었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구이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우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	외워라
	/었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른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지마라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문질러선 안된다
	-왔/었다"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리킨다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	가리켜라
	왔/었다"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잘 가리킨다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	잘 가리케야 된다
	왔/었다"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저눈다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	저눠라
	왔/었다"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래기두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랜다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래라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번바꾸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번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르지 마라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러선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린다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려라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래라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기기두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긴다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게선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린다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레선 안된다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지꺼리지 마:라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꺼레선 안텐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잘 다니나?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다녀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러티리구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퀴구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퀘따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티레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굽찌요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다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에서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구워서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손는다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손꾸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따

	었다"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날씨가 조:와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치요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말가치요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발가타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발개서 조:타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빨개서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끝:구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끈:다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끄:러라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널따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널버서 조:타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하야치요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누:니 하야타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하해서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마시따
32332-0-2	국(羹)-을/를	구글 머거라
32332-0-3	국(羹)-에(서)	구게 파리 빠저따
32332-0-3	국(羹)-에(서)	구게다
32332-0-4	국(羹)-으로	구구루
32332-0-5	국(羹)-도	국뚜 떠머꾸
32333-0-1	논(飧)-이/가	노니 널따
32333-0-2	논(飧)-을/를	노를 봐:라
32333-0-3	논(飧)-에(서)	노네 드러가라
32333-0-4	논(飧)-으로	노느루 가라
32333-0-5	논(飧)-도	논두 널따
32334-0-1	쌀(米)-이/가	싸리 만:타
32334-0-2	쌀(米)-을/를	싸를 먹짜
32334-0-3	쌀(米)-에(서)	싸레 바구미가 이따
32334-0-4	쌀(米)-으로	쌀로 바블 한다
32334-0-5	쌀(米)-도	쌀두 만타
32335-0-1	봄(春)-이/가	보미 돼:따
32335-0-2	봄(春)-을/를	보를 마저따
32335-0-3	봄(春)-에(서)	보메 나드리 가자
32335-0-4	봄(春)-으로	보무루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크다
32336-0-2	집(家)-을/를	지블 지짜
32336-0-3	집(家)-에(서)	지베서 논:다
32336-0-4	집(家)-으로	지부로 간다
32336-0-5	집(家)-도	집뚜 크다

32337-0-1	옷(衣)-이/가	오시 만타
32337-0-2	옷(衣)-을/를	오슬 이버라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스루
32337-0-5	옷(衣)-도	오뚜 만타
32338-0-1	방(房)-이/가	방이 널따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 드러가자
32338-0-4	방(房)-으로	방으루 가라
32338-0-5	방(房)-도	방두 널따
32339-0-1	낮(晝)-이/가	나지 질:다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나제 일가자
32339-0-4	낮(晝)-으로	나즈루 이라러 가자
32339-0-5	낮(晝)-도	나뚜 질:다
32340-0-1	낯(顔)-이/가	나시 크다
32340-0-2	낯(顔)-을/를	나출
32340-0-2	낯(顔)-을/를	나슬 봐:라
32340-0-3	낯(顔)-에(서)	나세
32340-0-4	낯(顔)-으로	나스로
32340-0-5	낯(顔)-도	나뚜 등굴다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라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글 봐:라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게 가자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루 가라
32341-0-5	부엌(廚)-도	부엌뚜 널따
32342-0-1	밭(田)-이/가	바시 널따
32342-0-2	밭(田)-을/를	바슬 봐라
32342-0-3	밭(田)-에(서)	바테 가라
32342-0-4	밭(田)-으로	바춘 바뜨러기라고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가라
32342-0-5	밭(田)-도	바뚜 널따
32343-0-1	앞(前)-이/가	아피 훔하다
32343-0-2	앞(前)-을/를	아플 봐:라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푸로 가라
32343-0-5	앞(前)-도	압뚜 널따
32344-0-1	넋(魂)-이/가	너기 나가따
32344-0-2	넋(魂)-을/를	너글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넉뚜 나가따
32345-0-1	흙(土)-이/가	호기 만타
32345-0-2	흙(土)-을/를	호글 거주와라
32345-0-3	흙(土)-에(서)	호게 너머저따
32345-0-4	흙(土)-으로	호그로 지블 지어따
32345-0-5	흙(土)-도	흑뚜 만타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다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더를 세: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더레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여덜도 망코
32347-0-1	돌(遇歲)-이/가	도리 도라와따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마지해따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잔치해따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갑씨라구
32348-0-1	값(價)-이/가	물건갑씨 비싸다
32348-0-2	값(價)-을/를	갑쓸
32348-0-2	값(價)-을/를	가블 처따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가브루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소:기 안조타
32349-0-2	속:(內)-을/를	소:글 비워라
32349-0-3	속:(內)-에(서)	소:게
32349-0-4	속:(內)-으로	소구루 드러가따
32349-0-5	속:(內)-도	속:뚜 쓰리다
32350-0-1	돈:(錢)-이/가	도:니 만타
32350-0-2	돈:(錢)-을/를	도:늘 거주와라
32350-0-3	돈:(錢)-에(서)	도:네 호기 무더따
32350-0-4	돈:(錢)-으로	도:느루
32350-0-5	돈:(錢)-도	돈:두 만타
32351-0-1	발(足)-이/가	바리 널따
32351-0-2	발(足)-을/를	바를 봐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상처나따
32351-0-4	발(足)-으로	발루 찬다
32351-0-5	발(足)-도	발두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크다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신는다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거주와라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 뭐이 무더따
32352-0-4	짐(荷物)-으로	지무로
32352-0-5	짐(荷物)-도	짐두 크다
32353-0-1	입(口)-이/가	이비 크다
32353-0-2	입(口)-을/를	이블 다다라
32353-0-3	입(口)-에(서)	이베 상처나따
32353-0-4	입(口)-으로	이부루 마란다
32353-0-5	입(口)-도	입뚜 크다
32354-0-1	낫(鎌)-이/가	나시 크다
32354-0-1	낫(鎌)-이/가	나신데요.
32354-0-2	낫(鎌)-을/를	나슬 거주와라
32354-0-3	낫(鎌)-에(서)	나세 노기 시러따
32354-0-4	낫(鎌)-으로	나스루 빈다
32354-0-5	낫(鎌)-도	나뚜 크다
32355-0-1	강(江)-이/가	강이 널따
32355-0-2	강(江)-을/를	강을 봐라
32355-0-3	강(江)-에(서)	강에서 고길 잡짜
32355-0-4	강(江)-으로	강으루 가라
32355-0-5	강(江)-도	강두 널따
32356-0-1	젓(乳)-이/가	저지 마~이 나온다
32356-0-2	젓(乳)-을/를	저줄 명는다
32356-0-3	젓(乳)-에(서)	저제
32356-0-4	젓(乳)-으로	저즈루
32356-0-5	젓(乳)-도	저뚜 만타



32357-0-1	꽃(花)-이/가	꼬시 폐따
32357-0-2	꽃(花)-을/를	꼬슬 꺼꺼라
32357-0-3	꽃(花)-에(서)	꼬세 벌러지 안저따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꼬스루
32357-0-5	꽃(花)-도	꼬뚜 만타
32358-0-1	팔(赤豆)-이/가	파치 만타
32358-0-2	팔(赤豆)-을/를	파출 가주와라
32358-0-3	팔(赤豆)-에(서)	파트루
32358-0-3	팔(赤豆)-에(서)	파체 벌러지 나따
32358-0-4	팔(赤豆)-으로	파춘
32358-0-5	팔(赤豆)-도	파뚜 만타
32359-0-1	옆(側)-이/가	내 여피 조타
32359-0-2	옆(側)-을/를	내 여플 비워따
32359-0-3	옆(側)-에(서)	내 여페 와라
32359-0-3	옆(側)-에(서)	내 여페 안자라
32359-0-4	옆(側)-으로	내 여푸루 와라
32359-0-4	옆(側)-으로	내 여푸루 와라
32359-0-5	옆(側)-도	내 엽뚜 자리가 이따
32360-0-1	삿(賃金)-이/가	사기 만타
32360-0-2	삿(賃金)-을/를	사글 준다
32360-0-2	삿(賃金)-을/를	사글 주지요
32360-0-3	삿(賃金)-에(서)	
32360-0-4	삿(賃金)-으로	배싸그루 물거늘 사따
32360-0-4	삿(賃金)-으로	사그루
32360-0-5	삿(賃金)-도	삭뚜 만타
32361-0-1	닭(鷄)-이/가	다기 만타
32361-0-1	닭(鷄)-이/가	달기 만타
32361-0-2	닭(鷄)-을/를	다글 자바라
32361-0-2	닭(鷄)-을/를	달글 자바라
32361-0-2	닭(鷄)-을/를	달걸 앵긴다
32361-0-3	닭(鷄)-에(서)	달게 벌러지가 이따
32361-0-4	닭(鷄)-으로	달그로
32361-0-5	닭(鷄)-도	닥뚜 만타
32362-0-1	밖(外)-이/가	바끼 훗하다
32362-0-2	밖(外)-을/를	바끌 바라
32362-0-3	밖(外)-에(서)	바께 나가노라라
32362-0-4	밖(外)-으로	바끄루 가라
32362-0-5	밖(外)-도	박또 훗하다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마란다
40101-0-2	내	내 물겨니다
40101-0-3	나-를	날: 봐라
40101-0-3	나-를	날: 줘:라
40101-0-3	나-를	날: 다과
40101-0-4	나-에게	나에게 다: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다:과
40101-0-4	나-에게	나한테라구
40101-0-5	나-와	나하구
40101-0-5	나-와	나하과 가치가자
40101-0-6	나-는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나두 안:다
40102	저/제-가	저라구래지요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제:가 해쌌다
40102-0-1	저-가	제:가 해쌌미다
40102-0-2	저-의	제 물건
40102-0-3	저-을/를	절 주시오
40102-0-4	저-에게	저에게 주시오
40102-0-4	저-에게	저한테도 주십씨오
40102-0-5	저-와/과	저하과 가치 갑씨다
40102-0-6	저-는	저는 암미다
40102-0-7	저-도	저두암미다
40103	우리	우리아부니미다
40103	우리	우리
40103	우리	우리아부지라구
40104	저희	즈:아부지라구
40104	저희	즈:아분니미다
40104	저희	즈:아부지다
40105	너	너나 나나
40105	너	너라구
40105	너	너
40105-0-1	-가	니:가 가주가씨
40105-0-1	-가	너가 가주가따
40105-0-2	-의	니:물겨니야
40105-0-3	-을/를	너를 봐:라
40105-0-4	-에게	너한테 준다
40105-0-5	-와/과	너하과 가치가자
40105-0-6	-는	넌 아느냐?
40105-0-6	-는	넌 아냐?
40105-0-6	-는	니:는 아:느냐
40105-0-7	-도	너두 아느냐
40105-0-7	-도	니:두 아느냐
40106	자네	자네 시간 인나?
40106	자네	자네라도 허구
40106	자네	자네라구

40107	당신	여보(+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40107	당신	여보 당신 가봐(+아내가 남편에게)
40107	당신	당신 바테 가봐(+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40107	당신	여보(+남편이 아내에게)
40107	당신	자네 절루 가봐(+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40108	너희	느:아부지
40109	개	가:라구두
40109	개	개:가 처따구
40109-1	애	애:가 치구
40109-1	애	야:
40109-1	애	애
40109-1	애	야:라구러지 야:
40109-1	애	애:라구
40109-2	재	자:가
40109-2	재	재:
40109-2	재	자:드리라그래지 자:들
40110	자기	제말만 제마리라고그래지요
40110	자기	자기만 올타
40111	당신	하라버지방에서만 잔다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아 누구세요?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 찬냐구
40112-0-1	누-가	누가 완냐?
40112-0-1	누-가	누가 완냐구
40112-0-2	누구-의	이게 누구 물겨니냐?
40112-0-3	누구-를	누굴 찬냐구
40112-0-3	누구-를	누구를 찬느냐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40112-0-5	누구-와	누구와
40112-0-5	누구-와	누구와 겨론하느냐?
40112-0-5	누구-와	누구하과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네소네 뭐:냐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니:가 그게 뭐:냐
40113	무엇-이냐/입니까	그게 뭐:심미까?
40113	무엇-이냐/입니까	요즘 뭐:튀고 지내냐?
40113-0-1	무엇-이	거기에 무어시 드러인느냐?
40113-0-1	무엇-이	뭐:가 드러인냐?
40113-0-2	무슨	너는 요새 뭘:이를 하느냐?
40113-0-2	무슨	무신 이런데 이러케 모연냐?
40113-0-2	무슨	건 무신
40113-0-2	무슨	요새 무슨
40113-0-3	무엇-을	너는 뭐:를 멍느냐?
40113-0-3	무엇-을	너는 뭐:슬 멍느냐?
40113-0-4	무엇-과	무어타과 멍느냐?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너는 어드루 가느냐
40114	어디	너는 얼루 가느냐
40115	언제	언제 이사를 와쏘?
40115	언제	은:제냐?
40115	언제	원:제 이사를 와쏘?
40116	어느	어느지비 싸느냐구
40116	어느	어느 지비 싸냐구
40117	왜	너는 왜 우느냐?
40118	얼마나	거:리가 얼마 되느냐?
40118	얼마나	느:집하과 하꼬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0118	얼마나	얼마나 되느냐?
40119	어떻게	어트게 지내냐?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뭍:미까?
40121	그것	그게 뭍:미까 해요
40122	저것	저게 뭍:미까?
40123	여기	땅을 요길 파라
40123	여기	여:꼴 파라
40123	여기	여기
40124	거기	고:께 뭍:미까? {거기 것이 뭍니까?}
40124	거기	거기를 파라
40124	거기	그:께 뭍:미까? {거기 것이 뭍니까?}
40125	저기	저:꺼를 파라 {저기 것을 파라}
40125	저기	저기를 파라
40125	저기	저길 파라
40125	저기	저:께 뭍:미까? {저기 것이 뭍니까?}
40125	저기	저기
40125	저기	저:꼴 파라
40126	이리	이리 와
40126	이리	너는 일루 와
40126	이리	글루 가
40127	그리	글루 바루 글루 가라구
40127	그리	그리 가
40128	저리	저리 가
40128	저리	절루 가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비싸다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귀를 때린다
40204	-을/를	무릎 주지요
40204	-을/를	바블 멍는다

40205	-에 게/게	사:라메게 쥐:라
40205	-에 게/게	저분한테 디레라
40206	-보고/더러	누구한테 당시니라구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당시니라 그래
40208	-에	배 간다
40209	-에	나중에 다시 만나자
40210	-에서	큰대게서
40210	-에서	큰지베서 지낸다
40211	-에서	서우레서 만나자
40211	-에서	서울서 만나자
40212	-에서	여기서 만나자
40212	-에서	여기서버텀 서울
40212	-에서	여기서
40213	-으로	칭주 찰쌀루
40213	-으로	찰쌀루 빈는다
40214	-으로	지푸루 맨든다
40214	-으로	가마니 지푸루
40215	-으로	새끼루 몽는다
40216	-으로	얼루 가나?
40216	-으로	얼루 가느냐
40216	-으로	지부루 양가고
40217	-와/과	수:박 하과 차퇴
40218	-와/과	웅:기그타과 사기그른하과 {웅기그릇하 고 사기그릇하고}
40218	-와/과	나하과 가치가자
40219	-보다	동생보다 정보다 크다
40220	-처럼	벌:떼처럼
40220	-처럼	돼:지처럼
40221	-만큼	니 키만큼
40222	-만큼	머그리만큼 머거라
40223	-아/야	봉나마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미 봉나미
40225	-아/야	철쭈 철쭈(+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부 를 때)
40225	-아/야	철쭈야 철쭈야
40226	-아/야	누님 누님
40226-1	-예	누니묘 누니묘
40227	-아/야	하라부지
40227-1	-요	
40228	-이랑	수라과 고기하과 잘머거따
40229	-커녕	마:넛커지 시뵈두 업:따
40229	-커녕	마:넛꺼지 시뵈두 업:따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두 담:벤 암피운다
40231	-만	술만 명는다
40232	-도	키두 크구 얼굴두 잘생겨따
40233	-마다	날마둥
40233	-마다	날마둥 술 마세따
40234	-부터	오늘버툼 끈차

40234	-부터	오늘서버툼 끈차
40235	-까지	넬:꺼지 끈내라
40235	-까지	넬:꺼증
40236	-조차	물조차
40236-1	-할라	비조차 오는데 어딜 가느냐
40237	-이야/야	아 그사람 마리아
40238	-을랑	다시는 그런소리하지 마라
40239	-이라도	부:자래두
40240	-밖에	이러케 허먼 쓰레기버리능거빼께
40240	-밖에	자네빼께 읍:따
40241	-가지고	싸가주가지요
40241	-가지고	싸가지구 간다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이쫘그로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아라썬요
40244	했지-요?	누가 해:썬요?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안저라
40302	-게	자네 양께
40302	-게	이리 오게
40303	-으오	안지세요
40304	-으십시오	안지세요
40304	-으십시오	안지십썬요
40305	-세요	안지세요

### 4.3.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40307	-세	장예 가치 가세
40308	-으오	가치 갑썬다
40309	-십시다	가치 갑썬다(+장모예게)
40310	-세요	장예 가치 가십썬다(+장인에게)

### 4.3.3. 의문법

40311	-니	비가 오나?
40312	-나	비가 오능가?
40313	-오	비가 오나요?
40313	-오	비가 오오?
40314	-습니까	비가 오나요?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비가 옵니까?  
 비가 오나요?(+장모에게)  
 어두루 가느냐?  
 어두루 가나?  
 어두루 가나요?  
 어두루 가세요?(+사위가 장인에게)  
 어두루 가세요?(+사위가 장모에게)

####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바블 잘 명는다  
 바블 잘 명네  
 잘 명네요  
 잘 먹소  
 잘 잡썰미다  
 바블 잘 잡썰미다  
 즉:다그래요  
 오시 즈그른 적따  
 정:네  
 아라쭈  
 오시 적:쏘  
 오시 정:네요  
 오시 적썰미다

#### 4.3.5. 반말

40331 -아  
 40331 -아  
 40332 -지

여보 어디가 마땅차너?  
 어디가 아프나?  
 널: 꼭 병워네 갈꺼지?

#### 4.3.6. -이다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냐?

내:른 네 생이리다.  
 니 생이리냐?  
 자네 생이리네.  
 내:리 생이리네.  
 자네 생이리냐?(+장인이 사위에게)  
 내:리 생이리오.  
 해쏘?  
 누가 해쏘?  
 내:리 생이리나요?  
 아부님 생시님미다.  
 생시님미까?  
 생시님미다.  
 내:리 생시님미까?  
 뭐: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5 -이오?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뭐:나?  
 당신 어디 가오?  
 뭐:나요?  
 무어싱가요?  
 무어심미까?  
 뭐:나요?  
 뭐:나?  
 뭐:시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7 -올라

만:썸미다 서우레 가문  
 \*  
 잘 멩능구나  
 바블 잘 멩능군.  
 오래간마니네.  
 가쎄네  
 가꾸마  
 가쎄네  
 너머질라  
 다칠라 거 조:심해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1 -고/-고서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0 -도록  
 40410 -도록  
 40410 -도록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2 -듯이  
 40413 -지

오슬 이꾸 와따  
 이꾸선 가따  
 바블 머꾸나서  
 바블 머그민  
 머그민서  
 추워서  
 방이 따뜨터니까 자미 온다  
 무신 이린데 모옌냐구  
 지베 오다가  
 지베 오다 비를 만내따  
 누굴 만내거든 내 암부를 저내 다과  
 먹떠래도 쪼끔 머거라  
 비가 올:라나?  
 얼루 갈라구 {어디로 가려고}  
 헐쭈룩 점장케  
 빼가 빠지두루 이래따  
 노풀쭈룩  
 죽뚜룩 일해따  
 밤새두룩  
 물쓰든 현다  
 도:늘 물쓰드턴다구  
 공부만 하지 이:를 안해



## 4.5. 주 체 존 대

40501	-서	오세요
40502	-셨소	하세썌요?
40502	-셨소	모내길 다 해썌?
40601	웃는다	잘 운:는다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잘 기어간다
40602	기어간다	겨:간다
40602	기어간다	잘 게: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니 생일라리다.
40605	오고 있다	소낙뻬가 오고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바블 머건나?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진지 드센나요?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와따가따
40607	왔었다	와썌꼬 오래도 와따
40607	왔었다	금강사늘 가썌따
40608	먹더라	여무를 잘 먹떠라.
40609	먹더냐	잘 먹떠나?
40610	만나는 친구	날마둥 만내는 칭구다
40611	만난 친구	어제 만낸 칭구다
40612	만났던 친구	어제도 만내던 칭구다
40612	만났던 친구	만내떤 칭구
40613	만날 친구	모레 만낼 칭구다
40614	큰 아이	큰 애이다
40614	큰 아이	큰 칭구다
40615	크던 아이	키가 크던 애이다
40616	컸던 아이	키가 커떤 애이다
40616	컸던 아이	키가 커떤 칭구야
40617	마시지 않겠다	수란 머께따는
40617	마시지 않겠다	양케따는 맹세한다
40618	비가 오겠다	비가 금시 오게따

## 4.6. 시 제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 머거썌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바블 안머거썌.(+다)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먹찌 아나따(+소)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존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앙깨끝 해
	안 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가 앙가따구래지요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아직 앙까썌.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가를 앙가썌.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안만내썌요.
	/만나 안 보았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아직 암만내봐따

	/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두 양쿠 잠잔다
40706-1	먹도 않고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마신다구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마신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내마리 마짤쏘?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린다
40801	살리다	살레 살레라
40802	늘리다	늘케라
40802	늘리다	늘귀구이따
40803	말리다1	말린다
40803	말리다1	말레라
40804	말리다2	말린다
40804	말리다2	싸:를 말레라
40805	얼리다	얼킨다
40805	얼리다	얼케라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6	녹이다	노케라
40807	신기다	싱케라
40807	신기다	신발 싱케라
40807	신기다	신케라
40807	신기다	시늘 싱키구
40808	보이다	잘 보인다
40808	보이다	잘 보에서
40809	알리다	알레라
40809	알리다	알리기도
40809	알리다	알린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0	입히다	이페라
40811	얹히다	안치구
40811	얹히다	안체라
40811	얹히다	안치케라
40812	벗기다	베껴라
40812	벗기다	베긴다
40813	웃기다	우긴다
40813	웃기다	우께라
40814	씩히다	췌케라
40814	씩히다	췌킨다
40815	숨기다	숨기기도 한다
40815	숨기다	숨겨라
40816	굴기다	궁게라
40816	굴기다	궁긴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7	깨우다	깨워라
40818	돋우다	심지를 도꾸구이따
40818	돋우다	심지를 도까라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핀다
40819	잡히다	재페따
40820	깨이다	깨끼구
40820	깨이다	깨께따
40821	끼이다	찌어따
40821	끼이다	짱:걸 켜:따
40822	떼이다	띠키구
40822	떼이다	띠케따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엮히다	
40827	바뀌다	바뀌케따
40827	바뀌다	바뀌키구
40828	씹히다	씨핀다
40828	씹히다	씨피기두 허구
40829	엮히다	언체따
40829	엮히다	언치구
40830	찍히다	찌키구
40830	찍히다	찌케따
40831	눌리다	눌리케따
40832	실리다	실리케가따
40832	실리다	실리키구
40833	끓기다	끈케따
40833	끓기다	끄니키구
40833	끓기다	끈니케서
40834	끓히다	글키구
40834	끓히다	글케따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시풍게 뭐:나?
40901	싶다	너머꼬시픈대로 시:큰 머거라
40902	싶다	뭐:가 바꾸 시푸나?
40903	보다	함번 이버보세요
40904	버리다	머거빠레씨니까
40904	버리다	내:빠려라
40904	버리다	쥐가 다 머거버레따구
40905	대다	하루정일 우러댄:다하믄 시끼럽따
40906	-나/는가 보다	올:라나부다
40907	-나/는가 보다	자나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비가 올라능가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바까치 굉장~이 추웅가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웅가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자능가부다

##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거라
41001	실컷	너머꼬시폰대로	시:큰 머거라
41002	많이	배가 고푸니까	바블 마:니 머거라
41002	많이	마:니 먹찌	마라라
41003	너무	너머 먹찌	마라
41003	너무	에누릴	너머 쥘네요
41004	조금	쪼꿈	메겨라
41004	조금	먹떠래도	쪼꿈 머거라
41004	조금	쪼꿈	머거라
41005	자주	화장시레	자주 간다
41005	자주	자주	마신다
41006	빨리	빨리	와따
41007	얼른	바블	얼린 머거라
41008	기어코	기어쿠	가서 다체꾸나
41009	가끔	가끔	마신다
41010	먼저	먼저	가거라
41011	나중에	이:자는	내:중 주게따
41011	나중에	내:중	준다
41012	가득	그대루	가득 채워따
41013	몽땅	몽땅	파러라
41013	몽땅	몽땅	비라능게
41014	모조리	모지리	비라구두
41014	모조리	모지리	다
41015	혼자	이거	헌자가주 {이거 혼자 가지고}
41015	혼자	헌자	나머따
41016	항상	항시	바뿌다
41017	똑똑히	똑떠기	봐:라
41018	겨우	제:워	차머따
41019	늘	늘:	바뿌다
41020	저절로	조:려우른	하푸미 절루 난다
41021	자꾸	자꾸	난다
41022	설마	설마	소게씨까?
41023	하마터면	함바터라문	
41023	하마터면	함바터람	사고날뻔해:따
41024	함께	함께	가따
41025	걸핏하면	걸피타른	성넨다
41026	공연히	괘:니	트집 째는다
41027	그냥	기냥	다와따
41028	매우	무척	시:다
41029	곧장	고창	와라
41029	곧장	고창	오거라
41030	벌써	벌써	그이를 다 끈넨나?
41030	벌써	하마	끈난나?
41031	가장	가장	박따구
41032	가만히	가마니	이써라
41033	미리	미리미리	쥘:비해라
41034	이따금	이따금씩	온다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당신 어디 가요?
41101	여보	여보
41101	여보	당신(+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41102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아저씨일 때)
41102	여보세요	여보 여보(+비슷한 또래를 부를 때, +남자)
41102	여보세요	아주머~이 아주머~이(+아주머니일 때)
41102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할머니일 때)
41103	들어가세요	잘 이씨라(+나이 어린 사람에게)
41103	들어가세요	잘 기세요(+나이 많은 사람에게)
41104	수고하세요	수고들 마니 허세썸미다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해따구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참 오래간마니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진지 잡수센나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경:강하심미까? 하구
41108	여기 있습니다	거시름똥 여기썸미다
41108	여기 있습니다	거시름똥 여기따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기썸미다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니오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러치도 아나
41112	내버려 뒀	내빠레 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루에 물부끼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깨진도게 물부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도두기 소도둑 된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아니땐 굴:뚜게서 연기 나젠나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부란땐 굴:뚜게서 연기가 나젠냐구

=2	수제
=2	해때라구(+옷을 걸 수만 있음.)
=2	절리문
=2	우정 거 놀케가주구 {금방 밥을 놀려서}
=2	귀 귀투매~이 {귀통이}
=2	떼(+잔디)
=2	가시에 절리케따

=2	수꺼머~이
=2	패래~이
=2	시끼럽따
=2	부어기 낸다구
=2	양자리(+ "독"보다 작음.)
=2	깨물리킨다

<Abstract>

### **A Rearch on dialect vocabulary of Gangwon(2009)**

A report transcribed through the medium of recording is comprised of Oral speech, vocabulary, phoneme, grammar.

Life of rural community, rice farming, dry-field farming, harvesting & winter's life and so on is comprised of in oral speech. It is transcribed natural speech of natives in Gangwon-do Inje-gun into writings in accordance with fixed form. In case of vocabulary, phoneme, grammar, It is transcribed in investigation item in accordance with "Questionnaires of dialect vocabulary".

**Keywords:** Inje, Oral speech, vocabulary, phoneme, grammar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